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6.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February 2000

Table of Contents

• Paper •

[Kor.] A Study on the Selection of Passages in Translating the Bible for Children -Genesis as a Case- -----	Dong-weon Lim / 7
[Kor.] Children's Religious Think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	Hee-chun Kang / 28
[Kor.] Selectivity and Exclusiveness in Children's Bible Translation for a Long-Term Learning -----	Hee-ja Kim / 53
[Kor.] The Children's Bible Viewed from the Bible Reading -----	Sam-gwon Sohn / 88
[Kor.] Reviews on Several Children's Bible Translations -----	Jeong-tack Shim et al / 112
[Kor.] Considering Translation and Editing for Children's Bible -----	Sam-gwon Sohn / 134
[Kor.] Some Stylistic Problems in Translation of Children's Bible -----	Chang-hae Park / 155
[Kor.] A Study on Cross References of Psalms 1 -----	Dong-hyun Park / 198
[Kor.] For a New Understanding Cross-Reference -----	Tae-ryong Kim / 245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 창세기를 중심으로 -

임동원*

1. 서론

금번 대한성서공회에서 계획한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발췌 번역을 전제로 했을 때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발췌 본문을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제시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기간과 인력을 고려해 볼 때 본인에게 힘이 부친 과제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성서학자(구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번역할 바에는 완역이 이상적이지 않겠나 하는 바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것이 중복되는 기사까지라도) 각각의 독특한 의미가 깃들여 있어 어느 부분을 제외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완수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았을 때 대개는 발췌 번역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 따라서 이번에 계획중인 대한성서공회의 어린이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서도 발췌 번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결국 번역에 포함될 본문 선정이 중요 관건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성서에 이르기까지의 본문 선정 과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본인의 능력 밖의 엄청난 과제이다. 본인은 구약학자로 신약에는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본문 선정은 컬리큐럼에 관계된 것으로 이는 교육학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췌 본문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만을 표본으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 우선 신약성서가 아닌 구약성서를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본인은 구약학자로서 신

* 목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1) 기존의 어린이 성경 가운데 몇 종류(대표적인 것으로 *Holy Bible :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을 들 수 있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췌 번역을 따르고 있음.

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았고 둘째, 발췌 번역의 불가피성이 신약성서보다는 구약성서가 훨씬 더 농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약성서보다 구약성서에는 독자를 괴롭히는 많은 사안들 -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 중복되는 정보, 폭력과 성적인 표현 등 - 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구약성서 가운데 창세기를 표본으로 삼은 이유는 창세기는 구약성서의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발췌 본문 선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췌 본문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창세기를 발췌 번역했을 때 꼭 포함시켜야 될 본문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에서 이미 번역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세 종류의 어린이 성경 -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ICB로 표기하도록 한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GNB로 표기하도록 한다),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CDB로 표기하도록 한다) -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분석에는 세 가지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 번역, 그리고 발췌 본문이 비교될 것이다. ICB, GNB, CDB를 표본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이 어린이 성경들이 대본으로 삼은 역본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ICB는 *New Century Version*을, GNB는 *Today's English Version*을, 그리고 CDB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각각 그 대본으로 삼고 있다.²⁾

세 종류의 성경을 분석하고 나서 창세기의 발췌 본문이 제시될 것이다. 발췌 본문 선정에는 구속사와 본인의 관심사인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적 시각에서 본 창세기의 구조 분석이 중요 원칙으로 작용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ICB, GNB, CDB의 비교

2.1. 일반적인 특징

2.1.1. ICB

ICB는 서문에서 이 성서가 단순히 '성서 이야기 책'(Bible storybook) 혹은 '예쁜 그림과 좋은 커버를 지닌 성인-언어 성경'(adult language Bible) 그 이상임을 표방

2) 필자가 실제로 조사한 바로는 ICB는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New Century Version*을, GNB와 CDB는 발췌 본문 모두가 *Today's English Version*과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각각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다.

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첫 번째 성서 번역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제하에 ICB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성서의 작품 대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³⁾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번역을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단순하게 만들었음”⁴⁾을 들고 있다. 서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ICB의 가장 큰 특징은 읽기 수월성(readability) 혹은 명료성(clarity)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ICB는 수사학의문문(Rhetorical questions), 수사법(Figures of speech), 속어적인 표현(Idiomatic expressions) 등을 가급적 배제시켜 쉬운 표현을 쓰고 있다. 예컨대 “누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겠는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열조와 함께 자다”라는 표현들을 각각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풍요로운 땅”, “죽다” 등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2.1.2. GNB

GNB는 소개 글에서 이 번역 성서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마련된 완벽한 첫 번째 성서라고 밝히고 있다.⁶⁾ 아울러 소개글은 GNB가 이제까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었던 다른 성서들과는 달리 성서에서 재차 말해진(retelling) 이야기가 아닌 실제 성서(real Bible)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GNB는 친숙한 현대 언어로 말미암아 학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The Good News Bible*로부터 발췌된 본문이다. 이러한 발췌 본문 이외의 GNB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장면 설정(Scene-Setting)에 대한 소개(GNB는 구약 성서에서 여섯 번, 신약 성서에서 여덟 번의 장면 소개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는 두 번의 장면 소개가 나타난다), 낯선 단어와 표현에 대한 설명,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에 대한 정보, 지도와 색인집 수록, 80개의 삽화를 들 수 있다.

2.1.3. CDB

3) Harm W. Hollander, "A Children's Bible or the Bible for Children?" *The Bible Translator* 37 (1986년 10월), 423.

4) ICB의 서문.

5) 구체적인 ICB의 읽기 수월성 테스트에 대해서는 Martin W. Pyle, "The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 A Bible Even a Child Can Read," *Restoration Quarterly* 33(1991), 87-96을 참고할 것.

6) ICB도 어린이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첫 번째 번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역 번역 성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GNB가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완벽한 첫 번째 성서라고 한 것은 평이하게 풀어 쓴 의역(paraphrase)이 아닌 실제 발췌 번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CDB는 소개 글에서 이 성서 번역이 6세-11세의 어린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서 정경의 순서대로 엮어진 260개의 성경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각색이나 의역이 아닌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따른 실제 본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성서의 구성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데 그것은 1년을 52주로 나누고 각 주마다 5개의 이야기를 수록함으로써($52 \times 5 = 260$)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성서의 이름인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에서도 암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성서에는 어린이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 생활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송 구절'(memory verse)과 '기도문의 시작'(prayer starter)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암송 구절'은 어린이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이 기억되도록 한 개의 중요 요절이 점차 단어가 첨가되는 방식으로 5일 동안 반복되고 있으며 '기도문의 시작'은 그 날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일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52개의 '암송 구절'과 260개의 '시작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이 성경에는 연대기 순으로 정리된 성경 인물 명단(아담에서부터 빌레몬까지)이 그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2.2. 세 성경의 번역 비교

2.2.1. 번역 이론에 따른 비교

뉴먼(Barclay M. Newman)은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확성(accuracy), 명료성(clarity), 수용성(acceptability), 선택성(selectivity), 감수성(sensitivity), 경제성(economy), 심상(imagery)의 7가지를 들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 (1) 정확성 : 원문에 따른 원래 의미로의 충실성
- (2) 명료성 : 의미의 분명성
- (3) 수용성 : 독자들의 선호도
- (4) 선택성 : 본문 선택
- (5) 감수성 :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 표현의 최소화
- (6) 경제성 : 사용 단어의 최소화
- (7) 심상 : 운(rhyme), 리듬(rhythm), 이미지(image) 고려 등이다.⁷⁾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8절까지의 세 종류의 성경 본문들이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sky and the earth.

The earth was empty and had no form. Darkness covered the ocean, and God's Spirit was moving over the water.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So he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This was the first day.

Then God said, "Let there be something to divide the water in two!" So God made the air to divide the water in two. Some of the water was above the air, and some of the water was below it. God named the air "sky."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This was the second day.

(ICB)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the earth was formless and desolate. The raging ocean that covered everything was engulfed in total darkness, and the power of God was moving over the water. Then God commanded, "Let there be light" - and light appeared. God was pleased with what he saw. Then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he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 that was the first day.

Then God commanded, "Let there be a dome to divide the water and to keep it in two separate places" - and it was done. So God made a dome, and it separated the water under it from the water above it. He named the dome "Sky." Evening passed and morning came - that was the second day.

(GNB)

In the begi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barren, with no form of life, it was under a roaring ocean covered with darkness. But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 (1987년 10월), 411-418을 참고할 것.

the water.

God said, "I command light to shine!" And light started shining. God looked at the light and saw that it was good. He separated light from darkness and nam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Night."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 that was the first day.

God said, "I command a dome to separate the water above it from the water below it."

And that's what happened. God made the dome and named it "Sky."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 that was the second day.

(CDB)

이 본문들을 뉴먼의 번역 이론 가운데 지금 당장 분석이 가능한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단 이러한 번역 분석은 이 논문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1절 : ICB와 CDB의 번역은 비슷한데(heavens와 sky만 다르다) GNB의 번역은 독특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2절 : · 땅은 비어 있었고 형체가 없었다. 어두움이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ICB).

· 땅은 형체가 없었고 황폐했다.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성난 바다는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 휩쓸려 있었고 하나님의 힘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GNB).

· 땅은 황폐했고 어떠한 형체도 없었으며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포효하는 바다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CDB).

4절 하반절 : ICB, GNB, CDB 모두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셔서(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 ICB는 separated 대신에 divided 사용)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6절 : "Let there be something to divide the water in two!"(그 물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있으라 : ICB)

Let there be a dome to divide the water and to keep it in two separate places"(그 물을 나누어 두 개의 분리된 곳에 보존하기 위한 궁창이 있으라 : GNB)

"I command a dome to separate the water above it from the water below it."(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궁창 위의 물을 분리시키도록 궁창에게 명하리라 : CDB)

비록 몇 개의 짧은 예문들이지만 각 성서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우선 예문에서 보듯이 ICB는 짧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적인 곳은 6절인데 GNB가 17개, CDB가 15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음에 비해 ICB는 단 10개의 단어만을 할애하고 있다) 쉬운 단어들만 사용되고 있다(1절 : heavens 대신에 sky, 2절 : GNB의 desolate, CDB의 barren 대신에 empty 등). 따라서 ICB는 명료성과 경제성은 뛰어나지만 정확성은 뒤진다고 할 수 있다(6절의 rūqī'a를 something으로 번역한 것은 결정적).

GNB는 독특한 번역을 구사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 있는 1절의 번역 이외에도 6절의 번역을 들 수 있겠다. GNB는 to keep(보존하기 위해) 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번역을 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 반해 GNB는 경제성에서는 뒤진다고 할 수 있다. 창 1:1-8까지의 위 예문에서 ICB는 130개의 단어를 CDB는 124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음에 비해 GNB는 무려 136개의 단어를 할애하고 있다.

CDB는 위 본문에서만 본다면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이 무난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특수한 목적(어린이용 경건 생활 지도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틀에 박힌 편집(260개의 이야기)이 우리에게 큰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첨가시키고 싶은 것은 4b의 번역이다. 본문에 대한 세 성서의 번역대로 한다면(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분리시켰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빛과 어두움이 두 개의 분리된 장소에 놓여진 두 개의 사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분리는 공간적 개념(장소)이 아닌 시간적 개념(시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2.2.2. 운문과 산문의 번역 문제

왓츠(James W. Watts)는 히브리 성서의 설화체 문맥에서 발견되는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설화가 묘사하는 행위에 직접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며 더 나아가 이 시는 독자들의 신앙과 삶에 권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라⁸⁾고 했거니와 창세기에서 시로 표현된 부분을 몇 군데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James W. Watts, "Psalms in Narrative Contexts of the Hebrew Bibl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0), p. 279

선악과를 따 먹는 범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 선언인 3:14-21 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내리실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인 12:3 부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27:27b-29)과 이삭이 에서에 대해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27:39-40), 수태한 라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25:23) 등이다.

그런데 ICB는 이 부분들이 시로 처리되어 번역되었음에 비해 GNB나 CDB에서는 거의 산문처리가 되고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문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구약성서는 운문과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5경과 역사서는 산문체이고 예언서, 시가서, 지혜서 등은 운문체이다. 운문체(시)가 갖는 이점 때문에 성서 저자들은 시가서는 물론 예언서나 지혜서 등에서 그리고 산문체 문맥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을 운문체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운문체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은 초역사성과 다의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들어 보자.

- | | |
|---|--|
| 4. 학대하던 자가 어떻게 그쳤으며 |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고 |
| 5. 주께서 사악한 자들의 지팡이와 | 지배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도다 |
| 6. 그들은 분내어 민족들을 치되 | 무자비하게 가격하였고 |
| 그들은 열방을 진노로 지배하여 | 아낌없이 그들을 쓰러뜨렸도다 |
| 7. 이제 온 땅이 고요하고 조용하며 | 노래를 발하도다 |
| 8. 상록수들과 레바논의 백향목이 | 너로 인해 기뻐하여 |
| “네가 넘어 쓰러워졌은즉 | 나무꾼이 우리에게 올라 올 수 없도다” 하 |
| · · · · | 는도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새벽의 아들 광채나는 자여,
열국의 주인이여, | 어찌 너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는고
어떻게 너는 배임을 당해 땅에 떨어졌는고" |
| 13. 한때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 내가 북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회의가 열리는 산에 있으리라 |
| 14. 내가 구름의 꼭대기로 올라가 | 가장 높은 자와 견주리라" |
| 15. 그러나 너는 입구에 가장 멀리 떨어진 | 음부의 맨 밑에 떨어졌도다 |
| 18.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 영광스럽게 자신들의 무덤 속에 누워있건만 |
| 19. 너는 무덤에서 내어 쫓겨 칼에 찔려 살
해당해 주검에 에워싸여 있으니 |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돌구렁이에 빠져
있는 밝힌 시체와 같도다 |

20. 너는 땅을 황폐화 시켰고
너는 무덤 속에서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14:4-20)

이 시는 만가의 공식(“어찌하여...”)과 만가의 음률(3:2 박자)로 시작된다. 물론 이것은 조롱의 만가이다. “학대하던 자”라는 명칭으로 시작함으로써 시인은 제국의 권위인 왕권을 노예 감독자의 곤봉이나 채찍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죽은 왕을 지배자로 보다는 열국을 가격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시에 언급된 왕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문으로 기록된 서론의 지시에 따라 바벨론 군주로 취급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르곤 같은 앗시리아 왕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암살당한 산헤립이라고도 한다.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든지 간에 그리고 예언자가 어떤 특별한 왕이나 이미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 간에 기독교 전통은 이 시에 등장하는 “새벽의 아들 광채나는 자”(15행)를 루시퍼로 해석함으로써 이 시의 요점을 잡아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반역에 대한 기사로 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마귀론이 아닌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의 신화적인 여운은 강조될 만하다.

한편 이 시는 수직적인 움직임이 정교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려가고 그 다음은 올라가며 그 다음은 다시 내려간다. 자연 세계의 상록수 나무와 백향목 나무는 한때 포위 공격, 토목 공사 등으로 산림을 황폐했던 폭군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나무꾼이 더 이상 자신들을 베려 올라오지 못할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 대신에 그 폭군은 “베임을 당해 땅에 떨어져” 음부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군은 하늘에 올라가 신들의 회의에 참석하려는 오만한 상상을 하지만 결국 다시 음부에 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그의 영혼이 전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말이다.

이 시점에서 시인이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던 왕이 사르곤인지 산헤립인지, 아니면 그 밖의 인물인지 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 시의 언어는 이 왕을 스스로 신격화함으로써 스스로 매혹되는 지상의 권력에 대한 원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인이 폭군을 조망한 우주적 전망으로부터 그 폭군의 일대기는 어떻게 사람이 권력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등으로 실패하게 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문명이 어떻게 황폐화되는가 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즉 이 시는 초시간성(초역사성)의 특성을 소유하게 된다.9)

운문과 산문이 가져오게 되는 해석의 차이를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4.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저버리시며
 15. 여인이 그 자식을 잊었으며
 그녀는 잊을지라도
 16. 보라, 손바닥에 나는 너를 새겼고
 17. 너희 자녀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오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너의 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파괴자와 황폐자들은 너를 떠나
 너희는 그들을 보석처럼 몸에 차
 19. 네 황폐와 네 파멸과
 이제는 정착자들로 붐비므로
 20. 의지를 잃었던 듯이 보이던 네 자녀들이
 “이 곳이 너무 붐비니
 21. 그러면 너는 내 심중에 이르기를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자포자기하던 때에
 나는 홀로 남아 있었는데
 22.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들에게 나는 나의 기를 들리라
 품에 안아 가져 올 것이며
 23. 열왕은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며
 24. 그러면 너는 내가 주님인 줄 알리라

나의 주인께서 나를 잊으셨다.”하도다
 그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거절하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희 파괴자와 황폐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오느니
 “나의 삶으로 약속하노니
 신부처럼 될 것이다.”
 네 황무지로 남아 있던 땅이
 너희 파멸자들이 멀리 떠나리라
 네 귀에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정착케 하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이들은 어디서부터 생겼고?”
 보라 내가 열방에게 나의 손을 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지체 높은 여자들은 그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다
 네 발에 먼지를 그들이 핥을 것이다
 나에게 희망을 가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49:14-23)

이 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인으로서 말씀을 받고 있으며 또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갖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9) 운문이 갖는 초역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 Basic Books, 1985) 제 4장을 참고할 것.

만일 이러한 회복의 예언이 시가가 아닌 산문으로 전달되었다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 이 시가 예언적인 산문으로 대치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것이다.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그들의 힘이 도중에 방해를 받아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 포로로 잡혀갔던 네 자녀들이 기뻐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압제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도망칠 것이고 네 백성들은 원래의 땅을 돌려 받아 파괴되었던 성읍을 세우고 황폐했던 곳에 경작지와 포도원을 일구리라. 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할 때 열방은 그들에게 공물을 가져올 것이고 어느 누구고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산문 번역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관심, 추방으로부터의 기쁜 귀환, 적의 도주와 열방의 이스라엘에게로의 추종, 황폐된 땅의 재건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문 번역 속에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으로서의 시온의 상징적인 모습과 주님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 시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확고한 사랑의 표명이 빠져 있다. 이 시의 감정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모태, 가슴, 젖가슴과 같은 밀접한 생물학적인 언급도 산문 속에서는 빠져 있다. 또 희망이 없었던 여인이 자기의 어린이들이 살아서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과 지상의 섭정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핀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시온으로의 귀환에 따른 기적적인 놀라움의 감도도 빠져 있다. 산문 번역의 광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명백하게 역사적이다. 즉, 산문 번역에서 볼 때 화자가 청중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려는 것들은 우리들이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와 우리의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좋은 일들이다. 물론 이와 동일한 미래의 사건들은 위에 인용된 실제로 쓴 시 속에서 언급되는 대상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력한 상징 언어를 통하여 역사적인 광경은 그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장면의 의해 변형-거의 대치-되어진다.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희망찬 미래에 관한 고무적인 연설을 전달하는 필사 대신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최고로 완성된 상상적인 사랑의 법령이기도 한 국가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행복에겨워 자기 자녀들을 껴안는 어머니,-이 시에는 신부가 보석을 차듯이 아이들로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욱 확고하게 그녀에 대해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행의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움은 이 시가 쓰여진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빛 바래지 않은 채 생생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2.3. GNB와 CDB의 발체 본문 비교

GNB (Today's English Version)

2.3.1.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태초에

창조 이야기(1:1-2:3)

에덴 동산(2:8-9, 15-17)

인류가 범죄하다

첫 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3:1-13, 22-23)

가인과 아벨(4:2-7)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4:8-14,16)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어찌하여 내가 이 백성들을 만들었는가?”(6:5-8)

노아(6:9-22)

“배 안으로 들어가라!”(7:1-5, 7-10, 11-24)

마른 땅이 나타나다(8:1-12, 13-22)

약속과 징표(9:8-17)

2.3.2.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다

민족의 시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12: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다(22:1-18)

이삭의 아내 구하기(24:1-28)

형제 사이의 경쟁

에서와 야곱(25:24-34)

야곱이 이삭을 속이다(27:1-41)

야곱의 꿈(28:11-22)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다(32:24-31)

요셉

요셉과 그의 형제들(37:1-35)

애굽에서의 요셉(41:17-46)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놀래키다(43:29-34)
베냐민과 잃어버린 컵(44:1-34)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다(45:1-20, 25-28, 46:5-7)

CDB(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창조 이야기(1:1-16)
짐승과 사람(1:24-2:4)
첫 번째 죄(3:1-13, 20-24)
가인과 아벨(4:1-11)
노아(6:5-22)
대홍수(7:1-12, 17-24)
새로운 시작(8:1-17)
무지개(9:1-2, 8-19)
아브람(11:26-12:9)
롯의 선택(13:1-18)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다(15:1-6, 17:1-8, 15-16)
아브라함을 찾아 온 손님들(18:1-14)
소돔과 고모라(19:1-2a, 12-16, 23-26)
하갈의 아들(21:1-3, 9-21)
시험(22:2-3, 6-14)
이삭의 아내(24:9-20)
야곱과 에서(25:19-22a, 22-24)
야곱과 라헬(29:1-20, 22-24)
야곱의 이름이 바뀌다(32:1-8, 16-23)
은 20(37:12-13, 17b-20, 23-28, 39:1)
왕의 꿈(41:1-4, 8, 14-16, 29-31, 33-38)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다(41:39-49)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42:1-2, 6-8, 45:3-5)
내 아들이 살아 있다니!(45:17-18, 45:21-46:7a)

위의 발췌 본문에서 보듯 GNB는 창세기를 두 개의 장면 설정(Scene-setting) 소개('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다'는 이에 해당한다)¹⁰⁾ 아래 여섯 개의 주제 제목으로 나누고 여섯 개의 주제 제목 아래 다시 몇 개의 소

제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CDB는 주제 제목 없이 소제목만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GNB와 CDB 모두 창세기의 구조 분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본문이 발췌되었고, 무엇보다도 본문 선정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 창세기의 발췌 본문 예시

3.1. 본문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위에서 보듯이 이미 번역되어진 GNB와 CDB는 본문 선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본문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췌 본문 선정에 앞서 본문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칙이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가지는 지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1) 특별한 성서 책(biblical book)의 주제나 목적을 드러내는 구절(예: 창세기의 경우 창조 이야기).

(2) 기독교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져 이미 대중성을 확보한 구절.

구약의 경우에는 신약에서 언급되는 구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예: 창세기의 경우 아브라함의 언약,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 등).

(3) 선택된 구절은 가급적 히브리 본문에 부합되는 장르로 번역되어야 한다. 성서 안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어린이 성서는 설화 자료의 구절들에만 국한시켜 번역하며 때로는 운문 자료를 설화로 대치시켜 번역하는데 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선택된 구절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어린이 성경에서 의도되고 있는 독자는 보통 만3세-만12세 정도의 어린이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① 문화적인 문제-특히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는 구절(예: 창세기 38장).

② 너무 복잡하거나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

③ 강탈이나 약탈과 같이 처참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

(5) 선택된 구절들 사이에는 어떠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 일관성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구속사일 것이며 만일 구속사라면 신26:5-10, ㉞9:5-38, 행7장에서 언급된 사건들과 인물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0) GNB의 장면 설정 소개에 대해서는 본 논문 2.1을 참고할 것.

3.2. 창세기의 구조 분석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는 창세기의 발체 본문을 위해서 문학 비평적 시각에서 창세기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창세기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왔다.

태고사(Primeval History): 1-11장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 11:27(12:1)-25:11

(이삭-)야곱 이야기(Isaac-Jacob Cycle): 25:12-36:43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 37-50장

이 구조 속에서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족장들의 전설 수집서 등으로 분리된 채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문체, 주제 단어의 사용, 주제적인 줄거리의 전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식 등에서 구조적인 일관성이 상존한다. 문체면에서 네 개로 나뉘어진 각 부분은 바로 앞의 부분보다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매끄러워진다. 예컨대 태고사 부분은 짧은 단편들(short fragments)과 (특히 4-6장) 좀 더 긴 설화(longer narratives)로 (에덴동산 설화, 홍수 설화 등) 조합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Abraham Cycle)는 좀 더 발전된 초상화(vignettes)이며, 야곱 이야기(Jacob Cycle)는 좀 더 일관성 있는 전기(biography)이고,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는 자체적으로 통합된 이야기(tale)이다.¹¹⁾ 뿐만 아니라 각 부분은 바로 앞의 부분보다 더 길게 기술되어 있다. 즉 창세기는 속사포적으로 연이은 이야기들의 혼합으로부터 좀 더 지속된 설화로 움직여 나가다가 요셉 설화(37-50장)에서 정점을 이루어 집중되는 것이다.

또 창세기에는 *tôledôt*과 *brk*라는 주제 단어가 주기적으로 사용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tôledôt*은 창세기 전체의 중추로서 작용한다.¹²⁾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의 반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와 연결시킨다.¹³⁾ 다시 말해

11) 전통적으로 요셉 설화에 불협화음처럼 여겨져 왔던 창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어떻게 요셉 설화에 부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Judah Goldin, "The Youngist Son or Where Does Genesis 38 Belong," *JBL* 96 (1977) : 27-44, Everett Fox, *In the Beginning* (New York : Schocken, 1983),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 Basic Books Inc., 1981), 제 1장을 참고할 것.

12) Martin Buber, *On the Bible* (New York : Schocken, 1963), pp25-26.

태고사를 족장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절반이 태고사에 등장함으로써 태고사를 창세기에서 따로 떼어 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불식시킨다. 이 *tôledôt*이외에 *brk*도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 단어를 형성한다. *tôledôt*와 마찬가지로 *brk*도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26,28절)에 처음 언급된 이래 노아의 홍수 후 창조의 갱신에도 사용되었으며(9:1),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는 이 단어가 4번 사용됨으로 시작되고(12:1-3), 야곱 이야기(Jacob Cycle)는 이삭에게서 전수 받는 축복 문제에서 성립되며(27장), 요셉 설화(Joseph Narrative)는 바로 이 단어로 종결된다(48:9,15,16; 49:25-26).

창세기에는 각 부분을 서로 연결시키는 의도적으로 고려했음직한 주제의 흐름이 반복되어진다. 아브라함 이야기(Abraham Cycle)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태고사(Primeval History)의 중심 인물인 노아를 그대로 반영한다. 예컨대 이 둘은 똑같이 여호와와의 언약 수여자였으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했고 각각의 성품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똑같다(*'šaddîq*: '의로운, *'tāmîm*: '완전한). 야곱 이야기(Jacob Cycle)의 주인공 야곱과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똑같이 애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두었고 꿈 속에서 여호와와 접촉했으며, 성소와 관련되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방황의 경험을 지낸다. 요셉설화(Joseph Narrative)의 주인공인 요셉과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 사이에도 유사성이 상존한다. 예컨대, 형제들 사이의 불화, 출생 순서를 무시한 사랑 받는 아들의 위치, 고향을 떠나 어른으로서 성공한 점, 아버지가 기만당한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 결국 형제를 직면하게 되고 화해한 점 등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⁴⁾

	A 선택된 인물(노아 : 6:8-9)
태고사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아벨 : 4:4);
(Primeval History)	증오(가인-아벨 : 4:5-6)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아벨이 살해됨 : 4:8)
	D 죽음 기사(하란, 데라 : 11:27-32)
	E 인류가 위협 당함(대홍수; 7:21-23에서 <i>Kol</i> 의 반복 사용)
	F 가나안 땅을 떠남(하란으로 : 11:31)

13) Karin R Andriolo, "A Structural Analysis of Genealogy and Worldview in the Old Testament," *American Anthropologist* 75 (1973), 1657-69 참고.

14) Everett Fox, "Can Genesis Be Read as a Book?" *Semeia* 46 (1989), p. 36. 특히 태고사(A), 아브라함 이야기(B), 야곱 이야기(B), 요셉 이야기(A)가 대차구조(chiasmus)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아브라함 이야기
(*Abraham Cycle*)
- A 선택된 인물(아브라함 : 12:1-3)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이삭 : 21:12);
증오(사라-하갈 : 21:10)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사라의 불임 : 16:1; 이삭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감 : 22:9-10)
 - D 죽음 기사(사라, 아브라함, 이스마엘 : 23장, 25장)
 - G 불임의 아내(사라 : 16:1)
 - H 아내를 누이로 가장하는 사건(12장과 20장)
 - I 아내들 사이의 경쟁(사라-하갈 : 16:4-5)
 - J 영웅의 이름이 바뀜(아브라함 : 17:5)
 - K 선택되지 못한 자의 죽보
(이스마엘 : 25:12-18)
- 야곱 이야기
(*Jacob Cycle*)
- A 선택된 인물(야곱 : 25:23)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야곱 : 25:23);
증오(에서-야곱 : 27:41)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
(야곱이 거의 죽게 됨 : 34:30)
 - D 죽음 기사(드보라, 라헬, 이삭 : 35:16-29)
 - G 불임의 아내(라헬 : 29:31)
 - H 아내를 누이로 가장하는 사건(26장)
 - I 아내들 사이의 경쟁(레아-라헬 : 30장)
 - J 영웅의 이름이 바뀜(야곱 : 32:28)
 - K 선택되지 못한 자의 죽보(에서 : 36장)
- 요셉 이야기
(*Joseph Story*)
- A 선택된 인물(요셉 : 39:2)
 - B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호하심(요셉 : 39:2);
증오(형들-요셉 : 37:4)
 - C 가계 존속이 위협 당함
(요셉이 거의 죽게 됨 : 37:18-24; 유다 아들들의 죽음
: 38:7-10; 가계가 기근으로 거의 죽게 됨: 42:1-2)
 - D 죽음 기사(야곱, 요셉 : 50장)
 - E 인류가 위협 당함(기근; 41:54-57에서 *Kol*의

반복 사용)
F 가나안 땅을 떠남(이집트로 : 46장)

3.3. 창세기의 발췌 본문의 예

천지 창조와 첫 번째 사람들의 불순종(1:1-4:16)

창조 이야기	1:1-2:4 ^a
첫 번째 사람들의 불순종	3:1-24
가인과 아벨 이야기	4:1-16

노아 이야기 : 대홍수(6:5-9:17)

큰 배	6:5-22
홍수가 나다	7:11-24
홍수가 그치다	8:1-19
노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9:1-17
바벨탑	11:1-9

아브라함 이야기 :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12:1-7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다	13:8-18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17:1-2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심	18:1-15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18:23-33
소돔과 고모라	19:1-2, 12-16, 23-26
이삭의 탄생	21:1-8
모리아 산의 번제	22:1-19
이삭의 아내	24:2-33, 49-67

야곱의 이야기 : 많은 민족의 조상(25:20-35:15)

에서와 야곱의 출생	25:20-34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다	27:1-30a
야곱이 에서로부터 달아나다	27:41-28:4

벧엘에서의 야곱의 꿈	28:10-22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29:1-14a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다	29:14b-23, 25-28,30
야곱이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하다	32:1-21a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32:22-31
야곱이 에서와 만나다	33:1-20
하나님이 벧엘에서 야곱을 축복하다	35:9-15

요셉 이야기 : 총리대신이 된 노예(37:2b-50:26)

요셉과 그의 형제들	37:2b-11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37:12-36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다	40:1-23
애굽 왕의 꿈과 요셉의 해석	41:1-36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다	41:37-57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다	42:1-38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가다	43:1-34
사라진 잔	44:1-34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다	45:1-28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	46:1-7, 28-34, 47:1-12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다	48:1-2, 8-21
야곱의 죽음	49:29-50:14
요셉의 죽음	50:15-26

이 표는 위에서 제시했던 창세기의 구조를 고려하여 창세기를 크게 다섯 개의 큰 주제 제목(topical title)으로 분류한 후 각 주제 제목에 몇 개의 소제목(heading)을 붙여 본 것이다. 신약성서와는 달리 구약성서는 자료를 조직화할 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문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여 성서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 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몇 군데의 구절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2장 4절-25절 :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로 분리워지는 부분인데 1장과 2장 사이의 명백한 모순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어린이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배제시

켰다.

4장 13절-24절 : 4:13-15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 내용인데 물론 신학적으로야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배제시켰고 4:16-24은 단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정보만 가지기 때문에 생략했다.

5장은 단순한 아담의 계보로 생략시켰으며 특히 6:1-4은 초자연적인 존재, 거인(네페림) 등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하나 번역과 설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략했다.

7장 1절-10절 : 1-5은 노아가 방주에 태운 동물의 수가 6:19-20과 비교하여 명백히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했고 6-10은 6:11-15과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했다.

8장 20절-22절 : 약간의 정보가 9:8-16에서 반복되었고, 또 정결한 짐승을 언급한 7:1-5이 이미 생략되었기에 배제시켰다.

이 외에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11:27-32(테라의 후에), 12:8-20(아내를 누이로 가장한 사건), 14:1-16(롯을 구한 기사), 16장(하갈과 이스마엘), 20장(아내를 누이로 가장한 사건), 21:22-34(브엘세바의 유래) 등이 생략되었고, 야곱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전개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26장(이삭과 아비멜렉 관련 기사), 29:31-30:24(야곱의 아들들), 34장(디나 사건) 등이 생략되었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38장(유다의 아들들과 다말 사건), 49:1-28(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생략되었고 39장은 매우 흥미로우나 어린이에게 설명이 어려워 생략되었다.

4. 맺는 말

성서를 번역하는 목적은 특별한 독자들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잘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드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서 번역은 어린이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고 그 성서의 메시지대로 살게 만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에게 적당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 성서 번역에서는 어린이에게 적합하면서도 성서의 주제를 잘 전달하는 본문 구절들이 선택되는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고려되어야만 한다.

어린이를 위한 성서 번역이 잘 수행될 때 성서는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열린 책이 될 것이다. 모쪼록 금번 대한성서공회에서 계획한 어린이

성경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 에게 열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경 이해

-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을 중심으로 -

강희천*

1. 서언

아동을 위한 성경과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무엇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아동에 관한 정확한 이해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동이나 성인이든 관계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규정해 온 신학적 인간관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기의 삶의 형태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성경의 번역 또는 성경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별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중시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의 내재적 특성들을 발견하고 그 특성들을 성경 해석의 구체적 형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현상학적 인간관이 널리 수용되는 추세와 더불어, 성장(growth) 혹은 발달(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동기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아동의 인지 활동에 관한 연구와 장 삐아제의 인지 구조 발달 이론(1926, 1932)을 수용하는 맥락에서, 아동을 위한 종교 교육의 형태를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은 아동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규명하는 과업으로 이어지고 있다.¹⁾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R.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1964)²⁾,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1981)³⁾, 프리츠 오저의 “종교적 판단 단계설”(1988, 1991)⁴⁾, 그리고 10,000여명의 이태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s) 형성 과정을 조사한 비아넬로(1985, 1989)의 연구⁵⁾들을 들 수 있다. 또한 3,000여 명의 핀란드 아동을 표본 대상으로 수행된 K. 타미넨(1988, 1991)의 연구 결과도 그 동안 학문적 연구의 주요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던 아동기의 종교 심리적 특성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⁶⁾

*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

1) A. W. Brown, "Some Records of the Thoughts and Reasoning of Children," *Pedagogical Seminary*, No. 2 (1982), pp. 358-396; E. Barnes, "Theological Life of a California Child," *Pedagogical Seminary*, No. 2 (1982), pp. 442-448.

2) 종교적 사고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에 관한 청소년들의 이해 형태가 또는 종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형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밝혀 보려 했던 최초의 경험적 연구였다. R. G.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3) James W. Fowler에 의해 발표된 “신앙 발달 단계설”은 미국 동부 사회에 거주하는 4백여 명의 표본 대상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토대 위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궁극적 관심과 관계적이며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의 신앙(faith)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발달되어 가는지를 규명하려 했던 학문적 시도였다.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신앙 발달 단계 이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위해서는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특히 Parts I-II 참조

4) 스위스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종교적 판단(religious judgement)의 형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려 했던 연구이다. Fritz Oser and Paul Gmuender,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Approach*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1991).

5) Ronzo Vianello & M. Martin, "Belief in a kind of Justice Immanent in Things: A Revision of the Piagetian Hypothesi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No. 46 (1989), pp. 57-61과, 같은 학술지에 수록된 그들의 논문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pp. 97-104) 참조

6) K. Tamminen, *Existential Questions in Early Youth and Adolescence, Research Reports on Religious Education C5/1988*.

본 글은,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번역)의 작업은 아동의 종교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먼저 아동기의 종교 심리, 특히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의 형태와 과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한다(II). 그 다음 본 글은 아동의 성경 이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종교적 언어 및 비유, 은유, 신화 등에 관한 아동들의 해석상의 특징을 살펴본다(III). 끝으로 본 글은, 이 같은 아동기의 종교 심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아동을 위한 성경 편집(번역)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려 한다(V).

2. 아동기의 종교 심리

2.1. 아동기의 하나님 개념

2.1.1.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과 하나님 개념: 라이트와 코퍼의 연구

성인들과의 상대적 비교에 있어 아동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개념(idea of God)”을 형성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여 아동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파악하며,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관한 연구는 지난 1세기 동안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시도되어 왔으나, 그 중 라이트와 코퍼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하나님에 대한 아동들의 신앙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발달)되어 가는지를 추적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 2-3세의 유아들은 하나님을 주로 자연, 교회, 하늘 등 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마술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을 돌보아 주는 존재로서만 이해하고 있음에 반해, 만 4-5세로 접어드는 아동들은 하나님을 큰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점차 이해 보인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만 4-5세의 아동들로부터 표출되는 대표적인 하나님 개념은 권선징악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상이나 벌을 내리는 존재로 이해되며,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혹은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지니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개념은 곧이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만 6-7세에 다다른 대다수의 아동들은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라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또한 특정의 질서에 따라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 중 단지 소수만이 영(spirit)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사랑(love)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습득하기 시작하며, 또한 특정의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는 과거의 이해 형태(구체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추상적인 형태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 8-9세에 다다른 대다수의 아동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기 시작하며, 또한 전지(all-knowing) 또는 전능(all-powerful)이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구성하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동들은 하나님의 일(혹은 교회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라이트와 코퍼의 서술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는 아동기의 하나님 개념은 만 10-11세에 이르러 괄목할만한 큰 특징을 보이는데, 곧 이 연령의 아동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지녀온 종교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 12-13세로

접어들면서 “신인동형론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대다수의 아동들은, 그 대신 전지, 전능, 편재 등과 같은 추상적 속성(attributes)으로써 “하나님 개념”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그들 자신이 터득한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신앙공동체)의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된 “하나님 개념”과 유사한 것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2.1.2. 아동의 인지 능력과 하나님 개념 : 비아넬로의 연구

비아넬로(1970)와 동료들의 연구는 만3-14세의 아동들 중 로마 카톨릭의 배경을 지닌 약 10,000여 명의 이태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지 조사, 개인 면담 및 보조 자료들의 분석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연구로서, 그 목적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곧,

- (1) 대다수의 아동들이 별 어려움 없이 습득하게 되는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s)은 어떠한 것인가?
- (2) “종교적 개념” 중 아동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부되는 것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배아제에 의해 아동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규명된 성향들, 즉 자아중심적인 인지 형태(egocentrism)나 마술적인 사고 형태(magical thinking) 등은 아동의 “종교적 개념” 형상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가?
- (4) 아동들은 “종교적 개념”을 삶(일상생활)과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는가?
- (5) “종교적 개념”의 구성 형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20여년 간의 연구를 통해 도달하게 된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는 곧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이해 형태가 그들의 인지(cognitive)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⁸⁾ 다르게 서술하여 하나님에 관한 아동의 인지(이해) 형태는 모든 다른 대상에 대한 그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형태가 곧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초인(superman), 창조자(creator), 마법사(magician), 그리고 부모라는 4가지의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기에 표출되는 “하나님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 6-7세 사이의 아동들은 하나님을 거인, 마법사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invisible man)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나, 만 8세 이후에 이르러서는, 아래의 도표- I에서 예시되듯, 서서히 “영(spirit)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지니기 시작한 뒤, 만 11세 정도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표-I : 하나님에 관한 이해 형태의 변화와 그 연령 분포도⁹⁾

하나님	연령 4 5 6 7 8 9 10 11 (세)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100	100	96	64	12	8	4	-				
특별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	-	4	36	78	42	14	4				
영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	-	-	-	10	46	62	47				
영으로서의 하나님	-	-	-	-	-	4	20	49 (명)				

7) H. D. Wright and W. A. Koppe, "Children's potential Religious Concepts," *Character potential*, No. 2 (1964), pp. 83-90.

8) K. Tamminen, R. Vianello, Jean-Marie Jaspard and Donald Radcliff, "Th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pp.57-58.

9) Ibid.

신인동형론이라는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종교적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인지적 전환 과정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인지(이해)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비아넬로 연구진에 의해 서술된 또 다른 연구 결과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아동기의 종교 심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아동들의 이해 형태로부터도 추론해 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해 형태는 아래와 같다. 즉 만 6-7세의 아동은 주로 전지(omniscience)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함에 반해, 만 8-9세의 아동은 주로 전능(omnipotence)이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재(omnipresence)라는 속성으로써 하나님의 개념을 형성하려는 특징은 만 10-11세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청년기의 연령으로 접어들게 되는 상당수의 아동들로부터는 이른바 뼈아제에 의해 인지 발달의 제 4 단계라고 분류된 “형식적 조작 사고(formal operational thinking)”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채 청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비아넬로는 지적했는데, 그 구체적인 연령분포도는 아래의 도표 -II와 같다.

도표-II :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해 형태와 그 연령 분포도 10)

하나님의 속성	연령:	4	5	6	7	8	9	10	11	(세)
전지(Omniscience)		8	33	79	95	100	100	94	84	
전능(Omnipotence)		-	17	31	56	81	83	81	64	
편재(Omnipresence)		-	-	-	-	-	17	33	79	
영(spirit)		-	-	-	-	-	4	20	49	(명)

2.1.3. 미취학 아동들의 신 개념(하나님 혹은 예수)에 대한 기타 연구

카벨레트(Cavellett)의 연구(1983)에 따르면 3-6세까지의 아동들은 하나님 또는 예수에 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된다. 곧 그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성경적 상징 그리고 예배의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주제에 관련된 마일히오트(B. Mailhiot)의 연구(1962)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곧 종교적 가정교육을 받은 4-6세의 캐나다 카톨릭 아동들은 아기 예수의 그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특기할 점은 그들에 의해 이해된 예수의 모습은 청년(youth) 혹은 성인(man)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아기 예수였다는 점이며, 또한 그 그림에 관한 반응도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¹¹⁾

만 6세의 아동들로부터 발견되는 하나님에 관한 연구는 존슨(J. F. Johnson, 1955)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만 6세의 남녀 아동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조사한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동은 하나님을 “하늘에(in the sky)”, 또는 “천국”에(in heaven)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역할을 창조자(creator), 수호자(protector), 도덕적 심판자(moral judge)로서,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역할과 유사하게 이해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독특한 양식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그는 꽃을 만든다”는 창조자(creator)의 역할, “하나님은 너에게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요정(fairies)들 - 즉 마술(magic) - 을 갖고 있다”는 수호자(protector)의 역할, 그리고 “그는 너에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다”는 도덕적 심판자(moral judge)의 역할이 하나님에 대한 아동의 주요 이해 형태라고 존슨의 연구에서는 기술되고 있다.

10) Ibid.

11) B. Mailhiot, "And God became a child; the reactions of children and child-groups under school age," *Lumen Vitae*, 16 (1962), pp. 288-288.

또한 이 연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만 6세의 아동 대부분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또는 “그는 왕 중의 왕이지요”라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답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아동들의 신 개념에 대한 대답은 확실적인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상투적인 언어로써 표현(verbalem)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는 만 6세의 아동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이해는 주로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의 치유능력,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신 예수의 행적에 주로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불완전한 수준에 머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초인간(superhuman)으로서의 예수와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사이의 혼란, 혹은 지상에서의 존재와 천국에서의 존재라는 2가지 형태의 모습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인식적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삐아제가 지칭한 “전조작기적 사고(pre-operational thought)”에 머무는 아동들의 인지적 모순성(inconsistency)은 성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어휘들을 모방하여 사용하려는 그들의 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도 보인다. 이를테면, 많은 수의 아동들은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된 요셉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두 존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당혹해 한다고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발견을 근거로, 존슨(1955)은 순수한 언어적(verbal) 의미로서만 구성, 전달되는 성경 이야기들은 사실에 있어 피상적인 학습만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고 제한된 형태로 전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¹²⁾

2.2. 아동기의 신앙 개념과 발달

2.2.1. 연령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내재적 정의” 개념의 수용

1932년 삐아제는 모든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인지적 특성을 규명하려 했다. 그는 “사과를 훔쳐 도망치던 두 명의 아동 중 하나는 붙잡혔으며, 다른 한 명은 강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그 반응에 대한 연구의 결과, 즉 만 6-8세의 아동 중 86%가 그리고 만 11-12세의 아동 중에는 34%만이 사과를 훔친 뒤 물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 응답을 근거로 하여, “내재적 정의”에 관한 신념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는 현상을 지적하였다.¹³⁾

그러나 1970년대 말 비아넬로 연구진에 의해 시도된 연구에 의하면 “내재적 정의”의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도는 만 6세 아동의 경우 14-17%, 만 7-8세 아동의 경우에는 19-58%, 그리고 만 11-12세 아동의 경우에는 50-64%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삐아제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비아넬로는 그 원인을 설문지에 응답한 표본 대상자들의 변화에서 찾고 있는데, 곧 삐아제의 연구 이후 지난 50여 년 간 실시된 종교 교육의 형태가 “내재적 정의”에 관한 아동들의 신념 및 이해 형태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즉 아래의 도표-III이 예시하듯, “내재적 정의”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도는 종교 교육의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종교 교육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참여한 아동들은 “내재적 정의”에 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III : “내재적 정의” 개념을 믿는 연령의 분포와 종교 교육과의 상관성¹⁴⁾

12) J. F. Johnson, *An Inquiry into some of the religious ideas of six-year-old children*, Dip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1955)

13) Ibid., pp. 65-66

14) Ibid.

종교 교육의 분량	연령:	4-5	6-7	8-10
평균 이하		25%	29%	33%
평균		34%	38%	45%
평균 이상		44%	50%	54%

위에서 예시한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된 점은 기존의 빼아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종교적 개념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학습 환경적” 요인이 경시되었으며, 또한 “종교 교육적” 요인이라는 변수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종교 교육의 형태와 기간이 아동의 종교적 개념의 형성, 특히 “내재적 정의” 개념의 이해에 팔목할 만한 차이를 야기 시키는 중요한 변수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연령의 변화에 따른 “기도” 개념의 차이

1974년 발표된 타미넨(K. Tamminen)의 연구는 기도, 성경, 죽음과 사후의 세계 등에 관한 아동들의 이해 형태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실험의 표본 대상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만 7-16세의 청소년 3천여 명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루터교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며, 학교에서도 루터교적 종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타미넨이 선정한 연구 방법은 특정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어느 날 앤디(Andy)는 그의 동생과 함께 최근 구입한 보트를 타려고 바깥에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폭풍이 밀려 올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들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트 놀이를 즐겼던 그 형제들은 곧이어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에 쌓인 앤디는 자신과 동생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강물의 파도는 그들이 타고 있던 보트를 거세게 밀고 가 결국 큰 바위에 부딪히게 했으며, 그 결과 그 보트는 크게 파손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두 형제는 수영으로 강가에 도달했으며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뒤 과연 그들이 ①“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¹⁵⁾를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사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라는 항목을, ②“징벌적 물활론(punishing animism)”¹⁶⁾을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앤디가 부모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항목을, 그리고 ③“보호적 물활론(protecting animism)”¹⁷⁾을 믿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만일 앤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큰 불행이 닥쳤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마련하여, 타미넨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각자 해당하는 항목 모두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곧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라 “내재적 정의”, “처벌적 물활론”, “보호적 물활론”을 믿는 강도나 성향이 점진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이다.¹⁸⁾

1986년 타미넨은 또 다른 표본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10여 년 전과 동일한 질문을 실시함으로

15)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 :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16) 징벌적 물활론(punishing animism) : 하나님의 심판적 활동은 자연 현상이나 무생물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난다고 간주하는 것

17) 보호적 물활론(protecting animism) : 하나님의 보호 활동 역시 자연현상 같은 것을 통해 노출된다고 간주하는 것

18) Kalevi Tamminen, R. Vianello, Jean-Marie Jaspard, & Donald Radcliff,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1988), pp. 65-68.

써 다시 한번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1974년의 연구 결과에 비해 1986년의 결과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2가지 연구의 중심적 가설인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개념의 이해 형태가 변화한다”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여 서술하자면, 핀란드 아동들은 아동기 초기에는 기도의 효과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나, 아동기의 후기 및 청년기로 접어들 때에는 그 같은 신념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19)

“기도의 효력”에 관한 타미넨의 연구도 지금 까지 살펴본 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연구는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관계를 아동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의 형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목적 아래 행해진 것이었다. 만 7-10세의 응답자 중 약 50%는 ①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를 선택했고, 그 중 25%는 ②하나님의 간접적인 중재를 선택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①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②하나님의 간접적인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만 13-16세 응답자의 50% 정도가 ③하나님의 영향력 행사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또는 ④하나님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아래의 도표 IV는 이를 보여준다. 20)

도표 IV : 기도의 효력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변화²¹⁾

확신의 정도	연령:	8	9	10	11	12	13	14
분명히 믿음		44	47	32	19	8	6	8
그럴 수 있음		33	23	35	33	39	36	45
말할 수 없음		18	23	22	34	26	31	26
거의 안 믿음		0	5	7	6	13	8	9
전혀 안 믿음		5	3	5	7	14	18	11
합계(단위: 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아동기의 성경 본문 이해

3.1. 아동의 일반적 이해 능력

3.1.1. 아동의 인지 능력과 성경 이해

존슨(M. A. Johnson, 1973, 1974)은 아동의 인지 능력과 성경 이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루터교 미션스쿨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독교적 삶, 종교적 교리, 종교적 언어 및 성경 본문의 구절들에 관한 아동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5개 중학교(American Lutheran Junior High Schools)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Confirmation Progress Test와 다른 성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결과는 곧 아동들의 종교적 지식, 인지적 능력 및 학과목의 성취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식이나 학과목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들로부터는 내재적 종교적 성향(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또한 강하게 표

19) Ibid., pp. 68-69.

20) Ibid. p. 65.

21) 도표 IV는 편의 상 본래의 도표를 변형시킨 것이다.

출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환언하여, 아동들은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교적 지식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란 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의 칭찬 혹은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일련의 “외재적 종교적 성향(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과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한편, “외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로부터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곧 종교적 지식을 습득하려는 관심과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고자 하는 관심 사이에는 괄목할 만한 상관관계성이 드러난 점이다. 다르게 표현하여, 상당수의 아동들이 종교적 지식에 관심을 갖고 그를 배우려 하는 성향은 하나님이나 종교 그 자체에 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 지식을 많이 지니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성인(부모나 교사)의 칭찬이나 인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존슨의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Confirmation Progress Test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외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그들의 관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만을 선택함으로써, 종교적 지식 - 이를테면 책임감, 죄책감, 그리고 용서 등의 개념 - 그 자체보다는 종교의 사회적 측면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내재적 종교적 성향”을 지닌 아동들은 그들의 관심이나 필요(needs)를 그들의 종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리고 종교적 지식 자체에 관한 학습에 더 동기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중요한 점은 “내재적 종교적 성향”이 높은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그들 자신의 학습 결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종교 및 성경 학습을 통해 습득한 특이한 “종교적 지식”과 그들의 “종교적 성향” 사이에는 상호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²²⁾

3.1.2. 역사적 사건과 상황에 관한 이해의 정도

머피(R. Murphy)의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아동들은 성경적 사건과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역사적 연대순이나 인물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지닌다고 서술된다. 만 8세 이전의 대다수의 아동들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명명(naming)조차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 8세 이전의 아동 중 어느 누구도 성경적 이야기를 시간적 개념과 더불어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시간적 인과관계를 종교적 사건과 상황 이해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들 중 몇몇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관한 이름을 기억하거나 명명하기는 했으나, 사실에 있어 그들은 그 인물들과 예수와의 관계를 시간적 연계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만 8세 이전의 대다수의 아동들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간적 축에 의해 설명해 온 신학적 구원사 및 예수의 출현에 관한 논리적(시간적) 상관성에 관한 이해가 거의 부재했다는 것이다.²³⁾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성경적 사건을 역사적으로만, 그리고 연대순(chronologically)으로만 가르칠 때 그와 같은 학습이 요구하는 사고 방식 때문에 아동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 8-10세의 아동들의 경우, 사울 왕과 사도 사울을 혼동했으며, 예수와 모세를 동시대의 인물로 오해하기도 했다. 또한 공간적(지리적)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도 동일한 오해와 어려움이 표출되었는데, 곧 성경에 기록된 팔레스타인이 영국 웨일즈의 카르디프(Cardiff)로부터 멀지 않은 장소로 이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변화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 만 4세의 아동들은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분명

22) M. A. Johns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Knowledge and Selective Cognitive and Personality Variables*, D.Ed. thesis, Temple University (1974).

23) R. Murphy,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Educational Studies* 4, 1 (1978), pp. 19-22.

한 대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으나, 그 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에 대한 개념이 점차 익숙해지고 그 결과 예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머문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획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머피는 성경의 교육은 아동들의 일상적 경험과 관련된 자료와 더불어 실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아동들은 그들이 접하는 성경 교육 혹은 종교 교육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중 정서적(feeling)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 말로는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영역에 있는 내용이 - 효과적인 학습 내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⁴⁾

3.2.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아동의 이해

3.2.1. “비유”에 관한 이해 수준

예수의 교훈과 비유 중 과연 어느 것이 아동들의 이해에 있어 용이한 지를 밝히려 했던 프랭클린(1928)은 그 이해의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했다. 곧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의 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시작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에 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과부의 동전에 관한 비유였으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였다. 이러한 비유들과 견주어 볼 때, 예수의 교훈은 아동에 있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비유의 이해에 있어 여학생들은 남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만 16세에 이르러 그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부터 발견되는 특기할 점은 비유에 관한 남학생들의 이해력이 특정 시기에 증진된다는 점이다. 곧 그들은 만 8-11세 그리고 13-16세 때에 이해의 속도가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느렸으나, 그에 반해 만 11-13세 때에는 괄목할 만한 이해력의 증진 현상을 보였는데, 프랭클린은 이를 가리켜 잠재적인 내적 능력의 표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프랭클린의 설명은 기존의 학설과 구분되는 것이었는데, 곧 성경에 기록된 비유에 관한 이해력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인 영향, 즉 종교적 학습경험과 가정환경 및 예배의 참석률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진된다고 알려진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능력은 독립적인 변수, 이를테면 잠재적 내적 능력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교훈이나 비유 등에 관한 이해는 단순히 예배에의 참석과 같은 “외적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잠재 능력(정신 능력)”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²⁵⁾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형태는 비히크(G. W. Beechick, 1974)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표되었다. 그는 만 7-11세 사이의 침례교 미션스쿨의 학생들에게 3가지의 비유(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부자 농부, 그리고 예레미야의 토기 비유)를 제시한 후, 뼈아제 형식의 면담을 실시했다. 학생들의 답변으로부터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수준과 연령 사이의 “선형적 연관성(significant linear relation)”을 발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들은 행동에 대한 유비(analogies)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이 행위자에 대한 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작용하는 대상에 대한 유비에 관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조사된 3가지 유형의 반응은 뼈아제에 의해 주장된 3단계의 인지 발달과 일치했다. 즉 첫 번째 유형은 만 7세에 도달하게 되는 직관적 단계(intuitive stage)의 능력이며, 두 번째 유형은 만 8-10세에 획득하게 되는 구체적 조작적 단계(concrete operational stage)의 능력이고, 세 번째 유형은

24) R. G. Goldmann, "What is religious knowledge?" *National Froebel Foundation Bulletin*, No. 117 (1963).

25) S. P. Franklin, "Measurement of comprehension difficulty of the precepts and parables of Jesus," *The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aracter*, Vol. 2, No. 1 (1928).

형식적 조작적 단계(formal operational stage)의 시작과 더불어 지니게 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표본 학생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 유형(수준)까지의 능력은 매우 가파른 발달 곡선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만 7-11세 사이에서 두 번째 유형(수준)에서 세 번째 유형(수준)으로 진입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완곡한 발달 곡선을 보였다는 점이다.²⁶⁾

성경의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 수준은 머피(1977a, 1979)에 의해서도 측정되었다. 그는 현대 사회와 관련된 언어로써 재구성된 여섯 가지 비유(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 비유, 씨뿌리는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중 네 개를 선택하여 만 6-11세 사이의 스코틀랜드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유에 관한 이해 능력을 조사해 보았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응답된 아동 중, (1) 이해력이 가장 낮은 첫 번째 수준에서는 비유를 사실(fact)로서만 이해했으며, (2) 두 번째 수준은 그 비유에 관한 단순한 이해만을 보여준 반면, (3) 이해력이 가장 높은 세 번째 수준에서는 비유를 우화적인(allegorical) 이해능력을 통해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머피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이해에 있어 점차 우화적인(allegorical) 이해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발달 과정은 비유의 내용 그 자체, 그 비유가 전달되는 형태, 그리고 비유에 관한 아동의 이해를 측정하는 조사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²⁷⁾

성경적 비유에 관한 아동들의 또 다른 이해 형태는 래드클리프(D. Radcliff, 1987)의 연구를 통해서도 발표되었다. 성경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의 연구에 의하면, 만 5세 이전의 아동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과 물체(objects)에 집중하는 상상적인(imaginative) 이해와 자아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그들은 사실과 환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주변의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만 5-8세의 아동들은 “구체적 조작 논리”를 가지고 조직 분류하며, 관계성을 배우고, 간단한 구체적 유비(analogy)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후 아동들은 10세 이후 사춘기와 성인기의 특성인 “인습적 사고”를 통해 비유를 이해,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로 발견되는 성향은 아직도 인습적인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일관성 없는 논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해력의 한계는 만 18세를 전후한 연령에 이르러서야 비판적, 성찰적 유형(reflective style)의 습득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곧 그들은 성경적 내용과 해석, 그리고 기존의 인습적 해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구절의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배타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비유를 포함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인지적 투쟁”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래드클리프의 주장이다.²⁸⁾

3.2.2. “은유(metaphor)”에 관한 이해 수준

성경적 언어는 주로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논리적이며 개념적인 측면과 동시에 정서적이고 표현적인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테셀(S. M. TeSelle, 1975)는 은유적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성경 해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달리 서술하여, 그에 의하면, 성경은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 기술적 용어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은유적 언어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26) G. W. Beechick,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ables: a Developmental Study*, EdD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1974).

27) R. Murphy, "Does children's understanding of parables develop in stages,?" *Learning for Living*, 16 (1977) pp. 168-172;

R. Murphy, *An investigation into some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aged between six and eleven years*, PhD thesis, University of St. Andrews (1979).

28) D. Radcliff, "Teaching the Bible developmentall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7 (1987), pp. 21-32.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은유적 사고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은유적 사고”란 단순한 시적 표현 혹은 원시적인 표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시도인 것이며, 이 같은 시도는 신학이라는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어지는데, 이 점에 있어 신학은 비유적인(parabolic)인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²⁹⁾ 이렇게 볼 때, “비유(parable)”는 이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문학적 장르로서, 특징의 의미만을 지시하는 제한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라, 그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유적 의미를 폭넓게 적용하게 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비유 혹은 은유적 언어로써 구성된 성경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의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 결단을 하게 하는 매체로서 기능 한다는 것이다.³⁰⁾

이와 유사한 주장을 아동기 종교 교육에 연결시킨 E. R. 굿이너프(Goodenough)와 E. W. 굿이너프(Goodenough)(1962)에 의하면, 아동의 종교적 경험은 은유적 언어와 상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은유적 언어 혹은 은유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종교 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은유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한, 성경의 언어가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본래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신앙적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종교 교육은 앞서 말한 은유적 언어나 혹은 상징의 본래적 의미를 제한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들로 하여금 은유적 언어로 구성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한성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³¹⁾

은유적 언어 혹은 상징에 관한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한 베리만(J. W. Berryman, 1979)은 아동기 종교 교육에 있어 비유에 관한 제한적이며 지시적인 해석형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즉 현재의 종교 교육 현장에서는 상징적 교훈이 “나-당신(I-Thou)”이라는 차원에서보다는 “나-그것(I-it)”이라는 차원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유적 언어 혹은 상징의 폭넓고 생동감 있는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 3세의 아동이 선한 목자의 그림 앞으로 걸어가서 예수가 안고 있는 양을 가리키며, “이 것(양)은 나야”라고 말했던 경우를 지적한 베리만은 종교 교육 현장에서의 상징적 교훈은 “나-당신(I-Thou)”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유란 은유를 언어로써 확장시킨 형태라고 주장했던 그는 아동들로 하여금 성경에 깔려 있는 “은유적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은유적 경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 이를테면 선한 목자의 경우, 풀, 물, 위험한 장소, 잃어버린 양, 그리고 늑대가 -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들은 그림 그리기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위에서 예시한 자료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적 전통의 표상(images)에 친숙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³²⁾

3.2.3. “신화”에 관한 이해 수준

신화에 관한 아동의 종교적 이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도란(F. D. Doran)의 학위 논문이다. 그는 다음의 5가지 신화를 - 이집트의 Ra의 창조 이야기, 수단의 Juok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Zeus와 Alkema에 의한 Hercules 탄생 이야기, Cymbele에 의한 Attis의 탄생, 결혼, 파괴,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 가지고 만 7-15세의 청소년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29) A. McGrady는 은유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6가지 필요한 인지적 활동들을 인지(recognition), 이해(comprehension), 생산(production), 연장(extension),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라고 했다. A. McGrady, "A Metaphor and Model Paradigm of Religious Thinking," *British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9 (1987), 84-94.

30) S. M. TeSelle, *Speaking in Parables: A Study in Metaphor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31) E. R. Goodenough and E. W. Goodenough, "Myths and symbol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57 (1962), pp. 172-177.

32) J. W. Berryman, "Montessori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75 (1980), pp. 294-307.

면담을 통해 그는 다음의 5가지 수준의 신화에 대한 이해 형태를 발견했다. 즉 1) 불확실성(uncertainty)의 수준, 2) 불신앙(disbelief)의 수준, 3) 문자주의(literalism)적 이해의 수준, 4) 이성적 반응(rational responses)의 수준, 5)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s)의 수준이 그것이다.

또한 창조신화에 관한 아동의 종교적 이해를 조사한 그리어(1972b)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곧 만 6-17세의 청소년들과 창조신화에 관한 토론을 한 그리어는 신화의 이해에 있어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형태를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1 단계: 가장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창조에 관한 그들 자신의 해석에 관해 비록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았으나, 창조신화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 단계: 만 9-13세의 아동들은 과학적 지식과 신화적 지식의 이중적 혼합을 통해 신화를 이해하려 했는데, 이 같은 시도는 골드만에 의해 오래 전에 제시된 두 세계의 개념에 따라 이해된 창조신화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학적 이해”는 초등학교 상급반의 아동들로부터 발견되는 현상이었고, 그것은 “신화적 이해”와 상충된다는 과정으로부터 얻어진 인식의 변화이었다.

3 단계: 창조신화에 관한 마지막 형태의 이해는 주로 “상징성”에 근거한 이해였다. 이 경우 단지 소수의 아동만이 창조신화에 대한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창조신화와 같은 상징적 표현으로써 기술된 문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서술하여, 비록 신화의 상징적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소수의 고학년의 학생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연계시켜 찾아내려는 강한 신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어의 연구 결과이다.³³⁾

위의 연구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종교적 신화를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종교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과학이 종교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때문에 “신화”에 관한 이해는 과학적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이에 반해 아직 신화를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느끼며 접하게 되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신화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나 상충으로써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 과학도, 종교적 신화의 경우처럼, 신화서사적인 사고(mythopoetic thinking)를 - 예를 들면 우주가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종말을 향해 가는 우주(running down universe)”의 개념과 같이 - 제공한다 것을 아동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인지적 차원의 교육과 도움이 아동을 위한 종교 교육의 현장에서 요청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란과 그리어의 연구로부터 발견되는 또 다른 시사점은 기독교적 신화의 사용에 관한 것인데, 곧 타종교의 신화와 기독교적 신화의 내용적,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적 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사점은 골드만의 연구 결과로부터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어린 연령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화들이 있다는 것과, 그 신화들은 종교적 경험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서 기능하며, 기독교적 신화의 이해는 다른 유형의 신화를 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그 수준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3.3.성경 본문에 관한 아동의 이해

3.3.1. 종교적 개념에 관한 이해

아동의 연령상 차이는 성경 본문의 이해 정도의 차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33) J. E. Greer, "The Child's Understanding of Creation," *Educational Review*, 24 (1972), pp. 99-110.

34) F. D. Doran, *Myth, Bible, and religious education*, PhD thesis, University of Exeter (1978).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성경에 기록된 추상적인 의미의 “종교적 개념,” 이를테면 영혼, 천사, 사랑, 자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함에 있어 아동들은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선과 악, 혹은 천당과 지옥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그에 관한 서술은 아래와 같다.

데니슨(Denison, 1962)의 연구에 따르면, 런던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8-10세의 아동들은 종교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가 제시한 설문지는 영혼(soul), 천사(angel), 행동(actions), 예배(worship), 그리고 사랑(love)과 같은 상징들(symbols)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는데, 응답자 중 과반수의 아동들은 위의 종교적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에 반해 자비(mercy) 또는 겸손(humbleness)과 같은 “속성”에 관한 추상적 용어나 개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도 부쓰(Booth, 1965)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만 10세 아동의 대다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해석적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 단지 소수의 아동만이 그에 관한 의구심과 개념적 혼란을 지녔다고 지적되었으며, 그 후 그들은 이 주제에 관한 상징적 사고를 시작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신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도 위와 유사하다고 지적되었다. 데니스(Daines, 1966)에 의하면 만 12-16세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본성, 기적, 천당과 지옥, 선과 악에 대해 전통적인 이해에 의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 그들은 그러한 신학적 개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상당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본성에 대해 의심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을 설명하는 종교적 서술 체제가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emotive) 것에 불만스러워 했다. 신학적 개념에 관한 그들의 이해와 태도는 전반적으로 부정확, 불합리, 그리고 혼란된 상태로 서술되었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태도는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회의적인 특징을 보였다.³⁵⁾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 서술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특기할 만하다. 만 11-15세의 영국 웨일즈 지방 학생들이 지니는 종교적 신념(belief)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쿠켄(Kuhken)과 아몰드(Arnold, 1944)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점차 불확실해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적 신념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남녀간의 차이”가 주요 변수로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의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강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아동의 인지 발달 능력이나 수준 뿐 아니라 성별의 차이와도 관련된 것이라 해석되는데, 이는 아직 학문적인 차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기는 하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 서술체제의 수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⁶⁾

3.3.2. 종교적 언어의 실제적 의미 발견

종교적 언어는 “종교적 성숙” 및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성숙”과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한 보스(R. G. Bose, 1929)는 만 8-18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교적 언어의 실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성숙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은 단지 제한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종교적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종교적 언어

35) A. L. Simmon and L. D. Ward, "Age, sex, intelligence, and religious beliefs in 11- to 15-year old pupils," *Irish Journal of Education* 9 (1975), pp. 108-114.

36) Ibid.

의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적 언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종교적 언어”의 모호성(vagueness)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동 혹은 청소년들의 실제적 경험 영역이 좁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아동들은 특별한 날 또는 특정의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명칭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회심(conversion), 구세주(Savior), 또는 기독교인(Christian)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은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애매모호성에 근거한 이해상의 혼란을 표출하였다. 이 같은 개념적 혼란현상은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곧 만 8세의 아동의 이해는 고학년 아동들의 이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교회 학교의 참석률은 학습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반해 교회의 소속의식은 긍정적인 학습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³⁷⁾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과의 상호 관련성은 머피(1978)의 비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 그는, 아래의 분류가 보여주듯, 특정 주제에 관해 5가지의 종교적 언어로써 구성된 3가지 유형의 종교적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아동들의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려 했다.

- (A) 선함(good), 악함(bad), 진실함(true), 사악함(evil), 잘못(wrong)
- (B) 찬송가(hymn), 교회(church), 성경(Bible), 성당(cathedral), 기도(prayer)
- (C) 하나님(God), 예수(Jesus), 천사(angel), 악마(Devil), 사람(Man)

그는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종교적 개념을 다섯 가지의 종교적 언어로써 분류한 후, 각각 (A)-(B)-(C)를 연결지어 학생들로 하여금 그 중 가장 적절한 짝을 맞추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곧 만 6세의 아동들은 각 그룹의 언어(단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 언어(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만 8-10세의 아동들은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 이해 능력을 보였는데, 이를테면 그들은 종교적 언어(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특수하게 관련된 언어의 개념들을 구별하여 이를 유형별로 조직하는 능력도 보였다.

머피는 같은 연구를 통해 유사한 개념의 언어를 짝맞추는 능력 뿐 아니라 상호 구별되거나 대조적인 언어를 구별하는 아동의 능력도 밝혀보려 했는데, 그 연구는 선함(good)-악함(bad)과 같은 쌍의 언어 혹은 개념들이 사랑(love)-미움(hate)과 같은 유형의 언어 혹은 개념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만 6-10세의 아동들은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사고 발달 과정”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 관련성을 주장했고, 특히 아동들의 종교적 사고 발달은 종교적 언어의 의미 파악 및 인지 발달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³⁸⁾

3.3.3. 다양한 성경 번역에 대한 이해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의 이해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예츠(J. R. Yeatts)와 린덴(K. W. Linden, 198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6가지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곧 King James Version, Living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English Bible, The English Bible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독교

37) R. G. Bos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24 (1929), pp. 831-837.

38) Murphy, op.cit.; 성경 번역에 관한 아동의 이해에 관해서는 Beiswanger(1930) 연구가 도움을 준다. 그에 의하면, 구약성경의 자료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긍정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대다수의 아동들은 성경에 기록된 몇 개의 친숙한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 내용이 만 9세 이전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그 반면, 만 6세 아동들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몇 개의 종교적 개념만을 습득했을 뿐이며(Josephia, 1961), 더구나 만 5세 이전에는 그 이해마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D, J. Ludwig, T. Weber, & D. Iben, "Letters to God: a study of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 (1974), pp. 31-35 참조.

인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해의 정도 차이를 규명하려 했다. 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학적으로 보수적 혹은 진보적 입장의 차이는 성경 이해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2) 현대판(modern versions) 번역들은 King James Version보다 그 이해가 용이했다. (3)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의 구절보다는 Living Bible과 Today's English Version의 구절이 더욱 쉽게 상기되었다. (4) 이야기 문학(narrative literature)의 이해에 있어서는 성경 번역상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를 동반하지 않았다. (5) 성문서의 이해에 있어서는 Living Bible이 King James Version 또는 New English Bible보다 더욱 용이했다.

1988년 발표된 예츠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통념적 인식과는 달리, King James Version이 다른 성경 번역서보다 쉽게 기억되고 암송되는 언어로서의 효과를 지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담화적 구절(narrative passage)의 회상에 있어서는 다른 번역들보다 The English Bible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그 다음 Today's English Version의 순서로 나타났다.³⁹⁾

4. 결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 본 글은 “성인을 위한 성경”과 구별되는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맥락에서 아동기의 종교심리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본 글에서는 아동기의 인지 발달 과정과 하나님 개념, 그리고 아동기의 신앙 개념의 발달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아동의 성경 본문에 관한 이해 능력과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글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발표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 연구 중에는 종교적 개념과 성경적 언어에 관한 아동기의 특징,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아동기의 이해의 수준 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 아동기의 종교심리적 특징과 그와 관련된 성경에 대한 이해형태에 관해 알아보았다. 본 글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서양 사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를 한국 사회의 아동과 그들의 종교심리적 특징을 추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들이 보편적으로 지니는 종교심리적 특성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글은 이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 시 고려해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과 관련된 아동의 인지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이나 물활론(animism)적 인지 방식에 따라 하나님 개념이나 기도 개념 등을 형성하는 아동기의 특성을 간과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편집하거나 번역할 경우, 아동의 신앙성숙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자료로서 활용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에 부연할 점은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과 번역과 편집은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종교적 지식이나 개념형성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의 총체적(holistic) 차원의 성숙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소개한 대다수의 연구들은 아동의 종교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주로 “인지 발달(cognitive development)”적 측면만을 강조했으나, 한국에서 간행될 “아동을 위한 성경”은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의 총체적 “신앙 발달(faith development)”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할 “아동을 위한 성경”은 구체적으

39) J. R. Yeatts and K. W. Linden, "Text comprehension of various versions of Bib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 (1984), pp. 1-18.

로 아동들의 인지 활동과 정서 활동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재적 정의”에 대한 이해 형태나 또는 “기도”에 관한 개념 구성에 있어 대다수의 아동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객관화시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 달리 표현하여, 추상화시킨 논리적 사고의 대상인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관계적 대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 생각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때,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 형성은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정서적 활동과 더욱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⁰⁾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지식이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성경 편집보다는,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아동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시켜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유, 은유, 신화”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하는 형태의 성경 편집 양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의 번역과 편집은, 단지 종교적 내용의 소개나 전수에만 그 주요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아동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서적 활동의 효과적인 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다양하게 구별되는 아동의 “사회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을 성인기와의 상대적 비교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환경적 요인”보다는 “연령의 차이를 축으로 삼는 선형적/구조적 요인”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이 새롭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가 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에 있어 이는 사회환경적 차이(이들때면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 번역과 편집은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 형태를 우선 시하는 관습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층, 문화, 거주 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중시하는 맥락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은 단순히 언어 뿐 아니라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상징(symbol)으로써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림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 세 번째의 제언처럼, “범문화적 접근”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범문화적 접근”이란 성경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림이나 상징이 특정의 계층이나 성, 그리고 인종이나 지역 주민의 우월성을 은연중 인정하는 비의도적 가치(hidden value)를 반영하지 않는 접근 양식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소개되어온 성경의 그림은 대부분의 경우, 평민보다는 귀족을, 여성보다는 남성을, 혹은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을 은연중 존중하는 불평등한 신분 사회의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전수시키고 있는데, 이 같이 왜곡된 형태의 잠재적 이념(hidden ideology)이 더 이상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경 내용의 소개를 위해 사용될 “그림”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접하는 아동들의 “신앙적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신

40) 아동기에 보이는 정서 발달(affective development)의 형태는 그들의 종교적 개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용어 “정서 발달”이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의 특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니게 되는 정서적 특징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미술, 음악, 무용이나 창의적 media 등을 통해 지니게 되는 심미적(aesthetic) 차원에서의 특징을 지칭한다. Jerry Aldridge and Jean Box, “Moral and Affective Dimensions of Childhood,”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 pp. 82-101(특히 pp. 92ff.) 참조. 또한 아동들의 신앙 발달 형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서발달의 형태와 그 발달 과정에 관한 심도 깊은 최근의 연구에 관해서는,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pp. 89ff. (Part II) 참조.

양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아동을 위한 성경은 서구 사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림”이나 “삽화”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회와 - 즉 계층, 인종, 남녀간의 불평등 현상을 당연시하는 사회와 - 현격히 구분되는 21세기의 사회상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편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포도에 있어 인종, 성별, 계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일이며, 가능할 경우 한국인의 모습이 “아동을 위한 성경”의 그림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김희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믿음의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엡 4: 13)는 평생의 장기적인 학습(long-term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성인에 의해 기록된 성인을 위한 책이다. 따라서 성인과 다른 구조적 한계성(structural limitation)을 갖는 어린이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constant challenge)’이다. 그 이유는 루트 보티하이머(Ruth Bottigheimer)가 지적한 대로(Coles, 1996, 937)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계급, 나라, 세기, 고백’과 같은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번역자의 주관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그러한 번역자의 주관성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번역 과정 속에 내재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어린이를 포함하여)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 총신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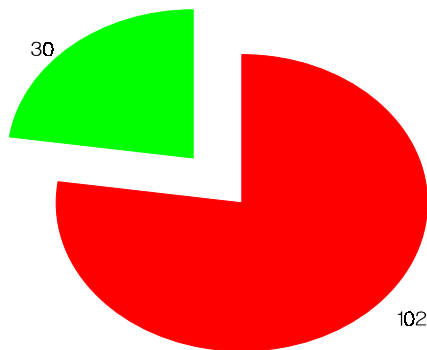
장성한 분량까지 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보화를 교회에 맡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도록’ (Calvin, IV. i .1; IV.iii.1)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오로지 성인만을 위한 성인용 언어와 문체로 제본되고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성경은 재미없고, 어렵고, 읽기 싫은 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호감도, 학습 자율성, 기대감)를 조사하여 보고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교단) 소속 S교회의 어린이(유년부-54명, 초등부-50명, 중등부-28명)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 “어린이 성경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77%(102명)인 반면, “따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학생은 23%(30명)에 불과하다. 다음의 표1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의 85%가 어린이 성경 발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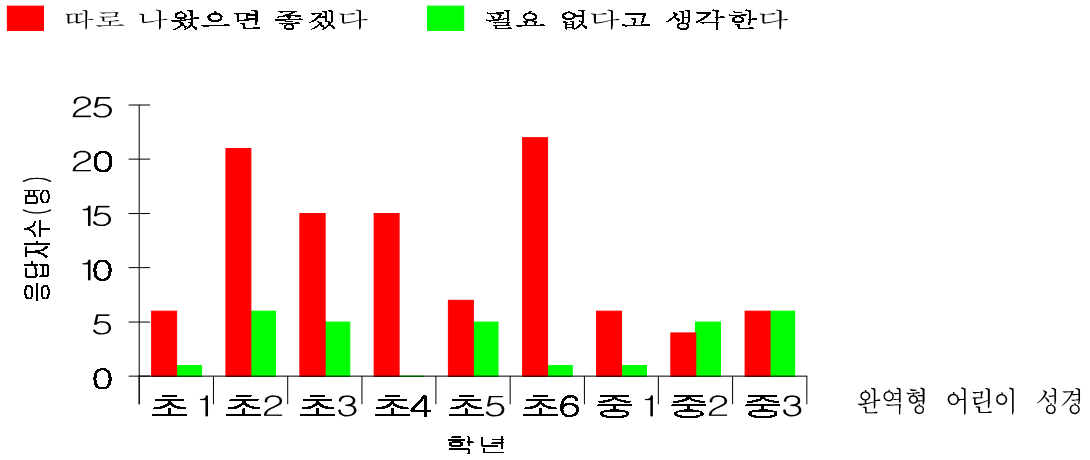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6 (86%)	21 (78%)	15 (75%)	15 (100%)	7 (58%)	22 (96%)	6 (86%)	4 (44%)	6 (50%)	102 (77%)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1 (14%)	6 (22%)	5 (25%)	0	5 (42%)	1 (4%)	1 (14%)	5 (56%)	6 (50%)	30 (23%)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표 1. 어린이를 위한 성경 발간의 기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의 구원과 양육을 위한 장기적인 학습의 교과서로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첫째, 오늘날의 어린이들(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의 성경에 대한 호감도, 학습 자율성, 성경 발간에 거는 기대를 조사하고 둘째, 현재 영어 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 성경에 관하여



4권과 발췌형 어린이 성경 이야기 9권 등 총 성경 13권을 창세기 11장 1절-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셋째,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통하여 어린이 성경 이야기 중심의 발췌형과 성경 본문의 완역을 중심으로 한 완역형 성경 번역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어린이 성경에 관한 분석은 특정 성경판(version)의 본문 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의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연구의 제한성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정된 번역본(어린이 성경 13권)을 사용하였고 둘째,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분석도 창세기 11장1절-9절 사이의 바벨탑 사건에 제한되어 있으며 셋째, 어린이의 성경에 대한 태도 분석도 특정 교단의 특정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

2.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한 성경에 대한 태도 설문 조사

한국의 교회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하여 1999년 12월 6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S교회의 어린이 132명(초등학생 104명, 중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조사 방법 - 설문지법

조사 방법은 설문지(참고, 부록: “대답해 주세요”)로 8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성경에 대한 태도 조사로서 첫째, 성경 독서에 대한 호감도와 그 이유 분석의 3문항(1, 2, 3) 둘째,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와 그 이유 분석에 관한 3문항(4, 5, 6) 셋째, 어린이 성경 발간에 대한 기대와 원하는 편집 방향에 대한 조사 2문항(7, 8)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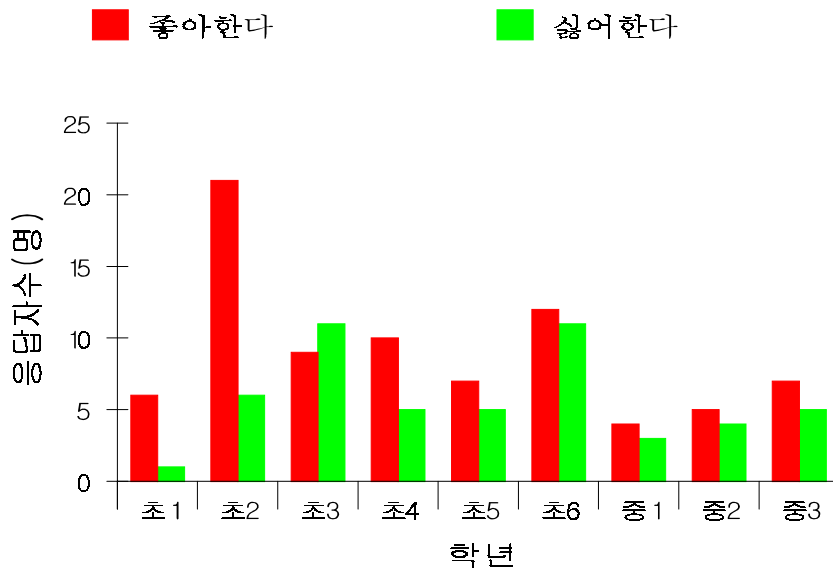
2.2. 조사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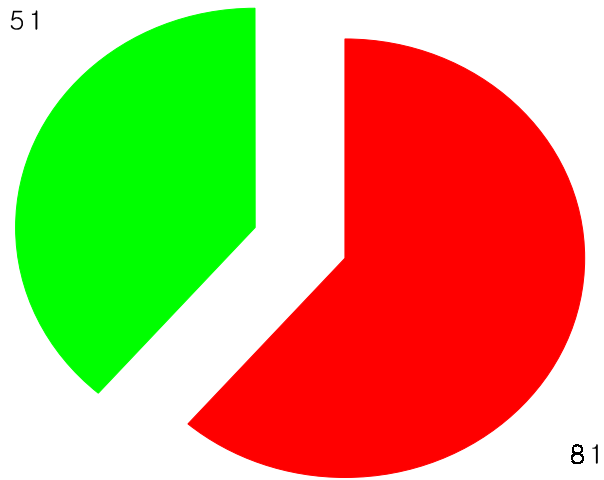
첫 번째, 성경에 대한 호감도 조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참고 - 표2, 표3, 표4). 표2에서 보면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약 81명(61%)으로 성경에 관한 높은 독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 3에 보면 성경 독서에 대한 이유가 흥미롭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가 5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용 대답(sunday school answer)”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었고, 반면 “성경이 재미있어서”가 33%, “성경이 예뻐서”는 1%로, 심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감성 시대의 어린이의 취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부모님이나 교역자의 격려를 받아 성경을 읽는 경우는 10%를 차지했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좋아한다	6 (86%)	21 (78%)	9 (45%)	10 (45%)	7 (67%)	12 (58%)	4 (57%)	5 (56%)	7 (58%)	81 (61%)
싫어한다	1 (14%)	6 (22%)	11 (55%)	5 (55%)	5 (33%)	11 (42%)	3 (43%)	4 (44%)	5 (42%)	51 (39%)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표2.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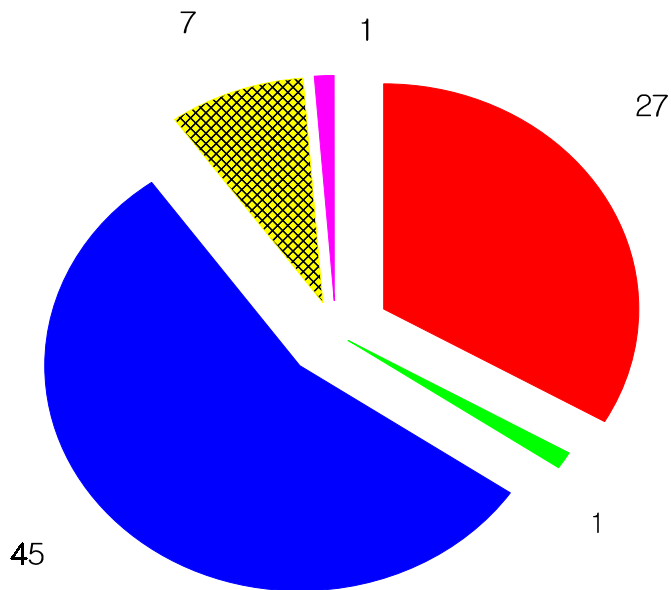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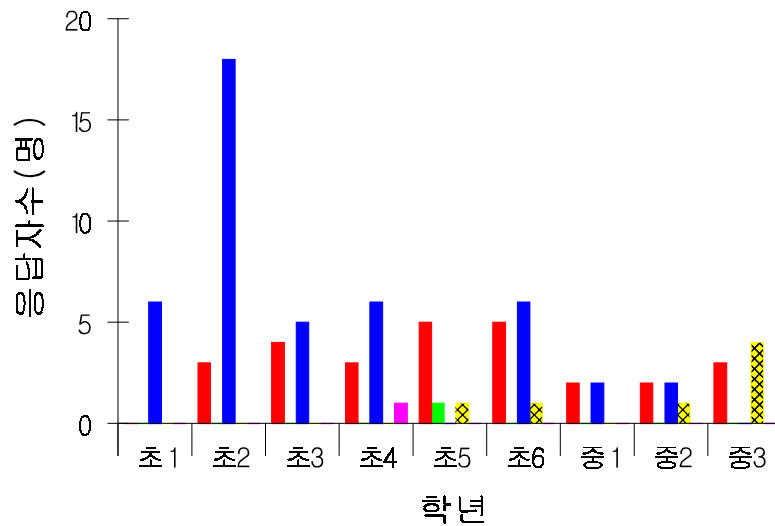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성경이 재미있어서	0	3 (14%)	4 (44%)	3 (30%)	5 (72%)	5 (42%)	2 (50%)	2 (40%)	3 (43%)	27 (33%)
성경책이 예뻐서	0	0	0	0	1 (14%)	0	0	0	0	1 (1%)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6 (100%)	18 (86%)	5 (56%)	6 (60%)	0	6 (50%)	2 (50%)	2 (40%)	0	45 (56%)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0	0	0	0	1 (14%)	1 (8%)	0	1 (20%)	4 (57%)	7 (9%)
전도사(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0	0	0	1 (10%)	0	0	0	0	0	1 (1%)
합계	6	21	9	10	7	12	4	5	7	81

표3.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

- 성경이 재미있어서
-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 성경책이 예뻐서
-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읽기가 어려워서	0	1 (17%)	3 (28%)	1 (20%)	0	6 (55%)	0	2 (50%)	1 (20%)	14 (27%)
무슨 뜻인지 몰라서	1 (100%)	0	1 (9%)	2 (40%)	3 (60%)	1 (9%)	1 (33%)	1 (25%)	1 (20%)	11 (22%)
글씨가 너무 작아서	0	3 (50%)	2 (18%)	0	0	4 (36%)	0	0	0	9 (18%)
재미가 없어서	0	2 (33%)	5 (45%)	2 (40%)	0	0	2 (67%)	0	2 (40%)	13 (25%)
그림이 없어서	0	0	0	0	2 (40%)	0	0	1 (25%)	1 (20%)	4 (8%)
책이 예쁘지 않아서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6	11	5	5	11	3	4	5	51

표4.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 읽기가 어려워서
- 재미가 없어서
- 무슨 뜻인지 몰라서
- 그림이 없어서
- 글씨가 너무 작아서
- 책이 예쁘지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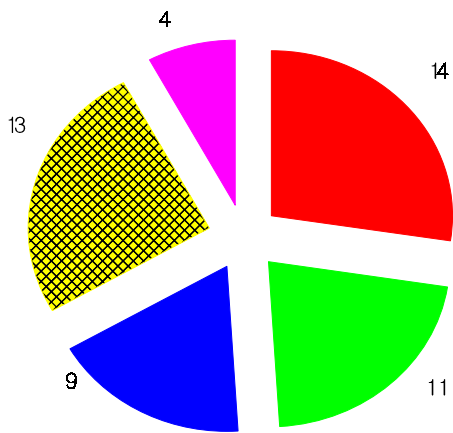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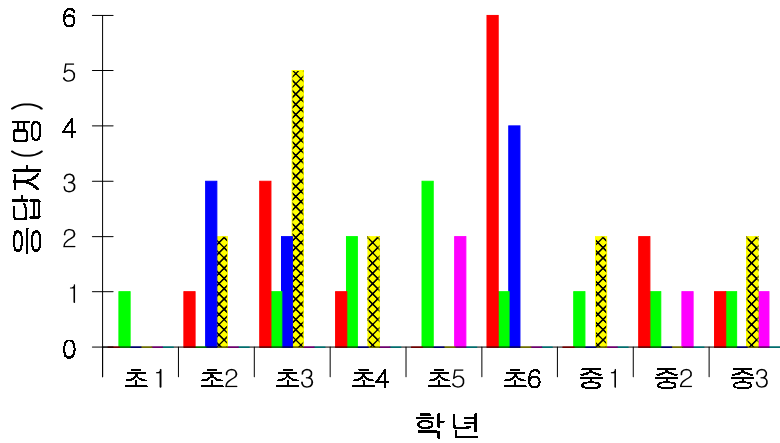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읽기가 어려워서”(27%)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6학년생(55%)과 중학교 2학년생(50%)이다. 초등학교 6학년은 물론, 중학교 2학년생도 성경의 독해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읽기 싫다고 한 경우가 22%로 나타났고, “재미가 없어서” 읽기 싫다는 비율이 25%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싫은 이유의 47%가 독해의 어려움과 흥미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8%의 응답이 “성경책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라고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성경 편집의

중요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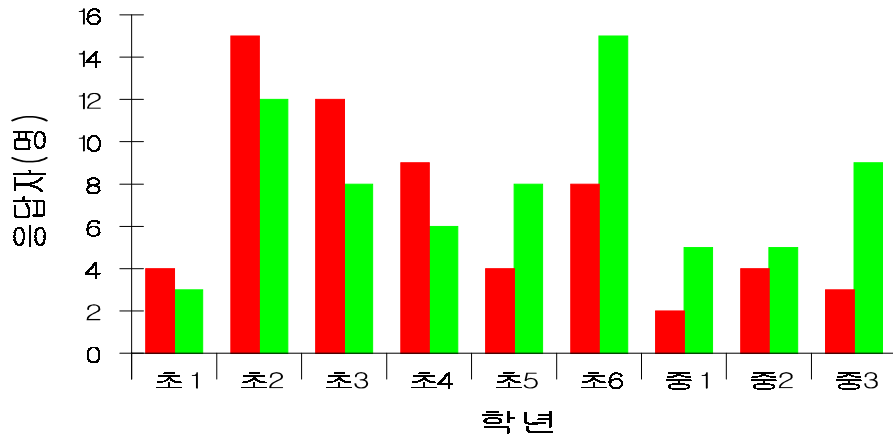
둘째,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한 결과 및 분석은 표5에서 보듯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가 46%이고,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가 54%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학년이 높아 올라 갈수록(중3 - 75%) 성경에 대한 자율적 학습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4 (57%)	15 (56%)	12 (60%)	9 (60%)	4 (33%)	8 (35%)	2 (29%)	4 (44%)	3 (25%)	61 (46%)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3 (43%)	12 (44%)	8 (40%)	6 (40%)	8 (67%)	15 (65%)	5 (71%)	5 (56%)	9 (75%)	71 (54%)
합계	7	27	20	15	12	23	7	9	12	132

표 5.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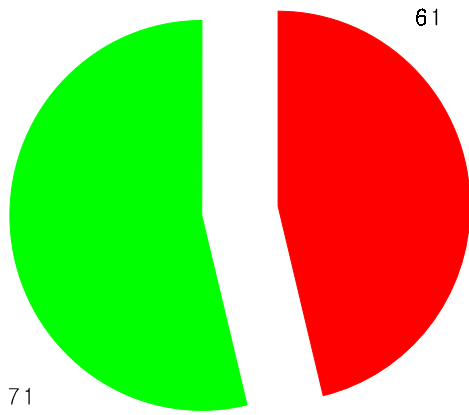
-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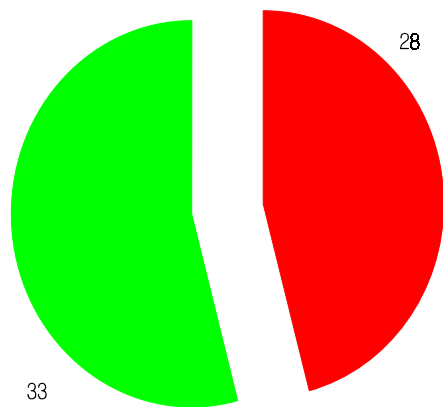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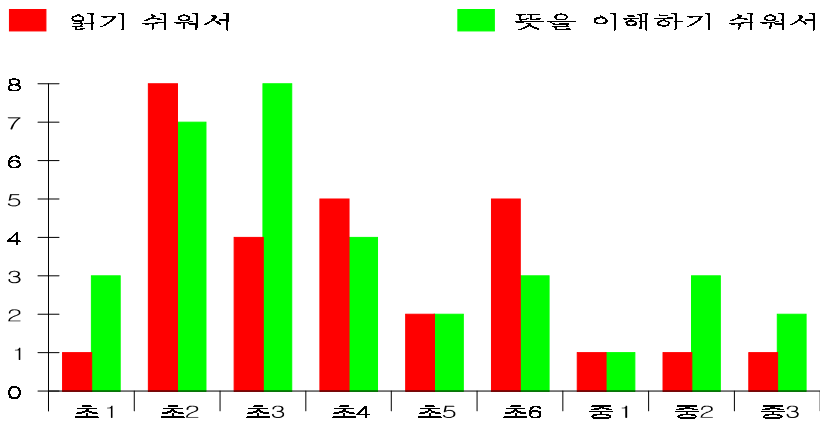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표6에서 보듯이 “뜻을 이해하기 쉬워서”가 54%이고, “읽기 쉬워서”가 46%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7에서 보면,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72%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읽기 어려워서”가 28%를 나타냈다. 읽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내용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학년에 높게 나타났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읽기 쉬워서	1 (25%)	8 (53%)	4 (33%)	5 (56%)	2 (50%)	5 (63%)	1 (50%)	1 (25%)	1 (33%)	28 (46%)
뜻을 이해하기 쉬워서	3 (75%)	7 (47%)	8 (67%)	4 (44%)	2 (50%)	3 (37%)	1 (50%)	3 (75%)	2 (67%)	33 (54%)
합계	4	15	12	9	4	8	2	4	3	61

표6.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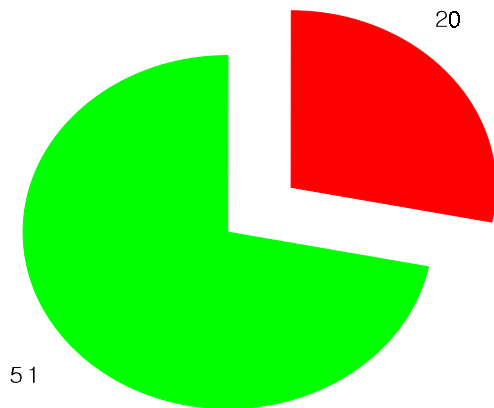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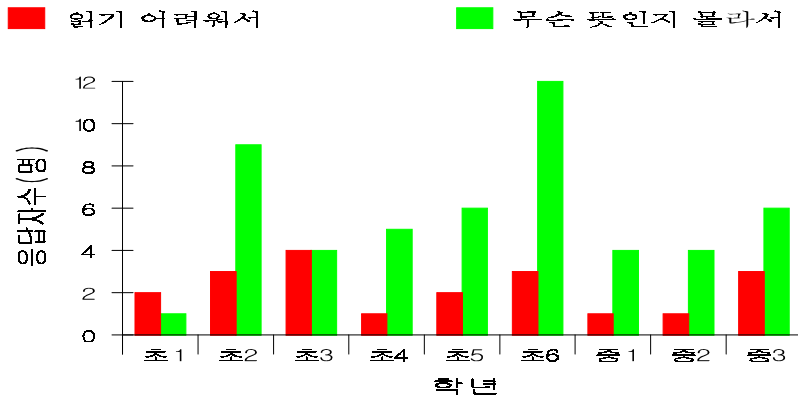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읽기 어려워서	2 (67%)	3 (25%)	4 (50%)	1 (17%)	2 (25%)	3 (20%)	1 (20%)	1 (20%)	3 (33%)	20 (28%)
무슨뜻인지 몰라서	1 (33%)	9 (75%)	4 (50%)	5 (83%)	6 (75%)	12 (80%)	4 (80%)	4 (80%)	6 (67%)	51 (72%)
합계	3	12	8	6	8	15	5	5	9	71

표7.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



3.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

성경 번역자가 어린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그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성경 번역자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고 하는 ‘양육’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것을 발견하는 지적 탐색 이상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과 이해, 흥미 등에 따라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어린이의 영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번역하여야 한다.

3.1.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성경의 특성

3.1.1. 성경의 상호 의존성과 통일성

원래 성경(The Bible)은 소책자(the book), 날 ‘권’들의 모음집 또는 총서이다. 즉 성경은 작은 책 66 권을 모아 놓은 책이다. 또한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성경 상에 나타난 문학형식이나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각 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과 주제, 그리고 표현 형식은 달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완성’이라는 총 주제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성경 어느 곳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각 부분의 의미는 다른 부분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조정되고 있다. 각 장과 절들은 전체의 구조적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알아야 될 바를 모두 말해 주는 본문은 거의 없다. 예컨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니고 있는 아가서만을 가지고는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완전한 관점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랑의 주제에 관하여 서로 참조할 때 그 의미는 더욱 심화되고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성경이 총서라는 의미를 심각하게 본다면 비록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이라 할지라도 성경 각 권들의 의미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

린이 성경도 완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비록 66권의 책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경은 연속되는 사건들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서로 일관성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그 내용상 매우 다양하나,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계속하여 바뀌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으로 변함없이 남아있다. 따라서 성경의 통일된 주제와 그 주제 아래 각 권에 다양하게 기록된 내용의 일관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어린이를 위한 성경은 완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1.2. 성경의 타문화성,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문화를 반영한 책임을 말해준다. 또한 성경의 주무대는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스, 로마와 같은 지중해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랜 기간에 걸쳐 쓰여지고 완성된 책이며 그 기간만큼이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을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번역자는 먼저 성경이 쓰였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초대 교회 당시의 관습에서는, 성인 여성의 경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불명예’, ‘부끄러움’이었지만(고전 11:5-6), 오늘날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모자나 머리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상반된 현실로 다가온다. 죽은 동물의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계약(언약)의 형태라는 사실(창15:17)은, 어린이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럴 때는 각주를 달거나, 문장 상에서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편 성경에는 어린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극단적인 기록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 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칠십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는 서술이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타문화적 서술은 아무리 친절한 설명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어린이들에게 문화적·역사적 거리감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난이성과 비호감성을 야기시키는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문화적 서술에 대한 번역은 어린이 성경에서 연령에 따라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이해의 장애가 있더라도 성경은 다른 역사책과는 달리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책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성경을 매개로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들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면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가치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책이다. 예컨대,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할 것을 촉구한다. 성경은 기록된 당시 사건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하여 현대의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3.1.3. 성경의 문학적 형식성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책 속에서 신학적인 설명, 법문, 역사, 서사시, 서정시, 드라마, 비유, 은유, 격언, 연가, 서간문, 그리고 묵시 등의 다양한 문학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문학형식, 즉 다른 말로 '장르' 마다 고유의 저작 규정과 작문의 규칙이 있다. 본문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번역하려면, 본문이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진리를 추상적, 명제적으로 진술하는 대신, 진리를 구체화한다. 문학은 인간의 상상력(이미지를 감지하는 능력)에 호소하는 형식이다. 어린이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풍부한 영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식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C.S. 루이스(1958, 3)는 말하기를, “성경 속에는 감각이 들어있다. 성경은 결국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으로서의 성질을 제외시키면, 즉 각 부분을 서로 다른 문학형식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윌호이트와 라이켄(1996)은 성경의 3/4이상이 본질상 설명적이라기 보다는 문학적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성경의 문학적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익숙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형식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성경이 어렵거나 단조롭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꿀 송이 보다 더 달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도서의 기자도,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하였나니(전 12:9-10)”라고 전하고 있다. 성경의 문학적 예술성은 어린이의 풍부한 상상력과 더불어 성경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 성경의 대부분은 문학적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발췌되어 번역된 것이 대부분이다. 월드(1971, 56-57)는 말하기를 “이야기체 형식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야기 한 토막 혹은 몇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신약의 이야기 속에 위대한 이야기, 즉 모든 시대적 공간적 구성의 한 중간에 우리를 앉혀 놓고서 놀라운 극작가이자 이야기꾼인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해 주는 성경 본문은 대개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개성과 인격을 만나도록 하여, 재미와 인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또한 이야기는 타문화적인 요소와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이야기는 어린이의 관심을 문맥에 아주 빠르게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는 결과에 과한 호기심을 야기시키므로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은?’ 하는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성경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이다. 물론 이야기 전체가 바로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배경, 인물, 사건을 매개로 독자에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하여 알려준다.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독자에게 긍정적인 진실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 형식으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필수적이다. 첫 단계는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느냐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 어린이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3.2. 성경 본문의 세계와 오늘날 어린이 세계 사이의 “갭 메우기”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게 하려면, 성경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관련시켜 파악하는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것을 “갭 메우기”(윌호이트와 라이켄, 1996, 99-113)라고 부른다. 성

경 본문에 따라 껌의 크기가 다르다. 월호이트와 라이켄이 제안하기를 오늘날의 세계와 성경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껌을 메우기 위해서는 왕복여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96, 100).

3.2.1. 삽화(그림) 활용의 필요성

성경 번역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문을 재현하여 보는 것이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세계를 뒤로 하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그 당시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그 당시의 풍습과 풍물을 경험하고, 그 당시의 문화적 정황을 상상하며 경험하여 보는 것이다. 예컨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과를 상상 속에서 경험하여 보는 것이다. 목동이 양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약탈자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양 우리에서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할 것이다. 성경본문의 세계로 여행을 할 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들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각적 도움이다. 만화, 그림이라든가, 지도, 또는 사진 등이 본문과 함께 사용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의 표8은 어린이들이 새로 발간될 성경에 거는 기대에 대한 조사이다.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합계
쉬웠으면 좋겠다	0	12	10	11	8	17	4	4	4	70
예뻐지면 좋겠다	2	2	0	5	2	3	0	2	3	19
재미있으면 좋겠다	3	8	0	11	5	13	6	4	5	55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3	5	8	8	3	3	1	2	1	34
만화가 있으면 좋겠다	0	6	5	10	3	2	5	2	5	38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	0	9	11	7	7	5	1	3	1	44

표8. 어린이 성경에 거는 시각적 편집에 대한 기대

어린이 성경이 만들어진다면

- 쉬웠으면 좋겠다.
-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 예뻐서 좋겠다.
- 만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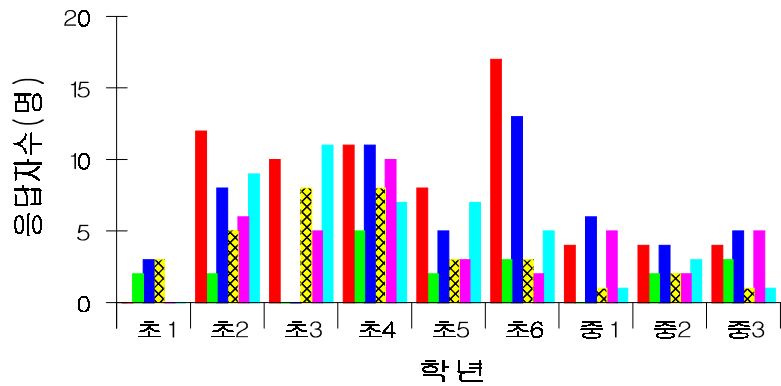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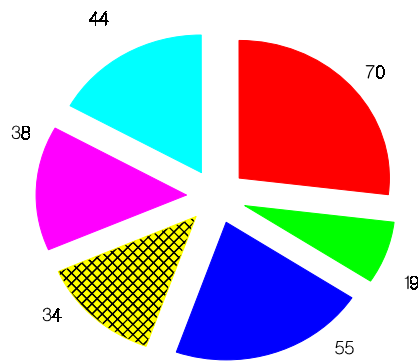


표8에서 보듯이 어린이들은 사진(44%), 그림(34%), 만화(38%)에 대한 기대가 있다. 더불어 성경이 쉽고(70%), 재미있기(55%)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는 시각적 편집과 관련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용 성경에는 삽화가 풍부해야 한다. 되도록 총천연색으로 하되 페이지 전체 삽화보다는 텍스트 중간 중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삽화는 관련된 내용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는 성경이 지루하다고 하는 관념을 뛰어넘기 위해서이다. 어린이 성경의 편집상태, 삽화, 제본 등이 가능한 한 현대 어린이 동화책 수준만큼은 되어야 하되 그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3.2.2. 어린이를 위한 언어 활용의 원리

어린이 성경을 번역할 때의 이러한 “겉 메우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언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성경 본문을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우선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개념들을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용어로 옮길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한 현재 쓰이고 있는 도량형과 지리적 용어들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세겔’, ‘규빗’과 같은 단위들은 현재 쓰고 있는 ‘g/kg’, ‘cm/m’ 등으로 고치는 게 좋다. 또 ‘대해(大海)와 같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지리 용어는 ‘지중해’처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또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는 용어는 ‘갈릴리 호수’와 같이 통일해서 쓸 필요가 있다.

단어가 지니고 있는 내포적인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요새를 가리키는 ‘산성’이라는 단어는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과 같이 풀어쓰으로써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수사학적 의문문도 어른들에게는 명확히 와 닿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오니이까?”라는 시편의 표현은 아이들에게는 답변이 없는 채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까?”와 같은 서술문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상징적 표현을 실제로 “거리에 젓과 꿀이 넘쳐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징적 표현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주되 실제적 의미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은 “그가 죽고 …”처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의 개념과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바를 단순화하면서도 적절한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살려주어야 하며 고대 언어가 지닌 이미지가 현대어에서도 가능한 한 충분히 나타나야 한다.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Newman, 1986, 425-428). 첫째, 단어 길이: 긴 단어가 짧은 단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긴 단어도 친숙한 것이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둘째, 추상성: 내적인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는 본문을 어렵게 한다. 셋째, 빈번성: 빈번성의 문제가 본문 이해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넷째, 전문적인 용어: 번역자가 본문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 용어—하늘나라, 메시아, 인자 등—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상용어와 같은 단어인데도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예컨대 ‘부르심’—은 조심스럽게 번역해야 한다. 한편, 할례(circumcision), 창녀(prostitute)같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며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용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3.2.3. 문장 활용의 원리

문장의 길이가 문법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두 가지 요소 ① 자연성과 ② 기억 적재(memory load)가 문장의 어려움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 자연성은 독자가 기대하는 대로 구성되면 즉 순서에 맞게 배열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의미이고 기억적재라 함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다른 구문이 삽입될 경우 그 길이가 길면 문장을 오해하기

가 쉽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문장을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는 ‘반복’이다. 명사/대명사, 동사구/명사구, 전체 사고/부분 사고, 구체적/일반적/구체적, 직접적 진술/암시, 능동/수동, 비유적/은유적 표현 등의 다양한 반복이 어린이들에게는 성인보다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는 ‘언어 패턴’이다. 즉 어린이들의 구어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관계성’이다.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연계성에 기반한 관계, 비유와 대조의 관계를 말한다.

양식(style)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흥미성’으로 강력한 도입, 풍부한 언어, 다양한 문체, 흥미 있는 그림 및 삽화 등이며, 둘째는 ‘친근성’으로 구어체에 익숙한 문장 패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명확성’으로 이는 추상적인 단어는 적게, 어려운 단어는 설명을 해주고 관념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관념/오래된 관념: 새로운 대상, 사건, 개념들이 있으면 어려움이 증가된다.
- 문화적 요소: 현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대상 등이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때 새로운 사건, 대상 등을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예컨대, 제사의 제물).
- 구체성/추상성: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때 반복의 문제에 신중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개념의 밀도: 새로운 정보가 본문에 소개되는 빈번성을 의미한다.
- 흥미/무관심: 단조로운 문장은 흥미를 잃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스타일로 번역해야 한다.

3.3. 어린이 성경 번역의 원리

De Waard-Nida의 번역 이론(Waard and Nida, 1986)에 의하면 번역은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이라고 하였다. 즉 번역은 두 가지 기능을 하여야 하는데, 원전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여야 하고 동시에 독자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ewman(1986, 424)은 8-12세의 아동 독자를 위한 특별한 번역 원리를 제시해 주었다.

- 비교적 단순한 문법과 구문으로 된 문장으로 10-12 단어를 넘지 않을 것
-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
- 수식어는 하나만 쓸 것
- 독특한 관용어는 반드시 피할 것
- 빈도수가 적은 어휘도 마찬가지로 피할 것
- 가능한 한 적은 음절로 된 단어를 쓸 것
- 직접적이고 생생한 문체를 쓸 것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어린이 성경을 위한 번역의 5가지 기본 원리(Newman, 1986, 426-428)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할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이어 사본에서 직접 번역을 한다. 즉 이미 번역되어 나온 것을 각색하는 수준의 번역은 안 된다.

둘째, 의도된 언어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하나 반드시 그들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일 필요는 없다. 아무리 단순한 언어라고 할 지라도 잠재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쓸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르심”(call)은 어린이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전문적인 의미로는 그들에게 낯설다. 한편 바리새인, 안식일, 오순절 등의 단어는 색인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문장에 있어서 순서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부자연스러운 구조 즉, 도치, 강조 등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문장이 짧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In him is life” 보다 “Life is in him”이 어린이들에게 이해가 쉽다.

넷째, 본문의 편집방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문단 분리, 인용구문 분리, 연결, 비유, 서신 등은 앞 뒤 문단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번역자는 본문을 큰 소리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호흡, 리듬, 소리, 강약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4. 기존 어린이 영어 성경에 대한 언어와 문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 분석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1-9절을 중심으로)

4.1.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의 목적과 기능

어린이를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데 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읽혀지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읽혀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의 기능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stories)를 제공해주는 것 이상이다. 중요한 건 성경의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잠언, 예언서,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서신서 등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체가 아닌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췌할 것인가는 작업 초기 단계에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성경은 일반 성경과의 교량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어린이 성경에서 일반 성경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굳이 완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독자들이 성경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성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4.2. 영어권에서 발행된 어린이 성경의 분석(총 13권)

교회나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막상 어른이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히려 할 때, 어떤 성경을 읽혀야할지 망설여진다. 대개 많은 이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야기 식으로 접근된 어린이 그림성경을 어린이들의 전용 성경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많다. 몇몇의 발췌된 주제를 이야기 식으로 묶어 놓은 그림 성경은 쉽게 대하고, 읽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경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권 한 권으로 나누어진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다. 연속선상에서 언약과 그 성취를 점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우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어린인들이 성경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한 사건(11장 1~9절)을 발췌하여 영어권에서 발행된 기존의 어린이 성경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과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13권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창세기11장1-9절)을 중심으로 번역상의 특징들,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어린이다운 표현들, 편집상의 기법, 문법과 장르 등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Amazing Book(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91)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하였고 시대 순서에 따라 본문들이 구성되었다. 각 본문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문장이 본문 앞에 첨가되어 있다. 본문은 세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단어를 설명하는 'Other Words', 본문인 'God's Words', 본문에 따른 질문과 대답이 있는 'Your Words'이다.

창세기 11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삽화가 그려져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글씨 크기가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추어 크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용이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본문을 읽기 전에 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세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인간의 죄와 벌의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삽화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즉 고증을 받은 의상과 건축인지 확인이 요구되며 본문 제목이 'Babel and Abram'인데 바벨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인 창11:9절이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서 독자인 어린이들이 바벨과 탑의 연관성 그리고 바벨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Augsburg Story Bible(Aaseng, Rolf E. Augsburg, 1992)

본문은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에서 왔고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회화적인 삽화를 본문의 위나 아래, 또는 문장 중간에 넣고 있다.

"and the Lord said, "Look,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nothing that they propose to do will now be impossible for them. Come, let us go down, and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will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단어를 "Lord - 주님"으로 번역하여, 어린이들에게 현대적 친근감을 주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자,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의미가 감소될 위험도 있다. 문장이 긴 복합문장으로 한 문장이 길어서,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기억적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The Bible Alive(Clare, John D., Zondervan Pub. House, 1993)

이 성경은 내용 이해를 위한 자료가 풍성하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1:1-9장 아래에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의 특징, 언어의 기원, 성경의 언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이스라엘 현지에서, 박물관에서 촬영 혹은 재현한 사진 혹은 그림과 함께 자료로 싣고 있다. 이것은 주변 국가의 상황이나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이런 시도는 어린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 일으켜 저절로 성경에 손이 가게 하는 동기와 재미를 더해주고 또한 지도와 연대표, 색인 등이 있어서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문장은 단순하고 쉬워서 읽기에도 편하고 오른쪽 여백에 내용 요약이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본문 내용에 아주 적합한 단어 유희도 불만하다("let's go down and turn their language into babbling, That is why the place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made a babble of the language of earth").

The Bible for Children(The Daughters of St. Paul, St. Paul Editions, 1985)

전체 성경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원사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의미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주어진 본문에서는 가능하면 원 사본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건을 해석한 상태에서 서술하기도 한다.

"But God had time after time ordered men to multiply and fill the whole earth, so he punished this disobedience by making them no longer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s speech. There was such a confusion that they had to stop work and separate"

The Big Bo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Beers, V. Gilbert & Ronald A.)

만화식의 그림이 왼쪽 전면을 차지하고 있고 이야기 형식의 서술이 오른쪽 면을 채우고 있다. "God knew that the people who spoke the same language would live together. Those who spoke different language would move away because they could not understand one another"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린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지, 그 원인(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교만의 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The Book of God for Children(Wangerin Jr. Walter, Zondervan Pub. House, 1997)

성경본문과 가깝게 서술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아니다. 삽화는 매우 사실적 그림으로 바벨탑의 도형그림과 현재 잘 보존된 바벨탑의 일부인 "ziggarat", 느부갓네살왕 때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모형을 그려놓음으로써 현실적 자료를 중시하는 어린이에게 사실감을 주고 있다.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Batchelor, Mary, Lion Publishing, 1985)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일년동안 성경 이야기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책 서문에 따르면 흥미롭고도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를 그리면서도 큰 맥의 흐름이 있도록 발췌하였다고 한다.

창세기 11장 1-9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야기체(storytelling)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체의 특징 중의 하나인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성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원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이 된 채 첨가되고 있다(예컨대 "We shall be famous far and wide, for we shall build the highest tower that anyone has ever seen. We'll reach the sky itself", "One group of wanderers decided to settle down", "God was not pleased" 등).

이 성경 역시 삽화가 그려져 있어서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들려주는 이야기체이므로 직접 인용구—대화—가 없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schemes, selfishness, tumbled 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한 문장이 복잡한 복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좀더 이해를 요구하는 문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Children's Living Bible(Tyndale House Publishers, 1987,13th printing)

이 성경은 Living Bible 전체를 그 구조대로 현대어에 맞게 완역된 성경(Paraphrased translation)이

다. 그래서인지 수동태의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예컨대 “a plain was discovered in the land of Babylon and was soon thickly populated”), 문장이 장문의 복문이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예컨대 bitumen, monument등)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번역가의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as population grew; when they have just begun to exploit their linguistic and political unity, just think of what they will do later; nothing will be unattainable), 글씨가 아주 작고 삽화가 없는 등 어른 성경처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기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렵거나 고유한 용어인 경우 각주로 원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예컨대 “language is the basis on which science feeds upon itself and grows.....”).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Sweet, 1986)

이 성경은 어른 성경처럼 전체를 완역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이 성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학자들 번역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원어 사본에 충실하게 작업하였기 때문에 믿을 만 한 번역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명확한 번역을 하였다는 것이다. 명확한 번역을 위해서 짧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용어를 사용했고, 어려운 단어들과 고대 관습에는 주를 달았으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수사학적 질문을 서술체로 바꾸었고, 또한 은유의 경우 그 이미지는 가능한 한 보존하되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하고 관용적 표현은 현대적 용어로 대체하였다. 그밖에 총천연색의 지도를 첨가하였으며, 주제를 머리말에 적어서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색인과 주를 첨가하였다.

본문인 창세기 11:1-9를 살펴보면 원어 사본에 충실하면서도 쉬운 단어로 완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단을 구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고유 용어(본문에서는 바벨)는 각주로 빼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상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보기에 용이하도록 직접 인용을 따로 한 문장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지 않았고 삽화가 없어서 어린이들의 흥미, 친근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 사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God”, “YHWH”대신 “the Lord”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적 의미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 구속자의 의미를 감소시킬 위험도 있다.

또한 본문의 제목을 “The Languages Confused”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맥에 비추어 약한 것 같다. 자칫하면 본문을 읽으면 심술쟁이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Tower against God”같은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목이 아쉽다.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Schoolland, Marian, Eerdmans Pub.co., 1975)

이 성경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다. 나이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단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의 기억적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At that time all the people talked alike. No one talked German or French or English. They all talked the language of Adam”).

Psalty’s Kids Bible(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

The Teen Study Bible(Richards, Larry and Su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이 두 성경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사본에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직접 작업한 완벽한 새로운 번역판이다.

이 두 성경의 번역 상 특징으로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번역하기, 문학적인 독특성을 잘 드러내고 공격적이며 사적으로(가령 읽고, 가르치고, 예전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도록 번역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때 번역자들은 성경의 무오성, 권위성을 인정하고 성경 저자의 사교의 신뢰성에 기초를 두었다. 성경 저자들의 문학적인 스타일들을 반영하기 위해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의 어휘와 문법적인 강조를 하기도 하였다.

Psalty's Kids Bible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는 성경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도록 돕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다. 컬러판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Psalty Says'(짧게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내용을 쉽게 읽도록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들은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이신지, 모든 시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게 되며,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Words to Sing'(각 노래들은 성경의 구절들로 되어있다), 'Eyes'(어린이들의 가슴속에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이다), 'Psalty Introduces'(성경의 전체에 대해 사실들과 정보를 보다 재미있게 소개한다. 성경을 읽기 전에 거쳐가야 할 단계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중에도 미국이나 영국 그 어디에도 중심을 두지 않는 순수한 영역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각 주를 통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 나름대로의 언어의 특징들로 설명해 주었다. 즉, 문화적인 그 당시의 상황과 특성들(그 당시의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 바벨이라는 단어를 설명함으로 동시에 알려줌)을 설명해 주었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용어에 대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피하여 단순한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지역 이름을 말할 때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여 잡다한 주(각주)를 피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어린이 성경에 굳이 성경 원전에서 따 온 각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전(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지만(각주에 원어에 대한 설명과 심지어 70인경에 대한 인용도 적혀 있음),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용어, 그리고 문장구조는 아니다. 또 문장을 풀어 가는 기법은 이야기 식(나열 식)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만, 편집상의 기교나 문체 그리고 기법에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이 있다. 우선 한 지면이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읽기 전 거부감이 들 수 있고, 그림이나 부분 삽화가 삭제되어 있어 흥미와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The Teen Study Bible

이 성경은 10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그 구성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10대를 위해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Introduction', 10대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다룬 'The Bible Says',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직면했었고, 또 늘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생각해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Direct Line', 성경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한 조언과 대답이 있는 'Dear Sam',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해 퀴즈로 대답하는 'Quizzer', 성경의 위대한 구절에 주목하는 'Bible Promises'로 되어 있다.

특히, 중간 중간에 컬러로 되어 있는 페이지는 10대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데, 이 곳에서는 학교, 돈, 성, 죽음 등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10대를 위한 이 성경은 표지와 속지가 컬러판으로 되어 있어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다. 번역 역시 성경을 완역했으며, 동시에 10대에게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었다. 원문 중심의 번역을 하였고(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원전), 십대에게 맞는 쉬운 단어, 문장 그리고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단어는 아래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고, 그 설명 역시 길지 않아 읽기가 좋다. 글을 이어가는 기법 역시 설명 혹은 이야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가진다.

편집 역시 눈에 띄게 배열하였다. 그러나 이 성경은 20세기에는 좋은 성경으로 존재하였으나 21세기의 십대들에게는 다소 부적당한 면들이 있다. 요즘 'N'세대들은 글이 뻑뻑한 책을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표지나 혹은 큰 주제 앞에만 그림이나 삽화를 둘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잘 설명해주면서도 성경내용을 암시해줄 수 있도록 본문 중간 중간에도 삽화나 그림 자료를 넣어주었으면 싶었다.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4-8세)(Zondervan co., 1997)

만화적 삽화와 더불어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가능하면 쉬운 언어와 단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Lord'를 사용하여 현대적 친근감을 높이고 있다.

"so the Lord scattered them from there over the whole earth. And they stopped building the city. The Lord mixed up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there. That's why the city was named Babel"

5. 결론: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을 통한 방향 설정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어린이 성경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발간되어야 한다(참고 표1). 문제는 어린이 성경을 어떠한 형태로 발간하느냐에 있다. 성경이 일점 일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믿음 안에서 완역형 번역의 경우와, 어린이에게 성경이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 난해성에 따라 성경 이야기 중심의 발췌형 번역의 두 가지 형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이 두 가지 형태의 번역의 방향과 원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를 하였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번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의 사고발달 이론과 언어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주로 연령에 따라 번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네덜란드 성서공회의 신약 번역자이면서 연구원인 홀랜더(Hollander, 1986, 420-425)는 제안하기를 완역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는 8세에서 12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잔인한 묘사나 성적비행 같은 것도 빼지 말고 다 번역하여 어린이들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3학년(교회에서는 유년부에 해당)까지는 발췌형의 성경 이야기를 권장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연령은 완역본을 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완역의 경우, 어느 수준(언어, 문장, 편집 등)으로의 완역이나 일 것이다.

완역형이든 발췌형이든, 어린이 성경 번역자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첫째, 어린이 성경 신학의 정립**이다. 어린이 사고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번역자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번역자가 믿거나, 옳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소통 하는 길이 바로 성경인 만큼 우선 이 성경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어린이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인들의 책으로서 성인들이 썼고 성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이유로 어린이 성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어린이들의 이해를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해도 하나님은 뭔가 말씀 가운데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것을 찾고 계신다. 즉 성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어린이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로, 힘, 격려의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보호하심을 식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 성경 내용을 첨가, 삭제, 변경, 발췌해서는 안 된다. 서기관들이 성경 사본을 필사했듯이 번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게끔 해야 한다. 보티하이머는 유럽의 많은 어린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신, 즉 이성적이고 친절하고 판단력이 있는 신으로 변형시켜서 번역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Coles, 1996, 939). 그러나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와 불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도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들을 물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어린이들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어린이들도 신실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성경 신학의 정립은 원사본의 문자 그대로를 직역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성경의 내용 중에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강요, 주입해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식이 많은 것을 곧 신실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곧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facts)가 아니다. 그대로 살아야 하는 실제(reality)의 계시이며 진리(truth)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knowledge about God)에 매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번역자는 성경이 요구하는 반응대로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성경적 개념들(concepts)은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실제의 의미는 그 발달 연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개념의 형식(form)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의미(significance)가 옮겨질 수 있도록 번역할 때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은 암기해야 할 지식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이성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며 전인격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성경은 할 수 있다면 원전(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에서 한국의 어린이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어린이 언어로 완역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성경의 통일성과 상호의존성,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감을 통한 영적 능력의 일관성을 위하여도 완역되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의 완역 프로젝트는 물론 엄청난 시간과 전문적인 인적 자원, 학술적 자원, 재정적 후원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오늘날의 한국의 어린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셋째, 보다 낮은 연령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경을 발췌하여 이야기로 엮어나갈 때, '이야기'라는 장르가 번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성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식으로 성경의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때 번역자의 주관성이 하나님의 영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성경을 발췌할 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아르체아(Arichea, Jr. 1987, 31-33)는 성경을 발췌할 때의 기본

적인 원리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어린이 신약성경」의 발췌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성경의 독특한 주제와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주어야 한다.
- 2)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3) 통일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성경의 실제적인 특성을 나타내주어야 한다. 즉, 대개 어린이용 성경은 이야기체로 된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경향을 지양하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문학 장르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 4) 예상 독자가 8-12세의 어린이들이므로 이 연령에 맞게 발췌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피해야 한다.
 - a)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 b) 매우 심오하고 복잡한 신학적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 c) 강간 같은 잔혹한 내용을 다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용어로 요약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5)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이다. 대부분의 독자가 크리스천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독자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요약된 구약성경」(the Shorter Old Testament)의 발췌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웅대한 파노라마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2) 작은 단위보다는 보다 크고 연속적인 섹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신약에서도 언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 특별한 인간적 관심사를 다룬 부분은 대개 포함된다.
- 5) 위대한 영적 자원과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 예배에 사용되어온 내용도 포함된다.
- 6) '불온한'(expurgated)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요약된 구약성경(ShOT)은 어린이 구약성경(the Children's OT)을 위한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어린이 구약성경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린이 구약성경은 한층 더 요약된 구약성경(Shorter Shorter OT)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내용의 번역뿐 아니라 어린이 성경의 제본과 편집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참고 표 8). 특히 정보화 시대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술적으로 고감도의 성경책 제본과 책표지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설계된다면 어린이들이 성경을 더욱 친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적절히 들어가야 할 그림이나 삽화도 고증을 통한 전문인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성경완역의 경우 전체 분량의 부피와 무게가 어린이에게 과중할 것이므로 책을 분리하여 여러 권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전자 언어 - 동영상, 음성, 문자'로도 어린이 성경이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린이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을 구성하여 하나의 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학자, 기독교교육자, 언어학자, 어린이 심리학자, 아동 미술가, 사회학자, 고고학자, 성경 복식 연구자, 컴퓨터 공학자, 교육 공학자 등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 구성, 편집하여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제일 좋아하는 책' 또는 '제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기를 기도한다.

부록: 성경에 대한 어린이 태도 조사 설문지

“대답해 주세요”

나는 초등학교 _____학년, 또는
중학교 _____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의 질문은 성경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의 대답을 참고하여 어린이 성경, 또는 청소년 성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하나만 골라서(○)표로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1) 나는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 2번으로 가세요.
2) 나는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 3번으로 가세요.
2. **왜?** 1) 성경이 재미있어서 () 2) 성경책이 예뻐서 ()
3)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 4)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5) 전도사(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3. **왜?** 1) 읽기가 어려워서() 2) 무슨 뜻인지 몰라서 ()
3) 글씨가 너무 작아서() 4) 재미가 없어서 ()
5) 그림이 없어서 () 6) 책이 예쁘지 않아서 ()
4. 나는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 () 5번으로 가세요.
나는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다.** () 6번으로 가세요.
5. **왜냐하면?** 1) 읽기 쉬워서() 2) 뜻을 이해하기 쉬워서()
6. **왜냐하면?** 1) 읽기 어려워서() 2) 무슨 뜻인지 몰라서()
7. 나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
나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8. 만약 어린이 성경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필요한 만큼 ○표 하세요.
어린이 성경은 (쉬웠으면, 예뻐서, 재미있었으면, 그림이 있었으면,
만화가 있었으면,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 루이스, C. S. 「시편 감상」. 뉴욕: 하코트, 브레이스 앤드 월드 출판사, 1958.
- 불친, John E. 「성경을 이해하기」. 다우즈너 그로우버: 인터벌시티 출판사, 1981.
- 월드, 아모스 N. 초기 기독교 수사법. 캠브리지: 하버드 대학 출판부, 1971.
- 호이트, 짐 & 래런드 라이켄.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비결」.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96.
- Arichea, Jr., Daniel. "Translating the Old Testament for Children: Genesis as a Test Case", Practical Papers for the Bible Translator, 38. 4, 1987.
- Coles, Robert. "The Shaping of Children's Bibles", Christian Century, 113, 1996, 937-939.
- De Waard, Jan and Eugene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ashville: Nelson, 1986.
- McNeill, John T(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 Newman, M., Barclay. "Translating Scripture for Early Youth", Bible Translator 37, 4, 1986, 425-428.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본 어린이 성경 번역

손삼권*

1. 서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인(萬人)을 위한 만인의 책”인데, 오늘의 기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린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외국에서는 이야기체 성경, 발췌 성경, 어린이 성경 완역본 등이 발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어린이 성경」이라는 표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에서 나왔고¹⁾,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²⁾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출판사에서 외국의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차원에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번역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읽고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들의 경험세계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따른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용만 제공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이란 성경의 내용과 어휘의 문제, 그리고 신학적 난제, 비현대적 표현들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린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제공하지 않고 성경의 일부만 발췌³⁾하거나, 혹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 중심⁴⁾으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둘째, 어린이들도 인격적이며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그대로 제시하자는 의견이다. 즉 성인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도 성인용 성경을 읽으므로 성경의 의미를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 기존 성인들의 성경 전체⁵⁾ 그대로

* 전주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기독교사상 주간.

1) 전영택, 이봉구, 최효섭, 유영희, 「어린이 성경」(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2) 정중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동양출판사, 1968);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기독교문서, 1990), 85-86.

3) Mary Batchelor,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Lion Publishing, 1985); 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Amazing Book*(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91).

4) The Daughters of St. Paul, *The Bible for Children*(St. Paul Editions, 1985); *Stories of Bible*(American Bible Society, 1987); Marian Schooland,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Eerdmans Pub. co., 1975); Rolf E. Aaseng, *Augsburg Story Bible*(Augsburg, 1992); Gilbert Beers & Ronald A. *The Big B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 Childres's Bible: Words of Wisdom*(Hong Kong Bible Society, 1993); Walter Wangerin Jr., *The Book of God for Children*(Zondervan Pub. House, 1997); 전영택 외, 「어린이 성경」(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정중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경」(동양출판사, 1968).

제시하고, 여기에 그림과 도움말, 단어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 성경을 이야기체로 재구성하거나 성경 일부를 발췌하는 경우에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공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체 성경이나 발췌 성경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제공하되, 가능한 어린이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기존 어린이 성경이 이야기체나 발췌 성경을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며,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이 글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적 입장에서 성경 읽기를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기독교 공동체와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읽기 위한 것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언어적이며 심리적인 한계를 고찰한다. 물론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개발을 위하여 언어학적이거나 아동심리학에 근거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고려해야 한다.⁶⁾ 그러나 이 글에서 신학적 준거나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목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의 제한점을 찾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번역의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어린이의 성경 읽기

2.1. 성경 읽기의 의미

성경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점 외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마태 24:35, 누가 21:33)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기독교적 삶과 신앙의 모델을 가르쳐왔다. 즉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기준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을 가르쳐야 할 가치 있는 표준과 규범이 된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읽고 배워야 할 책이다. 특히 성경은 읽혀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때에 독자와 저자,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5) John D. Clare, *The Bible Alive*(Zondervan Pub. ouse, 1993). 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해설, 국가 상황, 연대표, 색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외 어린이 성경의 전문을 중심으로 어린이 성경을 간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Walter Wangerin Jr., *The Bible for Children*(Checkerboard Press, 1986);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Sweet, 1986); *The Children's Living Bible*(Tyndale House Pub. 1987); *Psalty's Kids Bible*(N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Larry & Sue, *The Teen Study Bible*(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hildren's Illustrated Edition*(American Bible Society, 1995).

6) Abraham Kuyper, "The Twofold Development of Science,"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Grand Rapids: Eerdmans, 1954), 48-51을 참고하라. 그리고 Cornelius Van Til,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36-37. 반틸은 "우주 일반에 관한 사실들은 성경에 제시된 진리 체계의 조명 아래 탐구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미 소유한 다른 진리 체계에 따라 연구될 수도 있다. ...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과 관련시켜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있다.

성경은 예배나 성경공부 등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라 할 수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만국의 만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역 성경의 서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즉 표준새번역 성경에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고 하였고,⁷⁾ Bible for Today's Family, New Testament의 서문에서 KJV(King James Version)의 번역자들도 독자들이 명백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성서는 “읽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읽기 쉬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CEV(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의 머리말에 “읽기 쉽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놓았으니 마음껏 읽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껴 보라.”⁸⁾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성경 번역은 읽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성서 번역이 ‘읽기 쉬운’ 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기억할 수 돕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 보급된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 출판사의 보급을 제외하더라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매년 출간하는 성경이 100만권이 넘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2,197개 언어(1997년 말 통계)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21세기에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45,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될 것으로 추정한다.⁹⁾ 이렇게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어린이 성경 번역은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2. 성경 읽기와 기독교교육의 관계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세속의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언어적 행위는 추상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이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¹⁰⁾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체인 언어는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하며, 말씀으로 계시된다는 명제를 신뢰하는 것이다.¹¹⁾

성경은 언어로 기록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언어적’이다.¹²⁾ 특히 기독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언어적 행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즉 ‘언어와 행위’는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성서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위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성서의 언어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행위는 말씀의 실천이다. 따라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하

7)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성경」(대한성서공회, 1993), 머리말.

8) Bible for Today's Family, New Testament(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1), Translating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참고하라.

9)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대한기독교서회, 1999), 23-24.

10) 기독교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라는 언어적 매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James Barr, *Holy Scripture: Canon, Authority, Criticism*(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12를 참고하라. 그러나 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의사 전달의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창세 17:1, 출애 17:14; 24:12; 31:18; 32:15-16; 34:1, 신명 28:58; 29:20; 30:10; 여호 1:8; 8:31; 이사 30:8, 그리고 예언서와 율법서; 고후 13:10, 살전 2:13, 딤후 3:14-15, 요일 1:4, 2:12-14, 유다 3절, 그리고 복음서 참조). 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Gillain Brown and George Yule, *Discourse Analysis*(CT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를 참고하라.

11) Carl F. H. Henry, "The Concerns and Consideration of Carl F. H. Henry," *Christianity Today*, 13(March 1981), 21.

12) 박봉량, 「신학의 해방」(대한기독교 출판사, 1994), 237f.

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응답과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이 종교적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구조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교육과 신앙의 과제로 삼았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6:4-5의 셰마(Shema)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성경이 신앙 교육적 의미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암시한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라는 명령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이는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다. 절기에는 일정한 성경(five scrolls)을 읽도록 제시되어 있었고,¹³⁾ 그들의 성경 읽기는 신앙과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다(신명 6:4-9).

성경은 경전으로 교육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즉 처음에는 토라(모세오경)¹⁴⁾를 읽게 했고, 다음에는 예언자와 그들의 작품들, 나중에는 미쉬나(Mishna, 구전으로 전수되다가 나중에 탈무드 형태로 기록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는 회당에서 경외전(Apocrypha), 모조비문(Pseudepigrapha)을 배우게 하였다.¹⁵⁾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말은,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며,¹⁶⁾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창조를 통해 계시하신 것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과 어린이 개개인에게 의미 깊은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일종의 성경의 '언어적 교육'¹⁷⁾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며,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잠재적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 교육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대화에 참여하므로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간의 상호작용(intertextualiation)의 과정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이미 읽은 본문들의 교차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경 저자의 문화적·종교적·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에 자신들의 형태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그 의미와 개념을 재조정하고, 다시 말하거나 쓰는 행위를 통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것을 서인석 교수는 "새로운 것의 생산성"이라고 하면서 성서 읽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를,

“쌍둥이 본문을 발명해 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본문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 나의 오른 손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책을 쓰게 한다는 것이다. 읽는 것은 행간(行間)에, 여백(餘白)에, 읽고 있는 본문의 텅 빈 공간과 그 흰 종이 위에 독자인 나에게 고유한 본문을 새롭게 짜서 쓰게 한다. ... 사실 독서의 작업은 덧붙이는 일과 비슷하지 않는가.”¹⁸⁾

13) James L. Crenshaw, *Story and Faith*(London: Collier Macmillan Pub., 1986), 456; 히브리 절기에 읽는 성경은 다 음과 같다. 즉 Feast of Weeks에는 룻기, 유월절(Passover)에는 아가서를, 장막절과 초막절(Tabernacles, Booths)에는 전도서를, 아브(9th of Ab)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부림절(Purim)에는 에스더를 읽었다.

14)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 Macmillan, 1944), 41-42; 토라는 교훈, 즉 가르쳐진 것, 교육을 뜻한다. 토라는 신앙 양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며, 하나님이 인정한 종들을 통해 제공된 신앙 교육을 의미한 듯하다. 간혹 예언적 교훈의 부분, 축제일 또는 안식일 법, 성문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체화를 말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교육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5)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Chicago: Moody Press, 1983), 21.

16)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성마오로 출판사, 1984), 92.

17) Jack Fennema, 「기독교 아동교육」(엠마오, 1987), 108-109.

18) *Ibid.*, 70-71.

민영진 부총무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말씀은 독자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며, 새로운 희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한다.”¹⁹⁾ 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성서봉독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2.3. 성경 읽기의 목표

일반적으로 “읽기를 하는 주요 목적은 그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²¹⁾이다.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식을 얻는 수단이라 것이 강조되며, 나아가 “단어 발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도량을 넓히고, 인생의 미래에 만나게 될 삶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창고에 가치 있는 내용을 쌓아 두는 것이다”²²⁾. 물론 이러한 읽기의 교육적 개념은 ‘지식과 기억’이라고 생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읽기 교육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기독교교육에서도 성경 읽기는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며,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지식과 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반 서적이거나 성경 읽기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즉, 첫째는 지식 획득이며, 둘째는 획득된 지식의 암기하는 것이며, 셋째는 획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낭송)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묵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읽는 것, 즉 낭송이 필요하다.²³⁾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글의 의미 파악, 기계적 암기, 그리고 낭송이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읽기의 목표>

1. 글의 의미 파악을 위한 철자, 발음법 이해	해독, 즉 철자나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2. 기계적 암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인 훈련, 묵독을 통해 암기할 수 있다.
3. 낭송	한번 획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낭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읽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문어(文語)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어 시작 이전에 구어가 발달해야만 한다고 보지만,²⁴⁾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구어발달이

19) 민영진, 「성경 바로 읽기」, 25.

20)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92.

21) Staniford, *The Art of Reading*(MA: West & Richardson, 1815), 9.

22) L. W. Leonard, *The Literary and Scientific Class Books*(NH: John Prentiss, 1827), v.

23) L. Cobb, “Third Juvenile Reader,” *Cobb’s Juvenile Reader*, No. 3(NY: Collins & Hannay, 1831), xiii.; Staniford, *The Art of Reading*, 9-10 참고.

문어발달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선행요소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구어와 문어는 동시에 발달하며, 상호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⁵⁾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특히 구어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중재'²⁶⁾가 풍부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읽기의 주된 방법은 암기 형태이며, 암기는 종교적 책이나 학술적인 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기도문이나 찬송가, 성경에서 발췌한 글을 암기하게 했고 학자들은 한정된 수의 이들 책의 내용을 거의 암기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의 가독적 자원(可讀的 資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의 장점과 목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읽기는 성경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기독교의 문화가 대부분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후대에 읽혀지고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것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와 비유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성경 읽기는 기독교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수 받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흘러 내려온 문화를 전수하게 되고, 유지시키며, 발전하게 한다.

둘째, 성경 읽기는 성경 언어와 친근성을 높인다. 성경 언어에 친근해지면 성경 읽기의 정확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친근감을 꾀할 수 있다. 성경 읽기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어휘력과 독해력이다. 어휘력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의 언어학적 의미 이해'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가 오늘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읽는 성경에서 잘 모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내용-한자어, 종교적 언어, 추상적 개념, 은유적 개념, 문화적 개념-일 경우에는 성서 읽기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²⁷⁾ 따라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의 어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성경 언어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용어와 어휘와 지식을 습득은 기독교적 사고력 증진과 양육을 기르는 한 과정이 된다. 어린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주어진 글에 나타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적 언어와 신앙에 대

24) 일반적으로 구어가 발달되어야 문어가 발달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 Mattignly, I. Q, *Reading, Linguistic awareness, and Language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Reading Research Seminar on Linguistic Awareness and Learning to Read*(Victoria, British Columbia, 1979).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구어발달이 문어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행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hri, L. "Word Consciousness in Readers and Pre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1975), 204-212; Mason, J. M.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 Year Old Children's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search Reading Quarterly*, 15(2), 1980), 203-227.

25) 구어도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 나타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L. Ehri, "Word Consciousness in Readers and Pre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1975), 204-212; J. M. Mason, "When do Children begin to Read: An Exploration of Four Year Old Children's Letter and Word Reading Competencies," *Research Reading Quarterly*, 15(2), 1980), 203-227.; J. Taylor, "Making Sense: The Basic Skill in Reading," *Language Arts*, 54(6), 1977, 668-672); 그리고 어린이를 대화의 상대로 대우하거나 능력 있는 대화 상대자로 인정할 때 언어발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L Robbins, "Mastering Language: A Process of give and take," *Bostonia*, July, 1984, 26-28.; Wells, G., *The Meaning Makers: Children Learning Language and using Language to Learn*(Portsmouth, NH: Heinemann, 1985)을 참고하라.

26) 이에 대한 논의는 G. L. Bissex, *GYNS AT WRK: A Child Learns to Read and Writ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D. Doake, *Preschool Book Handling Knowledge or Book Experience and Emergent Read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Atlanta, GA, 1979); D. Durkin, *Children who Read Early*(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66)를 참고하라.

27) 강운호, 「언어-그 본질과 체계」(배영사, 1981), 151-152 참고; 강운호는 "독자가 읽을 거리의 내용에 관해서 이미 친숙하고, 직접적인 읽기를 통해서 지각하는 문제점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해서 생각하도록 돕고, 나아가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며, 또한 그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²⁸⁾ 빈츠와 마가르트(M. V. Zintz & Z. R. Maggart)는 읽기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지각적, 언어적, 지적 과정'이라고 하였다.²⁹⁾ 따라서 성경 읽기는 신앙 형성과 사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경 읽기는 그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어린이들이 성경과 가까워질수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글의 구성을 이해하게 되고,³⁰⁾ 같은 개념을 계속 터득하게 되고,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를 체득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매체와 함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자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과 사고 형성과 함께, 그 속에 나오는 문화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된다. 일반적으로 책읽기는 총체적 언어 발달을 유도하게 된다. 성서 읽기는 오늘 의 문화와 성서의 문화간의 격차를 줄이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적 삶을 돕는다.

넷째, 성경 읽기는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을 타자에게 '다시 말하기'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기'는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경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종교 교육적으로 어린이들이 터득한 언어의 개념을 인지하고 정리하도록 도우며, 또한 타자를 향한 고백과 전파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며,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와 만남이 일어나고,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되며, 나아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의 과정이며, 성경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서 성경 읽기는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교육 행위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음으로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와 만남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¹⁾

3. 어린이의 성경 읽기의 제한점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안고있는 성경 자체가 안고있는 성경언어의 난해성, 발달심리학적인 한계, 경험적 언어의 미숙함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제한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성경 언어의 난해성

일반적으로 성인들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28)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0. 참고.

29) Miles V. Zintz & Zeldia R. Maggart, *Corrective Reading*(IA: Wm. C. Brown Publishers, 1986), 7: 그는 읽기는 사회적 협동, 자기 중심과 타인 의식의 심리적 균형, 생리적인 집중력, 글의 구조에 대한 지각력, 언어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단어에 대한 지식, 기억, 비판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0)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참고.

31) Thomas H. Groom, *Sharing Faith*(New York: HarperCollins, 1991).

첫째로 교회 전통과 신학적 제약 때문이다. 독자는 약 2천 년에 걸친 ‘교회의 전승과 신학적 성찰’에 근거하여 읽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둘째, 독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 성서 말씀을 이해한다. 셋째, 성서 기자와 독자의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서 이해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 번역자의 현대적 해석에 의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래의 목표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³²⁾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성경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172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³³⁾ 성경 본문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1-18(개역성경)을 제시하고, 그 의미와 단어를 설명하라고 하였다. 이 제시에서 어린이들은 대체로 많은 단어와 문장을 설명하기가 힘들어 했다. 이 조사는 성경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며, 표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50% 이상(86명)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 1장>

장절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1:1	태초(太初), 천지(天地)	-
1:2	혼돈, 공허, 흑암, 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공허, 어둠, 물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1:3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1:4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1:5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셨다 -
1:6	궁창(穹蒼)	창공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1:7	궁창 아래(위)의 물	창공 아래(위)에 있는 물
1:9	물이 드러나라	물은 드러나거라
1:11	과목(果木)	열매
1:14	광명, 주야, 징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	빛나는 것 낮과 밤, 계절,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
1:16	주관(主管)하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고
1:18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빛과 어둠을 가르게
1:21	번성	-
1:22	복, 생육(生育), 번성	-
1:24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내어라
1:26	우리의 모양대로	-
1:27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 -
1:29	지면의, 식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온 땅 위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1:30	식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먹을거리로 준다

<요한복음 1:1- 18>

--

32)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Maryknoll, N. Y.: Orbis Books, 1994), 54-60.

33) 마산교회 68명, 영생교회 51명, 천안중앙교회 73명(합 172명)

장절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1:1	태초(太初)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1:5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1:8	증거	증언
1:9	참빛	참 빛
1:10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2	영접, 권세	맞아들인, 특권
1:13	혈통(血統), 육정(肉情)	-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광, 은혜, 찬만	-
	찬만, 은혜	-
1:16	율법	-
1:17	독생	-

위의 예는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어린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자어와 종교적 용어 등이 많이 나온다. 또한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단어는 현대적 어휘라 하더라도 비유나 상징적 표현, 심지어 추상적 개념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자어(창공, 형상, 인자, 반석, 서원, 경솔히, 증거, 수난 등), 종교적 언어(안식일, 랍비, 선지자, 번제, 구원, 속죄, 성령, 은혜, 영생, 은혜의 해,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등), 추상적 개념(천국, 천부, 사랑, 용서, 하늘, 등), 은유적 개념(겨자씨, 소금, 빛, 길 등), 문화적 개념(달란트, 발씻기, 어부 등) 등이다. 둘째는 성경에 말하는 '단어 자체의 실생활의 의미 이해' 등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어의 개념, 문맥상의 의미, 기록 당시의 시대상과 그 관계를 잘 모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거나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골드만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사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사고 범위와 한계 안에서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³⁴⁾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성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어린이들에게는 절대로 읽힐 수 없는 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어른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지나치게 축소시키면서 본의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2. 발달심리 학적인 한계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발달단계의 한계 안에서 인지 영역 안에서 독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출애 3:1-6)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종교적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 4-5세의 아동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며,³⁵⁾ 6-8세는 인간적 이해, 9세부터는 하나님의 언어적 이해, 11세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서의 종교적 사고와 언어는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

34)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A Basis for Developmental Religious Education*(New York: The Seabury, 1968), 25ff.

35)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8), 107.; 어린이들은 12세 이상이 지나야만 반 물질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일 이해하며, 상징적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

적, 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교적 발달심리학 이론은 어린이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언어 기술 습득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요소인 소속감의 발생을 유발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아동의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³⁶⁾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서 그들은 사회화된(socialized) 언어보다는 '자기 중심적'(ego-centric) 언어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에 제한이 많다. 즉 그들은 사고의 사실적인 결과만을 다루며, 서로 이야기할 때 순수한 논의나 추상적인 사고, 인과적이며 논리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를 꺼려한다.³⁷⁾ 사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물을 보는 특정 관점을 무시하며, 논쟁에 있어서 조차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대신에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³⁸⁾ 특히 그들은 '비지향적 또는 자폐적 사고'(undirected or autistic thought)를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떠나간다.³⁹⁾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며 자폐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적인 사고의 원인을 골드만(R. Goldman)은 '지적 미성숙과 언어적 제한'이라고 역으로 말한다. 즉 지적 미성숙과 언어적 제한이 자기 중심의 본질(the egocentric nature of childish)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사고한다고 하였다.⁴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세 살 무렵부터 어휘를 사용하게 되며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에 유발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라는 질문부터 왜, 어디서, 무엇을, 누가? 라는 식으로 묻기 시작한다. 이러한 물음은 그들의 인지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어른들을 모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⁴¹⁾

그들의 개념 획득은 성경 내용 이해와도 직결된다. 이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의미와 개념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인지의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의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경험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사용한다는 보고하였다. 아동이 종교적인 어휘를 곧 획득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초기에는 종교적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⁴²⁾ 물론 그들이 특별한 말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바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골드만은 여기서 종교 교육의 위험이 파생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종교 교육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용하는 2차적인 언어(secondary language)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비, 은유, 직유, 상징 등의 근거가 되는 경험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어린이들은 대체로 준종교적 사고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발달심리적 혹은 종교적사고 단계의 제한점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적 한계 안에서 이해할 우려가 많으며, 나아가 그들의 사고 안에서

36)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어린이 성서교수법」, 손삼권 역(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53.

37) Jean Piaget,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이순형 역(중앙적성출판사, 1988), 104-112.

38) *Ibid.*, 42-43.

39) *Ibid.*, 41-46.

40) Ronald Goldman, x-, 11.

41)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62-63.

42)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A Basis for Developmental Religious Education*, 31-32.

43) 예를 들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문장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양을 위한 목자의 돌보심에 대한 유비로써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전달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목자의 눈으로 양의 도움과 가치, 양을 위한 희생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써 빛의 이미지와 다른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빛은 두려움을 쫓고, 숨겨진 곳을 찾아내고, 불모를 태우는 것임을 전달해야 한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경험적 언어의 미숙함

기독교교육에서 언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성경의 언어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⁴⁴⁾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개념을 획득하고, 기독교적 삶을 형성시키도록 돕는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행위는 그들의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들을 언어라는 매개로 진행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삶의 경험 안에서 읽고,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언어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고, 개념을 획득하고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을 구성하고 경험을 되새기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전달하고 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읽고, 반대로 우리의 경험을 새롭게 형성시켜주는 것이다. 나아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을 우리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신앙을 타자에게 고백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종교적 언어가 축적된 경험(accumulated experience)에 의해서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성경 이해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성경 혹은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는 특별하고 아직 모호한 부분과 장애가 바로 독자의 삶이라는 것이다. 성서 독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어떤 특정한 진술을 부여하는 것은 성별, 인종, 국적, 지위, 수준, 나이, 가정 환경, 관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⁴⁵⁾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 비유, 거룩한 이야기, 의식 등도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고, 신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언어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⁶⁾ 따라서 성경 읽기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직결되며,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와 다르므로 그 속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체득해야만 바르게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성경 읽기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골드만은,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근거로 어린이의 종교적 사고를 조사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⁴⁷⁾ 6세 된 어린이들은 ‘먹는 것’(떡에 마법이 걸려있다)과 관련하여 대답을 하였고, 8-10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의 순종을 생각했고, 12세 이후에는 ‘영적인 차원’(선과 악의 대항)을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8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적절성과 적합성이 없으며, 수년간 잘못된 개념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⁴⁸⁾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세계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인지하고 있는 언어는 그들의 경험이라는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삶

44)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2), 22. 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위한 훈련이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언어를 통하여 비유, 종교적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의식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45)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 52.

46)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31.

47) Ronald Goldman,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166-170.

48) *Ibid.* 169-171.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가 무엇을 알며 그 자신이 무엇을 만나는가'라는 끊임없는 교차관계(constant cross relations)를 찾는 일이며, 이 작업 없이는 어떤 종교교육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어린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려면 어린이들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언어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3.4. 어린이의 성경 이해 영역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따르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발달 심리학적으로 성경의 언어를 자기 중심적 혹은 자폐증적으로 이해하며, 성인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적 삶의 경험의 미숙함이 있으며, 그리고 성경언어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인들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들이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한 어린이 예배에서의 설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교육의 내용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읽는 일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어린이 성경의 번역자들은 어린이 성경을 이야기체로 각색하여 출판하거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어린이 성경 개발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드만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제하고,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 5-7세)⁴⁹⁾

이 단계의 아동에게 행할 수 있는 종교 교육의 범위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성서나 기독교의 지식을 제공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관계와 영향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단계의 어린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연구하도록 자극을 주며 성취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⁰⁾ 그들은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부모의 모습에서 종교적 언어를 찾고 사용한다. 이들을 위한 교수 내용은 거의 "생활 중심"으로 전개되고, 중심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죽음과 생명,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예배 참여, 아동의 욕구, 즉 안전에 대한 욕구, 환상에 대한 욕구, 재미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② 유년기(Middle Childhood, 7-11세)⁵¹⁾

유년기는 신체가 발달하는 단계로써 구체적인 조작으로 사고가 가능하며, 다소 논리적이어서 한 가지 사고와 연관시켜서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은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접근이 강하며, 타인에 의한 충동이나 욕망의 영향이 강하게 일어난다.⁵²⁾ 타인과 권위를 의식하며, 이들의 언어에

49) 이 단계는 "전종교적 사고단계"(pre-religious stage)라 할 수 있다. 지각 기능을 가지고 대상을 다룬다. 어어는 직접 경험을 표현한다. 뼈아제는 이 단계를 「감각운동 단계」라 구분한다.

50) Ronald Goldman, *Readiness for Religion*, 90.

51) 이 단계는 "준종교적 단계"(Sub-religious Stage)라고 볼 수 있다. 뼈아제는 「전조작적 혹은 직관적 사고단계」라고 하였다. 이때는 '단초점 사고'로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하는 일반 논리성을 지닌 사고를 한다.

52) Laster D. Crow, Alice Crow, 137.

의해 행동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들을 위한 성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초기> 가정, 친구, 애완동물, 우리를 돕는 사람, 목자와 양, 손, 다리, 옷, 조반 식사, 시간, 씨앗, 생일 파티 등 생활 내용으로 아동을 만나고 도와주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 양(양치기, 양의 하루, 선한 목자 등).

<후기> 가정과 관련된 내용(예수님의 가정, 유목민, 피난민, 롯의 가정 등), 방학, 노래, 음악, 시, 우유, 불, 선물, 빵, 4계절, 여행, 처음과 나중 등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내용 등

③ 후기 아동기와 전청소년기(Late childhood and pre - adolescent, 11-13)

이 단계의 아동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며,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자기 또래를 형성하며, 부모보다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욕이 강하다. 또한 종교적 환상이 사라지고, 의인적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단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며, 사고는 구체적이며 항상 사실과 관련시켜서 사고한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성경 주제는 다음과 같다.

<생활 중심 주제> 나 자신, 창조, 빛, 물, 소리, 공기, 법과 질서, 이름, 이야기 등

<종교적·성서 중심 주제> 성경의 본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위에서 제시한 아동의 성경이해 범주는 골드만의 제안이다. 이 제안대로 한다면, 성경 번역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발췌 성경을 제작할 수 있지만, 골드만이나 종교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연령층에 따른 발췌 성경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전통적으로 종교교육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읽기 교육의 방법은 개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의 성경 읽기는 교회의 예배나 성경공부에서 어린이의 이해나 인지 차원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쉽게 잊혀질 수도 있으며,⁵³⁾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에 대한 소외감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교육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외면되고, 단순히 성경 교재(공과)가 주된 교육자료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책은 읽기의 차원에서 제작되어야 하며,⁵⁴⁾ 어린이 성경도 읽기의 차원에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뉴먼(B. M. Newman)은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언급하면서 7가지 원칙⁵⁵⁾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어린이들의 삶에 맞는 번역을 위한 '수용성'(acceptability),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발췌되는 '선택성'(selectivity)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따르는 번역 원칙 중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

53) N. B. Henry ed., "Measurement of Understanding,"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8-10.

54) Thomas G. Devine, *Teaching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Boston: Allyn and Bacon, 1989), 141-143.

55)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Oct. 1987), 411-418; 뉴먼은 어린이 성경번역의 7가지 원칙을 정확성, 명확성, 수용성, 선택성, 감수성, 경제성, 이미지성을 언급하였다.

역을 위한 방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에 맞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들 자신의 문학적 종교적 심미를 추구하지만, 아동들의 정신 수준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책은 어린이들에게 가독성(readability)이 약한 것이 된다.⁵⁶⁾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 읽기에서 익숙한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편이다.⁵⁷⁾ 아동들은 기초 어휘(sight vocabulary)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주어진 단어를 재빨리 해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의미 획득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비트(Leavitt)는 어린이들에게 이해도 못하는 책을 지겹게 읽도록 촉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⁵⁸⁾ 이 말은 성인들이 읽는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읽히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책을 읽히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른들의 종교적 사고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 기보다는 가능한 아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수준에 맞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이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고려 한다면 그들에게 경험을 제한시키는 것이라 하였다.⁵⁹⁾ 또한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동 들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공하여야 그들이 무의 식적으로 폭넓은 언어 분야를 접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⁶⁰⁾ 더욱이 종교 교육의 차원에서 어린이 들에게 성경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므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은 일 반적인 의견이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발췌하는 것보다는 전체 성경 중에서 가능한 어린이의 언어적 종교적 사고차원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성경의 문체는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언어를 사용⁶¹⁾하면서도 동시에 유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짧고 단순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각 책의 개요와 목적 등을 진술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어린이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성경 각 책의 방향과 의미를 선이해될 수 있도록 개요와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의 성경 언어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친숙한 제목으로 정하되 짧고 쉬워야 하며, 어린이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가지고 해야 한다.⁶²⁾

또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해설집 혹은 사전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읽기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문자 획득을 위해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어, 지명, 인명, 관습, 특수 단어(종교적·사회적·문화적 용어 등)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해설집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사전의 사용은 문자 해독뿐만 아니라 의미 획득을 촉진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담스는 “학생들이 언제나 사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⁶³⁾고 했다. 특히 어린이 성경 테두리에 여백을 많이

56) J. Leavitt, *Reading Lessons for the Use of the Middle Classes in Common Schools*(MA: John P. Jewett, 1852), iii.

57) S. Willard, *The General Class Book*(MA: A. Phelps and A. Clark, 1828), iv.

58) J. Leavitt, *Reading Lessons for the Use of the Middle Classes in Common Schools*, 6.

59) E. Sargent, *The Standard Fifth Reader of First Class Reader*(MA: J. L. Shorey, 1863).

60) W. Swinton, *Swinton's Third Reader*(NY: Ivison, Blakeman & Taylor, 1882).

61) S. Town, & N. M. Holbrook, *The Progressive Fifth or Elocutionary Reader*(MA: O. Elocutionary, 1856): 오래 전부터 타운은 어린이 교재를 오래 연구하면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의미 있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G. S. Hillard, *Second Class Reader*(MA: Hickling, Swan & Brown, 1867).

62) J. Ely, *The Child's Instructor*(CT: J. B & L. Baldwin, 1833) 참고.

63) D. Adams, *The Understanding Reader*(MA: Hori Brown, 1821), iii.

두어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여백에 자신이 배우고 찾고 생각한 단어의 의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유도한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일은 읽기의 개념이 완성될 수 있다.⁶⁴⁾ 어린이들이 읽은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곧 어린이들이 그 성경 내용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했다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읽기의 최종 목표이며, 어린이들이 이해한 성경 내용을 글과 말을 통한 재구성, 드라마적 요소를 통한 표현, 예술적 활용을 통한 심미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장 체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안에서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성경을 구성하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단어로 조절하여야 한다.

1)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은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어 수, 음절 수, 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가능하면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가이사는 시이저로, 파사는 페르시아 등으로 사용한다.

3)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단어는 신학적 의미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4) 문어체와 구어체 사용, 예수님의 어록중에서 “~해라”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시오”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이외 존칭의 문제 등은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5) 문장의 복잡성에 대한 통제, 단어의 수와 형태에 대한 통제, 서로 다른 단어의 전체 수, 단어 어구의 전체 수, 문장 길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뉴먼은 단순한 문법과 문장, 능동적인 표현, 빈도수가 적은 어휘, 음절이 적은 단어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⁶⁵⁾

다섯째, 어린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의 가독성을 위해서 인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은 표기 내지 인쇄된 것을 눈으로 읽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쇄가 되어야 한다. 그 방향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성경 본문의 구성: 어린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보다 형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대화문으로 할 것인지 혹은 설명문 형태로 배열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 외에 기도문, 인용구 처리, 연설문, 서신, 이야기(혹은 소설), 설명문, 전기 혹은 자서전, 시, 비유, 산문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단의 수와 분리, 단락 바꾸기, 페이지의 단어 수, 페이지의 문장 수 등을 잘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별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성경 내용이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 형태로 꾸민다고 한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성경 가독성을 위해서 문장 형태를 이야기 형태로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⁶⁶⁾

2) 교재의 외관: 판형, 활자 크기, 자형, 인쇄상의 기법, 여백, 삽화,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판형과 활자가 크며 여백이 많으며,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쇄상의 기법을 많이 동원하며, 삽화를 많이 넣으며 색상을 많이 고려한다. 그리고 이야기 전개를 위한 삽

64) S. L. Arnold, *Reading*(MA: Silver, Burdett, 1899), 153.

65)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424.

66) R. R. Robinson, *Two Centuries of Change in the Content of School Readers*(T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30)를 참고하라.

화, 단어의 의미 인지를 위한 삽화, 성경 각 권이나 문단 혹은 단락의 의미 파악을 위한 삽화, 회상을 위한 삽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⁶⁷⁾ 그리고 성경의 글자가 또렷하고 질 좋은 종이에 인쇄되어야 한다.

5. 결어

이 글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것이다. 성경은 읽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번역된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기 힘든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데 제한점이 많다. 즉 성경 언어의 난해함, 자기 중심적 한계와 경험 언어의 미숙함 등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성경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성경의 부분을 제한했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영역을 축소시켜왔다. 기독교교육에서도 어린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단계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어린이의 성경 읽기와 교육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들의 성경 이해는 극히 제한적이고 성경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알아야 한다. 참으로 어린이들의 하나님을 소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성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 개발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

첫째, 어린이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종교적인 존재'⁶⁸⁾이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어린이들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피조물이고 개체성을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숙이라는 말은 사고의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의 미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⁶⁹⁾ 따라서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 세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성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많은 학자들은 어린이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 등 여러 영역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이 영역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다. 인간은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성장하며, 한 가지 영역의 성장은 다른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언어 기술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⁷⁰⁾ 어린이들이 언어와 종교적 사고가 미성숙할지라도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성경을 접하고 읽고 들음으로 그들의 종교적 사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7) 과거에는 책에 삽화를 넣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심했다. Hazen은 삽화는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J. Hazen, *The Primary Instructor and Improved Spelling Book*(VT: D. Watson, 1824). 그리고 Webb은 철자법과 설명식 지도 방법을 찬성하면서도 그림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어서 해롭다고 했다. J. R. Webb, *Normal Reader*, No. 1(NY: Sheldon, Lampport & Blakeman, 1855). 그러나 McGuffey는 아동의 글에 삽화를 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넣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며,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넣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W. H. McGuffey, *Electric Fourth Reader*(OH: Truman & Smith, 1937).

68) Jack Fennema, 「기독교 아동교육」, 17-21.

69) Dorothy J. Funish, *Exploring the Bible with Children*, 45-46.

70) *Ibid.*, 45-46.

셋째, 우리는 성경을 어린이들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은 “어린이가 실생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떤 단어를 읽을 줄 안다고 해도 해로울 것은 없다”⁷¹⁾고 말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일은 성인이 된 후의 신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설명을 곁들이 성경을 만들어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들은 고대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서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물론 고대 사람들이 들었던 세계와 차이점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전했고, 그들이 다른 상황에서 말했던 내용인 복음을 번역할 때 그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해석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⁷²⁾ 어린이의 성경은 가능하면 성경 본질의 의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고백적 성경”을 제작하도록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

71) 어린이의 지능과 언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Bornstein, M. H. & Sigman, M. D, "Continuity in mental development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57 (1986), 251-274를 참고하라.

72) Terrence W. Tilley, *Story Theology*(Collegeville, Mi: The Liturgical Press, 1990), 102.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 성경

공동연구 : 심정택 김용상 최은희
김시온 김현숙 김경화
배선희 김성진 손삼권

1. The Amazing Book

저자 : John R. Kohlenberger III and Noel Wescombe

출판 : Portland, Oregon. Multnomah Press. 1991

1.1. 구성

이 책은 7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에서 47개, 신약에서 25개를 발췌하였다. 책의 두께는 본문이 약 200여 페이지이다. 어린 독자들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이야기들은 흥미 있고 유익한 것이 많다. 어린이들이 친숙하도록 동물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하여 성경을 도입하고, 질문을 한 후에 답을 찾도록 이끌어 준다. 성경의 주요 단어는 색상을 넣어 다시 반복하도록 하여 성경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삽화를 정밀하게 넣었고, 동물 그림을 천연색으로 하여 지루하지 않게 꾸몄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기초적인 읽기 공부가 되어진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췌를 하였고, 성경의 연대 순을 따랐으므로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성서의 시대적 감각을 알게 하였다.

1.2. 특징

이 책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기에 적절한 성경의 선택과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어휘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적절한 선택(역사와 율법, 시와 지혜, 복음과 행위들, 서신과 예언들로부터 선택)과 성경의 연대순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역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단어는 따로 설명을 함으로 성경의 기초와 신학적인 어휘를 공급합니다. 책의 뒤쪽에 소사전의 알파벳 순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여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칼라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요 어휘를 같은 칼라 색상으로 표기하여 찾기 쉽도록 배려하였다. 동물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므로 흥미를 돋우고 세밀한 삽화는 해당 연대 당시의 이미지를 갖게 하여 상상력을 키워주고 있다.

1.3. 분석

72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어린이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기 전에 성경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 준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린이가 혼자서 보기에는 많은 양이다. 책의 구성이 도입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질문의 형태를 반복함으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고 연대적인 흐름을 잘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반복되므로 어린이들이 지루해 하며 수동적이 되기 쉽다.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연대 순을 따랐다는 것은 성인들에게는 그 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에서 어린이들이 장소와 연대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연대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4. 방향 제시

72과는 1주일에 1과씩 공부를 한다면 약 18개월(1년 반)이 소요된다. 과의 수를 조정하여 52과로 하여 1년 단위로 하였으면 좋겠다. 혹은 신약, 구약으로 구분하여 2권으로 분권하므로 3년 시리즈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되겠다.

각 과의 방식을 도입, 성경말씀, 질문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묻게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삽화를 자세히 함으로 도움이 되는데 형태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로 하여금 그리도록 하면 흥미를 둘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갖도록,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책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삽화를 이용하여 상상력을 키워주고 본문을 찾게 하여 읽고 느낀 점을 토의하며 질문을 통하여 정리해 줌으로써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의 이야기처럼 저자는(존과 노엘)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 성경 읽는 즐거움을 원하기 때문에 '놀라운 책'을 발전시켰다. 많은 어린이들이 매혹적인 줄거리와 놀라운 그림으로 가득한 성경 이야기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무 흥미 위주이므로 성경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이 책들을 읽고, 갖게 함으로 그림들로부터 벗어나, 보다 어린 독자들에게 성경의 세계가 열리도록 돕는 책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독과 듀이, 리키와 립버의 조그마한 도움으로 어린이들이 어디서나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읽기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한글을 깨우친 유치원생, 초등학생(4학년까지)의 성경 읽기 교재로서 출판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심정택, 충주제일교회)

2. Children's Bible: Words of Wisdom series

출판 : Hong Kong Bible Society. 1993.

2.1. 구성

Children's Bible은 전체 7권으로 매 권은 14개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전체 98개의 제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각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들로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어린이

들이 알기 쉬운 짧은 문장으로 엮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 이유는 한 복음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내용과 저 복음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권은 예수의 탄생 배경과 사역의 시작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 2권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 있다. 3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유와 증언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4권은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열거하고 있다. 5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 6권은 모두 비유의 말씀들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7권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2.2. 특징

Children's Bible의 특징은 알기 쉬운 영어 문장으로 쓰여져 이해하기 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림만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림으로 말씀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복음서의 내용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별로 각 권마다 엮은 역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면 두께가 매우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이 성경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각 권마다 14개의 내용만을 수록하여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없으나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린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한글 개역 성경이 어린이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문체를 극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매 내용마다 적용 질문을 한가지씩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별해서 마지막에 써 놓는다면 어린이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림이 화려하고 겉모양만을 보아서는 동화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동화책처럼 그냥 상상의 이야기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 성경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 주를 달아 뜻을 해석한다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가 하는 도움의 설명이 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이라 생각했다.

2.4. 방향 제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영어 성경에 대한 연구와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하기 쉽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이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부모와 교사가 더욱더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나누는 작업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용상, 청주선교교회)

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for Children

출판: Zondervan Publishign House. 1997.

3.1. 구성

이 성경의 대상은 4-8세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책의 구성은 1권으로 구약 58 장과 신약 48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 1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목은 The World Begins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 2에서 9쪽까지 창조 이야기를 서술과 대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창조 이야기를 숫자와 그림의 상징으로 쉽게 나타내어서 이해하기 쉽다. 한쪽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대로 날짜의 숫자와 그림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따옴표로 나타내며 문장도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구약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화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어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내용이 빠져 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하나님의 명령, 즉 아담에게는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라는 것과 화와에게는 임신하여 해산하는 고통이 빠져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도 빠져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흥정하고 떠나는 이야기와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빠져있다. 또한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빠져 있다.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는 것과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도 빠져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한 과정이 빠지고 모세의 탄생에서 바로 호렙 산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는 내용과 나병이 들었다가 낫는 내용도 빠져 있다. 레위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제사법과 성막의 내용이 빠져 있다. 롯기에서 롯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은 나오나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요나서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것이 안타깝다.

신약에서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예수가 삭개오 집에 유하신 일만 나타나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삭개오의 변화된 내용은 빠져있다.

3.2. 특징

이 책의 특징은 그림과 함께 더불어 표현한 이야기식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는 부분은 모두 대화식으로 되어 있고 문체도 간결하여 빨리 이해되도록 하였다. 어린이 입장에서 그림들이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속에 정확히 각인 되어 성경이해에서 성경 기억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영어 단어 선택이 쉽고 명확하여 내용 이해에 쉽다. 예를 들어 He walked with God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로 표현하여 그 내용이 쉽게 와 닿는다. 그리고 그림의 명암 처리 등 표정이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불 하나 머리털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그린 세심한 노력이 보인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의 그림이 인상적이며 홍해가 갈라지는 모양의 그림이 실감이 나도록 잘 그려져 있다. 또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만화로 그려서 실감이 나고 이해가 잘된다.

3.3. 분석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뽑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성경에서 굵직 굵직한 이야기임에도 빠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과 함께 함축된 내용으로 짧게 짧게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정작 그 이야기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빠지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화와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내용도 빠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려운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서 이 어린이 성경을 예배 시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정에서 읽거나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접하고 친해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성경을 예배에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성경 이야기를 한 권에 다 함축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굵직한 이야기를 연구 중에 뽑아서 이 책의 그림과 숫자, 글의 방식으로 발간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짧게 이야기를 마치는 것보다는 들어가야 할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작 성경의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이 이런 책을 발간하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지를 연구하여 그림과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어린이 성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만든다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그래야만 내용이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의 '어린이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된다.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3.4. 방향 제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린이 성경을 발간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어린이 성경에 적당한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방식의 성경을 만든다면 예수님을 좀더 친밀히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식의 내용만 성경에서 뽑은 것 같다. 용어는 아이들이 읽음에 동시에 머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쉬운 단어들을 골라 사용한 노력이 보인다. 길게 늘어놓아 이해하는 데 헛갈리지 않도록 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림에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이들이 보는 그림이라 하여 대충 대충 그린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자세히 실감이 나고 표정이 그 이야기에 맞도록 그려져 있다. 그리고 주변 배경에도 신경이 쓰여있고 유머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다. 그림이나 숫자를 사용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머리에 쉽게 들어오도록 힘쓰고 있다. 예배시간에 이 성경을 활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다. 설교시간에 크게 그림을 본따 그리던지 OHP로 떼서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장비가 된다면 실물 화상기나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로 대형 스크린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설교 준비할 때에도 쉬운 단어들이어서 아이들의 언어에 맞추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함께 둘러앉아서 이 성경책을 들고 함께 읽어가면서 그림을 보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한결 쉽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더 쉽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 성경책을 들고 읽으며 그림을 보며 설명해준다면 아이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아빠와 엄마와 예쁜 그림의 재미있는 성경책,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이야기 중심과 그림 중심으로 강조되다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나 우려된다. 책에서 본문에서의 메시지를 꼭 강조하여 확실히 심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나면 해설자나 선생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최은희, 청솔선교 배움터)

4. 비디오 리뷰

4.1. The Animated Stories from the New Testament

제작회사 : Family Entertainment Network

소요시간 : 25분

4.1.1. 구성

이 비디오 시리즈는 총 10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The King is Born, He is Risen, The Prodigal Son, The Good Samaritan, The Miracles of Jesus, Saul of Tarsus, John the Baptist, The Righteous Judge, Forgive us our Debts, Treasures in the Heaven 등이다. 총 10편 모두가 신약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른 주제들을 살펴볼 때 통일성이 엿보이지 않아 이 비디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다. 구성면에서 예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루지 않아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만 어린이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부수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 전개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성서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들이 흥미 있게 비디오의 내용에 빠져 볼 수 있도록 사건의 전개가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부분을 엿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성서 중심에서 벗어난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4.1.2. 분석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약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이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다. 다만, 성경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들을 각색한 부분들이 있어 사실성에서 벗어나지만 다양한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린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다. 한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5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첨가됨으로 인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어린이들이 놓치고 넘어갈 우려가 있고, 다소 지루함이 느껴진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래를 이용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도 내용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기억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디오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것은 색채가 파스텔톤이라 그런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주로 사용하는 색이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어서 뚜렷함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산이나 절벽과 같은 거친 느낌을 표현할 때는 현장감이 떨어진다.

인물 표현에 있어서는 인물에 대한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인물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나 제스처가 성서적이지 못한 인물이 있어서 모방을 쉽게 하는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주게 될 위험이 있다. 건물과 같은 주위 배경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스케일이 작아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활용 여부를 본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전개해 가는 가운데 성서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고, 상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각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흥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 비디오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 공부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어린이 시기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같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들의 인식 속에 오래도록 자리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청소년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중에 기억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분반 공부 때 활용할 시각적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래를 만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암기하게 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넓혀 주고 창작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다고 본다.

또한 이 비디오를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25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 그것이 설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 어린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설교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25분 짜리 비디오는 내용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게 하여 하나님과 어린이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비디오를 활용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먼저 구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비디오처럼 대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교육에 깨어 있는 부모가 아니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자라고 나면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할 부모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경 비디오로 하는 성경 공부를 권장하거나 기독교 비디오점을 만들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기독교백화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면 활용 가능하다.

이 비디오는 비디오를 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비디오를 보고 풀 수 있는 교재도 함께 제공되어 있어서 좋다.

4.1.3. 방향 제시

먼저 비디오가 제작된 배경을 살펴볼 때 비디오가 없던 때에는 단지 성경을 가지고만, 좀더 발전되었다면 성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이에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비디오라는 새로운 첨단 매체를 교회 안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성서 비디오를 제작할 정도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 비디오라는 이름에 맞는 비디오를 만들기보다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에만 중점을 두는 바람에 목적보다는 수단이 먼저 앞서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서 비디오를 만들 것인가? 먼저 우리가 왜 성서 비디오를 만들고자 하는가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성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종류의 비디오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상은 누구인가? 연령층의 분포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는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활용도에 따라서 예배시간 활용 가능한 설교대용이나 성경 공부용이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비디오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디오의 제작에도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성서 비디오가 보편성을 가지고 어디서나 구입가능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하는 생각이다. 성서 비디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생겨 어느 교회나 대여하여 볼 수 있고 다양한 교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는 많은 개척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비디오 제작과 함께 앞으로 교회가 교회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시은, 대전중앙교회)

4.2. 비디오 “태초에”

제작회사 : 교육개발사

소요시간 : 56분

4.2.1. 구성

비디오 ‘태초에’의 구성은 다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담과 화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바벨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운명, 야곱의 열 두 아들, 요셉의 승리, 애굽사람 모세, 타오르는 불, 모세와 바로, 출애굽기, 돌에 새긴 계명, 이스라엘의 배신, 새로운 언약, 여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추방된 이스라엘인,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의 해방, 사막의 예언자, 예수의 탄생 등 총26편이다.

이 비디오는 1편에서 2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약의 내용은 단 한 편 ‘예수의 탄생’밖에 없다. 즉, 신약의 내용보다는 구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비디오의 주제들이 사건과 인물 중심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주제들이 없다. 어린이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계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만을 다루어 감동이나 깨달음을 수반할 수가 없다.

전개되는 사건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한 편에 넣어야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어색함이 있다. 반면에 한 편에 끝나면 다음 편에 대해 예고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좋다. 매 편마다 ‘여우’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어린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내용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여우의 행동들이 성경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 많아서 자칫 성경 이야기가 아닌 여우가 주인공인 내용의 비디오로 어린이의 생각

속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 한글과 영어자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2번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특히 영어공부라는 면에서 볼 때 반복학습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성경 이야기로 하는 영어공부라는 면에서 인식되어지는 부분이 호의적일 것이다.

4.2.2. 분석

내용면에서 성서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어린이가 비디오를 보았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한 개의 비디오를 보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야기의 비중이 모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없다. 즉, 성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려다 보니 주제를 한가지의 핵심에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룸으로 산만함을 주고 오히려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성서의 내용을 충실히 묘사함으로 이야기나 사건에 대한 어떤 덧붙임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면서 성경의 사건들을 알 수 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가 힘들 것 같다.

단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 그대로를 옮겨 놓음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므로 단어의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장 전체를 바라볼 때나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본다. 또한 대사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아듣기가 힘들다. 책이라면 필요한 부분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지만 비디오는 그것이 번거롭고 이야기의 맥이 끊길 위험이 있다.

비디오의 색채는 어둡고 탁탁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금방 싫증을 불러일으키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리적으로도 우울함을 조장할 수 있어서 만약 주제가 기쁨과 환희를 느낄 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악한 역을 맡은 사람이 대체로 험상궂게 생겼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못생긴 사람으로 표현함으로 어린이의 인식 속에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 자신의 모습이 못났다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얼굴 표정에서도 섬세함이 떨어져 표정을 보아서 그 상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배경을 표현할 때에도 현장감이 부족하고 사실적인 표현에서도 조금 떨어진다.

예배 시간의 활용 정도는 기존의 예배 순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제한되어 있는 시간 때문이기도 하고 예배의 흐름을 비디오의 내용과 주제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자의 만남인데 비디오라는 시각적인 매체로 인하여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어린이의 의식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비디오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되어져버릴 위험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활용한다면 다소 예배의 형식을 변형해야 한다.

그리고 분반공부 시간에 활용할 경우에 대개의 성경 공부가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이므로 선생님 말씀에 통하여 전달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통하여 학습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해한 것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느끼고 이해한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현숙, 성광교회)

4.3. 비디오 “The Greatest Adventure Stories From The Bible”

제작회사: (주) 에덴 프로덕션

소요시간: 총56분 각 28분(한글, 영어)

4.3.1. 구성

이 비디오는 구약 10편과 신약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구약에서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요셉과 형제들, 모세,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골리앗, 요나, 사자굴의 다니엘, 에스더 왕비이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등이다.

이 비디오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건과 주요 인물들로 구성하여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약의 구성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 예수님의 탄생, 부활, 기적을 다루고 있다. 구약은 주요 인물들로 구성하여 10편으로 되어있다. 이 비디오는 마고, 데릭, 모키 세사 램의 탐험가가 우연히 시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된다. 성서 이야기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성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성서 속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세 사람의 탐험가가 성서의 현장에 가서 성서 속의 주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그들이 와있는 시대에 대하여 설명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현장을 지켜보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많은 사건들을 직접 참여시켜 성서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아이들에게 전해 주고 중간 중간에 성서 속의 인물이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쉽게 설명해 아이들이 성서 속의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 사건이 일어나는 과거를 자주 반복함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몇 편의 비디오는 너무 많은 부분이 설명식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비디오가 우리말 녹음과 영어 자막본을 동시에 한 비디오에 실음으로 인해 성경교육뿐만 아니라 영어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비디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비디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을 알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각 비디오에 대하여 내용 요약까지 되어 있어서 비디오를 보는데 선이해를 제공해 준다.

전체적인 색채는 여러 가지 색채를 사용하여 배경이 칙칙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밝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가끔 색채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여 혐오스럽게 표현된 부분도 있으므로 색채의 조절과 그림의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피의 색깔이 너무 진하고 그림 표현도 이상하여 혐오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주인공의 세 사람의 눈이 너무 찢어진 눈으로 무섭고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그림이 섬세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그려져 있어 디즈니 만화의 섬세하고 생동적인 그림에 길들어 있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더 섬세하고 생동적으로 그려지면 좋겠다.

4.3.2. 분석

전체적으로 성서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짧은 비디오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보니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든다. 한 비디오에 많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 하기보다는 한가지 내용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화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경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성경구절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 성서의 의미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성경구절이 아이들에게는 딱딱하게 들리고 만화의 대사로 사용하기에는 어색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구절을 대사로 인용할 때는 성서 내용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사람이 성서 탐험이 탐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성서 탐험 속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느낀 점을 나누는 내용을 넣어준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비디오의 내용적인 정리가 더욱 잘 될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영어 자막본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성서 이야기와 더불어 영어공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 녹음이 끝나고 영어 자막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영어공부가 효과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어 자막본을 영어녹음을 하고 한글자막을 넣어준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시간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한정된 예배시간에 비디오도 보여주고 비디오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이용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등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공과공부 시간에 이용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공과공부 시간에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 단순히 듣는 교육이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책으로만 배우는 시간보다는 더욱 흥미롭고 효과적인 공과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배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제작 할 때에 핵심적인 성경 내용을 넣으므로 하여 시간을 단축하여야 예배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화, 대전중앙교회)

4.4. 비디오 “The Animated Stories From The Bible”

제작회사 : AVACO

소요시간 : 25분

4.4.1. 구성

이 비디오는 구약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Abraham and Issac, Samuel, Elisha, Nehemiah, Joseph in Egypt, Daniel, David, Ruth, Elijah, Esther, Solomon, Moses로 구성되었다. 어려서부터 배워 온 구약 성경 속의 인물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 사무엘, 엘리사,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다윗, 룻, 엘리야, 에스더, 솔로몬, 모세를 다루고 있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 단순히 인물만 다룬 전기문 같은 느낌이 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인물(주인공)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비디오의 색채는 대체적으로 선명한 원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시각에 흥미를 줄 수 있다.

4.4.2. 분석

그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단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을지문덕 같은 위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보면, 요셉이 고백했던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빠져 있는 이러한 성서만화 비디오는 위인전을 다루는 일반 만화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어 줄 때, 어린이들로부터 ‘나도 ~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보다는 ‘나도 ~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고백을 유도 할 수 있다.

성서에서는 설명되어지기 힘든 부분을 ‘그림’이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인물의 심리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화난 모습, 질투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등).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사라와 하갈이 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과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을 시기하여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서 절정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준 것도 좋았다. 산 제사로 드리워질 이삭이 자신이 죽을 칼을 가지고 오는 모습 중에서 칼과 이삭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 이러한 것은 어린이들로부터 순간적이거나 아브라함의 갈등과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분반공부 시간이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25분이나 되는 비디오를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주위의 여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 만화 비디오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 교회에 국한될 것 같다.

분반공부보다는 예배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실정에는 더욱 적합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예배시간 1시간 중에서 25분을 소요한다는 것은 특별한 행사 주간이 아니고서는 활용하기가 힘들다.

일반 만화비디오가 손쉽게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서 만화 비디오도 손쉽게 구해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성서교육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즉,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서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4.4.3. 방향 제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를 하는 비디오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어린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신선함을 주거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의 이야기 구성을 재배열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총리가 된 요셉’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첫 장면은 바로 왕의 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재배열의 문제는 어린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란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인물 위주로 할 것인가, 사건 위주로 할 것인가, 인물과 사건을 모두 다룰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용 전개에 있어서 산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림면”에서 보면 일단 그림은 어린이들에게 시각적 흥미를 주는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듣고 읽는 성서 말씀에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림’이라는 시각자료를 통해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물들의 성격, 기분상태, 갈등 관계 등을 그림으로 섬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첨가’, ‘강조’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구성면”에서 보면 주제에 적당한 구성을 선택해야 한다. 즉, 인물을 중심으로 해야만 주제의 전달이 좋은지, 아니면 과정을 중심으로 해야만 이야기의 흐름이 좋은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의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구성이 잘 되어야 내용의 산만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성서 만화 비디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비디

오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재 우리 교회의 실정으로는 예배시간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할 시에는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교회성서교육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 그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한 인물(하나님, 주인공)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본 이야기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간단한 경건의 내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

(배선희, 서대전교회)

5. 성경 CD-Rom

제목: CHILDREN'S BIBLE STORIES

5.1. 구성

이 CD는 COMPTON'S NEWMEDIA에서 1996년에 윈도우95, 윈도우3.1, 매킨토시에서 운영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최소 사양은 486DX/50MHZ이고 윈도우 3.1이상에서 실행되며 DOS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680×480의 256 칼라에서 실행되고 그 이상의 16비트 칼라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되는 속도는 빠르지만 현대의 높은 그래픽 카드 사양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D는 아이들이 보기에 편하고 친근한 느낌을 가지도록 그림을 부드럽게 그려 넣었다.



1

CD를 넣었을 경우 아래 [그림1]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특별히 윈도우의 탐색기를 실행시켜서 CD를 인스톨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인스톨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CD를 실행시켜 보면 인스톨할 필요 없이 CD에서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2]와 [그림3]은 차례에 속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나타난다. 구약성서와 신약 성서를 나누어 놓았고, 여기를 살펴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알 수 있

며, 두루말이 형식으로 성경이야기 진행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의의 한 이야기를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게임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2]는 이 CD가 구약 성서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는 천지창조, 에덴동산, 노아의 방주, 바구니 속의 모세, 약속의 땅, 홍해의 갈라짐, 십계명,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골리앗, 여리고의 성벽, 드보라의 노래, 요나와 고래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서 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

만 구성이 되어있어 단순한 편이 있다. 그래서 한번 쓰고서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다.

[그림3]에서는 신약성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 비유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으며 천사의 방문, 구유 안, 양치기와 현명한 사람, 산 위의 예수, 빵과 물고기, 예수의 물위의 걸음, 선한 사마리아인, 마리아와 마르다, 방탕한 아들, 최후의 만찬,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림2]와 [그림3]에서는 아이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그리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구성이 기존에 나와있는 CD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유발하게끔 접근하는데 비해 성서 이야기와, 하나의 게임으로

[그림4]는 구약성서의 이야기 중 요나의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다. 주변에 귀여운 동물들을 그려놓고 두루마리 속에 요나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여러 가지 기능(소리, 도움말 등)의 설정 두루마리가 있으며 다시 들을 수 있는 반복 기능이 우측 상단에 자리잡고 있다. 글씨와 함께 소리를 제공하여 글을 읽어주며 배경소리는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루말이 옆의 화살표를 눌러야만 넘어간다. 다음 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동 스크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키보드 또한 쓸 수가 없다.



4

다.

그리고 구약 성서 이야기의 모든 배경 그림은 위와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 하나의 그림으로 통일이 되어있어 단순하다.



5

[그림5]는 GAME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그림이다. 게임의 방법은 4개의 두루말이를 4명의 게임자가 주사위 놀이를 통하여 먼저 다 모으면 승리를 하게 된다. 게임자의 모양을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퀴즈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야기를 복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말판 뒤에 있는 배경 그림이 변화하므로 게임을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다.

5.2. 분석과 방향 제시

성서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꾸며 놓은 것은 참으로 잘 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 식으로 풀어쓰려

고 노력하는 바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그림4]의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이방 백성(니느웨)을 무서워해서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성경에 의하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싫었다.), 성서에 나오지도 아니한 고래를 등장시키고 있다(성서에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표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며, 더 나아가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CD는 성서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꾸며 놓았다. 그러나 성서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 식으로 풀어쓰려고 노력하는 바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그림4]의 요나 이야기는 요나가 이방 백성(니느웨)을 무서워해서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성경에 의하면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싫었다.), 성서에 나오지도 아니한 고래를 등장시키고 있다(성서에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표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성에 있어서 단순함 감이 있다.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마우스 버튼으로 책장을 넘기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자칫하면 상실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배경 그림 속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숨겨 놓아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였을 때 보충설명을 해 주든지,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야기식으로 설정하여 학습자의 재미와 지식을 전달하는 배려를 해서 다양성을 주었다면 더욱 좋은 학습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셋째, 소장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조금 아쉽다. 대개의 경우 이 CD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학습자의 보호자들에 의해서라 할 때, 조금 더 많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단순히 동화를 읽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다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소장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CD를 단어 공부라든지,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분명 더욱 오랫동안 소장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다.

(김성진, 빈들교회)

어린이 성경의 번역과 편집의 방향

손삼권* 종합정리

1. 머리말

이 글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어린이 성경 제작”을 위한 연구 작업을 종합하는 것이다. 앞에서 탐구한 4인의 연구를 근거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이 성경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가름하고자 한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¹⁾는 성경의 어떤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 성경의 발췌 내용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연구 범위로 인하여 전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고 창세기를 중심으로 발췌 본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ICB, GNB, CDB의 문학적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산문과 운문의 처리 내용, 각 성경들의 구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발췌 본문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종교심리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자인 강희천은 “아동기의 종교심리: 아동을 위한 성서 편집을 중심으로”²⁾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종교심리학자들의 종교적 사고를 요약하였고, 어린이들이 종교적 언어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종교심리학적으로 밝히려 하였다. 특히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과제인 ‘비유, 은유, 신화’에 관한 종교심리학적인 입장을 소개하였고, 이에 따른 성경 번역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김희자의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³⁾이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한 교회 현장의 조사와 번

*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 기독교사상 주간.

1)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6 (2000), 7-27.

2)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성경원문연구』 6 (2000), 28-52.

3)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 (2000), 53-88.

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어린이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조사, 해외의 기존 어린이 성경(13권)의 분석, 그리고 성경 번역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연구는 본인의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⁴⁾이다. 이 연구는 성경의 본질은 ‘만인이 읽을 성경’이라는 전제아래, 어린이들이 성경의 가독성을 위한 교육적 근거와 제한, 그리고 어린이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즉 구약문학, 종교심리학, 현장 분석, 그리고 성경의 가독성의 차원이었다. 이 연구 작업 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1999년 12월 11일에 연구 내용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는 것이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전 내용을 다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하느냐”라는 것이다. 즉 이 논의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난해한 내용을 다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시청각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문자로 된 성경을 제시해야만 하는가”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문화와 어린이들의 삶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린이 성경보다는 멀티미디어를 겸비한 ‘시청각적 성경’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토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다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성경전서’는 어린이들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경을 읽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멀티미디어 시대이지만 문자로 된 어린이 성경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문자로 된 어린이 성경이 개발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어린이 성경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보고는 이 두 가지 결론적인 입장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2. 전체 성경과 발췌 성경 문제

2.1. 어린이의 성경 번역의 문제점

4)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성경원문연구』 6 (2000), 89-113.

어린이들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⁵⁾ 성경 읽기와 이해의 어려움은 첫째로 “성경언어의 난해성”이라 할 수 있다. 즉 ‘2천여 년의 교회 전승과 신학적 성찰’, ‘독자의 삶’, ‘성서 기자와 독자의 세계의 격차’라 할 수 있다. 이 난점은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비유, 상징적 표현, 추상적 개념, 한자어, 종교적 언어, 은유적 개념, 문화적 개념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과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를 어린이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개념을 획득하고,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⁶⁾ 특히 어린이들은 책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야기는 특별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⁷⁾

둘째로, 어린이들은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은 “종교심리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강희천의 보고에 의하면, H. D. 라이트와 W. A. 코프(1964)와 R. 비아넬로(1970)는 어린이의 ‘하나님의 개념’이 연령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개념’(K. 타미넨, 1974)과 M. A. 존슨(1973, 1974)의 ‘종교적 성향’ 연구에서도 아동의 종교적 성향이 연령과 교회 출석, 신앙 교육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은유, 신화’에 대한 이해는 나이 차, 남녀 차가 현저하여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으로 등장한다.⁸⁾ 특히 어린이들은 ‘사회화된’(socialized) 언어보다는 ‘자기 중심적’(ego-centric) 언어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어 이해에 제한이 많다. 이것은 그들이 논의나 추상적 사고, 인과적 논리를 추론하기보다는 사고의 사실적인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⁹⁾ 이것을 달리 말하면, ‘비방향적 또는 자폐적 사고’(undirected or autistic thought)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자기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5) *Ibid.*, 99-105.

6) Jerome W. Berryman, "Faith Development and the Language of Faith," *Handbook of Children's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2), 22. 종교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위한 훈련이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언어를 통하여 비유, 종교적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의식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7) F. Rossman, "Preschoolers' Knowledge of the Symbolic Function of Written Language in Storyboo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80).

8)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29ff.

9) Jean Piaget, *The Language and Thought of the Child* 「아동의 언어와 사고」 송명자, 이순형 역(중앙적성출판사, 1988), 104-112.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와 이해의 난점은 어린이들이 “삶과 경험의 제한성”이다. 독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들의 성별, 인종, 국적, 지위, 수준, 나이, 가정환경, 관심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¹⁰⁾ 이것은 강희천의 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다. 어린이들의 ‘비유 이해’, ‘은유 이해’, ‘신화 이해’ 등에서 그들의 연령, 남녀 차, 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경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들의 미성숙한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¹¹⁾

여기서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제작하느냐, 아니면 기존 성경을 제공하느냐가 문제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대체로 어린이 성경을 세 가지 형태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이야기 성경’, ‘발췌 성경’, 그리고 ‘성경전서’이다.

2.2. 이야기 성경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성경 이야기와 인물을 중심으로 ‘어린이 이야기 성경’(Story Bible for Children)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들이 그 동안 이야기 성경은 많은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들이 발간되었다.

<이야기와 그림 성경>

Doris Rkker, Jean Syswerder, 「바울 그림 성경」 바울, 1995.

Elia Taniguci, 「그림과 함께 하는 이야기 성경」 김명수 역, 성민당, 1999.

Gibert Beers & Ronald A. *The Big Bok of All-time Favorite Bible Stories; Childres's Bible: Words of Wisdom*, Hong Kong Bible Society, 1993

Marian Schooland, *Marian's Big Book of Bible Stories*, Eerdmans Pub. co., 1975

Rolf E. Aaseng, *Augsburg Story Bible*, Augsburg, 1992

Shalina Hastings, 「성경전과」 홍성사, 1998.

Stories of Bible, American Bible Society, 1987

10) David Robert Ord & Robert B. Coote, *Is the Bible True?: Understanding the Bible Today*, 52.

11)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9-45.

The Daughters of St. Paul, *The Bible for Children*, St. Paul Editions, 1985
Walter Wangerin Jr., *The Book of God for Children*, Zondervan Pub. House, 1997.

「모퉁이들 그림 성경 이야기」 모퉁이들, 1999.

「예쁜 이야기 성경」 모퉁이들, 1999.

「지혜 성경(잠언)」 아가페, 199

길버트 비어스, 테리사 와쉬, 「귀염둥이 성경」 아가페, 1994.

김소진 그림, 「크레파스 성경」 모퉁이들, 1999.

류은진 그림, 「아기 사랑 성경」 모퉁이들, 1989.

마이크 매독스, 「그래픽 바이블」 고진하 역, 문학동네, 1993.

맥 토마스, 두란노 Baby 그림 성경」 두란노, 1997.

유은진, 우지영 그림, 「리틀 구약/신약」 모퉁이들, 1999.

전영택, 이봉구, 최효섭, 유영희, 「어린이 성경」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62.

전혜령 그림, 「아름다운 성경」 모퉁이들, 1999.

정중화, 「명화로 엮은 이야기 성서」 동양출판사, 1968.

캐린 헨리, 페나스 데이비스 그림, 「두란노 어린이 그림 성경」 두란노, 1992.

팀 우드, 제니 우드, 「주머니 속에 꼬마 성경」 홍성사, 1998.

패트 알렉산더, 레온 백스터, 「꿈나무 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7.

<만화 성경>

David C. Cook, 「재미있는 만화성경」 생명의 말씀사, 1997

리비 워드, 짐 파케트, 「만화성서대전」 홍성사, 1994.

이 책의 형태는 어린이의 언어로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성경 이야기나 인물’을 중심으로 동화나 이야기 혹은 만화 중심으로 각색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나 인물, 성경 전체의 구성을 쉽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이야기 성경’의 필자는 그 자신의 신앙적 견해 안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과 심리와 문학적인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성경의 방대한 분량을 중요한 이야기와 인물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중요한 사건 이야기 또는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성경”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야기 성경’

집필자의 신학과 문학적 소양에 따라서 그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이야기 성경은 집필자의 안목으로 어린이 성경을 집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성경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이야기’라는 장르가 번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와 문학적 상상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성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독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과정을 통해서 만남과 신앙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나 인물을 이해하는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야기 성경은 성경 본문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 깨닫는 통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성경 이해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들려 줄 수는 있지만, 공예배(公禮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야기 성경’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읽거나 소수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읽는 데 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2.3. 어린이 발췌 성경

‘이야기 성경’이 지니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성경과 직접 만나도록 돕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진일보한 것이 “발췌 성경”이라 할 수 있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의 심리와 삶의 상황에 맞추어 성경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순서대로 정렬한 것이다. 이 형태의 성경은, 이야기 성경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문학적·신학적·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등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 성경으로 출간된 것은 다음과 같다.: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

Mary Batchelor, *The Children's Bible in 365 Stories*, Lion Publishing, 1985
Kohlenberger III, John R. & Noel Wescombe, *Amazing Book*, International Bible Society, 1991.

그러나 발췌 성경을 개발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어떤 부분을 발췌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발췌 본문 연구’를 위촉하였다. 이 부분의 연구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맡은 임동원은 구약신학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발췌본문의 문제를 다루었다.¹²⁾ 그의 연구에서 두 성경의 발췌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과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에서 창조와 타락 이야기의 발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he Good News Children’s Bible	The Children’s Daily Devotional bible
1)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태초에	
창조이야기(1:1-2:3)	창조이야기(1:1-16)
	짐승과 사람(1:24-2:4)
에덴 동산(2:8-9, 15-17)	
인류가 범죄하다	
첫번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3:1-13, 22-23)	첫 번째 죄(3:1-13, 20-24)
가인과 아벨(4:2-7)	가인과 아벨(4:1-11)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4:8-14,16)	

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 발췌와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 1-2: 3까지 모두 사용하였는데, 후자는 창조 이야기를 1: 1-16에서 끝내고, 짐승과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본문(1: 24-2: 4)을 따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후자는 삭제하였다. 또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전자는 ‘네 아우가 어찌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도 이러한 발췌와 편집의 차이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편집자의 신학과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의 신학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신학적 접근은 피하겠지만, 발췌 성경의 문제점은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발췌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한 신학적 작업이 요청되는 일이다.

둘째로 발췌 성경의 경우에는 발췌 본문의 신학적 조명과 어린이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의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치명적인 오해소지가 있는 본문(예, 하나님의 심판, 다윗의

12)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7-27

간음 사건 등)은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서 신학과 심리학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청되어야 한다. 골드만(R. Goldman)은 어린이들의 종교심리학적 입장에서 성경의 범위를 소개하였다. 그는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¹³⁾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 5-7세)는 성경의 “생활 중심”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과 생명,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예배참여, 아동의 욕구, 즉 안전에 대한 욕구, 환상과 재미에 대한 욕구 등이다.

유년기(Middle Childhood, 7-11세) 초기는 가정, 친구, 애완동물, 우리를 돕는 사람, 목자와 양, 손, 다리, 옷, 조반 식사, 시간, 씨앗, 생일 파티 등 생활 내용으로 아동을 만나고 도와주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 양(양치기, 양의 하루, 선한 목자 등)을 다루는 성경이다. 그리고 후기는 가정과 관련된 내용(예수님의 가정, 유목민, 피난민, 롯의 가정 등), 방학, 노래, 음악, 시, 우유, 불, 선물, 빵, 4계절, 여행, 처음과 나중 등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내용 등이다.

후기 아동기와 전청소년기(Late childhood and pre - adolescent, 11-13)는 성경에서 ‘생활 중심 주제’인 나 자신, 창조, 빛, 물, 소리, 공기, 법과 질서, 이름, 이야기 등이며, ‘종교적·성서 중심 주제’인 성경의 본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루는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발췌 본문의 문학적 장르의 문제가 있다. 임동원은 창세기의 경우에 산문과 운문의 명확한 구별과 번역이 성경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였다. 성경에는 신학적인 설명, 법문, 역사, 서사시, 서정시, 드라마, 비유, 은유, 격언, 연가, 서간문, 그리고 묵시 등의 다양한 문학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성경의 문학형식(장르)의 고유성을 살리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강희천은 비유와 은유가 어린이들에게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S. P. 프랭클린(1928)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비유의 순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에 관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과부의 동전에 관한 비유라 하였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 하였다. 또 G. W. 비히크(1974)의 유비(analogies)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유비, 행위자, 작용 대상 순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연구는 발췌 성경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연령의 차이에서 성경을 다

13)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5-107.

14) 임동원, “어린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발췌 본문에 대한 연구,” 13-18.

15)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9-45.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만을 발췌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다. 즉 발췌 성경을 어린이의 성별,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책을 편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발췌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을 중심으로 전체의 구조를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신학적 과노라마로 구성할 수도 있다.

2) 큰 주제 아래에 연속적인 작은 단위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위대한 영적 자원과 공동체 예배 혹은 개인 예배에 사용되어 온 내용도 포함된다.

4) 어린이의 입장에서 특별한 인간적 관심사(삶 중심)와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다룬 본문을 중요하게 다룬다.

5) 성경의 독특한 주제와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6) 기독교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

7) 어린이들의 종교심리, 어휘, 경험, 문화 등에게 맞는 본문이어야 한다.

8)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문체와 장르를 통일성과 다양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9) 예상 독자인 어린이를 8-9, 10-12세로 정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해야 한다.

10) '불온한'(expurgated)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도록 한다.

2.4. 어린이 성경전서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제공자는 입장이다. 발췌 성경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본문,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전부 읽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다 이해하고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발췌 성경은 성경 전체를 다루지 못하므로 어린이들이 성경과 만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독교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활용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

이 읽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전서를 어린이의 차원에서 번역한 책들이 발간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The Children's Living Bible, Tyndale House Pub. 1987.

John D. Clare, *The Bible Alive*, Zondervan Pub. ouse, 1993.

Walter Wangerin Jr., *The Bible for Children*, Checkerboard Press, 1986.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Sweet, 1986.

Psalty's Kids Bible, N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Larry & Sue, *The Teen Study Bible*,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Read with Me Bible: An NIV Story Bible for Childre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hildrens's Illustrated Edition, American Bible Society, 1995.

‘어린이 성경전서’(Childrens’s Bible)은 어린이의 성경 가독성(readability)에서 언어와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학자들은 어린이들의 읽기 교육에서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주장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험 세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¹⁶⁾ 따라서 어린이들이 이해의 수준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제공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교 교육의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해와 읽기를 통해서 구원과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강희천은 비아넬로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학습 환경적”과 “종교 교육적”¹⁷⁾ 요인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희자의 조사에서 S교회 어린이들의 61%가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고 반응하였다.¹⁸⁾ 이것은 비록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의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의 사회화로 인하여 종교심리와 언어 이해의 제한을 크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6)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8-109; E. Sargent, *The Standard Fifth Reader of First Class Reader*(MA: J. L. Shorey, 1863).

17)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5.

18) 김희자,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56.

우리는 위에서 어린이 성경의 세 가지 경향인 이야기 성경, 발췌 성경, 성경전서를 살펴보았다. 이야기 성경은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기독교공동체에서 낭독하고 학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두 가지 경향, 즉 어린이를 위한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발췌 성경을 개발하는 일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전제된다. 그것은 어린이 성경개발을 위한 신학적 입장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과제는 각 교단의 신학적 견해를 논의하고, 아동의 종교심리적 입장을 정리해야 하며, 그 후에 발췌 본문을 선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린이 성경 번역의 방향

3.1. 번역의 중요성

김희자는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¹⁹⁾ 물론 이 조사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기에 타당도나 정확도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61%의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56%), “성경이 재미있어서”(33%)가 높은 비율로 나왔다. 이 응답자들이 다니는 교회의 성향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S교회라는 교회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응답은 조사대상자의 교회 성향에 의존되는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성향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는 높아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어린이들이 ‘성경이 예뻐서’ 읽고 싶다(1%)거나, 부모(9%)나 교역자(1%)의 권유에 의해서 읽는다는 반응이 저조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출석 교회의 성향과 공동체적인 특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가림할 수 있다.

반면에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읽기가 어려워서’(27%), ‘무슨 뜻인지 몰라서’(22%),

19) *Ibid.* 56-65.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25%)가 나오고 있다. 즉 74%나 되는 어린이들이 성경 내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싫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편집과 구성의 문제는 의외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림이 없어서’(8%), ‘예쁘지 않아서’(0%)로 나타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성경을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는 72%의 어린이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어른들도 성경을 혼자서 읽거나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어린이들이나 중등학생들이 성경을 독학한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김희자의 조사와 강희천의 연구 자료에서 보고한 비아넬로의 “종교 교육의 기간”과 보스의 “교회의 소속의식”²⁰⁾에 의해서 성경이해와 읽기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읽기는 사회적 과정²¹⁾으로 어린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고,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성경 읽기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성경 읽기는 ‘성경의 정보 획득, 성경 언어와 친근성, 기독교 신앙의 체험, 그리고 기독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된다.

J. R. 예츠와 K. W. 린튼(1984)은 성서 번역상의 차이가 그 사용자의 이해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²²⁾: (1) 보수 혹은 진보신학의 차이는 성서 이해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2) 현대판(modern versions) 번역들이 King James Version보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3)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King James Version의 구절보다는 Living Bible과 Today’s English Version의 구절이 더욱 쉽게 이해되었다. (4) 이야기 문학(narrative literature)이 성서번역상의 차이가 의미 차이가 별로 없었다. (5) 성문서의 이해에 있어서는 Living Bible이 King James Version 또는 New English Bible보다 더욱 용이했다. 또 예츠(Yeatts, 1988년)는 King James Version이 다른 성서 번역서보다 쉽게 기억되거나 암송효과가 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이에게 필요하고 맞는 번역이 성경 읽기와 이해에

20) 올바른 읽기를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중재가 풍부해야 한다(G. L. Bissex, *GYNS AT WRK: A Child Learns to Read and Wri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D. Doake, *Preschool Book Handling Knowledge or Book Experience and Emergent Read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tlanta, GA, 1979); D. Durkin, *Children who Read Earl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1966); R. G. Bose, “Religious concepts of children,” *Religious Education*, 2A(1929), 831-837;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5.

21) Miles V. Zintz & Zelda R. Maggart, *Corrective Reading*(IA: Wm. C. Brown Publishers, 1986), 7.

22)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49.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예배나 성경공부 혹은 신앙교육을 통하여 활용하면서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린이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2. 번역의 방향

뉴먼(B. M. Newman)은 어린이의 성경 번역의 원칙을 정확성, 명확성, 수용성, 선택성, 감수성, 경제성, 이미지성이라고 정의하였다.²³⁾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 번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교심리적 입장, 문학적 방향, 그리고 편집과 구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3.2.1. 종교심리학적 입장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동에 관한 정확한 이해이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해온 신학적 인간관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기의 삶과 심리적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신학적 명제가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성인과 구별할 때에는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더불어, 성장(growth) 혹은 발달(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을 이해해야만 그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 관한 연구는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종교적 사고와 인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세기말부터 아동의 종교적 인지활동에 관한 연구는 종교 교육의 방향을 규명하였다.²⁴⁾ 이 연구에 의하면 연령

23) Barclay M. Newman, "Some Features of Good Translation for Children," *Bible Translator* 38(Oct. 1987), 411-418.

24) Ronald Goldman의 "종교적 사고"는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4).; James W. Fowler의 "신앙발달 단계이론"은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Fritz Oser의 "종교적 판단 단계설"은 *Religious Judgment: A Developmental Approach* (Birmingham, Ala. : Religious Education, 1991).;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religious concepts) 형성 과정을 조사한 R. Vianello의 연구는 "Belief in a kind of Justice Immanent in Things: A Revision of the Piagetian Hypothesi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No. 46 (1989); K. Tamminen의 *Existential*

과 성별,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라는 외재적 경험과 환경, 그리고 내재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종교적 사고와 인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은 그들의 일상적 경험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범위는 규정될 수 있다. 심지어 골드만은 성경교육을 ‘생활중심’과 ‘성서중심’으로 구별하고 어린이들의 종교적 인지도에 따라서 성경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²⁵⁾

강희천은 어린이 성경 번역과 편집에서 아동의 “사회환경적 차이”²⁶⁾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을 성인기와의 상대적 비교라는 관점에서 “연령의 차이를 축으로 삼는 선형적/구조적 요인”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아동을 위한 성서 번역과 편집이 새롭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아동기의 종교적 개념의 변화가 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겨나지만, 그것은 사회환경적 차이(이를테면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바로 이점에 있어 한국 아동을 위한 성서 번역과 편집은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형태를 우선 시하는 관습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중시하는 맥락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을 종교심리적인 규정대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어린이 성경의 범위는 극히 제한된다. “아동의 신앙성숙과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다. 강희천은 어린이 성경 번역과 편집에서 “성서적 지식이나 사건을 단순히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성서 편집보다는, 기독교의 중심사상을 아동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²⁷⁾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발췌성경의 경우에는 ‘비유, 은유, 신화’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동들의 인지적 활동과 정서적 활동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가능한 총체적 차원의 ‘신앙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성경 번역에서 강희천 교수가 소개한 아동의 종교심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종교적 지식이나 개념 형성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종교심리학적 차원에서 다음

Questions in Early Youth and Adolescence, Research Reports on Religious Education C5/1988
Institute of Practical Theology, University of Helsinki: Religious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Youth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1991).

25) 손삼권,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 어린이 성경 번역,” 105-106.

26)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51.

27) *Ibid.*, 50.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어린이들의 삶에서 지정의(知情意)의 총체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의 종교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기독교적인 용어, 개념, 비유와 은유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는 데 제한시키는 범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발췌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종교심리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해서 '발췌 성경'과 '성경전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리와 삶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교심리학 연구는 대체로 서구의 조사와 분석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삶과 심리의 입장에서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연구작업이 없으므로, 성경 번역시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심리적 입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독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각 단계에 맞는 성경을 번역이 필요 하지만, 그 단계에 맞는 성경을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독자로 정하는 데에는 논란이 많다. 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인 8-12세(초등학교 1-6학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혹은 중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2학년과 중등학생의 종교심리적 성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5학년(10-12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어린이 성경 번역자들은 어린이들의 사회환경적 차이 즉, 거주지역, 문화, 종교, 교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의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및 교육형태의 차별화에서 모든 계층, 문화, 거주지역, 성별 등을 동일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3.2.2. 문학적 접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안고있는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문학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서

어린이 성경의 문학적인 방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어린이 성경의 문학적 방향

아동의 종교적 언어의 몰이해는 가독성(readability)을 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읽기에서 익숙한 단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편이다.²⁸⁾ 따라서 아동들은 기초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은 어른들의 종교적 사고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능한 아이들의 언어와 종교적 사고 수준에 맞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강희천의 연구보고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언어 이해와 출석률은 학습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교회의 소속의식”²⁹⁾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면, 종교적 언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성경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라 할지라도 읽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자에 의하면, 어린이의 언어적 차원만 고려한다면, 그들의 경험을 제한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어린이 성경을 성인의 언어로 읽히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언어적 종교적 인지 차원과 언어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과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은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린이들이 성경 읽기와 이해를 위한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문체의 기본적 방향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말과 문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체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입말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 문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번역할 대상을 정확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즉 어린이 성경을 읽을 대상을

28) S. Willard, *The General Class Book*(MA: A. Phelps and A. Clark, 1828), iv.

29) 강희천, “아동기의 종교 심리와 성서 이해,” 30-31, 47.

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 체계와 어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성서공회가 어린이 성경을 연령 체계별로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번역 대상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5학년(10-12세)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린이 성경의 종결형과 연결형과 어법, 화법, 존비, 대우체계 등에 대한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한 분야라 생각한다. 성우들의 입장, 국문학적 입장, 어린이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실제 언어 녹취 등을 통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5학년 교과서의 문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그들에게 이미 친숙하기 때문이다.

3) 양식(style)

어린이 성경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이해할 수 있는 문체와 언어를 사용³⁰⁾하면서도 동시에 유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짧고 단순한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서 언급하는 문체의 양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조로운 문장은 흥미를 잃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양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도입해야 한다. 강력한 도입, 풍부한 언어, 다양한 문체, 흥미 있는 그림 및 삽화 등이 요청된다.

-장르는 가능하면 히브리 본문에 부합되는 장르로 번역되어야 한다. 문장의 장르는 대화문, 설명문, 기도문, 인용구 처리, 연설문, 서신, 이야기(혹은 소설), 설명문, 전기 혹은 자서전, 시, 비유, 산문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 '친근성'으로 구어체에 익숙한 문장 패턴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해라” 혹은 “~하시오” 사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존칭은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문장을 쉽게 읽도록 '반복성'을 취한다. 명사/대명사, 동사구/명

30) S. Town, & N. M. Holbrook, *The Progressive Fifth or Elocutionary Reader*(MA: O. Elocutionary, 1856): 오래 전부터 타운은 어린이 교재를 오래 연구하면서 그들의 이해 수준을 넘지 않으면서 의미 있고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G. S. Hillard, *Second Class Reader*(MA: Hickling, Swan & Brown, 1867).

사구, 전체 사고/ 부분 사고, 구체적/일반적/구체적, 직접적 진술/암시, 능동/수동, 비은유적/은유적 표현 등의 다양한 반복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문장 이해를 돕는다.

-문장의 '관계성'을 통해서 전체와 부분, 원인과 결과의 관계, 비유와 대조의 관계 등을 알도록 돕는다.

-비교적 단순한 문법과 구문으로 된 문장으로 10-12 단어를 넘지 않을 것이 좋다.

-문단의 수와 분리, 단락 바꾸기, 페이지의 단어 수, 페이지의 문장 수 등을 잘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별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인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다룬다.

-수식어는 하나만 사용한다.

-가능한 한 적은 음절로 된 단어를 사용한다.

-직접적이고 생생한 문체를 사용한다.

-어린이 성경의 가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문을 큰 소리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호흡, 리듬, 소리, 강약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4) 단어 사용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은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어 수, 음절 수, 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긴 단어일 경우에는 친숙한 단어(어린이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 것)는 좋다.

-독특한 관용어는 반드시 피하고, 빈도수가 적은 어휘도 마찬가지로 피한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추상적인 단어는 적게, 어려운 단어는 설명을 해주고, 관념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야 한다.

-추상적 단어, 새로운 관념, 오래된 관념은 덜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 사건, 개념들을 조금씩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을 다룰 때는 반복 사용하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

-종교적 용어, 전문적인 용어, 문화적 언어 등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단어는 신학적 의미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요소: 현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 대상 등이 의미가 서로 다를 때 현대적 의미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량형(세겔, 규빗 등)의 현대적 환산, 지리적 용어(게네사렛 호수 등)의 통일, 국가명(애굽 등)의 현대적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 용어이지만, 성경과 문화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예, 부르심)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놓칠 수 있는 용어(예, 할례, 창녀)는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3.3. 편집과 구성의 차원

어린이 성경은 그들의 성경 읽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집·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3.1. 자료 제공

-성경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성경 언어를 선이해할 수 있도록 각 책의 개요와 목적 등을 진술해 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해설집 혹은 사전을 제공한다. 해설 및 사전은 특수단어(종교적·사회적·문화적 용어, 동식물 등), 지명, 인명, 관습 등을 다룬다. 사전은 문자 과 의미 획득을 촉진해 준다.

3.3.2. 삽화와 그림 자료

-어린이 성경은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 상징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즉 어린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삽화, 그림,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상징적 자료를 활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즉 “범문화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특별 계층이나 인종, 혹은 특수 문화나 사회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성경은 오늘날 아동들의 “신앙적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한국인의 모습이 “아동을 위한 성서”의 그림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3.3. 책의 구성

마지막으로, 성경 내용의 번역뿐 아니라 어린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지만 어린이들이 성경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어린이 성경의 판형과 활자는 크며, 여백이 많은 것이 좋다.
- 편집기법 활용, 여백, 삽화, 색상 등을 활용한다.
- 성경의 글자가 또렷하고 질 좋은 종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 제본과 편집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멀티미디어와 정보화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술적으로 고감도의 디자인과 제본이 요청된다.
- 성경전서의 경우 전체 분량의 부피와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4. 결어: 남은 이야기

어린이 성경을 개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인이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작업을 위해서 대한성서공회는 어린이의 언어세계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자의 첫 번째 관심은 번역의 정확성과 성서 기자의 생각에 충실해야만 한다. 따라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어휘와 문법적 사항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어린이의 언어와 삶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경 번역은 번역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있을 수 없다.³¹⁾ 따라서 어린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종교심리학, 문학, 신학, 가독성을 위한 방향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상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 발췌 성경 번역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먼저 어린이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과 성서신학자들의 협의하에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31)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기독교문사, 1990), 472-477.

넷째, 어린이 성경 번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신학자, 기독교 교육학자, 언어학자, 어린이 심리학자, 아동 미술가, 사회학자, 고고학자, 성경 복식 연구자, 컴퓨터공학자, 교육공학자, 교회와 학교의 교사, 어린이 등이 동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내다보고, 남북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과제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 아이들의 사회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여섯째, 미래 세대(post N-generation)을 위해서 문자 성경과 함께 듣고 보는 영상 성경, 만화 성경, 비디오 성경, 성경공부를 위한 어린이 CD 성경, 나아가 사이버와 매체 활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성경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박창해*

0. 들어가는 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이 때에, 대한 성서 공회가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어린이를 가정에서 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개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 한 세기가 지났고, 유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한 세기가 지났다. 해방 이후에, 새로운 기독교 교육 이론으로, 유년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로 전환 개편하고, 어린이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오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지마는,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늘 쓰는 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른 성경- 곧, 개역 성경 말씀을 어린이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여 주든지, 교사가 성경 구절을 어린이 말로 고쳐서, 등사하여 준 글을 읽는 데도 있었다.

그런 시기가 지나간 이 즈음에는, 쏟아져 나온 성경 교재는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을 직접 읽는 어린이는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런데, 더러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기는 읽어도,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꽤 많다. 그것은, 어린이 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없음에서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마는, 어린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은 아직도 없다.

우리는 개신교 100년의 역사는 말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이에게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였었다. 우리의

*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 국어학.

어린이 신도들은 어린이 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대한 성서 공회가 어린이 성경을 ‘어린이 말로 번역하려고 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는 일도 된다고 확신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 발전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이가 읽을 성경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 몇 가지 문제를 여기에 적어서 함께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1. 어린이 성경도 원전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읽을 성경도 반드시 원전에서 번역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서 쓴 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믿음에서다. 어린이도 기도하고서,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읽는 동안에, 새로운 영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서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부언할 것이 있다.

1.1. 성경 말씀을 번안하여서 ‘성경 이야기’로 만들지 말자.

어린이 말로 된 성경은, 성경 말씀을 번안하거나 각색하여서, ‘성경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 책과는 다르다. 아동 문학가나, 종교 지도자-교회학교 교사도 포함함-가, 어린이들이 읽어서, 재미를 보게 한다면,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을 지식으로 얻게 하는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학교에서 쓰는 교재로 하여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쉬운 말로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지적 효과를 주려고 함에서는, 성공을 거두는 지는 모르나, 그 것을 성경 말씀으로 믿게 하거나, 그것을 성경의 요절로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성경(줄여서, 어린이 성경)은 원전에서 직접으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여서, 어린이 스스로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1.2. 어린이를 위한 성경은 현대 한국어로서, 어린이가 쓰는 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읽을 성경은, 현대어로서, 어린이들이 일반 가정과 사회에서 쓰는 말로 번역하여야 하고, 어린이의 언어 능력이나 지적 발전에 부합하는 정도의 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성경 원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함에 쓸 기본문의 **문형**을 결정하는 문제와, 그 성경이 지니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문체**를 결정하는 문제와,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에 사용하여야 할 **기본 어휘**를 선정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수적으로 생각하여 볼 문제도 있다. 곧,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 이론과 언어 교육학 이론을 도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의 **문 구조 유형**-문장 유형,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의 유형,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일반 대중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의 표현 유형, 사도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한 말의 문 구조 유형, 사도 바울이 여러 지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의 문체**를 결정하는 일, 그리고, 계시문의 문체 등을 결정하는 일들이 실제의 문제로 있다. 곧, 말의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문체를 결정하는 일이 그대로 우리 앞에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서술문 구조를 써서, 진리를 서술할 때에 조심하여야 할 일은,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를 혼용하는 일**이다. 그런 혼용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능동문과 수동문을 혼용하면, 어린이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어린이의 사고 기능 발전에 지장을 준다. 이런 문제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2. 번역인의 자질 문제

번역인의 언어학적인 자질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논란의 비중이 크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인은 원전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한국어 문법도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문학적인 소양을 쌓은 분이라면,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만일, 그 두 언어의 문법 구조를 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서, 번역할 대상 언어 구조와 한국어 구조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조 문법(對照文法) *contrastive grammar*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론을 미리 연구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전에 있는 문 구조가 한국어 문 구조에는 없거나 그 반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이 다르면, 그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내어야 하기로서다.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이나 족속들이 지니고 있는 생활 문화와 전통 문화가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며, 그 다름은 언어 구조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름의 근본은, 민족들이나 족속들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고 구조 *thought structure*의 차이에서 근원하는 것이므로, 번역인은 그런 사고 구조 연구에 들어서어 있어야 한다.¹⁾

그리고 또, 번역인은 그런 다른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다른 점들이 언어 구조로 나타기로서다.

어린이 성경의 번역문은 번역 대상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할 수 있는 대로 번역문 구조에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번역하여 놓아야, 번역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대상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뉘앙스마저를 번역문 구조에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이다.

3. 기본 문형과 문체와 기본 어휘

어린이를 위한 성경을 번역하려면, 미리 살펴 보아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1) 번역문에 쓸 기본문 구조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을 확정하는 문제와, 2) 원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체를 번역문에 옮겨 올 수 있는 방법과, 3) 번역문에 쓸 기본 어휘의 선정 문제, 등이다. 그리고, 특히, 인칭 대명사의 사용 방식은, 시종 일관한 체계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고서, 번역을 시작하여야만, 번역 시간을 덜 수 있고, 번역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의 신앙 생활과 직결시킬 수 있다.

3.1. 기본 문형- 기본 문 구조의 유형

어린이 성경에서 쓰는 말과 글의 기본문 구조의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은, 물론, 현대의 어린이들이 쓰는 말에서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문법에 관한 언어 지식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²⁾ 그러하지만, 언어학자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지닌 언어 지식을 의식할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그 지식을 어법 규칙으로 형식화하는 일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로 사람의 말은 사고할 때로부터, 그 마음에 기저문 구조로 지니며, 거기에서 생성한 문 구조를 전환 과정을 거쳐

1) Chang-Hai Park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Korean Studies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2) Smith, Neil and Wilson, Deirdre. (1979), *Modern Linguistics -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22.

서, 표출문 구조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 구조는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문 구조는 명사절과 동사절로 이룬다)다. 이것이 기본문 구조다. 이를 기본 문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두 문 절 사이에는, 상대적인 상관성-출여서, 상관성이 내재하여 있다. 이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언어학자는 어법 규칙을 세운다.

언어 교육자들은, 그런 어법 규칙을 지각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을, 말의 기본 문형(基本文型)이라고 한다.

전통 문법 학자나, 응용 언어학자들도 기본문 유형 (sentence patterns)을 거의 같은 뜻으로 다룬다. 그런데, 구조 언어학자라든가, 현대 언어학자가 쓰는 말에는, 핵문 (kernel sentence, nuclear sentence)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기본문 구조 유형들을 비교하여서 다져 보면, 그 문 구조의 유형을 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구조 문법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환원한 평서-능동-타동문을 일러서 핵문이라고 하고, 생성 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능동-평서-긍정문으로서, 명사구 (noun phrase, NP)와 동사구 (verb phrase, VP)로 구성된 표출문 구조를 핵문이라고 한다.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도, 기본 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한국어로 구성된 문 구조에서, 가장 <짧은 문 구조>는 아래의 (1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문 구조일 것이다. 이 문 구조를 구성소의 미의 최소 단위, 곧,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면,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볼 수 있다. 그 문 구조를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본다.

(1) 가. 예문 구조: 바울이 온다.

나a. 문법 범주로 쓴 문 구조: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square 은 문 구조, \square 은 명사절, \square 은 동사절.

나b. 문 구조의 구성 방식:

문 구조의 구성 공식 공식의 해례 - 문 구조의 구성 방식-

1.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문 \rightarrow 명사절 + 동사절
2.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명사절 \rightarrow 어간 명사 + 위치 접미사
3.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동사절 \rightarrow 어간 동사 + 접미사
 \square 은 명사, \square 은 동사, \square 은 접미사.

- \square 의 어간 동사 \square 가 그 앞에 피사어절 \square 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square 는 자동사 \square 임.
- 아래에서는 위에서 보인 단위 기호에 형태소를 { } 안에 대입함.

4. $\square \rightarrow \{바울\}$ 명사절의 어간 명사 {바울}을 대입.
5. $\square \rightarrow \{-이\}$ 그 어간에 위치 접미사 {-이}를 대입.
6. $\square \rightarrow \{오\}$ 동사절의 어간으로 자동사 {오}를 대입.
7. $\square \rightarrow \{-니\}\{-다\}$ 그 어간에 접미사열 {-니}{-다}를 대입.

다. 문 구조 종류

자동문- 바울이 온다. 동사의 통어 소성인 자동성과 타동성이문

구조의 유형을 결정함. 자동문, 타동문, 등.

라. 통어 기능

평서문- 주어절 서술어절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 관계성이
표출문 구조에서는 그 구성소들의 통어 기능으로 나타난.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그 마음에, 문 구조를 이를 어법 지식을 어법 규칙으로 담고 있다. 심중에 있는 그런 어법 규칙을 기호화하여서 적어 보이면, (1나a)에 적은 바와 같은 문 구조의 구성 공식으로 적을 수 있다. 마치 수학에서, $x y = z$ 로 적듯이, ‘바울이 온다.’를 기저문 구조 구성 규칙을 따른 공식으로 적으면, $\square \rightarrow \square \times \square$ (문 \rightarrow 명사절 \times 동사절)이다. 이 기저문 구조 구성 공식을 풀어서 말하면, ‘문 구조는 명사절과 동사절과의 상관 배열³⁾로 이룬다.’다. 그런 공식을 이룬 구성소 기호에다가, 발화인들이 다 그러하듯이, 필자가 임의로, 문 구조를 이를 형태소-어휘를 대입(代入)하여 보면, (1가)의 예문 ‘바울이 온다.’를 얻을 수 있다.

(1가)의 ‘바울이 온다.’를 문 구조 구성 방식으로 살펴 보려고 하면, 이를 분석하여 보는 척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법 범주(語法 範疇) grammatical category다.

어법 범주라고 함은,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는 통어법으로 구성된 문 구조에서 일정한 위치에 나타나며-분포하며, 그 환경으로 있는 다른 구성소(들)과 특징적인 상관성을 지니고서, 일정한 통어 기능을 하는 구성소류 constituent class를 말한다. 이들을 기호화하여서 적으면, $\square, \square \times,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등이다.⁴⁾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문 구조를 살펴 볼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기호화한 문 구조를 놓고서, 거기에서,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유형을 다져 보면서, 그 문 구조의 하위 단위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1나b1)에는, (1가)에 예로 든 문 구조를 문 구조 구성 공식으로 적고서, 그 문 구조를 이룬 큰 단위-上位(上位)範疇의 구성소-문절 구조에서 작은 단위-下位(下位)範疇의 구성소-형태소로 분석하여 내려 가면서, 그 기본문 구조를 어떤 구성소로 이루었는가, 함을 찾아서 살펴 보고, 그 찾은 단위마다를, 그 문 구조 구성 공식에서 쓰는 범주 기호-範疇記號 category symbol로 적는다.

그렇게 적어 놓고서, 그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1나b1)에서와 같이, 살펴 보면, 하나의 문 구조는, 문절 둘의 배열(配列) tactics로 이루어짐을 본다. 이를 문 구조의 구성 규칙으로 말하면, ‘문 구조 \square 는 명사절 $\square \times$ 과 동사절 \square 의 상관 배열-相關(相關)配列 correlative tactics로 이룬다. \rightarrow ’이다. 이 말을 기호화하여서, 문 구조의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square \rightarrow \square \times \square$ 이다. 그것은 곧, [문 \rightarrow 명사절 \times 동사절]이다.⁵⁾ 이런 문 구조의 구성 공식을 문 구조의 기호열(記號列) str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1나b2)에서, 명사절 $\square \times$ 의 구성은 그 문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 noun stem \square 에, 위치 접미사-격 접미사(格接尾辭) case suffix \times 를 배합하여서 이루며, (1나b3)에서, 동사절 \square 의 구성은 그 문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 verb stem \square 에, \times - \times n개의 접미사를 첨가 배합하여서 이룬다. 그런 배합 방식들을 각각 문 구조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square \times \rightarrow \square \times \times$ 와 3. $\square \times \rightarrow \square \times \times$ 이다.

그러므로, 문 구조의 최대 단위는 \square 이고, 최소 단위는 \square, \square, \times 들이다.

동사절 \square 의 구성소 중에, 어간 동사를 기호 \square 로 적으면, 이것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그

3) 상관 배열이라고 함은, 문 구조를 이룬 명사절과 동사절이 그 문 구조 안에서 서로 상대 문절에 대하여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람.

4)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문 구조에 일정한 위치에 분포하였다고 하여서, 그 구성소가 지닌 통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다른 구성소와 다른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그 구성소는 그 문 구조에서 바른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소의 존재 가치, 그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 분포 공존하는 다른 구성소와 공유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 또는 상대성)을 따라서 나타난다.

5) 여기에 쓴 기호 중에서, \square 은 문 구조를, $\square \times$ 은 명사절 $\square \times$ 의 어간 명사를, \square 은 동사절 \square 의 어간 동사를 말한다. 그리고, 기호 \rightarrow 은 ‘이룬다’로 읽는다.

런데, 그것이 자동사 α 이면, 그 동사의 소성은 자동성 α intransivity이므로, 그것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스스로의 통어 기능만으로도 주어의 동작-자동성을 띤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타동사 β 이면, 그 통어 소성이 타동성 β transivity이므로, 이 동사는 문 구조에 분포하면서, 반드시 피사어절 β 를 끌어, 이를 통술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alpha \rightarrow \beta \alpha$ 꼴, 타동사는 공식과 같이 확장한다.

위의 문절 α 와 β 의 구성 공식에서, (1나b4)의 α 은 명사절의 어간 명사-명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한 명사를 말하고, (1나b6)의 β 은 동사절의 어간 동사-동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한 동사를 말한다.

문절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절의 어간에는, 그 어간이, 어간답게,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접미사들을 반드시 첨가하여야 한다. 곧, α 의 어간 α 에는, (1나b5)의 위치 접미사-格接尾辭 case suffix α 가 첨가하여야 하고⁶⁾, β 의 어간 β 에는, (1나b7)의 형식 접미사 形式接尾辭 formative suffix를 위시하여서, 여러 가지 접미사 α 가 첨가하여야만, 그 어간 α 와 β 은, 각각 그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곧, α 에 첨가하는 접미사 α 들은,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의 통술 아래에 있음과, β 에 첨가하는 접미사들 α n은 주어의 통술 아래에 있음을 역력히 말하여 준다.⁷⁾

그러면, (1나b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예문 구조를 의미를 지닌 단위로 분석하여 보면, 예로 든 문 구조(1나b1)는 두 개의 문절(1나b 2, 3)과, 다섯 개의 형태소(1나b 4, 5, 6, 7)로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기호열-종단전기호열 終端前記號列 preterminal string-의 기호에다가, 각각 들어설 수 있는 형태소-어휘-를 대입하여 보면, 형태소로 구성된 종단열 終端列 terminal string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1가)에 보인 예문 구조와 견주어 보면, 동일한 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곧, 명사절의 어간 명사 α 에는 {바울}을, 그 어간에 첨가하는 주어 위치 접미사 α 에는 {-이}를, 그리고, 동사절의 어간 동사 β 에는 자동사 α {오-}를, 그 동사절의 어간에는 시상 접미사 α {-니}과 형식 접미사 α {-다}를 대입한 것이다. 그렇게, 최종 기호열-종단전기호열-의 기호들에다가, 그들이 지닌 통어 소성에 알맞는 형태소를 대입하고서, 보면, 남아 있는 기호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곧, 문 구조의 분석이 바른 결과를 가져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문 구조를, 서술어로 분포한 동사의 통어 소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 보면, (1다)에서 처럼, 문 구조에는, 자동문 구조 α 와 타동문 구조 β 가 있음을 본다. 곧, 자동사 α 가 문 구조에 서술어로 분포하면, 그 문 구조를 자동문 구조라고 하고, 타동사 β 가 그 문 구조에 서술어로 분포하면, 그

6) 명사절 α 의 구성은 문절의 어간 명사에 위치 접미사를 첨가 배합함으로 이루는데, 이를 공식으로 적으면, $\alpha \rightarrow \alpha \alpha$ 와 같다. 그런데, 명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에는 위치 접미사와 통용 접미사가 있다. 위치 접미사는 서술어의 통술 아래에서, 문절의 어간으로 쓰인 명사가 문 구조에서 차지하는 분포 위치와 통어 기능을 보여 줌과 함께, 그 접미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그 어간에 더하여 준다. 가령, 명사절의 어간 명사가 '복음'이라면, 그 어간 명사 '복음'은, 서술어와 상관 관계성 correlative relations을 가진 위치 접미사가 자기에게 와서 첨가함으로, 그 위치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그 어간 명사는 주어, 주제어, 소속어, 피사어, 시처어(부사어) 중의 한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곧, 서술 동사의 통술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가 지닌 통어 속성을 따라서, 그 어간 명사는 문절어-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간	접미사	접미사의 통어 기능	서술어의 통술 아래에서 분포한 접미사의 위치
이	이	- 주어 위치 접미사	- 주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은	은	- 주제 위치 접미사	- 주제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복음	의	- 소속 위치 접미사	- 소속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을	을	- 피사 위치 접미사	- 피사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에	에	- 시처 위치 접미사	- 부사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그리고, 통용 접미사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에 첨가되, 때로는 일정 규칙 아래에서, 위치 접미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그 접미사가 지닌 의미를 그 어간에 더하여 주고, 때로는 그 의미만을 그 어간에 부가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동사절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을 놓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7) 이런 통어 이론을 놓고서는 다음 항목에서 보임. 필자의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시기 바람.

런 문 구조를 타동문 구조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동사 ㄷ가 지닌 통어 소성-자동성 ㄷ과 타동성 ㄷ이 그런 문 구조를 이루는 통어 요소가 되기로서다.

그리고, 그 문 구조를 통어 기능면으로 보면, 평서문 구조로 구성된 ‘바울이 온다.’인데, 그것은, (1라)에서처럼, 주어절 ㄷ과 서술어절 ㄷ의 상관 배열로 이룬다. 주어절의 구성은, 그 주어절의 어간 명사로 분포한 주어에, 주어 위치 접미사-격 접미사/격조사가 첨가함으로 이루며, 서술어절의 구성은 어간 동사로 분포한 서술어에, n개의 접미사, 곧, 존대, 시칭, 양식 접미사, 형식 접미사,들이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 첨가하여서 이룬다.8) 그런데, 그 접미사들이 동시에, 모두 다, 그 어간에 첨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끼리만,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그 어간 동사에 첨가 배합한다.

문 구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동문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인 문 구조에 분포한 동사절 ㄷ의 어간 동사 ㄷ가 들어설 위치에, 타동사 ㄷ가 분포하면, 그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은 타동문 구조로 다음의 (2)와 같이 전환한다.

(2) 타동문 구조의 구성 방식:

가. 예문 구조 :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였다.

ㄷ ㄷ ㄷ

- 나. 1. ㄷ → ㄷ ㄷ ㄷ 문 → 명사절 + 피사절 + 동사절
- 2. ㄷ → ㄷ_위 명사절 → 어간 명사1 + 주어 위치 접미사
- 3. ㄷ → ㄷ_위 피사절 → 어간 명사2 + 피사어 위치 접미사
- 4. ㄷ → ㄷ_격 동사절 → 어간 타동사 + 시칭 접미사 + 종결 접미사

아래에서는, 위에서 보인 단위 기호에 들어설 수 있는 형태소를 대입한다.

- 5. ㄷ → {바울}
- 6. ㄷ_{위1} → {-이}
- 7. ㄷ → {복음}
- 8. ㄷ_{위2} → {-을}
- 9. ㄷ → {선포하}
- 10. ㄷ → {-았}{-다}

- 다. 문법 범주: 타동문 ㄷ ㄷ ㄷ
- 라. 통어 기능: 평서문 주어절 피사어절 서술어절

(2)를 보는 방식은 (1)을 보는 방식과 같다. 그러므로, (2가)의 예문 구조를 분석하여 본다. 문 구조의 최종 기호열과, 그 기호열에 들어설 수 있는 소성을 지닌 형태소를 대입하면, (2나5~10)에서처럼, 종단열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다)에서, 그 예문 구조를 문법 범주로 살펴 보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주명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라)에서, 그 범주에 해당하는 최종 기호열을 이룬 기호들에, 대

8) 문절의 구성을 형태소 배합 방식으로 보고서, 그 두 문절의 구성 방식을 문절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바울이] → {바울}{-이}, [온다] → {오}{-니}{-다}. 곧, 명사절의 어간은 명사 {바울}이고, 동사절의 어간은 동사 {오}다. 여기에서 명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절의 어간으로 들어선 형태소만을 이룬다. - 여기에서는, 학교 문법 이론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동사 {오}를 본다.

입할 수 있는 형태소를 대입하면, 종단열을 얻음과 동시에, 이들이 지닌 통어 기능이 어떠한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문 구조로 있는 자동문 구조의 통어 특징과 타동문 구조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보면,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다름을 알려고 하여서, 우리는 (1나)에 보인 문 구조 구성 방식과 (2나)에 보인 문 구조의 구성 방식과를 아래의(3)에서 비교하여 본다.

(3)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의 비교:

A 문 구조 구성 공식	B <u>표출문 구조로 나타난 예문</u>	C <u>문 구조의 종류</u>
가.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square$	바울이 온다.	자동문 구조
나.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square \square$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다.	타동문 구조

(3가)와 (3나)를 비교하여 보면, 문 구조를 이룬 문절 가운데, 전자에 전주어서, 후자는 \square 을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은 (2)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3가)에 예로 든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가 자동사이므로, 주어나 행동주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그 자동사가 지닌 통어 기능만으로도 넉넉히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3나)에 올린 예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자기의 서술 기능만으로는 주어나 행동주의 동작이나, 상태나, 존재, 등에 대하여서 서술하지 못하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줄 보어나, 보어절이나, 보완문-complements-을 필요로 한다.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하여서, 서술 동사는 그 보완 문절로 피사어절 \square 을 끌어들이어서, 이를 통솔함으로, 그와 함께 확장 서술동사 \square 를 이룬다. 그런 구절을 표출 언어로 나타내면, [복음을 선포하]가 된다. 곧, 서술 동사가 그와 같은 확장 동사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야, 그 확장 서술 동사는 주어의 동작, 등을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기본문 구조에는, (3가)와 (3나)와 같은 두 가지 다른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가)와 (3나)의 문 구조 둘을 현대 언어학에서는, 기본문 구조 하나로 종합하여서, 아래의 (4)와 같이, 적을 수 있다.

(4) 기본문 구조의 구성 공식: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square$$

위의 기본문 구조를 구성하는 공식에서, (\square) 에다가 괄호를 쳐 놓았음을 본다. 괄호는, 그 다음에 있는 동사 \square 가 지닌 통어 소성을 따라서, 피사어절을 끌어들이어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피사어절을 끌어서 통솔하지 않는 동사의 통어 소성이 자동성 \square 을 띠고 있으면, 곧, 그 동사가 자동사이면, 피사어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문절은 괄호에 묶여 있는 것이므로, 그런 문절을 이룬 기호들에는, 형태소를 대입하지 않는다. 곧, 그런 문절은 그 문 구조에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그러나, 그 서술 동사가 타동사이면, 그 동사가 지닌 타동성 \square 을 보완하여 주어야 하므로, 그 서술 동사는 피사어절을 반드시 끌어서, 이를 부려야 한다. 그럴 때에는, 그 문 구조 구성 공식에서 괄호를, (3나)의 공식에서와 같이, 벗겨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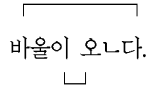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적어 놓고서 보면, 단순한 기본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의 구성 공식은, (3)에서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둘을 하나로 종합하여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점이 현대 언어학 이론의 강점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보인 문 구조 구성 공식을 문 구조 구성 구조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5) 가. $\square \rightarrow \square\alpha (\alpha\alpha) \square\alp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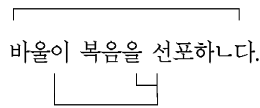
나1. 자동문 구조의 구조도

$\square \rightarrow \square\alpha \square\alpha \dots$ 이것은 자동문 구조이므로, 공식에서 $\alpha\alpha$ 을 괄호를 쳐서 줄였다.



나2. 타동문 구조의 구조도

$\square \rightarrow \square\alpha \alpha\alpha \square\alpha \dots$ 이것은 타동문 구조이므로, 공식에서 $(\alpha\alpha)$ 의 괄호를 벗겼다.



(5가)는 앞에서 예로 든 예문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 공식을 보인 것이고, 그 공식의 예문을 구조도 위에 올려 놓고서, 문을 이룬 문절과 문절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 줄여서, 상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을 상관성 선으로 그려 보이면, (5나1)와 (5나2)와 같다.9) 그 상관성은 주어와 서술어가 상대어에 대하여서 기능하여야 할 통어 기능의 향방을 상대성 선으로 보여 준다.10)

그런데, 문 구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 구조 구성 방식 이외에도, 문 구조에 들어서는 구성 소들이 있다. 그것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피사어로 쓰는 명사의 개념의 범위를 한정(限定)하여 줄 구성소들과, 서술어의 개념을 한정하여 줄 구성소들이 있다. 이들을 한 데 묶어서 보이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공식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위에서, 명사절과 동사절의 구성을 말할 때에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부언한다.

곧, 아래의 한정어(限定語 *attributive*/한정절(限定節 *attributive phrase*/한정문(限定文 *attributive sentence*들이 문 구조 구성 공식11)에 들어서는 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침을 말하여 둔다. 이들도 문 구조에 분포한 어간 명사의 확장한 문절어-어간 명사의 확장한 어간 명사이나, 어간 동사의 확장 문절어-어간 동사의 확장한 어간 동사의 한 부분들이다.

그런 확장 문절어의 구성 방식을 문절어 확장 공식으로 살펴 본다.

아래의 (6)에서, 좌편에는, 문절의 어간 명사나, 어간 동사를 확장하는 방식을 문절어의 확장 공식으로 적고, 그 우편에다가는, 그 공식을 이룬 기호에다가, 그 기호가 지닌 소성에 부합하는 형태소-어휘를 각각 대입하여 본다.

(6) 가. 확장 명사의 구성 공식과 그 예:

<u>확장 문절어의 구성 공식</u>	<u>예</u>
a) $\square \Rightarrow (\alpha/\alpha\alpha/\alpha\alpha) \square$	예로 든 공식에서, 괄호를 벗긴 확장어
a1) $\square \Rightarrow \alpha \square$	그 바울-
a2) $\square \Rightarrow \alpha\alpha \square$	사도인 바울-

9)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10) 필자의 앞의 책을 보아 주기를 바람.

11) 본문에서, ‘한정사/한정절/한정문’ 사이에 들어 있는 사선 / 은 ‘이나’나, ‘또는’으로 읽는다.

a3) $\square \Rightarrow \text{ㅎ}\square\square$ 믿음의 좋은 바울

나. 확장 동사의 구성 공식과 그 예:

b) 공식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ㅏ/ㅎㅓ}) \text{ㅓ}) (\text{ㅓ/ㅓㅏ/ㅓㅓ}) \square$

b1)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ㅏ/ㅎㅓ}) \text{ㅓ}) \text{ㅓ} \square$ 잘 선포하

b2)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ㅏ/ㅎㅓ}) \text{ㅓ}) \text{ㅓㅓ} \square$ 믿음으로 선포하

b3)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ㅏ/ㅎㅓ}) \text{ㅓ}) \text{ㅓ}\square \square$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

b4) $\square \Rightarrow \text{ㅓㅓ}(\text{ㅓ/ㅓㅏ/ㅓㅓ}) \square$ 복음을 () 선포하

b5) $\square \Rightarrow \text{ㅎ} \text{ㅓㅓ}(\text{ㅓ/ㅓㅏ/ㅓㅓ}) \square$ 그 복음을 () 선포하

b6) $\square \Rightarrow \text{ㅎㅓ} \text{ㅓㅓ}(\text{ㅓ/ㅓㅏ/ㅓㅓ}) \square$ 참된 복음을 () 선포하

b7) $\square \Rightarrow \text{ㅎ}\square \text{ㅓㅓ}(\text{ㅓ/ㅓㅏ/ㅓㅓ}) \square$ 자기가 믿는 복음을 () 선포하

b8) $\square \Rightarrow \text{ㅎ}\square \text{ㅓㅓ} \text{ㅓ} \square$ 자기가 믿는 복음을 잘 선포하

b9) $\square \Rightarrow \text{ㅎ}\square \text{ㅓㅓ} \text{ㅓㅓ} \square$ 자기가 믿는 복음을 진정으로 선포하

b10) $\square \Rightarrow \text{ㅎ}\square \text{ㅓㅓ} \text{ㅓ}\square \square$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정성을 다하여 선포하

그러면, 이제, 우리는 (3가)와 (3나)에서 본 기본문 유형의 구성과, (6)에서 본 (6가)와 (6나)의 확장 방식을 한 데다가 모아서, 그 문 구조를 이룬 하위 단위 별로 문절을 분석하여 보고, 그 문절을 이룬 하위 단위 별로 형태소를 분석의 기초 단위로 분석하여 가면서, 그 문 구조의 구성을 살펴 보면, 다음의 (7가1~7)에서처럼, 상위 단위^{上位單位}인 문 구조는 하위 단위^{下位單位}인 문절들의 배합으로 이루고, 그 하위 단위인 문절들은 각각 하하위 단위^{下下位單位}이며, 최소 하위 단위인 구성소들의 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기본문 구조의 구성 방식:

가. 1. $\square \rightarrow \square\square(\text{ㅓㅓ}) \square\square$

2. $\square\square \rightarrow \square\square_{\text{ㅓ}}$

3. $\text{ㅓㅓ} \rightarrow \square\square_{\text{ㅓ}}$

4. $\square\square \rightarrow \square_{\text{ㅓ}}$

5. $\square \rightarrow$ a) $\square \dots \dots \square$ 와 ㅓ 와 ㅓㅓ 의 어간으로 분포함.

b) ㅓ $\dots \dots \text{ㅓㅓ}$ 의 어간으로 분포한 \square 임. 곧, $\text{ㅓ} = \square$

5. $\square \rightarrow$ a) \square $\dots \dots \square$ 의 서술어로, 어간 자동사가 분포함.

b) \square $\dots \dots \square$ 의 서술어로, 어간 타동사가 분포함.

7. $\text{ㅓ} \rightarrow$ a) $\text{ㅓ}_{\text{ㅓ}}$ $\dots \dots \square$ 와 ㅓㅓ 와 ㅓ 의 어간에 첨가함.

b) $\text{ㅓ}_{\text{ㅓ}}$ $\dots \dots \square$ 의 어간에 첨가함.

그런데, 최소의 하하위 단위인 명사 \square 와 자동사 \square 와 타동사 \square 는, 이들이 지닌 그 통어 소성 때문에, 발화에서, 발화인이 필요함을 따라서는, 명사와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출 의미의 범위를 한정(限定)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문절어인 \square 는 한정사나 한정절이나 한정문을, \square 는 부사나 부사절이나 부사문을 끌어서, 그와 함께 스스로를 확장한다. 곧, 그 문절어인 명사는 끌어당긴 한정사/한정절/한정문과 함께 ‘확장 명사’를 이루고, 그 문절어인 동사는 자기가 끌어당긴 부사/부사절/부사문과 함께 ‘확장 동사’를 이룬다. 문절어의 확장도 전환 방식의 일종이므로, 이를 공식으로 표기할 때에는, 전환 기호 \Rightarrow 를 사용

한다.

문절어의 확장 전환 방식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방식을 문절어 확장 전환 공식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공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8) 가. 문절어의 확장 전환 방식:

1. □ ⇒ $\bar{h}/\bar{h}z/\bar{h}o \square$
2. □ ⇒ a) □ ⇒ $h/hz/ho \square$
 b) □ ⇒ $\bar{h}/\bar{h}z/\bar{h}o \square z h/hz/ho \square$

나. 문 구조의 확장 전환 방식:

- $$\square \Rightarrow \begin{array}{l} \text{a) } \square \Rightarrow \bar{h}/\bar{h}z/\bar{h}o \square z h/hz/ho \square z \\ \text{b) } \square \Rightarrow \bar{h}/\bar{h}z/\bar{h}o \square z \bar{h}/\bar{h}z/\bar{h}o \square z h/hz/ho \square z \end{array}$$

다. 문 구조 구성에, 문절 구조의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서 문 구조 하나로 통합함:

$$\square \Rightarrow \bar{h}/\bar{h}z/\bar{h}o \square z (\bar{h}/\bar{h}z/\bar{h}o \square z) h/hz/ho \square z$$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할 것은, (8가1)의 확장 명사가 문 구조에 분포하여서,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주어 위치 접미사, 피사어 위치 접미사, 부사어 위치 접미사 중의 하나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확장 명사 $\bar{h}/\bar{h}z/\bar{h}o \square$ 의 핵이 명사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그 확장 명사는 그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그 문 구조에서, 주어, 피사어, 또는 부사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¹²⁾

그와 동시에, (8가2)의 확장 동사가 문 구조에 분포하려고 하면, 그 문 구조에, 주어로 분포할 명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종결 접미사를 맞음으로서, 비로소, 확장 서술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확장 동사 $h/hz/ho \square$ 의 핵이 동사 □이기로서다. 필요함을 따라서는, 그 종결 접미사 앞에, 태상態相, 존대尊待, 시칭時稱, 겸양謙讓, 시상時相 접미사 중의 더러, 또는, 전부를 끌어서, 부가할 수 있다. 이런 접미사들은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서술 기능’을 보완할 때에 필요함을 따라서, 부가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8가1)과 (8가2)의 확장 문절어가 문 구조에 분포하여 들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 문절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접미사의 첨가를 기다려야 한다. 곧, 확장 명사는 서술 동사의 통솔을 받는 위치 접미사의 첨가를 받아야 하며, 확장 동사는 명사로 구성된 주어-또는, 행동주의 통솔을 받는 종결 접미사, 등의 첨가를 받아야만, 문절어들어, 각각, 그 문 구조를 이룬 문 구조에서, 그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로 쓰이는 명사와 동사가 서로 상대어에 대하여서,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에서다.

이상과 같은 통솔 규칙 아래에 드는 문절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 문 구조에서는, 통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통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 구조는 ‘문 구조의 기본문 구조’로 이룬 기본

12) 이 확장 명사는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를 맞아들임으로, 그 확장 명사는 자기에게 첨가하여 온 접미사의 소성대로 주어, 주제어, 한정어, 피사어, 부사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예를 아래에 든다. 위치 접미사 다음에 보인 주어, 주제어, 한정어, 피사어, 부사어, 등은 확장 어간 명사 ‘사도 바울’의 통어 소성을 보인 것이다. 이 예를 미루어서, 명사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가 무엇의 통솔 아래에 드는가, 함도 알 수 있다.

□ -가	주어로
□ -는	주제어로
사도 바울 □ -의	한정어로
□ -을	피사어로
□ -에게	부사어로

문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갖춘 문 구조로 문장을 이루려는 사람은 문 구조의 구성 규칙을 철저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항목을 마감하면서, (8다)에서 보인 기본문 구조 유형에, 문절 구조의 전환 규칙을 적용하여서 이룬 문 구조의 일반 유형을 예로 든다.

그런 유형의 예를 들려고 하면, (8)에서 보인 문 구조의 유형을 역으로 풀어가면서, 문 구조 구성 공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곧, (8다)의 문 구조 유형을 (8나)에서 보인 바와 같은 해법 두가지로 보려고 하면, 예문을 발화문-표출문 구조로 이루기는 쉬울 것이다. 공식 기호에, 형태소를 대입할 때에는, 공식에서 보는 괄호를 바깥으로부터 벗겨 가면서, 형태소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가면, 표출문 구조를 얻을 수 있다.

(9) 가. $ㄹ \Rightarrow (\text{하/하/하} \text{ㄹ} \text{ } \text{((하/하/하) } \text{ㅅ} \text{ } (\text{하/하/하} \text{ } \text{ㄹ} \text{ } \text{의 해법 두 가지:}$

- a. $ㄹ \Rightarrow (\text{하/하/하} \text{ } \text{ㄹ} \text{ } \text{((하/하/하) } \text{ } \text{ㅅ} \text{ } (\text{하/하/하} \text{ } \text{ } \text{ㄹ} \text{ } \text{}$
- b. $ㄹ \Rightarrow (\text{하/하/하} \text{ } \text{ } \text{ㄹ} \text{ } (\text{하/하/하} \text{ } \text{ } \text{ㅅ} \text{ } (\text{하/하/하} \text{ } \text{ } \text{ } \text{ㄹ} \text{ } \text{}$

나. 위의 공식에, 형태소를 대입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 두 가지:

- a.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은 교회로 곧바로 나왔다.
- b. 진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으로, 우리가 아는 바는, 발화인이 (9나a)에서는, 단순 자동문 구조로 문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한정문 **하**이 주어의 의미를 한정하고, 부사절 **하**이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한정하고 있음을 본다. 또 다른 발화인은 (9나b)에서, 단순 타동문 구조로 문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주어가 표출할 의미를 한정사 **하**와 한정절 **하**를 끝어서 확장하고, 서술어는 타동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사어절 **하**를 끌어들여서, 그 타동성을 보완하고, 서술어의 서술 범위는 부사절 **하**과 부사어 **하**를 끌어, 확장하고 있음을 본다. 타동사가 서술어로 분포하여서, 피사어를 통솔할 경우에도, 피사어를 한정하는 한정절 **하**는 피사어의 통솔 아래에 있음을 본다.

곧, (10나)에 보인 두 기본문 구조의 확장 방식을 확장 순서대로 내려 적어 보면, 긴 설명을 줄여도 좋을 것 같다.

(10) (9나a)에서	ㄹ	ㄹ	ㄹ
	사람은	나왔다.	기본문 구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교회로	나왔다.	제1차 확장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은 교회로 곧바로	나왔다.	제2차 확장

(9나b)에서	ㄹ	ㅅ	ㄹ	ㄹ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하였다.	기본문 구조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앞에서	증거하였다.	제1차 확장
	성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제2차 확장
	성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제3차 확장

이상에서, 기본문 구조를 확장하여 가는 절차를 보았다. 기본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함을 따라서, 각각, 한정어(절)과 부사어(절)을 끌어서 확장함을 본 것이다.

그런데, 번역이 끝나서, 텍스트를 이루어 놓고서, 보면, 그 텍스트에 들어선 문 구조에, 뒤뜰린 데가 있거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 할 때가 있다. 그런 오류나 실수는,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성-상관성을 통어 규칙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그것은, 곧,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의 어간의 분포 방식을 그르쳤든지, 문절어의 확장 방식을 그르쳤든지, 또는, 문 구조의 전환 방식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번역문으로 구성한 텍스트를 이룬 뒤에, 추고, 수정 과정에서, 문 구조와, 그 문 구조를 이룬 문절 구조가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적용받았는가, 함을 잘 다져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하여 보아야 할 문절어의 확장 규칙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규칙, 등 몇 가지를 요약하여서, 소개한다.¹³⁾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성한 기저문 구조를 전환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구성된 기본문 구조로 발화한다. 그런데, 발화인이, 그 문 구조의 어떤 문절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문 구조를 이룬 주어절이나 서술어절의 어간, 곧, 문절어-명사나 동사를 확장한다. 그리고 또, 확장한 문절 구조의 하위 단위로 들어선 문절의 문절어를, 필요함을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데, 그 때에도, 동일한 확장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문절어가 지닌 통어 소성들-통어 특징들이 그러하기로서다. 그 소성은 남-한정어나 한정절, 또는 피사어절을 끌어들어서, 그것을 통솔하지 아니하면, 곧, 보어나 보어절을 끌어들어서, 이를 통솔하지 아니하면, 기본문 구조의 문절어가 그 문 구조에서, 문절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하하위 문절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곧, 문절어의 확장으로, 문 구조의 의미가 정확성을 띠는 것은,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이, 문 구조의 구성 과정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의 통어 기능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절의 핵으로 있는 어간, 곧, 그 문절어를 확장함에서도, 그런 확장 과정을 잘 거쳐야만, 문절어와 그 문절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작은 문절어와의 상관성이 정확하여 지지만, 그런 문절어의 문절어들이 배열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는 논리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인은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이, 문절의 확장 규칙을 잘 적용하였는가, 함을 충실히 점검하여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힘을 지닌 언어 능력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알게나 모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표출하는 말의 문 구조에 들어선 문절어를 확장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가면서 자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표출한 문 구조에는, 어른들이 놀랄 정도의 논리성을 띠 때가 있음을 본다. 그것은, 어린이는 언어 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라도, 문절어의 확장 규칙을 잘 익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문 구조의 상관성과 문절어의 확장 규칙]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발화-말이나 글-로 나타날 때에, 기본문 구조에 분포한 문절어들이 지닌 통어 소성 까닭에, 그 문절어를 확장하여야 할 때가 있다. 그런 때에, 그 문절을 확장하더라도, 표출문 구조가 지닌 기본문 구조의 문절어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 줄여서, 상대성-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번역한 문 구조가 길어지더라도, 그 표출문 구조의 기본 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우리는 그런 면을 이미 예 (10)에서 보았다.

[이상, 문 구조를 확장하여도 기본 틀은 그대로 있다.]

13) 전환 확장 규칙들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문의 문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직감하면, 기본문 구조 유형에서 파생한 한정문 구조가 문절어와 어떤 상대성을 지녔는가, 함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한정절과 문절어 사이에서 나타난 오류를, 추고 과정에서 금방 제거하여서, 번역문 구조에서 잘못된 데를 수정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다.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문절어, 곧, 문절의 어간 명사나 동사가 무엇을 끝어서, 어떻게 확장하여야 하는가, 함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확장 전환 규칙을 적용하였는가, 함을 잘 살펴 보면, 번역문 구조에 나타난 오류, 곧, 문절의 확장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상, 한정문/한정절을 잘못 끌어들이면, 문 구조에 이상이 생긴다]

발화인의 사고 작용을 따라서, 마음에서 생성한 기본문 구조는, 발화인이 그 마음에서 수행하는 전환 과정을 따라서, 문 구조 하나에서 다른 문 구조 하나로, 곧, 자동문 구조에서 타동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본문 구조가 전환문 구조로 전환하였어도, 이런 경우에는, 그 전환문 구조에는 단순 기본문 구조의 구성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상 단순문 구조의 전환 규칙]

기본문 구조가 발화-말 utterance-나 담화 discourse로 나타날 때에는, 발화인과 응답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그런 부분을 표출문 구조에서, 일정한 통어 규칙-문절어의 생략 규칙-아래에서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 때에, 표출문 구조에서 생략한 그 구절이 그런 생략 규칙을 따른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이상, 생략 규칙]

텍스트에서, 긍정 단순문 구조로 있는 문 구조를 긍정 복합문 구조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 규칙을 잘 지켜야만, 온전한 복합문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전환 규칙을 어기면, 그 전환 문 구조의 구성이 모호하게 되며, 의미 내용도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상, 단순문 구조를 복합문 구조로의 전환 규칙]

긍정문 구조를 부정문 구조로 전환하는 통어 규칙도 한국어의 통어 특징의 한 가지다.¹⁴⁾ 그와는 역으로, 부정문 구조를 긍정문 구조로 전환할 때도 있다. 그 어떤 전환문 구조에서도, 전환 규칙을 분명히 지켜 가야 한다.

[이상, 긍정문 구조에서 부정문 구조로의 전환 규칙]

문 구조 전환 방식으로, 능동문 구성 계열에는, 능동-사동-사역화 방식이 있고, 수동문 구성 계열에는, 수동-피동-피역화 방식이 있다.

문 구조가 전환하는 요인 가운데에는, 능동과 수동 규칙, 사동과 피동 규칙, 사역-使役 規則-과 피역 규칙-被役 規則-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통어 특징을 한국어의 문 구조는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능동 계열의 문 구조와 수동 계열의 문 구조는, 일정한 전환 규칙을 따라서, 그 계열을 넘나들 수 있다. 곧, 능동문 구조는 수동문 구조로, 사동문 구조는 피동문 구조, 그리고, 사역문 구조는 피역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역에서 피역으로, 그리고 다시, 사역으로 전환하는 등등, 그런 전환 규칙을 집합하여서, 전환 규칙을 구조화하여 보면, 모두 54 집합 sets의 전환 유형을 얻을 수 있다.¹⁵⁾ 그만큼, 한국어의 전환 규칙에는, 다른 언어 구조들에서 볼 수 없는 전환 규칙들이 집합 sets으로 있다. 그런 점들은 한국어의 통어 규칙의 특징을 이룬다.

[이상, 능동 계열과 수동 계열, 그리고, 계열의 전환 규칙]

[전환 유형의 집합- 모두 54 세트]

14) 본문에서 언급한 전환 규칙들은 필자의 전거서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15) 그런 전환 규칙을 놓고서도, 상계서 제27 장을 보아 주기를 바란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언어 능력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한 것을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ucture로 이루었다가, 응답인-상대인을 만나면, 그 응답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지식이나 교양의 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표출한다. 그 표출문 구조를 언어 분석 방법을 따라서 분석하면, 우리가 번역문 구조가 기저문 구조의 이형태 variation임을 찾아낼 수 있다. 곧, 기저문 구조와 표출문 구조와 사이에는, 일정한 전환 과정이 있다. 만일, 그런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이문 표출문 구조는 기저문 구조의 이형태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에야, 표출문 구조에서 모호성을 덜어낼 수 있다. [이상, 발화인은 자기가 사고한 기본문 구조를 상대인의 지적 정도에 맞춰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열 가지 전환 규칙을 번역문 구조에서 간결하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만, 독자들이 번역문 구조들의 의미를 순하게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문장을 대하는 독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 까닭으로 하여서, 성경 번역인은, 번역문의 문 구조가 기본문 구조 유형을 잘 활용하여서, 간결한 텍스트를 -문장을- 구성할 일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 번역문에 쓸 전환문 구조의 전환 유형을 확정하여 둬야 번역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 보면, 그 번역문이 어린이에게 적합한가, 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3.2. 문체

성경의 문체는, 물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서, 써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이 지은 글 중에서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만큼 정연한 문체를 지니고 있는 책은 그리 많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이 이 책을 기도한 후에, 묵상하면서 읽어 가노라면, 지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얻음은 물론이고, 영감을 받는 때도 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언제나 그 책에 ‘위엄’이 있음을 느낀다. 또 어떤 때에는, ‘장엄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것은, 개역 성경에서 채택하여서 쓴 문체가 ‘공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문체를 갖춘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리파테르 M. Riffaterre가 “언어는 표현하고, 문체는 강조한다.”¹⁶⁾고 한 말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 말을 개역 성경의 문체에 견주어 보면, 어지간히 들어맞는 말 같다. 그만큼, 번역문의 문체는 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문화가 있는 민족에게는 노래가 있다. 신라의 향가, 백제의 정읍사,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용비어천가와 시조들과 서간문들을 보면, 정연우아한 문체를 지니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노래들과 산문들이 우리의 심금에 와 닿음을 느낀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문체에 둘러싸인 노래와 시조와 소설의 작가들은 현대인보다 못하지 않은 문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노래와 시조와 소설들의 문체를 보면, 문체의 이론을 말하는 현대인들의 작품보다 못한 데가 없다. 다만, 그 때의 사람들은 문체에 관한 논의를 지금의 사람들처럼 학문적 틀로 짜지 않은 것뿐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 번역사업이 시작되자, 성경 번역문의 문체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곧, 공손체다. 곧, 그런 민족적 의식 속에 잠재하여 있는 것이 문체로 드러난 것이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의 제자 바이이 Charles Bally를 비롯한 프랑스 학파에 속하는 몇 사람은 드 소쉬르의 랑그 langue와 빠롤parole의 이론을 주축으로 하여서, 고전적인 구

16) Riffaterre, Michael,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Paris, Flammarion. 1971.

별 정신을 연유하여서, 포괄적인 문체론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빠롤로 개인적인 모든 것을 사회에 구현하고, 사회 집단 전체의 자산으로서의 랑그와를 구별하다가, 드락로와 Delacroix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빠롤과 랑그에, 랑가쥐 langage의 개념을 더 포함하여서, 전체 개념을 가지고서, 문체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문체론적 연구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다. 고전적 문체론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기질, 능력, 인생관을 나타내는 글들을 분석하여서, 고전적 문학 이론을 정립한다. 곧, 연구자들은 그런 이론 정립을 위하여서, 문체의 분석 작업을 한다.

그리고 또, 문체론에는 사회적 문체론도 있다. 언어학과의 대표자격으로 있는 이들은, 공동체가 지닌 문화 유형을 반영하는 언어 형식에 관심을 집중하여 본다.

문체 대학 교수 포슬러 Karl Vossler (1872-1947)는 언어학 이론에 있어서는 훔볼트 Wilhelm von Humboldt(1767-1835)의 이론과 비슷하다. 훔볼트의 이론의 중심은, 언어 구조와 민족성과의 관계에 있다. 그는 민족 정신이 내적인 언어 형식으로 있다가,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언어는 인간 정신의 발로라는 이론을 세웠다. 포슬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 연구는 문체의 연구라는 점에서만 참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문체에서, 사람이 쓰는 언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 겨울에 비취는 모습과 같이, 잘 보인다고 한다. 그 본질은 미적 이상美的 理想에 대한 바람이다. 그러므로, 문체는 인간의 미적 이상의 개성적인 표현이라고 결론한다.¹⁷⁾

그러면, 과연 문체란 무엇인가. 이를 가장 평범한 말로 하면, 사람이 표출하는 말의 표현 형식이고, 표현 양식이다. 그러므로, 문체는 작가-학자도 포함함의 개성이나 품격의 일부와 작가의 성숙도를 언어적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에 합일시킨 필치筆致를 일러서 문체라고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표출문 구조가 지니는 의미는 동일한데, 발화인이나 작가가 표출하는 문 구조의 형태를 달리하여도, 그 표현이 어법적으로 적합하면, 상대인이나 독자는 이를 그 문맥으로 보아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용인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문체의 이형문 allo-sentence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⁸⁾

문체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과 상관하는 문체이고, 그런 문 구조 몇이 모여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문체가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다.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놓고서 보면, 한국어 문 구조 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표현 형식 modality을 중시하여서 다루는 문체 style가 있고, 다른 하나는,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루는 문체-화체 speech style가 있다. 이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은,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하는 서술어에 첨가하는 접미사(열)로 구성한다. 이런 면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보다, 한국어 구조에서 더 발전하여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을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면밀히 살펴 보면, 그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은 동시에 서로 상승 관계相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 두 가지의 표출 양식과 형식은 서로 상승하여서,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열) 하나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어의 통어 구조의 특징의 한 가지다.

17) Ivic, Kilka,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The Hague, 165-174항.

18) Smith N. & Wilson D. (1980), *Modern Linguistics -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 192.

그러면,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명사절과 동사절이 문 구조에서 나타내는 표현 형식-줄여서, 형식과 표현 양식-줄여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형식과 양식은 문 구조에서 서로 어떤 상관 관계-相關 關係 correlative relations를 지니면서 문체를 이룰까, 함을 살펴 본다. 그런 상관 관계는, 하나의 문 구조를 이룬 문절과 문절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상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¹⁹⁾을 바탕으로 하고서 나타난다.

그런 상관성은,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각각,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통어 소성 syntactic feature을 지니게 한다. 곧, 그런 통어 소성을 지닌 구성소들은, 그것이 문 구조를 이룬 문절의 어간이든지, 그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이든지 가지리지 않고, 그것들이 분포한 문 구조에서, 일정한 통어 기능을 수행한다. 곧, 문 구조를 이룬 문절에 분포하는 어간은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고, 접미사는 접미사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통어 기능이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에게 있으므로, 발화인은 이들로 일정한 통어 규칙 아래에서, 텍스트나 문 구조를 이루면서, 개성미 있는 문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문의 구성소들은 언제나 문법 규칙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문체를 가진 그 글을 읽는 어린이들은, 아무 거침 없이, 그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의 마음-두뇌에는, 그런 규칙을 지니고 있음에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원전에서 번역한 성경의 번역문은 한국어 통어 규칙에 맞는 문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문 구조가 지니는 그런 표현 양식과 표현 형식은, 그 문 구조 안에서,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들을 찾아 보려고 하여서, 다음의 예문 구조들을 살펴 본다. 특히, 예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들을 잘 살펴 보기를 바란다. 예문은 동일한 구절을 세 가지 다른 텍스트에서 인용하여 왔다. 각 항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를 바란다.

(11) A. 마 15:2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

- a.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 b.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개역)

- 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 b.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개역 개정판)

- 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어기~~브~~니까.
- b.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표준 새번역)

B. 눅 24:29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 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개역)

- 나.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개역 개정판)

19)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기를 바란다.

다.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시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표준 새번역)

C1. 요 4:49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가. 신하가 가되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개역)

나. 그 왕군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십시오.”
 하고 여쭙었다. (200주년 신약)

다.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십시오.” (표준 새번역)

C2. 행 1:20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

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개역)

나.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는 황폐해 지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주년 신약)

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

C3. 막 5:7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기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개역)

나.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당신에게 애원하오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200주년 신약성서)

다.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표준 새번역)

위에다가 인용한 예문 구조들에서, 먼저, 서술 동사에 첨가한 서법 접미사들의 구성 방식을 동일 한

목 안에서 서로 대조하여 보면,

- 1) 번역문마다 그 번역문의 문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 2) 그런 문체를 가진 문 구조들에도,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문체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열한 표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다. 그런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만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서술어 앞에 선행하면서, 서술 동사가 서술하는 조건을 준 주어절-부사어절-피사어절의 연결 유형은 언제나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서, 서술어 앞에 선행한다. (주어나 피사어에 대명사가 들어 있어도, 그 문절 구조는 그 문 구조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구성 방식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그 연결 유형에 들어선 문절들의 구성 방식은, 서술어절의 표현 양식이 어떠한을 가리지 않고서, 언제나 동일하다. 그런 문절들의 연결체는, 주어와 서술어와 사이에 있는 존대 호응^{尊待 呼應}과 같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한, 언제나 동일한 구조체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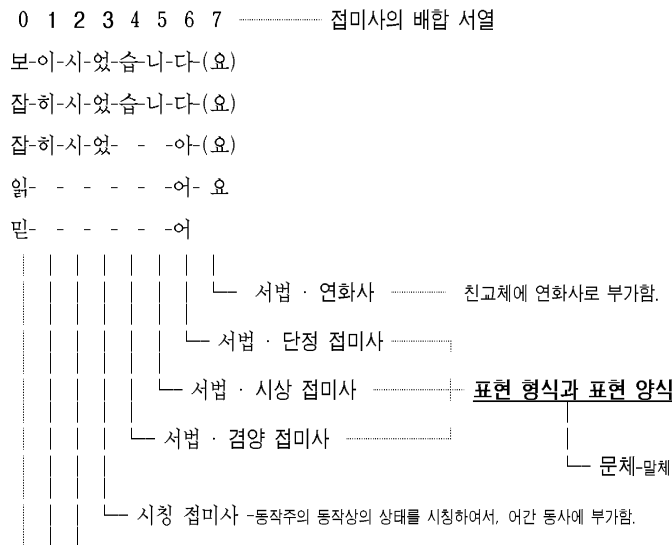
차이점, 그것은,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술어절에서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열)로 구성하는 표현 형식-줄여서, 형식과 표현 양식-줄여서, 양식 접미사들에서 나타난다. 한국어에는, 그런 형식과 양식이 문체를 이루는 구성소 constituent로 있다.

표현 형식 접미사와 표현 양식 접미사들이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위치를 다음의 구조도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로, 친교체의 예도 부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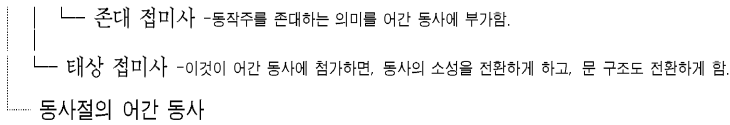
(12) 서술어인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이루는 종결 접미사들과 그 분포 위치

- 예: [보이시었습니다]
 [잡히시었습니다]
 [보이시었어(요)]
 [읽어요]
 [믿어]

접미사의 배합 방식- 접미사들의 분포 위치:



20) 번역문의 내용의 차이점에 관하여서는, 여기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므로, 이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12)에서, 서술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보았다. 곧, 동사절의 여간 동사에, 접미사 여섯이나 일곱이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그 여간에 첨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사절이 문 구조에 분포할 때에는, 그 접미사들이 전부 다 그 여간에 첨가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 동사가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나, 그 주어가 들어설 자리에 들어선의 주제의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때에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나 주제가 필요로 하는 접미사, 곧, 겸양, 시상, 종결, 등의 접미사는 물론, 그 밖의 접미사 중에서, 필요한 것 만큼, 끌어서, 서술 동사에 첨가한다. 그러므로,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의 수는 하나나, 그 이상으로, 여럿일 수 있다.

(12)는, 서술 동사절의 여간 동사에 접미사들이 첨가할 수 있는 분포 위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서법이나 문체, 곧, 표현 형식이나 표현 양식과 상관 관계가 있는 접미사는,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미사 서열 (4)-(5)-6-(7)에 해당하는 접미사들과 이들과 대입하여서 쓸 수 있는 접미사뿐이다.²¹⁾ 그런 접미사들은, 그 접미사들이 가서 첨가하는 서술 동사가 주어에 대한 동작-상태나, 존재도 포함할 -을 서술할 때에, 주어의 동작에 대하여서, 이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미를 그 여간 동사에 더하여 준다. 곧, 그런 의미를 지닌 접미사들은, 그 문 구조에 주어로 분포한 그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서술 동사절의 여간(+접미사)에 첨가한다.²²⁾

그런 접미사들이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한 여간 동사에 첨가하는 순간에, 이들은 그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생성하는 본래의 의미를 표출함과 동시에, 그 문 구조에서 이들이 드러내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런 접미사들이 서술 동사절에 첨가 분포함으로써, 그 문 구조는 서법과 문체-표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곧, 그런 접미사들이,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절의 여간 동사에 첨가하면, 그것들이 그 문 구조의 서법(=형식)과 문체(=양식)를 결정짓는 요소-통어 특정 syntactic feature가 된다. 우리는 이런 점을 적출하여서, 통어 규칙을 이루는 요소로 봄은 물론, 이들을 통어론에서, 서법을 이루는 요소로 봄과 같이, 문체론에서도, 문체를 이루는 요소라고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면, 예문 구조에 나타난 문체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 본다. 곧, (11A)에 예로 든 a, b, c의 예문 구조들에서, 구조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대조 문 구조들에서 찾아 본다.

(13) (11A)의 각행의 a들

공통점	차이점	
가a.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 <u>나</u> 이까		(개역)
나a.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 <u>나</u> 이까		(개역 개정)
다a.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어기 <u>브</u> 니까.		(표준 새번역)

(11A)의 각 행의 b들

가b. ()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 <u>나</u> 이다.	(개역)
나b. ()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 <u>나</u> 이다.	(개역 개정)
다b. 그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u>않</u> 습니다.	(표준 새번역)

(1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예문 구조들에는, 문 구조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본다. 차이점에는 밑줄을 쳐 놓았다.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 구조의 한 부분을 이룬 서술어절의 서술어-여간 동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주어절-부사어-피사어절]의 연결 형식이다. 이를 연결 형식의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자 바르]과

21) 이들을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22) 자세한 것은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제6 장을 보아 주기를 바람. 인쇄 준비중임.

같다.

차이점은, 예문 구조들을 잘 살펴 보면, 서술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한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접미사들에다가, 밑줄을 쳐 놓았다.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접미사들을 한데 모아서,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14)와 같다.

(14) 동사절에 분포하는 접미사(열)들이 드러내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

표현\표현 형식\양식	공손체	정식체
평서법	-(네)나이다	-니니다
문의법	-(네)나йка	-니니까

위의 (14)를 보면, 하나의 접미사열을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두 가지 면으로 살펴 볼 수 있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고서 보면, 표현 형식이라는 것은, 흔히, 문법가들이 통어 범주로 다루어 오는 서법 modality/mood-평서법, 문의법을 말하고, 표현 양식이라는 것은, 문인들이 흔히 쓰는 문체 speech style-공손체, 정식체를 말한다.

위에서와 같이, 예문 구조에 분포하는 접미사 몇만 가지고 보아도,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들의 용법이 뚜렷이 보이는데, 현대 한구어의 문 구조에 쓰이는 접미사(열)을 모두 다 한데 보아서, 일람표를 작성하여 놓고서 보면, 그 용법-서법이 표현 형식임과 문체가 표현 양식임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서법으로 쓰는 접미사(열)을 모두 집합하여서, 일람표를 만들어 본다.

(15) 동사절에 분포하는 서법과 문체로 쓰이는 접미사(열)의 구성 방식:

표현\표현 형식\양식	공손체		정식체의 친교체		중간체	평교체의 친교체	
평서법	-나이다	-니니다	-오/-아요	-네	-니다	-아	
문의법	-나йка	-니니까	-오/-아요	-나	-니	-아	
권유법	-사이다	-하시다	-오/-아요	-세	-자	-아	
명령법	-소서	-시오	-오/-아요	-계	-라	-아	
준비 등분	< >	<극중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말>	

이 일람표를 보면, 직감할 수 있는 것은, 동사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하나의 접미사(열)>을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음이다.

좌편 구석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접미사(열)을 구분하여 보는 관점에, 1) 서법의 표현 형식과 2) 문체의 표현 양식의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접미사나, 하나의 접미사열을 서법 범주로 보아서 살펴 보면, 네 가지의 표현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동일한 접미사나, 접미사열을 문체로 보아서 살펴 보면, 현대어에는, 여섯 가지의 표현 양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법으로 나타나는 표현 형식에는, 1) 평서법, 2) 문의법, 3) 권유법, 4)명령법, 5) 감탄법,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갖출 형식을 다 갖춘 형식은 감탄법을 제외한 네 가지 형식이다.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체에는, 1) 정식체 正式體, 2) 정식체의 친교체 親敎體, 3) 중간체 中間體, 4) 평교체 平交體, 5) 평교의 친교체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체/어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놓고서 보면, 문체에는, 정식체와 평교체가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체 中間體가 있다.²³⁾ 정식체와 평교체에는, 각각, 그 하위 양식으로 친교체가 있다.

친교체들의 특징은, 서법의 하위 분류, 곧, 평서법, 문의법, 권유법, 명령법으로 쓰는 접미사의 형태가 다 동일함이다. 다시 말하면, 친교체에 쓰는 접미사의 형태는 하나인데, 네 가지의 서법에서는 이 하나를 통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접미사를 네 가지의 서법-표현 형식으로 쓰면, 그 의미는 어떻게 분화하는가. 그런 의미 분화의 실상을 언어학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발화문 구조에다가는 상가 음운 上加 音韻을 상가 上加 얹음 함으로 서법의 의미를 분별한다. 그것은 상가 음운열의 구성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그 글줄의 문맥을 따라서, 그 서법의 의미를 분화하여 본다.

정식체에서는, 그 서법에 알맞은 표현 형식을 선택하여서 쓴다. 곧, 발화인은 서법 접미사, 곧, [-니나, -니니까, -니시다, -니시오] 중에서, 그 발화문 구조에 적합한 것 하나를 골라서 쓴다. 이것은, 대화인들이 서로 상대인에게 대하여서, 말로 정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표출하는 말의 형식이다. 이 서법 접미사열은, 형태소 셋씩을 배합하여서 이룬 것인데, 그 접미사들의 배합법을 놓고서는 (12)를 보면, 그 접미사들이 속하여 있는 범주와 그들이 표출하는 기본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평교체는, 그 서법 접미사의 형태가 짧다. 곧, [-다, -니, -자, -라]로서, 대화인들, 곧, 발화인과 응답인은 서로 상대인에게 대하여서, 평교간 平交間이므로, 그 하는말에 특별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러하므로, 이들은 모두 종결 접미사에 속한 형태소 하나로 종결 접미사로 삼는다.

친교체에는 두 가지의 하위 친교체가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평교체의 친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체의 친교체’다. 이 두 가지 친교체에도, 서법의 하위 분류로 있는 네 가지 범주-평서법, 문의법, 권유법, 명령법가 있는데, 그 범주에 들어서는 형태소는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정식체의 친교체로는 종결 접미사열 [-아요]를 쓰고, 평교체의 친교체로는 [-아]를 쓴다. [-아요]는 [-아]에 연화 접미사 軟化 接尾辭 softener {-요}를 부가하여서 이룬다. 이것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언어 표현에서도, 예법을 줄여서, 하나로 통일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이런 점은 한국어의 표현 형식의 특징 중의 하나다.

정식체의 친교체로 쓰는 접미사에는 {-아요} 말고도, {-오}가 있다. 이것은 현대어에서도, 장년층 이상 되는 이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젊거나, 사회적 지위가 아래인 사람을 대하여서 쓰는 화체/말체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아요}와 같이, 종결 접미사의 형태는 동일하다. 이것이 발화문 구조의 서술 동사에 종결 접미사로 첨가하면, 그 서술어절에 상가하는 상가 음운으로 그 의미를 분화한다.²⁴⁾ 발화에 들어설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글로 적은 것에, 이 {-오}가 나타나면, 문맥으로 살펴 본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 서는 접미사나, 접미사열은 표현 형식

23) 중간체라고 하는 것도, 대화하는 사람 사이를 상대적으로 보면, 정식체의 하상위 분류 - 곧, 하위 분류의 상위로 분류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상가 음운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또한 필자, (1990), 「한국어 구조론 연구」-음운 및 음운 배합론- 탑 출판사, 서울. pp.37-43,193-199.

소성과 표현 양식 소성을 상승相乘한 결실로 이룬다,는 결론을 얻는다. 곧, 접미사(열)의 구성을 <접미사(열) → [표현 형식 x 표현 양식]>와 같은 공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대인을 만나서 하는 말은 상대적인에게 말로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갖추음을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상승체>로 이룬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점은, 이런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보는 학자 관점의 현대화 문제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 점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 1) 그 하나는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대립 관념(?)이고,
- 2) 다른 하나는 존칭과 비칭의 대립 관념으로 말의 등분을 매김이다.

1)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경험을 그대로 말한다. 나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쓸 때에, 구어체가 따로 있고, 문어체가 따로 있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서, 정식체로 말할 때도 있으며, 평교체의 친교체로 말할 때도 있다. 다른 체들도 마찬가지다. 또, 글로 쓸 때도 그렇다. 때로는 중간체로 글을 써서 발표한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문의 문체도 평교체로 쓰고 있다. 그것은, 독자와 나 사이에는, 상대적인 준비의 대립이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서다. 나이가 나보다 어린 학생이 나의 연구실로 찾아와도, 나는 그 학생에게 정식체를 써어 말함이 보통이요, 좀 친하여 지면, 정식체의 친교체를 바꿔서 쓴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평교체의 친교체까지 쓴다. 글로 적어서 소식을 전할 때에도, 꼭 같은 방식으로 상대인을 대하여서, 문체를 정하여서 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문어와 구어, 문어체와 구어체가 따로 없다. 나는 그때그때 상대인을 보는 나의 관점을 따라서, 적절한 문체나 화체를 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평교체는 문어체도 되고, 구어체도 되며, 정식체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또,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적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였다. 문체가 다 그러하다.

그리고, 2)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말의 등분을 세우면서, 존·비 등분으로, 극존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어(반말), 등을 말하여 왔다. 나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서 교실에서 가르쳐 보았다. 그런데, 그런 교실에서는, 지금도 말하기가 어려운 꽤 많은 에피소드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문법 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말의 존·비의 등분>을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상대 이론에 입각하여서, 문체와 화체를,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으로 잘 살펴 보면서, 그 대화에 나타는 발화-응답문 구조를 잘 분석하여 보면, 그 ‘말의 등분’이라는 것은 ‘등분’으로 다루지 말고, 현대 언어학적 이론대로 표현 양식-곧, 문체-으로 받아 주는 것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평등하다는 마음 가짐으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발화인이 자기가 그 어떤 문형을 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독선적인 어투로 사람을 대하면, 어느 누구에게서나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가령, 내가 ‘ -ㅂ니다.’로 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내가 높이 보는 것이 아니며, 내가 ‘ -니다.’라고 하여서, 내가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글로 적어도 마찬가지다. 그 역으로 적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대인을 대할 때에, <내가 상대인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을 언어로 어떻게 표출하는가>, 함이 문제다. 곧, 그 사람에게, 내가 갖추어 예절과 이에 알맞는 어법을 갖추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필요가 있으면, 나는 서슴치 않고, 갖춘 화체/문체로 나의 의사와 정을 표출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흔히, 발화인의 한 쪽을 중심으로 하여서, 곧, 자기의 나이, 신분, 처지, 사회적 지위, 등등으로, 말법을 세우고, 대화법에 이론에도 맞지 않는 존·비의 논리를 세우면서, 존대어와 하대어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 시대는 가고, 또 하나의 다른 시대가 이르렀다. 사람의 인권은 다 평등한데, 대화인 사이에, 무슨 준비의 등분이 있어서, 존칭어가 있고, 비칭어가 있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서, 공존하여 살면서, 서로가 상대인의 인격을 존중하므로, 발화인이 상대인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을 화법으로 갖춘다. 그 예절을 말의 표출 양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문체-말체일진대, 그런 표현 양식에다가, 어떻게, 사람에게 존·비칭을 매겨 가면서, 지어 먹은 관념으로 말의 등분을 매겨 가겠는가.

발화인이 대화 상대인에게, 스스로 갖추어야 할 말과 글의 예법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표현 양식으로 살펴 보면, 관념적인 어법 범주라는 것은 사라지고, 대화의 실상을 언어 표출면에서 찾아내어서, 하나의 형식과 양식 체계로 이론화, 구조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런 현대인의 상대적인 안목으로 보는 화법을 기초로 하여서,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상층하여서 얻은 문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지난 반 세기 동안에 언어학 이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본다. 따라서 언어 분석 이론도 실용성이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 과거에 정설처럼 되어 있는 이론도 재음미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안다.

우리는, 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 방식으로 재분석 재음미하여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문체와 화체, 표현 양식과 표현 양식, 존대와 하대에 관한 관념적 통어 규칙들을 재구하여 볼 아량을 지녀야 하겠다. 그리하여서, 현대의 한국어 구조의 실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세울 수 있는 가능한 어법 이론을 세우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론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 가야 하겠다. 이는 시대적 현실이고, 시대적 요구이고, 자라나는 어린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까, 함을 지금까지 한국어로 번역한 <시편 제일 편>을 예로 들어 본다.

(16) 가. 시편 제일 권 1

<이것은 시로 읊었으며, 산문 형식으로 적은 것임>

복이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의론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울법을 즐거워하며
그 울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비하건대
잔잔한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무릇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
로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심판할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리
로다
대개
여호와—
의인의
길을
아시나니
오직
악한
자의
길이
망하리
로다

- 관주 성경전서, 대영 성서공회 발행 1926. - 맞춤법만은 현행대로 함.

나. 시편 제일 권 1

<이것은 산문 형식에서 표현 형식을 바꿔서 번역문을 만든 것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울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1956.

다. 시편 제1편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결의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낮과 밤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져
 제때에 열매를 내어 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바람에 흩어버리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감히 서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심판 때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왜냐 하면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로다.

- 구약성서 새 번역 1 시편, 임승필 역,
(카톨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1992.

라. 시편 제1권 1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⁹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표준 새번역)

이 성경 말씀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능동문 구조로 구성한 말로 시작하여서, 수동문 구조로 구성한 말로 끝을 맺었다. 이런 때에는,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 말을 주고 받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 닿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된다. 발화문 text 하나에서, 주어는,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주어가 문장 구조 처음에서 비롯하여서,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주어로 있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능동문의 주어는 언제나 능동문 구조의 주어로 주어의 위치에 있어야만, 독자의 사고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능동문 구조의 주어-동작주, 피동문 구조에서는 피사어-목적어-피동작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문장에서, 어떤 사역자가 주어로 등장하면, 그 문장을 마칠 때까지 주어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성경 절수로 말하여서, 두 절 이상이 되더라도, 주어로 등장한 사역인은 끝까지 사역인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독자가 그 말의 줄거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곧,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하나의 텍스트에서 주어가 피사어로 넘나드는 번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하여서, 위에 예로 든 표준 새번역의 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하면, 어떨까.

(18) ⁹“너희는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으셔서, 불속으로 던지실 것이다.”

위의 예문은, 요한이 자기의 말을 들으러 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에게 한 말임을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그 원전의 문 구조를 (18)에서와 같이 번역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믿음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0 절의 말씀이 9 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문장이 여러 개의 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텍스트에 나오는 주어-동작주는, 그 텍스트의 어디에서나 끝까지 주어-동작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3.4. 어휘

일반 언어학에서 쓰는 용어로 ‘어휘’라고 하면, 두 가지 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전류에 올라 있는 단어들을 어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쓰는 단어들이거나,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 영역에서 쓰는 단어의 총체를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늘 쓰는 어휘를 일러서, 이를 어휘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휘수가 얼마나 되며, 그 어휘가 신도들의 마음에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일까, 함을 다져 본 일이 없는 줄 안다.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나온 어휘 수는 ‘헬라이어-영어 사전’을 보면, 대략 7,500에서 8,000 정도일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우리말 신약전서에 나오는 어휘의 수를 세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휘

들이 신도의 생활어나, 공동체에서의 활동 영역에서 늘 쓰는 어휘들인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어린이 가운데서, 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가 알고 쓰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쓰는 어휘의 수와, 어린이의 지적 발전을 따라서, 그런 어휘수가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는 지도 모른다.

참고로,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교원 대학원에서 쓰는 언어 교육 이론서에 올라 있는 것을, 옮겨 적어 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서, 여기에 옮겨 적는다. 이것은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지적 발전 과정을 따라서, 어휘의 수도 증가하여 감을 설명하는 글에서 얻은 자료다. 그런데, 이것은, 필자가 그 책을 읽고서, 나의 비망록에 참고로 기록하여 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책의 저자가 누구였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함이 유감이다. - 그 책을 뉴욕 집에 남겨 두었음.

(19) 어린이의 성장과 어휘의 발전도

출생후 성장도	사용 어휘수	비고
12개월	3 단어	1 단어로 외마디 말을 한다.
18	25 - 30	
2살	275 - 300	두 세 단어로 문장을 만든다.
3	900 - 1,000	30%는 고쳐서 말한다.
4살	1,500	대화에서 '나'와 '너'의 용법을 안다.
5	2,200 - 2,200	
6	2,500	문답을 비교적 잘 한다.
10	5,400	
12	7,200	말로 쓰는 단어수는 2,500- 3,00인데, 알고 있는 단어수는 그 3배다.
대학생	12,000	

우리에게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어휘의 사용 빈도수까지 통계를 내어서 발표하고, 이를 생활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언어 사전'까지 편저하여 놓았음을 본다. Thorndike's Dictionary와 같은 책에는, 올림말에다가 빈도수 1,000을 단위로 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를 가진 단어에 침자로 빈도수의 수순대로 숫자를 적어 놓았음을 본다. 그것은, 어떤 단어가 교육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교육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견주어서,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수와,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지역 사회에서, 흔히 쓰는 어휘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함을 언제인가는 재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나, 남들이 알고 있는 어휘는, 그 수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 교육의 효과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쓸 수 있는 힘을 길러 줌에, 어떤 어휘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함을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다.

제일 급한 것은, 성경에 나온 어휘와 가정과 학교 교육의 장에서 쓰는 어휘들을 수집 정리하여서, 통계 숫자로 그 빈도수를 표시하여 주는 일이 긴요할 것 같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맡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쓰는 기본 어휘를 조사 연구하고, 그 어휘에 알맞는 뜻매김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린이를 위한 성경책의 첫 머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20) 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

-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표준 새번역)
-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안)

4. 화법으로 나타나는 문체에 관한 문제

어린이가 읽을 성경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연구하여 볼 일은, 성경에 나오는 발화인이 상대인이나 응답인에게 표출하는 문 구조의 기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린이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 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로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형과 어떤 표현 양식과 어떤 표현 형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바울 선생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국어로 적어서 보낸다,고 하면, 어떤 문체로 편지를 쓸 것인가, 함을 신학적으로도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지마는, 언어-사회학, 언어-심리학, 언어 문화학적인 연구도 하여 보아야 할 것 같다.

성경책에는, 수 많은 예언과 대화가 들어 있고, 그리고, 수 많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글로 새로 적으려고 하면, 어떤 표현 형식과 어떤 표현 양식을 가진 문형과 문체로 적을까, 함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5. 결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 사업에서는, 100년 넘게, 알면서도 그대로 넘어가 버린 시기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여 내려고 하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도, 기초적인 연구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곧 하여야 할 일이면, 곧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바른 문법 구조로 이룬 문형과, 아름다운 문체와, 정확한 개념을 지닌 어휘를 써서, 성경 말씀을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여 줌으로, 어린이들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이지만,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달아오르는 믿음과, 바른 사고 방식과, 뜨거워 가고 깊어 가는 믿음을 스스로 깨달으며, 그 믿는 바를 삶으로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군이 되게 하는 바탕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말로 번역한 이 새로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알고 써야 할 어휘수를 늘려가서,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폭넓은 어휘를 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이루 게 하여 주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를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 어린이들이 성경에서 전개되는 장면 하나하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 역사하심에 부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이루어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그런 성경 번역문을 읽음으로, 어린이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 마음에 담고서, 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동역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어야 한

다.

정연한 문법과 정아한 문체로 번역한 성경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국사람다운 정확한 논리 체계와 훈훈한 정서를 마음에 담고서, 생각하느니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말하느니 말씀을 풍기는 사람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말씀으로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은 아는 사람에게 맡겨 주신 아버지의 뜻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읽어 가는 새로 번역한 성경 말씀은 바른 한국어로 이룬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바른 한국어를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속히 가슴에 안겨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가능한 노력과 정성을,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쏟아 주시기를 간청한다.

참고한 책과 논문

- 대영성서공회. (1926), 「선한문 성경전서」
- 대한 성서공회. (1956)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 대한 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 임 승필 번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1992) 「시편」, 구약성서 새번역 1,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 Nestle-Aland.(1993),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ition,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rt..
- 송 석중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 산업사, 서울.
- 박 창해 (2000예정),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인쇄 준비중).
- Alter, Robert. (1981),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A Litterary Approach to the Bible*, New York: The Bsic Books.
- Cunningham, J.V. (1969), *The Problem of Style*, (ed), Greenwich, Connecticut.
- Chomsky, Noam. (1968),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ace, Jovanovich.
- Chomsky, Noam.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Stein-berg and Jacobovits (eds.) pp.199-207.
- Hockett, Chares F. (1968), *The State of Art*, Mouton, The Hague.
- Ivic, Milka.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The Hague.
- Jakobson, Roman. (1987), *Language in Literature*, ed. by Krystyna Pomorska,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 Nida, Eugene A. (1975),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 Nida, Eugene A. (1984), *Signs, Sense, Translatio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Cape Town.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1982), *Theory and Practice on Translation*, The United Bible Society. Leiden, E. J. Brill
- Paine, Stephen W. (1961), *Beginning Greek, A Functional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Chang-Hai.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Korean Studies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 Riffaterre, Michael. (1959), *Criteria for Style Analysis*, Word, XV
- Riffaterre, Michael. (1964), *The Stylistic Function*, in Ninth Congress Papers, pp. 316-322.
- Riffaterre, Michael.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urcturale*, Paris, Flammarion.
- Smith, Neil and Wilson Deirdre. (1980), *Modern Linguistics,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ton.
- Winograd, Terry. (1983), *Language as a Cognitive Process, Vol. 1: Syntax*,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Massachusetts.
- Waard, Jan de and Nida, Eugene A. (1986),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ew York.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 대한 연구

박동현*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목적, 범위, 순서, 방법

아직 성서 고전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고서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관주 성경의 관주이다.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나 개념과 관련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온 지 오래지 않아 관주 붙은 개역개정판에 대한 요구가 커져 왔고, 이를 계기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¹⁾의 관주에 나타난 잘못을 확인하여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인 성서학의 연구 결과를 관주에 반영하여, 새로운 관주를 마련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²⁾.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들어 있는 관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민영진이 개괄적으로 다룬 바 있다³⁾. 민영진은 먼저 한글 관주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적은 뒤에, 관주에 나오는 전후참조 표시의 효시로서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주기에 대해 설명하고,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관주의 전후참조 체계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이 성경의 관주를 인증 관주와 비교 관주와 '보라' 관주와 일반 관주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각 지니는 성격을 밝힌다. 약자 '인'으로 표시하는 인증 관주는 보통 신구약 성경 본문 사이의 인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약자 '비'로 표시하는 비교 관주는 표현이나 사상이나 개념의 평행 또는 대조 관계를 보여주며, 약자 '보'로 표시하는 '보라' 관주는 특정 용어의 최초 출처나 특정 개념에 대한 다른 성경 저자들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하며, 이런 약자가 쓰이지 않는 경우인 일반 관주는 해당 낱말에 대한 성서적 배경을 알려줌으로써 주석의 성격을 띠거나 성경어구사전이나 성경 사전의 구실을 한다고 본다.

전무용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관주의 뿌리를 1926년에 나온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 관주에서 찾아내어, 이 관주가 1930년에 나온 「구역 관주 성경전서」를 거쳐 1962년의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다시 1964년의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에 넘어온 것을 확인하고,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관주에 이미 지적된 스무 군데 이상의 오류가 생긴 까닭을 다만 관주의 위치를 달리 하여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따라 몇 가지로 밝혀낸다. 그리하면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관주를 새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성경의 출판 연도는 전무용(「「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성경원문연구」 제4호[1999년2월], 65-100쪽, 여기서는 65쪽)이 밝힌 대로 1962년인데, 민영진(「國譯聖書研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45쪽)이 1956년이라 한 것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출판 연도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최종 수정 원료본의 출판 연도를 혼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전무용, 앞의 글, 65-66쪽.

3) 민영진, 앞의 책, 45-55쪽.

롭게 붙이려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달 과정 가운데 생긴 잘못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성경 전체에 걸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26년에 나온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 관주의 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리라고 한다⁴⁾.

이 글에서는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의 관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⁵⁾에 한정하여 그 관주의 신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이 내용상으로 본문과 어떻게 관련되어 본문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또 시편 1편 본문에 관주를 더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를 히브리어 성경⁶⁾과 몇 가지 국내외 번역 성경⁷⁾의 관주와 최근 시편 주석들⁸⁾을 참고하면서 따져보기로 한다. 그리한 뒤에, 개역개정판 시편 1편에 관주를 붙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시안에서 제시한 관주의 내용을 따라 개역개정판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4) 전무용, 앞의 글, 98-100쪽.

5) 전무용(위의 글, 82쪽)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편 1편부터 11편까지의 경우에는 그런 오류가 없었다.

6) 1969년에 H.Bardtke가 엮어서 스투트가르트(Stuttgart)의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 gesellschaft)에서 낱권으로 펴낸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Librum Psalmsorum*을 기준으로 삼는다.

7) 이 글에서 참고한 관주 번역본 성경은 다음과 같다. 임승필 역, 「시편. 개정판」(구약성서 새 번역 1)(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7)(*Stuttgarter Erklärungs-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set forth in 1611 and commonly known as the King James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60)(아래에서는 KJV1로 부르기로 함);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London/New York: Collins' Clear Type Press, 1967)(아래에서는 KJV2로 부르기로 함); *The Wesle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0)(아래에서는 NKJV로 부르기로 함); *Eyre & Spottiswoode Study Bible.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vised Standard Version* (London: Eyre & Spottiswoode, 1985)(아래에서는 RSV로 부르기로 함); *NRSV Harper Study Bibl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The Jerusalem Bibl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6)(아래에서는 JB로 부르기로 함); *The New Jerusalem Bible* (New York/London/Tronto/Sydney: Doubleday, 1985)(아래에서는 NJB로 부르기로 함); *The NIV Study Bibl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Bible Publishers, 1985)(아래에서는 NIV로 부르기로 함); *Bible Society's Chain Reference Bible. Good News Edition*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85)(아래에서는 GNE로 부르기로 함);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American Standa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owa Falls: World Bible Publishers, 1988)(아래에서는 NAS로 부르기로 함); *The Catholic Bible. Personal Study Edition. New American Bible*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아래에서는 NAB로 부르기로 함); *Die Heilige Schrif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Zürich: Verlag der Zürcher Bibel, 1971)(아래에서는 ZB로 부르기로 함); *Die Bibel nach der Übersetzung Martin Luthers. Bibeltext in der revidierten Fassung von 1984*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4)(아래에서는 LB로 부르기로 함); *Die Einheitsübersetzung der Heiligen Schrif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GmbH, 1980)(아래에서는 EÜ로 부르기로 함). NIV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의 관주 작성자가 June Gunden과 Kohlenberger 3세인 것이 알려져 있고(위에 인용한 *The NIV Study Bible*, xiv쪽), 임승필 역 시편의 관주는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91)과 *La Bible de Jérusalem*(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81)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관주의 작성자가 성서공회인지, 연구용 성서 편집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밖에도 Robert Weber (ed.), *Bibla Sacra iuxta Vulgata Versionem*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69)(아래에서는 Vulgata라 부르기로 함)의 관주도 참고한다.

8) Robert Davidson, *The Vitality of Worship. A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Eerdmans Publishing Company / Edinburgh: The Handsel Press Ltd., 1998); J.Clinton McCann, Jr. "The Books of Psalm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IV*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pp.639-1280; Klaus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15) (Tübingen: J.C.B.Mohr, 1996); James Luther Mays, *Psalm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F.-L.Hossfeld/E.Zenger, *Die Psalmen. Psalm 1-50* (Die Neue Echter Bibel.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mit der Einheitsübersetzung 29)(Würzburg: Echter Verlag, 1993); Peter C.Craigie, *Psalms 1-50* (Word Biblical Commentary 19)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Hans-Joachim Kraus, *Psalmen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Artur Weiser, *Die Psalmen I. Psalm 1-60* (Das Alte Testament Deutsch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Mitchell Dahood, *Psalms I. 1-50* (The Anchor Bible 16)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5). 아래에서는 저자 이름만 적으면서 인용하기로 한다.

1.2. 기본 용어의 정의와 글의 서술 방식

「우리말 큰사전」에 따르면, 관주란 본디 ‘글을 풀어서 잘된 곳에 치는 동그라미’를 뜻한다⁹⁾. 그런데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성경의 다른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의 첫 낱말 위에 작은 글씨로 보통은 한글의 닿소리 자모 14자와 홀소리 자모 10자와 겹홀소리 ㅄ를 순서대로 적은 다음에¹⁰⁾, 본문을 적은 난 위에 각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다른 구절들을 약자로 적어 두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본문의 어떤 부분에 기호로 표시해 둔 것은 ‘관주 표시’, 그렇게 표시된 부분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다고 보아서 본문의 난 바깥에 약자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공간을 ‘관주란’, 거기 적힌 구절을 ‘관련 구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관주’라는 낱말은 이 ‘관주 표시’와 ‘관주란’와 ‘관련 구절’을 한데 묶어 말할 때 쓰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미리 말해 둘 것은, 이 글의 서술도 논지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일상의 논문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소 번거로운 느낌을 주더라도, 구약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으로 성경 본문을 읽고, 매번 나오는 관주 표시를 따라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들을 보면서 관주 표시된 부분의 본문의 뜻을 생각해 보는 상황을 생각해서, 관주란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대부분 한글 개역판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히브리어 본문은 문제가 되는 부분만 인용하기로 한다는 점이다.

2.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검토

2.1. 1절

2.1.1. 개요

1절에는 ‘악인의’, ‘쫓지’,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의 여섯 낱말의 첫 글자에 ㄱ부터 ㅂ까지의 여섯 자모가 하나씩 차례대로 윗첨자로 붙어 있고, 각 기호가 표시하는 부분의 관련 구절들을 관주란에 적어 두었다. 그런데, 그 구절들과 시편 1장1절을 견주어 보면, 이 관주 표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의 경우에 각각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 ‘앉지 아니하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여섯 가지 표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열거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2. ㄱ: ‘악인의 꾀’

‘악인의 꾀’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아차트 르샤임>¹¹⁾은 관주란에서 제시한 읍기 21장16절(“그들

9) 한글학회 엮음, 「우리말 큰사전」(서울: 어문각, 1992), 396쪽.

10) 이 밖에도 시편 표제에는 * + x도 관주를 표시하는 기호로 쓰이고 있다. 앞의 주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48쪽 참고 이중모음 가운데 ‘ㅄ’만 쓴 까닭이 분명하지 않다. 여차피 한글의 26자모만으로써는 관주 표시 기호가 모자랄 경우에는 아예 ‘이’로 일단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ㄱ’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왕 ‘ㅄ’를 썼으면, 뒤이어 ‘ㅄ’, ‘ㅄ’, ‘ㅄ’까지는 쓸 수 있을 것이다.

11) 히브리어 낱말의 한글 음역 표기에 대해 아직 구약학계에서 합의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앞의 주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340-359쪽에서 제안한 바를 주로 따르되, 몇 가지 경우는 시험삼아 다음과 같이 달리 적기로 한

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아차트 르샤임>은 나와 판이하니라”)에 그대로 나오는데, 다만 거기서는 ‘악인의 계획’이라고 번역되어 있다¹²⁾. 이 구절은 현재 욥기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재난 당한 욥을 위로하러 찾아 온 세 동무 가운데 맨 끝에 등장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대꾸하면서 반영하는 악인들의 행태와 상황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들어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구절은 슬한 악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한 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시편 1편의 분위기에도 잘 어울린다.

이처럼 ‘악인의 꾀’에 대한 관주는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 비록 한글 개역판에서 달리 번역이 되었지만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이 표현의 사상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아차트 르샤임>은 또한 욥기 10장3절(“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아차트 르샤임>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과 22장18절(“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아차트 르샤임>은 나와 판이하니라”)에 나온다. 욥은 10장3절에서 하나님이 욥 자신은 무고히 괴로움을 겪게 하고 악인들이 계획한 바는 이루어지게 하시려다가 여쭙고 있고, 22장18절에서는 욥의 친구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앞서 욥이 21장16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이끌어 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한다.

물론 시편 1편1절의 ‘악인의 꾀’에 대한 관주란에서 욥기 21장16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욥기 21장16절을 찾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악인의 계획’에 다시 욥기 22장18절을 관련 구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의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으나, 독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관주가 되려면, 아예 시편 1편1절의 관주란에서 욥기 22장18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¹³⁾. 다만 욥기 21장16절의 ‘악인의 계획’에 대한 관주란에서 ‘욥22:18 비, 시1:1’라고 적음으로써, 욥기 두 본문과 시편 본문 사이에 관련성의 등급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다면, 시편 1편1절의 관주란에서도 ‘비, 욥21:16’ 또는 ‘비, 욥21:16; 22:18’이라고 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이미 민영진이 지적한 대로¹⁴⁾, 개역 한글판의 관주에서 ‘비’라는 약자가 붙은 경우와 그런 말이 없는 일반 관주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⁵⁾.

다. (1) 히브리어 장모음 가운데 <채레> 및 <채레 요드>는 <H>로, <세골> 및 <세골 요드>는 <E>로 적는다. 이는 우리 한글 모음에서 장단을 구별하여 표기할 수 없는 <아>, <이>, <오>, <우>와는 달리, <에>와 <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록 음성학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히브리어 모음의 두 가지에 상응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2) 무성<스와> 붙은 <아인>은 <오>로 적어서, 묵음으로 처리되어 표기되지 않는, 음절 끝의 <알렙>과 구별하기로 한다. (3) 파열음 또는 폐쇄음인 <페>, <베트>, <타우>, <테트>, <달레트>, <코프>, <카프>, <기멜>이 음절 끝에 쓰일 때는 한결같이 모음 ‘으’를 붙여 적기로 한다. 이는 세 자모로 이루어진 히브리 낱말의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4) 이른바 <브가드크파트> 여섯 자모에 경강점(<다게쉬 르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구별하여 적지 않지만, 중복점(<다게쉬 포르테>)이 붙은 자모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한글 자모를 두 번 옮겨적기로 한다. 이는 히브리어 동사나 명사의 변화 형태를 살리기 위한 시도이다. (5) <요드>에 유성 <스와>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를 <여>로 적어서, <요드>에 모음 <세골>이나 <채레>가 붙은 경우와 구별하기로 한다. (6) 히브리어 문장에서 여러 낱말을 한 단위로 읽을 때 쓰는 이음줄(-)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글 문장에서 문장 부호 ‘-’는 이와 전혀 다른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자모는 <아도나이>로 표시하기로 한다.

12) 개정개정판을 포함하여 우리 한글 번역본들과 달리 독일어 성경 가운데서는 LB와 ZB가 이 두 군데에서 <아차트 르샤임>을 한결같이 der Rat der Gottlosen(“불경건자들의 의논”)으로, 또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NIV가 the counsel of the wicked(“사악한 자들의 모의”)로 옮겨 놓아, 실제로 그 히브리 낱말이 같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여기서, 관주가 쓸모 있게 쓰려면, 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한, 같은 히브리어 표현은 같은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13) NIV 관주란에서는 욥기 21장16절의 관주란과 시편 10편2-11절을 보라고 하는데, 욥기 21장16절의 관주란에서는 22장18절과 시편 1편1절과 26편5절(“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과 36편1[2]절(“악인의 죄孽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을 관련구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시편 10편2-11절(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보라)과 36편1[2]절은 악인의 행태와 생각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고, 26편5절은 아래 2.1.7에서 보듯이 시편 1편1절의 ‘앉지 아니하고’에 대한 관련 구절로 볼 수 있을 뿐, ‘좃지 아니하며’와 직접 관련되는 구절로 보기는 힘들다.

14)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54쪽.

15)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악인의 꾀’(counsel of the wicked)의 관련구절로 시편 5편9[10]절(“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11]절(“하나님이

또 <아차트 르샤임>이 시편 1편1절의 경우처럼 ‘악인의 꾀’로 번역된 욥기 10장3절은 욥기 21장16절과 22장18절 그 어느 곳의 관주란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¹⁶⁾.

이런 식으로 하나씩 관련 구절을 보충하다 보면, 관주 분량이 많아질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악인의 꾀’에 대한 관련 구절은 욥기 10장3절의 관주란에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지시하고¹⁷⁾, 욥기 10장3절의 관주란에 21장16절과 22장18절을 제시하면 된다.

2.1.3. ㄴ: ‘쫓지 아니하며’

이는 히브리어 표현 <로 할라크>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관련 구절로 제시한 잠언 4장14절(“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와 15절(“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에서 각각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지어다’, ‘지나가지 말며’로 옮긴 <알 타보>, <알 트앗쉐르>, <알 타아보르>와 똑같지는 않고, 그저 비슷한 뜻을 지닌다. 또 ‘들어가다’(<보>), ‘다니다’(<아샤르>의 피엘형), ‘지나가다’(<아바르>)라는 동사와 관련되는 장소도 ‘사특한 자의 첩경’(<오라흐 르샤임>) 또는 ‘악인의 길’(<테레크 라임>)이어서¹⁸⁾, 시편 1편1절의 ‘악인의 꾀’(<아차트 르샤임>)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슷하다. 또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잠언 4장14-15절은 지혜 스승이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 가운데 들어 있어서, 악인들 가운데서 홀로 야훼의 율법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복된 사람을 본받을 인물로 소개하는 분위기를 띠는 시편 1편의 지혜문학적 상황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시편 1편1절의 <로 할라크>가 서술 관계문 안에 들어 있는 것과는 달리, 잠언 4장14-15절의 세 표현은 금지 명령문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잠언 4장14-15절은 직접적으로 시편 1편1절의 ‘쫓지 아니하며’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저 문맥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¹⁹⁾.

이처럼 ‘쫓지 아니하며’에 대한 관주는 히브리어로 비슷한 몇 가지 표현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는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의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굳게 지키는 의인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 그려보게 함으로써 본문 이해를 돕는다.

2.1.4. ㄷ: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모에초트>]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0편2-11절(“...²악한 자가 교만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배푼 꾀[<머짐모트>]에 빠지게 하소서³...⁴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머짐모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⁵...”), 36편1[2]-4[5]절(“...⁴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야호쇼브>] 스스로 불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여러 구절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라사>, 10:2,3,4; 36:1[2])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에차>와 비슷한 뜻의 명사 <모에차>(5편10[11]절), <머짐마>(10편2,4절)를 ‘꾀’로, 또 동사 <하샤브>(36편4[5]절 - 이 글에서 성경의 장절 표시는 개역 한글판을 따르고, 이와 다른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표시는 []안에 적기로 한다)를 ‘꾀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서, 넓게 보면, 시편 1편의 ‘악인의 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로는 관주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16) Dahood, 2쪽에는 언급되어 있다.

17) 그 표시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Vulgata에서는 관련 구절 다음에 ‘!’을, NIV에서는 ‘S’를, 관주 해설 성경전서 독일 성서공회판에서는 ‘관’을 덧붙인다. 우리로서는 맨 마지막 경우를 따르면 좋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욥10:3관’이라고 쓰면 된다.

18)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또한 아래 2.6.2와 2.6.4의 (2)를 보라.

19) 따라서, 이 경우는, 개역 한글판의 관주 체계를 따른다면, 오히려 비교 관주로 다루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NIV 관주란에서는 ‘쫓다’(walk)의 관련구절로 시편 89편15[16]절(“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아쉬래 하임>]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여할래룬>]”)를 들고 있다. 이는 여기에 동사 <할라크>(직역하면 ‘간다’)가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쉬래>가 들어 있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브데레크 핫타임 로 아마드>의 번역으로서, 여기서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된 잠언 1장10절(“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쫓지라도²⁰⁾ 쫓지 말라[<임 여팍투카 핫타임 알 토배>”)과 공통된 점은 복수 명사 <핫타임> 뿐인데, 그것마저도 시편 1편1절에서는 ‘죄인’으로, 잠언 1장10절에서는 ‘악인’으로 번역했다. ‘쫓지 말라’로 옮긴 <알 토배>는 내용상으로 오히려 시편 1편1절에서 두 번째로 관주가 붙은 ‘쫓지 아니하며’(<로 할라크>)와 잘 어울린다. 이리하여, 잠언 1장10절이 앞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혜 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기는 하나, 시편 1편1절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 밀접히 관련되는 구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잠언 1장15절(“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알 텔레크 브데레크 잇탐>]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의 관련 구절로 제시할 만하다. 잠언 1장15절의 ‘그들’은 10절에 나온 ‘악한 자’(<핫타임>, 직역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이다²¹⁾.

2.1.5. 르: ‘오만한 자’

히브리 복수 명사 <래침>의 번역인 ‘오만한 자’의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잠언 1장22절(“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래침>]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장34절(“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래침>]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9장29절(“심판은 ‘거만한 자’[<래침>]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1장24절(“무례하고 ‘교만한 자’[<래츠>]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29장8절(“모만한 자’[안쇄 라춘]는 성음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을 제시한 뒤에 마지막으로 ‘비’라는 약자 다음에, 곧 그 밖에도 비교할 만한 구절로서 이사야 28장14절(“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안쇄 라춘]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을 들고 있다.

이리하여 히브리어로는 같은 낱말인 <래침>이 ‘오만한 자’(시1:1), ‘거만한 자들’(잠1:22), ‘거만한 자’

20) 여기서 ‘짜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팻타흐>는 1절에서 ‘짜’로 옮긴 히브리어 명사의 뿌리가 되는 동사 <아아츠>와 다르다.

21) NIV 관주란에서는 ‘길에 서다’(stand in the way)의 관련 구절로서 창세기 49장6절(“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브소담 알 타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비크할람 알 테하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의 관주란을 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 나란히 나오는 히브리 명사 <소드>와 <카할>은 오히려 시편 1편5절 후반절에서 ‘회중’으로 번역한 <에다>와 비슷한 뜻을 지닌다. NIV 창세기49장6절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1절과 잠언 1장15절과 에베소서 5장11절(“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또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죄인의 길’(path of sinners)시의 관련 구절로 맨먼저 드는 시편 17편4절(“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아니 샤마르티 오르호트 파리츠>”)은 그저 내용상으로 시편 1편1절과 관련될 뿐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 관주로 표시할 수 있겠으나,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1절의 ‘죄인’(<핫타임>)의 관련 구절로 26편9절(“내 영혼을 ‘죄인’[<핫타임>]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과 37편38절(“범죄자들[<포쉬임>]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르샤임>]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과 51편13[15]절(“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핫타임>]이 주께 돌아오리이다”)과 104편35절(“죄인[<핫타임>]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내 영광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죄인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복수 명사 <핫타임>이 시편에 나오는 경우를 열거하려고 했다면, 시편 37편38절은 빼고, 25편8절(“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을 넣어야 했을 것이다. <핫타임>은 시편에서 6번(1:1,5; 25:8; 26:9; 51:13[15]; 104:35)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편 37편38절을 여기 적은 것은 아마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악인’(<르샤임>)과 같은 뜻을 지니는 죄인들의 멸망이라는 주제가 시편 1편과 37편에 공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드 브...>(‘...에 서다’)는 예레미야 23장22절(“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아므드 브소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에서 볼 수 있듯이 문맥에 따라 ‘...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Dahood, 2쪽).

(잠3:24; 19:29)의 세 가지로, 그 단수형 <래츠>는 또 다른 표현인 ‘교만한 자’(잠21:24)로 번역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잠언 29장8절의 ‘모만한 자’와 이사야 28장14절의 ‘경만한 자’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 <이쉬>의 복수 연계형과 동사 <리츠>(‘비웃다’, ‘조롱하다’)에서 비롯되어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명사인 <라촌>이 한데 어우러져서 실제로는 <래침>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문맥을 살펴 보면, 잠언 3장34절의 경우에는 <래침>(직역하면 ‘비웃는 자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리츠>하신다(직역하면 ‘비웃으신다’)는 낱말 놀이를 통해서, <래침>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리츠>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서, 시편 1편1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장22절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에서 <래침>이 나오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야훼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비웃음’은 결국 야훼를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야 28장14절에서는 ‘경만한 자’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이들이 평소에 야훼의 말씀을 비웃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시편 1편2절에 나오는 ‘야훼의 율법’이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토라>시편이라 불리는 119편이나 19편 앞부분에서 거의 ‘야훼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 이 이사야 구절은 한층 더 시편 1편1절과 가깝게 느껴진다. 이와는 달리, 잠언에서 뽑은 나머지 세 구절(19:29; 21:24; 29:8)에서는 <래츠>가 야훼 하나님 또는 야훼의 말씀을 거스른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튼, ‘오만한 자’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비슷한 문맥에서 비슷한 뜻의 여러 가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를 주로 소개하면서도 히브리어 말로 비슷한 표현까지 포함하여, 그런대로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준다²²⁾.

그렇지만, 비교 관주로 제시한 이사야 28장14절이 일반 관주로 앞세운 잠언 19장29절, 21장24절, 29장8절보다 시편 1편의 ‘오만한 자’의 성격 규명에 더 보탬이 된다고 할 때, 일반 관주와 비교 관주의 구별이 타당하지 않다. 위 잠언 세 구절은 일반 관주에서도 뺄 만하다.

2.1.6. □: ‘자리’

이는 <모샤브>의 번역인데, 이 낱말은 관주에서 제시한 시편 107편32절(“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라도”)에서도 ‘자리’로 번역되어 있다. 그렇지만 문맥으로 보면, 감사 시인 107편의 넷째 단락에서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곳으로 ‘장로들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서, 이는 시 1편1절의 ‘오만한 자의 자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이를 비교 관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리’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이 되었으나 내용은 대조되는 경우를 소개한다.

22) 한편 McCann(P.684)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래츠>라고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잠언 1장22절과 아울러 제시한 9장7-8절(“‘거만한 자’[<래츠>]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래츠>]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13장1절(“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래츠>]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4장6절(“‘거만한 자’[<래츠>]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15장12절(“‘거만한 자’[<래츠>]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아니하느니라”)은 앞서 제시한 구절들 만큼 본문 이해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NIV 관주란에서는 ‘오만한 자’(mockers)의 관련 구절로서 잠언 1장22절과 이사야 28장14절과 호세아 7장5절을 들기에 앞서 맨먼저 욱기 11장3절(“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곳을 보면, ‘비웃다’(mock, <라아그>)의 관련 구절로서 욱기 12장4절과 16장10절과 17장2절과 21장3절과 30장1절과 마지막으로 시편 1편1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구절들에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뜻의 동사들이 나오지만, 시편 1편1절에 나오는 <래츠>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그리 적절한 관주라 하기는 힘들다. 이와는 달리 호세아 7장5절(“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래츠>]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에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 쓰이는 동사 <라차츠>의 능동 분사 복수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사를 <리츠> 동사의 또 다른 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1.7. B: ‘앉지 아니하고’

이는 <로 야샤브>의 번역인데,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26편4절(“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로 야샤브티 임 므테 샤워>]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와 예레미야 15장17절(“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로 야샤브티 브소드 므사하킴>]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을 제시한다. 이 두 구절에 모두 ‘앉다’는 뜻의 히브리 동사 <야샤브>가 부정어 <로>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구문상으로 보면 동사 다음에 히브리 전치사 <임>(‘..와 같이’)을 쓴 전치사구(<임 므테 샤워>, 직역하면 ‘헛된 사람들과 같이’)²³⁾가 뒤따라 나오는 시편 26편4절보다는 히브리 전치사 <브>(‘...에’)를 쓴 전치사구(<브소드 므사하킴>, 직역하면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에’)가 나오는 예레미야 15장17절이 시편 1편1절에 더 가깝다. 26편4절은 개인 탄원사에서 시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고, 예레미야 15장17절은 이른바 ‘예레미야의 고백’ 둘째 본문에 속하는 구절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이 두 구절에 비추어 보면, 시편 1편의 시인도 무고히 어려움을 겪는 의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앉지 아니하고’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어서 비슷한 문맥에 쓰이고 있는 경우를 소개함으로써,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시 26편에는 내용상으로 시편 1편과 관련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다. 5절(“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임 르샤임 로 애쇄브>]”)이 그것인데,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시 1편1절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브모샤브 래침 로 야샤브>)와 비슷한 뜻을 띤다. 특히 후반절은 <임>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를 동사 <야샤브>와 부정어 <로>보다 앞세우고 있어서, 그 어순이 시1편의 상응 부분과 같다. 그렇다면, 이 구절도 관주란에서 언급했어야 한다²⁴⁾.

2.1.8.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1) 이 밖에 1절에서 관주를 붙일 만한 표현으로는 첫머리에 나오는 ‘복 있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히브리 낱말인 <아쉬래>는, 바로 그 낱말을 통해서 시편 1편1절과 수미쌍관(首尾雙關, inclusio)의 관계를 이루는 시편 2편12절(“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아쉬래>]”)을 비롯하여 시편과 잠언 또 구약의 다른 책 여러 곳에 나오고, 시1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2편12절은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²⁵⁾ 나머지 구절들 가운데 적어도 2편12절과 관련되는 것들은 그곳의 관주란을 보라는 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²⁶⁾. 더 나아가서, NIV 관주란처럼, <아쉬래> 형식의

23) KJV2 관주란에서 1절의 관련 구절로서 욥기 31장5절(“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할랄크티 임 쇠워>, 직역하면 ‘내가 헛된 것과 같이 걸었다’ 내 발이 쾌홀에 빨랐던가]”)을 제시한 것은, 그 전반절이 1절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과 수리아역을 따르면, 이 부분이 <할랄크티 임 므테 쇠워>(직역하면 ‘내가 헛된 사람들과 같이 걸었다’)이었으리라는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구절은 시편 26편4절을 거쳐서 1편1절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24) LB 관주란과 NAV 관주란에서는 26편4-5절을, ZB 관주란에서는 4절을 시편 1편1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맨먼저 제시한다.

25) GNE 관주란에서는 ‘복 있는’(happy)의 바로 앞 뒤 관련 구절로 욥기 30장26절(내가 복을 바랐더니[GNE: I hoped for happiness]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과 시편 2편12절을 들고 있다.

26) 시편에 25번이나 나오는 <아쉬래> 구절 가운데서 34편8[9]절(“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4편12[13]절(“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과 146편5절(“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과 40편4[5]절(“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이 그런 구절로 볼 수 있다. 개역 한글판 시편 2편12절 관주에서는 이 밖에도 잠언 16장20절(“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표현이 현재 구약 성경의 순서로 볼 때에 맨먼저 나오는 신명기 33장29절(“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 로다[<아쉬레카>]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 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 시하고 거기에 관련 구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²⁷⁾.

(2) LB나 JB 관주란 등에서 시편 119편1절(“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 니”[<아쉬레 트미매 데레크 하홀르킴 브토라트 아도나이>])를 1편1절의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로 제시 한 것은, 1편과 119편이 이른바 <토라> 시편인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시편 1편1절 첫머리에서 <아쉬레>로 시작한 문장이 실제로는 2절 끝에서야 마무리되므로, 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119편1절 을 보는 것이 더 낫다²⁸⁾.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 있다다’(<마카리오스>) 형식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용상으로 누가복음 11 장28절(“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을 시편 1편1-2 절의 관련 구절로 들 수 있다²⁹⁾.

(3) 다음으로, 1절에 나오는 세 동사 <할라크>(‘걷다’)와 <아마드>(‘서다’)와 <야샤브>(‘앉다’)는 신명 기 6장7절(“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 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야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상황을 가리키는 네 동사 <야샤브>(‘앉다’)와 <할라크>(‘걷다’=한글 개역판의 ‘행하다’)와 <사카브>(‘눕다’)와 <쿰>(‘일어 나다’)과 견주어볼 만하다³⁰⁾. 따라서 1절 전체에 대한 관주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이 구절을 관련 구 절로 제시할 수 있겠다³¹⁾.

가 복이 있느니라”)과 예레미야 17장7절(“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라[<바룩>]”)과 이사야 30장18절(“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다”)을 관련 구절로 언급한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7절의 경우에는 <아쉬레> 대신에 <바룩>이 나온다.

27) NIV 관주란에서는 신명기 33장29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한 뒤에, 시편 40편4[5]절(“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아쉬레 학게베르>]”)과 128편4절(“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켄 여보라크 가베르>]”)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앞 구절은 내용상으로 시편 1편1-2절에 상 응한다. 그렇지만, 뒷 구절에서는 ‘복’을 표현하는 히브리 낱말의 뿌리(<ברכ>)가 1편의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 용도 너무 일반적이다. <아쉬레>가 나오는 시편 구절이 이 밖에도 여럿 있고, 내용상으로도 뒤이어 2.1.8의 (2)에서 다룬 시편 119편1절(“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이 앞서 말한 128편4절보다 더 1편에 가까우므 로, 128편4절을 관련구절로 제시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또 신명기 33장29절 NIV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은 시편 1편1절과 32편1-2절(“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 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다”)과 144편15절(“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 이 있다다”) 셋 밖에 없어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신명기 33장29절 가운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의 내 용과 가장 가까운 경우에는 이미 언급된 시편 144편15절과 33편12절(“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 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다”)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행복자로다’(<아쉬레카>)에 들어 있는 <아쉬레> 형 식에만 관주 표시를 한다면, 관련 구절로는 ‘왕상10:8; 사30:18관; 시1:1관; 잠3:13관; 전10:17’정도만 적고, 그 후속 조치로 이사야 30장18절 관주란에서는 ‘32:20; 56:2’를, 잠언 3장13절의 관주란에서는 ‘8:32,34; 14:21; 16:20; 20:7; 28:14; 29:18’을 언 급하면 될 것이다.

28) 경우에 따라서는, 야훼의 <토라> 또는 그와 비슷한 개념과 관련하여 <아쉬레> 형식이 나오는 94편12절(“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토라트카>]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12편1절(이에 대해서는 아래 2.2.2 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119편2절(“여호와와 증거[<에도트>]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다”), 128편1절(“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드라킴>]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잠언 29장18절(“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 자히 행하거나 율법[<토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도 시편 1편1-2절의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관 주란의 분량이 너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관련되는 구절은 일단 관주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9) Mays(44쪽)은 시편 1편 전체를 누가복음 11장28절과 관련시킨다.

30) F.-L.Hossfeld/E.Zenger, 47쪽.

31) 그런데 ZB에서는 신명기 6장7절을 시편 1편2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NAB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 1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앞 2.1.7에서 이미 언급한 26편4-5절과 앞의 주 27에서 언급한 40편4[5]절을 제시한다. JB에서는

2.2. 2절

2.2.1. 개요

2절에는 ‘여호와와’와 ‘울법을’의 두 낱말 첫 글자에 각각 ㅅ과 ㅇ이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2절을 견주어 보면, 이 두 관주 표시에서 문체 삼는 것은 각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와 ‘울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2.2. ㅅ: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112편1절(“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35절(“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92절³²⁾(“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로마서 7장22절(“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시편 1편2절의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브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초>, 직역하면 ‘야훼의 가르침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와 용어 및 문장 구조상으로 가장 가까운 경우로는, 112편1절의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브미츠오타브 하페츠>, 직역하면 ‘그의 계명들을 그가 즐거워한다’)과 119편35절의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보 하파츠티>, 직역하면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을 들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명사 <해페츠>(‘즐거움’)이 쓰인 시편 1편2절의 경우와는 달리, 동사 <하파츠>(‘즐거워하다’)를 쓰고 있으나, 그에 관련되는 전치사구, 곧 전치사 <브>(‘...에’)와 그에 딸린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와서 실제로는 시편 1편2절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야훼의 ‘계명’(<미츠와>)들 또는 그 계명들의 첩경을 밟는 것이 1편2절의 <토라>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119편47절의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쉬에쉬타야샤 브미츠오테카>,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의 계명들을 기뻐하나이다’)와 92절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톨래 토라트카 샤아슈아이>, 직역하면 ‘당신의 가르침이 내 기쁨이 아니라면’)의 경우에는 1편2절의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며’와 전혀 다른 뿌리의 동사(<ㅅㅇ>)나 그 명사형(<샤아슈임>)이 쓰이고 있다. 로마서 7장 22절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쉬네도마이 토 노모 투 테우>)를 히브리어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하파츠티 브토라트 엘로힘> 정도가 될 수 있어서³⁴⁾, 어순을 제외하면 시편 112편1절과 119편35절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처럼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에 대한 관주는 그 히브리어 표현이나 구조가 비슷한 구절들을

시편 26편5절, 40편4[5]절, 112편1절, 119편1절, 잠언 1장10절을 관련 구절로 열거한다.

32) 1964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에서는 이를 93절로 잘못 적었다. 전무용(앞의 주1에서 인용한 글, 65쪽)은 이 성경에 나오는 관주의 내용이 1962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 한글 개역판」의 관주와 같고, 관주 기호 붙이는 자리만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 보기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아 제시한다(같은 글, 84-97쪽).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관주를 잘못 옮겨놓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Davidson(11쪽)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다른 구절들과 함께 인용하는 시편 40편8[9]절(“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하파츠티>] ‘주의 법’[<토라트카>]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에도 동사 <하파츠>와 명사 <토라>가 같이 나오지만, 전후반절로 나누어져 쓰이고 있다.

34) 현대 히브리어 신약성경(Hebrew New Testament[Jerusalem: Yanetz Ltd., 1979])에서는 이 부분을 <아니 사매아흐 브토라트 엘로힘>으로 옮기고 있다.

소개하면서, 본문이 어떠한 전통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준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6장10절(“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의 말씀[<드바르 아도나이>]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로 야호프추 보>]”)을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다. 동사 <하파츠>와 전치사 <브>와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을 즐거워하다’를 뜻하는 표현이 양쪽에 다 나오고, ‘여호와와의 율법’과 ‘여호와와의 말씀(<드바르 아도나이>’)는 문맥에 따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이 구절은 야훼의 말씀을 중시하는 예언자 전통과 <토라>를 중시하는 전통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2.2.3. ○: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119편1절³⁶⁾(“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과 97절(“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과 여호수아 1장8절(“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서 시편 1편2절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브토라토 예호게 요맘 왈라열라>, 직역하면 ‘그의 가르침을 내가 낮밤으로 읊조리도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호수아 1장8절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워하기타 보 요맘 왈라열라>, 직역하면 “그리고 너는 그것[=이 <토라>]을 낮밤으로 묵상하라”)이다. 8절 뒷부분에 나오는 ‘형통하다’(<찰라호>의 히필형)는 또한 시편 1편3절에서도 쓰인다³⁷⁾. 시편 119편97절에서 ‘묵상하다’로 옮긴 히브리어 동사는 ‘감사 찬양드리면서 명상하는 것’³⁸⁾을 뜻하는 <시아호>로서 시편 77편12[13]절(“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워하기티 브콜 포올레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우브알릴로테카 아시히>]”)에서는, 1편에 나오는 동사 <하기>와 나란히 쓰이면서 실제로는 비슷한 뜻을 나타낸다³⁹⁾. 119편1절은 ‘여호와와의 법에’(<브토라트 아도나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은 오히려 1편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보는 것이 좋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⁴⁰⁾.

이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에 대한 관주는 같은 히브리어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와 아울러 비슷한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된 경우도 알려준다⁴¹⁾.

35) RSV에서는 시편 1편2절과 관련되는 구절로서 119편14절(“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브데레크 에도테카 사스타>]”)과 16절(“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브혹코테카 에수타아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도 제시하는데, 이 두 경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와 목적어는 둘 다 시편 1편2절의 경우와 같지 않고 비슷한 뜻을 지닐 따름이다. 또 Mays(43쪽)가 시편 1편에서 묘사하는 악인들은 결국 야훼의 <토라>와 올바른 관계에서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욥기 21장14절(“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다아트 드라케카 로 하파츠누>, 직역하면 ‘당신의 길들에 대해 알기를 우리는 즐겨하지 않노라]”)은 시편 1편2절의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와 비교할 만하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같은 데서 ‘여호와와의 율법’(<토라트 아도나이>, 1절 등)과 ‘여호와와의 길’(<데레크 아도나이>, 3절 등 참고)이 실제로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36) 이에 대해서는 위 2.1.8의 (2)를 보라.

37) 이에 대해서는 아래 2.3.5를 보라.

38) Ludwig Köhler/Walter Baumgartner/Johann Jakob Stamm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아래에서는 HAL로 줄여쓰기로 한다). Lieferung IV (Leiden: E.J.Brill, 1990), 1231쪽: ‘dankend-lobend meditieren’.

39) 개역개정판에서는 <시아호>도 대부분의 경우 <하기>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옮겼다. 아래 4.2.3의 (2)와 (3)을 보라. 또 아래 2.2.4의 (2)를 참고하라.

40) 위 2.1.8의 (2)를 보라.

41) Vulgata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3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서 신명기 17장19절(“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두 구절은

2.2.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도 2절에서 관주를 붙일 만한 경우로는 ‘여호와와 의 율법’과 ‘주야로’와 ‘묵상하는’의 세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여호와와 의 율법’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이미 앞서 1-2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언급된 119편1절⁴²⁾ 말고 19편7[8]절(“여호와와 의 율법[<토라트 아도나이>]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과 출애굽기 13장9절(“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토라트 아도나이>]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정도를 들 수 있다⁴³⁾.

(2) ‘주야로’로 옮긴 <요맘 왈라일라>(또는 <요맘 왈라일라>⁴⁴⁾)는 ‘낮 동안’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요맘>과 ‘밤 동안’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라일라>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모음이 <아>인데서도 드러나듯이,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가지 뜻, 여기서는 ‘끊임없이’, ‘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인데⁴⁵⁾, 이 점은 이사야 60장11절(“네 성문이 항상[<타미드>] 열려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닫히지 아니 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이라”)에서 이 표현이 ‘항상’의 병행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데서도 분명해진다. 이 표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호수아 1장8절⁴⁶⁾ 말고도 출애굽기 13장21절(“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진행하게 하시니”)에서 시작하여 예레미야애가 2장18절(“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요맘 왈라일라>] 눈물을 강처럼 흘릴찌어다”)에 이르기까지⁴⁷⁾ 구약 성경에 모두 19번이나 나온다⁴⁸⁾.

넓은 의미에서 서로 관련될 따름이다.

42) 위 2.1.8의 (2)를 보라.

43) NIV 관주란에서는 ‘여호와와 의 율법’(the law of the LORD)의 관련 구절로 시편 19편7[8]절과 119편1절과 에스겔 11장20절(“내 율례를 좃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과 18장17절(“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마지막 두 구절은 시편 1편과 간접적으로 관련될 따름이다.

44) <왈라일라>는 그 셋째 자모 아래 억양 부호 때문에 그 다음 자음 <요드> 아래의 <스와>가 소리가 난 까닭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왈라일라>와 발음이 달라진 것이다. 아래의 주48에서 열거하는 19 군데 가운데서 4 군데(출13:21; 왕상8:59; 렘33:25; 시42:3[4])에서만 <왈라일라>로 되어 있다.

45) 따라서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주야’를 ‘낮’과 ‘밤’으로 구별하여 각각에 대한 관련구절로 시편 25편5절과 63편5절 및 6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6) 위 2.2.3을 보라.

47) 어떤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과 맨 나중에 나오는 곳을 말할 때, 이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의 책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개역 한글판 성경의 책 순서를 따른 것이다.

48) 출13:14; 레8:35; 민9:21; 수1:8; 왕상8:59; 대상9:33; 대하6:20; 느1:6; 4:9[3]; 시1:2; 32:4; 42:3[4]; 55:10[11]; 사60:11; 렘9:1[8:23]; 16:13; 33:20; 33:25; 애2:18. 이는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58)에서는 시편 1편2절에 이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이 얼른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33장25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브리티 요맘 왈라일라>]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의 경우는 창세기 8장22절(“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요맘 왈라일라>]이 쉬지 아니하리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주야’는 시간 단위인 ‘낮’과 ‘밤’을 가리킨다. 이는 다른 구절에서는 ‘주야’가 한결같이 부사적으로 쓰인 것과는 달리, 창세기8장22절의 <요맘 왈라일라>는 문장의 주어부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루고, 예레미야 33장25절의 <요맘 왈라일라>가 문장 주어부의 구성 요소로 나타난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또 레위기 8장35절(“너희는 ‘칠 주야’[<요맘 왈라일라 쉬브아트 야뎀>]을 회막 문에 거하여 여호와와 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에 나오는 ‘주야’는 칠 일 동안이란 기한 안에서 ‘끊임없이’라는 뜻을 지닌다.

시편에서는 이 표현이 32편4절(“주의 손이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과 42편3[4]절(“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내 음식이 되었도다”)과 55편10[11]절(“저희가 주야로[<요맘 왈라일라>]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에 들어 있다.

또 <라일라>와 <요맘>의 순서가 바뀌면서 그 둘이 단순 접속사(<위>)로 이어진 꼴 <라일라 위요맘>은 신명기 28장66절(“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라일라 위요맘>]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과 이사야 34장10절(“낮에나 밤에나[<라일라 위요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 없이’[<르올람>]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49)과 예레미야 14장17절(“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라일라 위요맘>] 꿍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에 나온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인 <라일라 와욘>이 열왕기상 8장29절(“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라일라 와욘>]50)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행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과 이사야 27장3절(“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라일라 와욘>]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과 에스더 4장16절(“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일’[<셀로쉐트 야민 라일라 와욘>]51)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나온다.

이런 모든 구절을 시편 1편2절의 ‘주야로’의 관련 구절로 적을 필요는 없다. 우선 그 뜻을 밝혀 주는 이사야 60장11절과 시편에 나오는 다른 세 경우(32:4; 42:3; 55:10)와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경우인 출애굽기 13장21절의 관주란52)을 보도록 지시하면 될 것이다.

(3)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옮긴 히브리 동사 <하가>는 앞서 언급한 77편12[13]절53)과 143편5절(“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하기티 브콜 포올레카>]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도 나오고, <하가>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히브리 동사 <시아흐>는 앞서 언급한 119편97절 말고도 15절(“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브픽쿠데카 아시하>] 주의 도에 주의하며”), 23절(“방백들도 앓아 나를 훼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야시아흐 브혹케카>”), 27절(“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위아시하 브니 플르오테카>”), 48절(“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위아시하 브혹케카>”), 78절(“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앞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아니 아시아흐 브픽쿠데카>”), 148절(“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라시아흐 브이뜨라테카>]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145편5절(“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아시하>”)에 나온다54). 위에 언급된 119편의 구절들에서는 동사

49) 여기서는 이사야 60장11절의 경우와 비슷하게, <라일라 위요맘>이 <르올람>의 병행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50) 칠십인역과 시리아어역에서는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6장20절처럼 <요맘 왈라일라>를 추정하게 한다.

51) 이는 위의 주48에서 언급한 레위기 8장35절의 경우와 비슷하다.

52) 여기서도 이 표현과 위에서 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쓰이는 구약의 모든 구절을 열거할 필요는 없고, 그 성격을 따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으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주야로 눈물 흘린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레미야 8장23절과 14장17절과 예레미야 애가 2장18절과 시편 42편3절은 시편 42편3절 아래 묶으면 되는데, 이 시편 42편3절은 이미 1편2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되므로, 그냥 시편 1편2편 관주란을 보라고만 지시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또 느헤미야 4장9절은 1장6절과 같은 내용이므로 1장6절만 적으면 된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13장21절의 ‘주야로’의 관련 구절로는 ‘민9:21; 대상 9:33; 느1:2; 시1:2’만 적으면 된다.

53) 위 2.2.3을 보라.

54)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다’(meditate)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창세기 24장63절(“이삭이 저물

<시아호>가 한결같이 전치사 <브>로 시작하는 어구와 연결되며, 그 목상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법도’(<픽쿠드>, 15, 78절)와 ‘올레’(<후크>, 23, 48절)과 ‘말씀’(<이므라>, 148절)이 모두 야훼의 <토라>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이어서, ‘여호와와 올레를 묵상한다’는 시 1편2절 후반절과 통한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은 ‘묵상하는’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기에 특히 알맞다. 다만, 이 구절들을 다 이 곳 관주란에 제시하기 보다는 그 첫 구절인 119편15절의 관주란에 나머지 구절들을 제시하고, 여기서는 시119편15절의 관주란을 보라는 지시만 하면 될 것이다.

한편,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2편 1절의 ‘허사를’의 첫 글자에 ㅅ를 윗첨자로 붙여 관주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해 관주란에서 시편 1편2절을 비교해 보라고 한 것은 2편1절 후반절에서 ‘경영하다’로 번역한 히브리 낱말 <하가>가 1편2절 후반절에도 나오지만, 문맥에 따라 ‘묵상하다’라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관련성은 히브리어를 모를 경우에 한글 번역문만으로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2.3. 3절

2.3.1. 개요

3절에서는 ‘시냇가에’, ‘나무가’, ‘잎사귀가’, ‘그 행사가’의 첫 글자에 각각 ㅈ, ㅊ, ㅋ, ㅌ이 윗첨자로 붙어 있고, 각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3절을 견주어 보면, 관주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각각 ‘시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네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3.2. ㅈ: ‘시냇가에’

‘시냇가에’에서 ‘시내’는 <팔개 마임>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하는 시편 46편4[5]절(“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의 ‘시내’는 <나하르>여서 히브리 말로는 서로 다르다. 남성 복수 연계형인 <팔개>의 단수 절대형 <펠레그>는 본디 인공 수로나 운하를 가리키는 말⁵⁵⁾이고, <나하르>는 강을 뜻한다. <펠레그>의 이처럼 독특한 뜻을 똑똑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가 이사야 32장2절(“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넷물[<팔개 마임>] 같을 것이며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이다. 이 구절의 배경에서 시편 1편3절을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경치 좋고 비옥한 땅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 아니라, 메마른 땅 한가운데 힘들게 파서 만든 물길을 뜻한다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⁵⁶⁾.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수아호>]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하고 있고, 또 거기 관주란을 보면 여호수아 1장8절, 시편 1편2절, 77편12[13]절, 119편15절, 27절, 48절, 97절, 148절, 143편5절, 145편5절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제시한 구절들이 동사 <하가>(수1:8; 시1:2; 77:12[13]; 143:5)나 <시아호>(시 119:15,27,48,97,148; 145:5)를 쓰고 있는 반면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창세기 24장63절에 나오는 동사 <수아호>의 뜻은 확실하지 않고, 글의 흐름으로 볼 때는 ‘묵상하다’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리저리 다니다’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HAL IV, 1223쪽). 따라서 NIV의 이런 관주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LB에서도 시편 119편148절을 시 1편2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55) HAL III(1983), 877쪽.

56) <팔개 마임>은 그밖에도 시편 119편136절(“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팔개 마임>] 같이 흐르나이다”)과 잠언 5장16절(“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팔개 마임>] 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과 21장1절(“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팔개 마임>] 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따라서 이 경우에는 히브리 말로는 다른 뜻을 지니는 두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번역되어 마치 두 곳이 의미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어의 뜻이나 문맥으로 보아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주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히려, NIV 관주란에서 시편 46편4[5]절 다음으로 제시하는 65편9[10]절(“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엘레그>]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이 관련 구절로는 더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렇지만 개역 한글판으로 시편 1편3절의 ‘시내’와 65편9절의 ‘강’이 같은 히브리 낱말의 다른 번역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이런 식의 관주는 본문 이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앞서 살펴 본 이사야 32장2절의 ‘냇물’은 시편 1편3절의 ‘시내’와 히브리어 본문상으로도 같고, 번역상으로도 그 내용이 잘 연결된다.

이리하여 ‘시냇가에’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이사야 32장2절을 적는 것이 좋겠다.

2.3.3. ㄷ: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이와 관련되는 구절로 관주란에서는 우선 예레미야 17장8절(“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과 에스겔 19장10절(“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를 제시하고, 뒤이어 이와 비교해 볼 구절로 민수기 24장6절(“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와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과 욕기 29장19절(“내 뿌리는 물로 뺏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시편 1편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에츠 샤텔 알 팔개 마임 아쉐르 피르요 잇텐 브잇토>)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위의 열거 순서에서 드러나듯이, 예레미야 17장8절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크에츠 샤텔 알 마임>)의 ‘결실’(<아스트 페리>)이 ‘그치지 않음’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 17장8절이고, 그 다음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게펜... 알 마임 샤텔>)의 ‘실과’(<프리아>)가 ‘맺음’에 대해 말하는 에스겔 19장10절이다⁵⁸⁾. 특히 예레미야 17장8절의 경우에는 가뭄에도 청청한 잎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편 1편 3절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주석에서도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5-8절의 관계를 다룬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17장5-8절의 주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점⁵⁹⁾에서, 시편 1편의 경우와 다르다. 유다 왕가에 대한 애가 가운데 나오는 에스

인도하시느니라”)과 예레미야애가 3장48절(“치녀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팔개 마임>]처럼 흐르도다”)에 나오지만, 이런 구절에서는 그 본디 뜻이 이사야 32장2절에서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57) NIV 관주란에서는 ‘시내’(streams)의 관련 구절로 또한 이사야 33장21절(“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닐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느하림>]나 강[<여오림>]이 돌림 같을 것이라”)과 예레미야 31장9절(“올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나할래 마임>] 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을 들지만, 이 모두 시편 1편3절의 ‘시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힘들다.

58) 시편 1편3절에서 ‘과실을 맺으며’만을 따로 떼내어 그에 대한 관련 구절을 찾아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예레미야 17장8절과 에스겔 19장10절 말고도, NIV 관주란처럼, 뒤이어 언급할 시편 92편14절과 아래 2.3.4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에스겔 47장12절을, 또 Weiser(71쪽)처럼 바테복음 7장18-19절(“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을 들 수 있다. RSV 관주란과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에서는 시편 92편12[13]-14[15]절(“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도다 여호와와 그의 집에 심겼음이며[<쉬틀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도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도 시편 1편3절 전체의 관련 구절도 본다.

59) 이에 대해서는 줄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예레미야 17장5-10절), 「성경연구」(전북 완주: 한국성경연구원) 제39호(1998년 2월호), 31-49쪽을 보라.

겔 19장10절에서는 유다 왕가의 이전 상황을 ‘물 가에 심은 포도나무’에 비긴다. 그런가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는 민수기 24장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물 가의 백향목들 같도다’(<카아라짐 알래 마임>)이라고 한 부분이 시편 1편3절에 상응한다. 이렇게 보면, 에스겔 19장10절은 차라리 민수기 24장6절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본문으로 적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일반 관주와 비교 관주를 구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두 구절은 ‘물 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가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공동체성을 띠는 점을 암시한다.

욥기 29장19절의 경우는 ‘뿌리가 물로 뺏어나간다’는 비유가 간접적으로 시편 1편3절의 나무 비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렇지만,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관주란에서 욥기 29장 19절은 빼도 될 것이다.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에 대한 관주는 비슷한 표현과 내용의 관련 구절들을 알려줌으로써, 이 표현의 뜻을 비교적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게 한다⁶¹).

2.3.4. ㄱ: ‘앞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이는 <알래후 로 입불>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 제시한 에스겔 47장12절(“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로 입불 알래후>]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앞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에서는 이 표현이 다만 동사 문장의 일반 어순을 따라 동사가 먼저 나온 뒤에 주어 가 나타난다. 문맥상으로는 에스겔서의 경우에 이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서 이루어진 큰 강가에(<알 나하르>) 자라난 온갖 과일 나무의 앞사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시냇가에(<알 팔개 마임>) 심은 나무의 앞사귀에 대해 말하는 시편 1편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관주란에서는 이와 비교해 볼 본문으로 이사야 34장4절(“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입불>]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키느볼 알래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을 언급한다. 이 구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천체가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듯이 마를 것이라고 하면서, 시편 1편3절에서도 나온 명사 ‘잎’(<알래>)와 동사 ‘마르다’(<나발>)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로 보면, 잎 마름의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으

60) NIV 관주란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planted by streams of water)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민수기 24장6절의 관주란과 욥기 14장9절(“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말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관주란과 에스겔 17장5절(“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 가에 심더니”)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다. 민수기 24장6절 관주란을 보면 욥기 29장19절과 시편 1편3절과 104편16절(“여호와와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과 에스겔 31장5절(“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이 관련 구절로 제시되어 있다. 욥기 14장9절 관주란을 보면, 욥기 29장19절과 시편 1편3절과 예레미야 17장8절과 에스겔 31장7절(“그 뿌리가 큰 물 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에스겔 17장5절 관주란에서는 신명기 8장7-9절과 시편 1편3절과 이사야 44장4절(“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과 에스겔 31장5절을 관련 구절로 열거한다. 한편, JB 관주란에서는 여기에 또한 요한계시록 22장2절(“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앞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 가운데서 너무 넓은 의미에서 시편 1편3절과 관련된 것은 관주란에 넣을 필요가 없다.

61) NIV 관주란에서는 “그는 나무와 같다”(He is like a tree, <위하야 크에츠>)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52편8[10]절(“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2편12[13]절(“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128편3절(“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레미야 11장16절(“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스가랴 4장3절(“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구절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편 52편8[10]절과 92편12[13]절은 시편 1편3절 JB 관주란에도 언급되어 있다.

로 내리시는 재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관주에서는 한편으로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쓰인 구절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념이 대조적으로 쓰이는 구절을 알려준다⁶²).

2.3.5. ㄷ: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먼저 창세기 39장3절(“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과 23절(“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을 제시하고 그밖에 견주어볼 구절로, 곧 비교 관주로 시편 128편2절(“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과 이사야 3장10절(“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을 든다.

창세기 39장3절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콜 아쉐르 후 오세 아도나이 마츨리아흐〉, 직역하면 ‘그가 하는 것마다 야훼께서 성공하게 만드신다’)에서 야훼가 주어로 등장하고 <찰라흐>의 히필형이 사동(使動)의 의미를 띠는 점에서, 히필형이 그대로 자동사로 쓰이는 시편 1편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콜 아쉐르 야아세 야츨리아흐〉, 직역하면 ‘그가 하는 것마다 성공이다’)와 다르다. 한글 번역으로는 창세기 39장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아쉐르 후 오세 아도나이 마츨리아흐〉)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여기에 <콜>(‘마다’)이 빠져 있다. 이 두 구절은 어려움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배경에서 시편 1편3절을 읽으면, 악인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나 진실히 야훼의 <토라>를 중심으로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의 성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주란의 이런 구절은 본문에서 내세우는 복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시편 128편2절에서 ‘형통하리로다’와 이사야 3장10절의 ‘복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어 본문의 형용사 <토브>의 번역이어서 1편3절에 쓰인 <찰라흐> 히필형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시편 128편1절(“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과 연결시켜 2절을 읽어 보면, 그 분위기가 시편 1편1-3절과 아주 다른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두 낱말이 같은 한글 낱말로 옮겨짐으로써,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 보기로 여길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사야 3장10절도 의인에게 닥칠 좋은 결과를 말하므로 시편 1편1-3절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한글 번역에서 ‘형통하다’라는 말 대신에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오므로써, 오히려 1절 첫머리의 관련 구절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는 관련 구절로 알맞지 않다.

아무튼, ‘형통하다’라는 표현 자체만 두고서 그 관련 구절을 찾았다면, 시편 128편2절이나 이사야 3장10절보다는 오히려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여호수아 1장7-8절(“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타스킬 브콜 아쉐르 텔레크〉]⁸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타츨리아흐〉] ‘네가 형통하리라’[〈타스킬〉]”)이 더 낫다⁶³). 여기서 히브리 동사 <찰라흐>

62) NIV 관주란에서는 ‘그 잎사귀(whose leaf, <알레후>)의 관련 구절로서 이사야 1장30절(“너희는 ‘잎사귀 마른’[〈노벨레트 알레후>, 직역하면 ‘그것의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와 64장6[5]절(“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알레>]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을 제시한다. JB 관주란에서는 이 밖에도 잠언 11장28절(“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도 관련 구절의 하나로 든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은 넓은 의미에서 시편 1편3절과 관련될 따름이다.

히필형과 <사칼>의 히필형이 실제로는 같은 뜻을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사무엘상 18장14절(“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와여히 다위드 러콜 드라카우 마스킬>,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형통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과 열왕기하 18장7절(“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브콜 아쉐르 애채 야스킬>] 저가 앓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도 시편 1편3절의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⁶⁴). 이 두 구절에서 <찰라흐> 히필형과 마찬가지로 ‘형통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사칼>의 히필형이 실체사 <콜>(<다, ‘모든’, ‘...마다’)과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시편 1편3절에 매우 가깝다. 그 말하는 바가 다윗의 전면적인 성공에 대한 것이라고 볼 때,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가장 많은 점을 생각한다면, 시1편에서 말하는 형통을 다윗의 성공적인 삶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

2.4. 4절

2.4.1. 개요

4절의 경우에는 ‘바람에’의 첫 글자에 표이 윗첨자로 붙어 있고, 관주란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읍기 21장18절을, ‘보’라고 한다. 이 구절과 시편 1편4절을 견주어 보면, 여기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를 문제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경우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유일한 ‘보라’ 관주⁶⁵)이다. 그렇다면, 이 ‘바람에 나는 겨’(<감모츠 아쉐르 텃드펜누 루아흐>)라는 용어가 읍기 21장18절(“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크테벤 리프내 루아흐>],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크모츠 그나밋투 쉰가>]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에 최초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 관주란에서 말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편 1편4절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에서 함께 나오던 ‘겨’(<모츠>)와 ‘바람’(<루아흐>)가 읍기 21장18절에서는 각각 후반절과 전반절에 나누어져 나온다. 이 구절은 읍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닥치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로서 악인들의 운명은 본디 덧없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읍기 21장18절은 시편 1편4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배경을 알려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일반 관주로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개인 탄원시에서 박해를 받는 시인이 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도하는 말인 시편 35편5절(“저희로 ‘바람 앞의 겨와 같게’[<크모츠 리프내 루아흐>] 하시고 여호와와 사자로 몰아내소서)도 관련 구절로 볼 만하다⁶⁶). 또,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는 하나님 백성의 적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는 이사야 17장13절(“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물려움과 같이 하나 주께서

63) 앞 2.2.3을 보라. Hossfeld/Zenger(47쪽)도 시편 1편3절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와 관련되는 구절로 여호수아 1장7절을 들고 있다.

64) 이 두 구절은 NIV 창세기 39장3절 관주란에 제시되어 있다. NIV 관주란에서는 시편 1편3절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Whatever he does prospers)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창세기 39장3절의 관주란을 보라고만 하는데, 거기를 보면 창세기 39장23절, 사무엘상 18장14절, 열왕기하 18장7절, 역대하 20장20절(“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코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찌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위하출리후>] 하고”), 시편 1편3절, 128편2절, 이사야 33장6절(“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65) 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1에서 인용한 민영진의 책, 53쪽을 보라.

66) JB, KJV1, NAS, LB, EÜ의 관주란, Seybold.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룻다프 크모츠 하림 리프내 루아흐>]) 과 29장5절⁶⁷⁾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러가는 겨 같으리니' (<크모츠 오베르>)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에 쓰이기도 하는데, 이 두 구절도 관주란에서 제시할 만하다⁶⁸⁾. 더 나아가서 '겨' (<모츠>) 와 비슷한 뜻을 지니는 '초개' (<카쉬>) 가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시편 83편12[14]절 ("나의 하나님이며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크카쉬 리프내 루아흐>] 하소서") 도 관련 구절로 들 수 있다⁶⁹⁾.

2.5. 5절

2.5.1. 개요

5절의 경우에는 '심판' 과 '의인' 의 첫 글자에 ח 과 י 가 각각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5절을 견주어 보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견디지 못하며' 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2. ח : '견디지 못하며'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 관주란에서는 시편 5편5[6]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76편7[8]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나훔 1장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라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누가복음 21장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67) KJV1에서는 욥기 21장18절 다음에 이사야 29장5절을 들고 있다.

68) 이 밖에도 관련 구절로서 Weisur(72쪽)와 Kraus(139쪽)는 호세아 13장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 [<모츠>]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을, Hossfeld/Zenger(48쪽)는 스바냐 2장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 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크모츠 아바르 욥>],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과 말라기 4[3]장1[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카쉬>]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절들은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이므로, 주석에서 다룰 것이지, 관주란에 넣을 것은 아니다.

69) <카쉬> 는 욥기 13장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 [<카쉬>] 을 따르시나이까"), 이사야 40장24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도다' [<카카쉬>]) 과 예레미야 13장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이' [<크카쉬 오베르 르루아흐 미드바르>] 흩으리로다") 에도 나온다. NIV 관주란에서는 "그들은 겨와 같도다" (They are like chaff, <카모츠>) 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우선 욥기 13장25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사야 40장24절과 예레미야 13장24절을 그 밖의 관련 구절로 덧붙이고 있다. 욥기 13장25절의 관주란을 보면, 욥기 21장18절, 시편 1편4절, 35편5절, 83편13[14]절, 이사야 17장13절, 42장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3장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있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꺾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호세아 13장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 같으며' [<크모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JB 관주란에서는 다니엘 2장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워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 [<아람어 <우르>]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도 관련 구절로 본다. 이런 구절들도 넓은 의미의 관련 구절이어서, 관주란에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에베소서 6장13절(“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시편 1편5절의 ‘견디지 못하며’(<로 야쿠무>, 직역하면 ‘그들은 서지 못하리라’)처럼 동사 <쿰>(<서다>)가 전치사 <브>(...에)와 함께 나오는 것은 나훔 1장6절의 ‘진노를 감당하랴’(<야쿰 바하론 압포>, 직역하면 ‘그의 진노에 서리이까’)인데, 이 경우 <쿰 브...>는 전반절의 <아마드 리프내...>(...앞에 서다)과 나란히 나온다. 그리하여, 시편 76편7[8]절의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야아모드 르파네카>, 직역하면 ‘당신 앞에 서리이까’)에서 동사가 <쿰>이 아닌 <아마드>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시편 5편5[6]절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로 이트얏차부 ... 르네게드 애네카>, 직역하면 ‘당신의 눈들 앞에 자리잡지 못하리이다’)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동사와 전치사가 시편 1편의 경우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앞의 두 경우와 비슷하다. 누가복음 21장36절에서 말하는 ‘인자 앞에 서다’(<스타테나이 엠프로스텐 투 휘우 투 안트로푸>)은 마지막 때의 온갖 재난을 피하여 심판의 날에 심판자 앞에 나서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6장13절의 ‘서다’(<안티스테나이>)도 비슷한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견디지 못하며’의 관주는 종말론적인 심판 상황을 생각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에 서다’(<쿰 브...>)라는 표현은 시편 24편3절(“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의 ‘...에 설 자가 누구고’(<미 야쿰 브...>, 직역하면 ‘누가 ...에 서리요’)에도 나오므로, 시편 1편5절 전반절은 일차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예배 공동체와 관련하여 악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최후의 심판을 겨냥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⁷⁰⁾.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히브리 동사 <쿰>이 시편 1편5절과 24편5절과 나훔 1장6절에서 문맥을 따라 각각 ‘견디다’와 ‘서다’와 ‘감당하다’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구절로 제시된 그 어느 구절에도 ‘견디다’라는 한글 동사를 볼 수 없어서, 성서 고전어를 모르는 독자로서는 이런 구절들이 그저 의미상으로 관련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든 구절들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려면, 관주 표시를 ‘심판’에 할 것이 아니라, ‘견디지’의 첫 글자에 해야 할 것이다.

2.5.3. †: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는 <헛타임 바아다트 찻디킴>(직역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있다’)이지만 전반절에 나오는 부정어 <로>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있지 못하리라’는 뜻이 된다)의 번역인데, 관주란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구절로 에스겔 13장9절(“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브소드 압미 로 이호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을 든다. 이 구절에는 시편 1편5절에 쓰인 히브리 낱말이 부정어 <로>를 빼놓고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의 유사성 때문에 이를 일반 관주 아닌 비교 관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절의 ‘쫓지 아니하며’의 관련 구절로 든 잠언 4장14-15절도 비교 관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교 관주와 일반 관주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에스겔 13장9절을 여기서 관련 구절로 제시하려면, 관주 표시를 ‘의인의’에 할 것이 아니라 ‘죄인’에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시편 1편5절의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이 제맘대로 활동하는 거짓 종교인들을, ‘의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키게 된

70) Kraus, 139-140쪽.

다.

2.5.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이 밖에 5절에서 관주를 더 붙일 만한 경우로는 ‘심판’과 ‘의인의 회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심판(<미쉬파트>)’에 대한 관련 구절로는 시편 9편7[8]절(“여호와께서 영영히 앎으심이여 심판 [<미쉬파트>]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9]절(“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이쉬포트>]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16[17]절(“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미쉬파트>]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혔도다 [희가온, 셀라])을 들 만하다⁷¹⁾. 개인 감사시인 이 시편의 세 구절에서 시인은 야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세계 심판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고백은 58편11[12]절(“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엘로힘 쇼프팀>]이 계시다 하리로다”)과 전도서 3장17절(“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이쉬포트 하엘로힘>]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⁷²⁾.

(2) ‘의인의 회중’(브아다트 찾디킴)에 대한 관련 구절로서는 시편 89편5[6]절(“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크할 크도셈>]에서 찬양하리이다”)과 7[8]절(“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쓰드 크도셈>]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과 111편1절(“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브쓰드 여샤림 위 애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과 149편1절(“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크할 하시딤>]에서 찬양할지어다”)을 들 수 있다. 이 네 구절 가운데서 시편 1편5절과 마찬가지로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 명사 <애다>가 쓰이는 경우는 111편1절 뿐이고, 나머지 경우는 이와 비슷한 낱말인 <카할>이나 <쓰드>가 쓰인다. 아무튼 이 네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찾디킴>)은 결국 ‘거룩한 자들’(<크도셈>)이요, ‘경건한 자들’(<하시딤>)로 이해할 수 있다⁷³⁾. 또한 이 네 시편에서 말하는 ‘회중’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회중이다⁷⁴⁾.

2.6. 6절

71) RSV 관주란과 N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

72) NIV 관주란에서는 ‘심판’(in the judgment)에 대한 관련 구절을 알려면 욥기 19장29절(“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샤딤>]을 알게 되리라”)의 관주란을 보라고만 지시한다. 거기를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길게 설명하는 욥기 27장13-23절, 시편 1편5절, 위에서 언급한 9편7[8]절과 58편 11[12]절과 전도서 3장17절 말고도 전도서 11장9절(“청년이어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위다으 키 알 콜 엘레 여비아카 하엘로힘 밤미쉬파트>]”)과 12장14절(“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야비 브미쉬파트>]”)을 관련 구절로 열거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의 악인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에서 말한 정도에서 관련 구절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73)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의인의 회중’(the assembly of the righteous)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89편5[6]절과 7[8]절을, NRSV 관주란에서는 시편 111편1절과 149편1절을 제시한다.

74) NIV 관주란에서는 ‘회중’(assembly)의 관련 구절로 시편 26편12절(“내 말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마크렘>]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35편18절(“내가 대회[<카할 라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82편1절(“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아다트 엘로힘>]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89편5절, 107편 32절(“백성의 회’[<크할 암>]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찌로다”), 111편1절, 149편1절을 열거하고 있다.

2.6.1. 개요

6절의 경우에는 ‘의인의’와 ‘인정하시나’의 첫 글자에 ㅏ와 ㅓ가 각각 윗첨자로 붙어 있고, 두 자모가 표시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이 관주란에 적혀 있다. 그 구절들과 시편 1편5절을 견주어 보면, 이 관주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각각 ‘의인의 길’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두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에서 찾아 그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6.2. ㅏ: ‘의인의 길’

이는 <데레크 찾디킴>(직역하면 ‘의인들의 길’)의 번역인데, 이에 대해서 관주란에서 시편 37편5절(“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구절의 ‘너희 길’(<치드케카>, 직역하면 ‘너의 길’)과 본문의 ‘의인의 길’이 상응한다는 생각을 표현하려고 한 듯하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에 빠진 의인에게 야훼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에 대해 가르치는 지혜시이므로, 이 구절에서 ‘너’는 의인(12,16,17,21,25,29,30,32,39절)이다. 시편에서 ‘의인’과 ‘길’은 자주 쓰이는 낱말인데, 이 둘이 한데 어우러지는 경우가 시편 1편5절과 37편5절이라 할 때, 시편 1편의 ‘의인’도 37편의 ‘의인’처럼 번영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의인(37:12,14-15,32)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데레크>와 비슷한 낱말인 <오라호>도 ‘길’로 번역되므로, 잠언 2장20절(“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데레크 토빔>]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오루호트 찾디킴>]을 지키게 하리니”)과 4장18절(“‘의인의 길’[<오라호 찾디킴>]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도 시편 1편6절의 ‘의인의 길’과 관련되는 구절로 볼 수 있다. 특히 4장18절의 ‘의인의 길’은 19절의 ‘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 14절⁷⁵⁾의 ‘사특한 자의 침경’(<오라호 르샤임>) 및 ‘악인의 길’(<데레크 라임>)과 대조되는 개념이어서, 시편 1편 6절에서 표현하는 ‘의인의 길 - 악인의 길’이라는 대립 구도에 잘 어울린다. 잠언 2장20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선한 자의 길’, ‘생명길’(<오로호트 하이임>, 19절), ‘정직한 길’(<오호르트 요쉐르>, 13절), ‘선한 길’(<마아갈 토브>, 9절), ‘공평의 길’(<오르호트 미쉬 파트>, 8절), ‘그 성도들의 길’(<데레크 하시다우>, 8절)로서, ‘악한 자의 길’(<데레크 라오>, 12절), ‘어두운 길’(<다르케 호쉐크>, 13절), 음부로 기울어진 길(<마아글로트>, 18절)과 정반대되는 길이다⁷⁶⁾.

2.6.3. ㅓ: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에 <요대아오 아도나이>(직역하면 ‘야훼께서 알고 계신다’)의 번역인데, 이에 대한 관련 구절로 관주란에서는 시편 31편7[8]절(“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 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야다아타 브차로트 납쉬>, 직역하면 ‘당신은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아셨고’]”)과 37편18절(“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요대아오>] 저희 기업은 영원 하리로다”)과 144편3절(“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왓테다에후>] 인생이 무엇이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과 나훔 1장7절(“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요대아오>]”)을 제시한 다음에, 비교할 구절로서 요한복음 10장14절(“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과 디모데후서 2장19절(“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75) 시편 1편1절의 관련 구절 가운데 하나인 잠언 4장14절에 대해서는 이미 앞 2.1.3에서 언급한 바 있다.

76) Craigie(58쪽)는 시1편에 나오는 용어와 교훈이 특히 잠언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서 잠언 2장12-15,20-22절과 견주어 보라고 한다.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을 들고 있다.

대적들의 박해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야훼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31편의 시인은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라고 고백하는데, 이 경우 ‘내 영혼’은 곧 ‘나 자신’을 뜻하므로, 이 고백은 의인들의 길을 야훼께서 아신다고 한 시편 1편6절의 진술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다. 이 점은 144편3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거기서는 야훼께서 아시는 대상이 의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이어서, 1편6절의 경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니느웨에 대해 재앙을 선포하는 나훔서의 서론 부분에 나오는 1장7절에서 야훼께서 아시는 대상은 야훼를 의뢰하는 자들인데,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방 족속과 하나님 백성의 대립 구도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나누는 시편 1편의 대립 구도에 상응시킬 수 있다. 시편 37편18절에서 야훼께서 아시는 것은 ‘완전한 자들의 날들’인데, 이 경우 ‘완전한 자들’은 번영하는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의인들을 가리킨다. 다만, 동사 ‘알다’의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날들’인 점에서 하나님과 의인들의 관계가 앞의 경우들보다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시편 1편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에 대한 관주란에서 제시한 위의 구절들에서는 야훼를 주어로 하는 동사 ‘알다’(<아다>)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다만, 시편 1편6절에서만 이를 ‘인정하다’로 번역해 놓아, 이것이 바로 관련 구절에 한결같이 나오는 ‘알다’와 히브리어로 같은 낱말이라는 점을 얼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히브리어 본문을 읽기 힘든 독자들은 ‘인정하다’라는 한글 낱말이 들어 있는 관련 구절을 관주란에서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내 양’(<타 에마>, 직역하면 ‘내 것들’)을 아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10장14절을 관주란에서 시편 1편6절 전반절과 비교할 구절로 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관계가 야훼와 야훼께 속한 의인들의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과 그릇된 일꾼들을 구별하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에그노 퀴리오스 투스 온타스 아우투>, 직역하면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19절의 표현은 모세에게 맞서다가 망하게 된 고라 일당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말하는 민수기 16장5절(“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의 한 부분(‘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 보이시고’, <요다 아도나이 에트 아쉐르 로>, 직역하면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알게 하시고’)을 칠십인역(‘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시고’)에서 인용한 것이다⁷⁷⁾.

아무튼 개역 한글판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관주란에서는 구약 관련 구절들은 일반 관주로, 신약 관련 구절들은 비교 관주로, 관련 구절을 두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신구약 관련 구절 모두가 여러 가지 문맥에서 본문의 경우와 견주어 볼 만한 식으로 이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77) 개역 한글판이 이 부분을 칠십인역을 따라 번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독자로서는 그 관련성을 알아차리기 힘들므로, 이 구절은 관주란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Hossfeld/Zenger (49쪽)에서는 이 밖에도 야훼 하나님이 각각 모세와 에레미야를 아신다고 하는 출애굽기 33장12절(“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여다으티카 브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과 에레미야 1장5절(“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여다으티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도 관련 구절로 본다. 한편, Dahood(5쪽)는 시편 1편6절의 <아다>는 ‘안전히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31편7절말고도 9편10[11]절(“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시이다”), 호세아 13장5절(“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여다으티카>]”), 야모스 3장2절(“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등도 관련 구절로 볼 수 있다고 보지만, 시편 9편11절의 경우에는 ‘알다’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에 어울리지 않고, 다른 구절들도 넓은 뜻으로 볼 때, 시편 1편6절과 관련되므로, 관주란에 꼭 넣지 않아도 된다.

별 설득력이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2절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의의 관련 구절로 소개된 로마서 7장22절도 일반 관주 아닌 비교 관주로 표시해야 했을 것이다.

한편 예레미야 12장3절(“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앗타 아도나이 여다으타니>]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 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 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과 15장15절(“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앗타 야다으타 아도나이>] 원컨대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나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다으>]”)과 17장16절(“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았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바라[<앗타 야다으타>]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와 18장23절(“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앗타 아도나이 야다으타>]”⁷⁸⁾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의 무고함이나 자신이 무고하게 괴로움을 겪는 상황을 알아주실 야훼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앗타 여다으타>), 직역하면 ‘당신만큼은 나를 아신다’ 또는 ‘주께서 아신다(<앗타 야다으타>)고 한다⁷⁹⁾. 이런 네 구절은 다 관련 구절로 제시할 만하지만, 낱말이 다 적을 필요 없이 그 첫 구절인 예레미야 12장3절만 적고, 나머지 15장15절과 17장16절과 18장23절은 12장3절의 관주란에 열거한 뒤에, 시편 1편6편에서는 예레미야 12장3절의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만 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1절(“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태다으>]”)와 23-24절(“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다으 르바비>]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다으 사르압파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데레크>로 인도하소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시편 1편6절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와 관련되는 구절로 들 수 있다⁸⁰⁾.

2.6.4. 새 관주가 필요한 경우

이 밖에 6절 후반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데레크 르샤임 토배드>) 전체와 ‘악인의 길’에 관주를 더 붙일 수 있다.

(1) 명사 ‘악인’(<라사>)과 동사 ‘망하다’(<아바드>)의 뿌리가 함께 나오는 112편10절⁸¹⁾(“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타아와트 르샤임 토배드>]”)과 68편2[3]절(“연기가 물러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요브두 르샤임 밍프내 엘로힘>]”)과 9편5[6]절⁸²⁾(“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입바드타 라사>]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은 6절 후반절 전체의 관련 구절로 제시할 수 있다⁸³⁾.

78) 히브리 낱말의 순서대로 옮긴다면, ‘당신이, 야훼여, 아시오니’로 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세 낱말을 다 분리시켜 번역했다.

79) 이 네 구절은 이른바 예레미야의 고백에 속하는 본문들에 들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Dong Hyun BAK, *Klagender Gott, klagender Menschen. Studien zur Klage im Jeremiabuch* (BZAW 192)(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117. 135. 156-157. 179쪽을 참고하라.

80) Hossfeld/Zenger, 49쪽.

81) JB 관주란과 NJB 관주란.

82) RSV 관주란과 NAS 관주란에서는 9편5[6]절뿐만 아니라 6[7]절과 11편6절까지 ‘악인’(the wicked)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83) <아바드> 동사는 또한 시편 9편3[4]절(“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요브두>]”)에 서도 쓰이는데, 이 경우 주어는 ‘내 원수들’이다. NRSV 관주란에서 9편3[4]-6[7]절을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

(2) ‘악인의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 <데레크 르샤임>은 시편 146편9절(“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은 굽게 하시는도다”)과 잠언 4장19절(“‘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과 12장26절(“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데레크 르샤임>, 직역하면 ‘악인들의 길’]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에 나오고, 이와 비슷한 표현은 잠언 15장9절(“‘악인의 길’[<데레크 라샤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과 잠언 4장14절(“사특한 자의 첩경’[<오라호 르샤임>]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데레크 라임>]로 다니지 말라”)에 들어 있다.

이리하여 이 다섯 구절은 시편 1편6절의 ‘악인의 길’에 관련되는 구절로 열거할 수 있다.

3.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성격과 문제점

3.1.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성격과 유용성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시편 1편의 경우에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관주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만큼 그 내용이 자세하다는 점이다⁸⁴).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는 주석서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관련 구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들고 있는 것은, 결국 1편의 ‘악인들’은 의인의 ‘원수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승필 역, 31 쪽에서는 시편 112편10절 말고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할 것을 말하는 예레미야 21장8절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 말하는 마태복음 7장13-14절도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구절로 들고 있다. JB 관주판에서는 예레미야 21장8절과 마태복음 7장13-14절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얻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신명기 30장15-20절과 ‘의인의 길’[<오라호 찾디킴>]과 ‘악인의 길’[<데레크 르샤임>]을 대비시켜 말하는 잠언 4장18-19절과 11절30절(“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을 시편 1편 전체의 관련 구절로 제시한다. 이러한 관주는 JB가 시편 1편에 붙인 소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시편 1편의 주제를 ‘두 길’(The two paths)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의 초점은 두 길에 있다기보다는 야훼의 <토라>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복된 삶에 있으므로(김중은, “시편 1편 공부: 행복한 삶의 지혜를 위하여”, 『교회와 신학』 제32호[1998년 봄호], 88-100쪽 참고), 이는 문제가 있다. NJB에서는 이 가운데서 잠언 11절30절만 뺐다.

NIV 관주판에서는 시편 1편6절 후반절의 관련 구절로서 시편 9편6[7]절을 들기에 앞서 우선 레위기 26장38절(“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워아바드뎀>]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의 관주판을 보라고 지시한다. 거기를 보면, 욥기 4장9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요베두>] 그 곳김에 사라지느니라”), 36장12절(“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시편 1편6절, 이사야 1장28절(“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레미야 16장4절(“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44장27절(“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곱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이 관련 구절로 열거되어 있다. 이 여러 구절 가운데 시편 1편6절에서 쓰는 히브리 동사 <아바드>가 나오는 것은 욥기 4장9절 뿐이고 나머지 구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뜻의 다른 표현이 쓰이고 있다.

한편,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에서는 시편 1편6절 전체와 관련되는 구절로 145편20절(“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를 들고 있는데, 두 구절에 공통된 용어는 <아도나이>(야훼)와 <르샤임>(‘악인들’)의 두 낱말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84) 앞의 주7에서 인용한 관주 번역본 성경 가운데서는 NIV 관주 성경만이 시편 1편 본문의 22 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63개의 관련구절을 제시하고 있어서, 17 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46개의 관련 구절을 열거한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보다 관주의 분량이 더 많다. NAS 관주 성경에서는 15 군데에 38개의 관련 구절, NKJV 관주 성경에서는 8 군데에 22개의 관련 구절, NAB 관주 성경에서는 7 군데에 13개의 관련 구절, KJV1 관주성경에서는 7 군데에 12개의 관련 구절, KJV2 관주 성경과 LB에서는 3 군데에 8개의 관련 구절을 제시한다. RSV, NRSV, JB, NJB, Vulgata, 임승필 역, ZB, EÜ은 절별 관주 체계를 쓰고 있는데, 각각 시편1편 전체에 21개, 22개, 28개, 12개, 17개, 14개, 10개, 10개의 관련 구절을 들고 있다.

관주 표시를 한 부분과 관주란에서 제시한 구절들 사이의 관련성은 여러 가지이다. 이를 우선 히브리어 표현과 그 한글 번역과 문맥에 비추어 보면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한글 표현으로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악인의 꺾’(1절), ‘오만한 자’(1절), ‘앉지 아니하고’(1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2절), ‘이사귀가 마르지 아니함’(3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 ‘의인의 길’(6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6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2) 비슷한 뜻의 히브리어 표현이 같은 한글 표현으로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좃지 아니하며’(1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2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좃아 과실을 맺으며’(3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3) 비슷한 뜻의 히브리어 표현이 비슷한 한글 표현으로 번역되어 비슷한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 ‘견디지 못하며’(5절),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5절)의 관주를 들 수 있다.

(4)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전혀 다르거나 정반대되는 문맥에서 쓰인 경우로는 ‘자리’(1절)의 관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의 관주는 본문에 나오는 특정의 표현이나 개념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과 어떻게 관계되어 어떤 언어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특히 율기와 잠언의 구절들이 관련 구절로 많이 나오는 것에서 시1편이 지혜 전통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⁸⁵⁾.

3.2.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의 문제점

그렇지만, 다음 몇 가지는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다.

(1) 본문의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를 관주 표시만 보아서 알기 힘들고, 관주란에서 제시한 관련 구절들과 관주 표시가 있는 절을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알 수 있다.

(2) 히브리어를 모르고 한글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관주란에 제시된 구절들과 관주로 표시한 부분을 견주어보았을 때, 왜 그런 구절들을 관련 구절로 제시했는지 그 까닭을 알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다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같은 낱말이거나 같은 표현인데, 한글 개역판에서 다르게 번역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절의 ‘견디지 못하며’와 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⁸⁶⁾.

둘째, 알맞지 않은 구절을 관련 구절로 제시한 경우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1절) 관주란에 제시된 잠언 1장10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2절) 관주란에 제시된 시편 119편1절, ‘시냇가에’(3절) 관주란에 제시된 시편 46편4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 관주란에 제시된 이사야 3장10절과 시편 128편2절이 그런 보기이다⁸⁷⁾.

셋째, 관주 표시의 자리가 부정확한 경우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좃아 과실을 맺으며’(3

85) 일반 관주, 비교 관주, ‘보라’ 관주의 구별 없이 시편 1편과 관련하여 제시된 46구절의 책별 분포를 살펴 보면, 시편에서 16구절, 잠언에서 8구절, 율기와 에스겔에서 각각 3구절, 창세기와 예레미야와 나훔에서 각각 2구절,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각각 1구절, 신약 성경에서 5구절 제시되었다. 신약 성경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를 문학 유형별로 보면 시편 다음으로는 잠언과 율기를 합한 지혜 문헌에 속한 구절이 11구절로 제일 많고, 예언서에 속한 구절이 10개, 율법서에 속한 구절이 3개, 역사서에 속한 구절이 1개이다. 그런데, 시편 구절 가운데서 적어도 8개(37:5,18; 112:1; 119:1,35,47,92,97), 오경 구절 가운데서 2개(창39:2,23), 예언서 구절 가운데 1개(렘17:8)도 지혜 전통에 속하므로, 지혜 관련 구절의 수는 22 이상이나 되어, 전체 구절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6) 위 2.5.2와 2.6.3을 보라.

87) 위 2.1.4, 2.2.3, 2.3.2, 2.3.5를 보라.

절), ‘견디지 못하며’(5절),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5절)이 그 보기이다⁸⁸⁾.

(3) 관련 구절을 보충하면 더 나아질 경우도 적지 않다. ‘악인의 피’(1절)에 대해서는 욥기 10장3절을, ‘않지 아니하고’(1절)에 대해서는 시편 26편5절을,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2절)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6장10절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3절)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8장14절과 열왕기하 18장7절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에 대해서는 시편 35편5절과 이사야 17장13절과 29장5절과 시편 83편12절을, ‘견디지 못하며’(5절)에 대해서는 시편 24편5절을, ‘의인의 길’(6절)에 대해서는 잠언 2장20절과 4장18절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6절)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1,23-24절과 예레미야 12장3절을 보충할 만하다⁸⁹⁾.

(4) 새로 관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다. 1-2절 전체, ‘복 있는 자는’(1절), 2절 전체, ‘여호와와 울법’(2절), ‘주야로’(2절), ‘묵상하는’(2절), ‘심판을’(5절), ‘의인의 회중에’(5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6절), ‘악인의 길’(6절)이 그러하다⁹⁰⁾.

(5) 제시된 관련 구절을 줄여도 되는 경우도 있다. ‘오만한 자’(1절)의 관주에 열거된 잠언 19장29절과 21장24절과 29장8절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3절)의 관주에 제시된 욥기 29장19절이 그런 보기이다⁹¹⁾.

(6) 비교 관주와 보기 관주와 일반 관주를 구별하는 까닭이 언제나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⁹²⁾.

1절의 ‘자리’에 대해 시편 107편32절을, 3절의 ‘앞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대해 이사야 34장4절은 각각 관주 표시를 한 시편 본문 부분과 대조적인 뜻을 지니므로 비교 관주로 표시한 것은 타당하다⁹³⁾.

그렇지만,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고’의 일반 관주에 나오는 에스겔 19장10절과 비교 관주에 나오는 민수기 24장6절은 그렇게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다⁹⁴⁾. 또 히브리어 문장상으로 같은 낱말은 거의 나오지 않으나 내용이 비슷한 경우로서, 5절의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의 관련 구절로 든 에스겔 13장9절은 비교 관주로 하고, 1절의 ‘좃지 아니하고’의 관련 구절로 든 잠언 4장14-15절은 일반 관주로 함으로써, 비교 관주와 일반 관주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⁹⁵⁾. 더 나아가서, 신약 관련 구절을 2절의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와 5절의 ‘견디지 못하며’ 관주란에서는 일반 관주로 제시한 반면, 6절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관주란에서는 비교 관주로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해 준다⁹⁶⁾.

시편 1편의 유일한 ‘보라’ 관주로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4절)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욥기 21장18절은 일반 관주로 표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⁹⁷⁾.

4.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원칙 제안과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

4.1.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원칙 제안

88) 위 2.3.3, 2.5.2, 2.5.3을 보라.

89) 위 2.1.2, 2.1.7, 2.2.2, 2.3.5, 2.4.2, 2.5.2, 2.6.2, 2.6.3을 보라.

90) 2.1.8의 (2), 2.1.8의 (1), 2.2.4의 (1),(2),(3), 2.5.4의 (1),(2), 2.6.4의 (1), (2)를 보라

91) 위 2.1.5와 2.3.3을 보라.

92) 시편 1편에서는 아직 ‘인용 관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미룰 수 밖에 없다. NIV 관주란에서는 구약 본문이 신약에 인용된 경우에는 그 관련구절 뒤 괄호 안에 별표(*)를 붙이고,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구절들은 pp.로, 비슷한 것들은 Ref.로 표시한다.

93) 위 2.1.7과 2.3.4를 보라.

94) 위 2.3.3을 보라.

95) 위 2.5.3을 보라.

96) 위 2.2.2, 2.5.2, 2.6.3을 보라.

97) 위 2.4.2를 보라.

앞에서 자세히 검토해본 뒤에 간추린 바를 중심으로 한글 성경에 관주를 붙일 때 참고할 만한 원칙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위 3.2의 (1)과 (2)에서 지적한 점을 생각할 때, 관주 대상에 따라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관주 표시를 한다.

첫째, 관주의 대상이 낱말 하나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그 낱말의 첫 글자 앞 윗쪽에 표시한다⁹⁸⁾.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ㄴ자리’, 2절의 ‘^ㄷ주야로’ ‘^ㅎ묵상하는도다’, 3절의 ‘^ㅅ시냇가에’, 5절의 ‘^ㅅ심판울’이 그런 경우이다.

둘째, 관주의 대상이 낱말 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첫째 낱말 마지막 글자 다음 윗쪽에 표시한다⁹⁹⁾.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ㅅ복^ㅁ 있는’, ‘^ㅅ악인들의^ㅁ 꾀’, ‘^ㅅ따르지^ㅁ 아니하며’, ‘^ㅅ오만한^ㅁ 자들의’, ‘^ㅅ않지^ㅁ 아니하고’, 2절의 ‘^ㅅ여호와^ㅁ의^ㅁ 율법’, 5절의 ‘^ㅅ견디지^ㅁ 못하며’, ‘^ㅅ의인들의^ㅁ 모임’, 6절의 ‘^ㅅ의인들의^ㅁ 길’, ‘^ㅅ여호와께서^ㅁ 인정하시나’, ‘^ㅅ악인들의^ㅁ 길’이 그런 경우이다.

셋째, 관주의 대상이 세 낱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첫 낱말의 첫 글자와 마지막 낱말의 마지막 글자에 관주 표시를 한다¹⁰⁰⁾. 아래 4.2.1에서 보듯이, 1-2절 전체를 표시하는 ‘^ㅅ’, 1절 전체를 표시하는 ‘^ㅅ’, 1절의 ‘^ㅅ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ㅁ’, 2절의 ‘^ㅅ여호와^ㅁ의 율법을 즐거워하여^ㅁ’, ‘^ㅅ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ㅁ’, 3절의 ‘^ㅅ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ㅁ’, ‘^ㅅ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ㅁ’, ‘^ㅅ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ㅁ’, 4절의 ‘^ㅅ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ㅁ’, 5절의 ‘^ㅅ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ㅁ’, 6절의 ‘^ㅅ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ㅁ’가 그런 경우이다.

(2) 관주 분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한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관주해설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어 관주 번역본 성경에서 취하는 방식을 따라, 관련 구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주된 관련 구절의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쓰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고정된 표현 형식에 대한 관련 구절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곳에만 자세히 열거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이 곳을 보도록 지시할 수 있다¹⁰¹⁾. 아래 4.2.1에서 보듯이 1절의 ‘복 있는’의 관주란에 ‘시2:12관’과 ‘신33:29관’으로, ‘악인의 꾀’의 관주란에 ‘욥10:3관’, 3절의 ‘주야로’의 관주란에 ‘시42:3관’과 ‘출13:21관’으로, ‘묵상하는도다’의 관주란에 ‘시119:15관’으로, 또 6절의 ‘여호와께서 아시나’의 관주란에 ‘렘12:5관’으로 적는 것이 그 보기가 된다.

둘째, 너무 넓은 범주에서 비슷한 것은 관련 구절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위 3.2의 (5)에서 언급한 경우와 각주 15, 19, 21, 28, 41, 68, 69, 72, 77에서 언급한 경우가 그런 보기이다. 이런 경우는 주석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셋째, 너무 일반적으로 쓰이는 낱말이나 개념을 관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를테면, 3절의 나무 비유,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 같은 것이다¹⁰²⁾.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석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3) 관주란에서 관련 구절들을 열거할 때 그 순서는 본문에서 관주 표시를 한 부분과 표현상으론

98) NIV 관주란에서는 낱말의 마지막 자음 뒤쪽 위에 관주 표시 자모를 붙인다.

99) 이는 앞의 주6에서 인용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소 마소라가 두 낱말에 해당될 경우에 그 사이 윗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하는 것을 원용하되 인쇄상으로 그 동그라미가 뒷 낱말의 관주 표시로 오해되지 않도록 앞 낱말의 마지막 글자 바로 뒤 윗쪽에 관주 기호를 적기로 한 것이다.

100) 이는 마찬가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에서 비평 사항이 적용되는 본문 부분이 두 낱말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쓰는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101) 앞의 주17을 보라.

102) 각각 앞의 주58, 60-61, 62를 보라.

내용상으로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 관련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¹⁰³⁾. 이렇게 하면, 비교 관주와 '보라' 관주는 없애도 괜찮을 것이다.

(4) 관주 표시 기호는 성경의 장별로 새로 ㄱ부터 시작하여 이중모음 ㄱ까지 쓰기로 한다¹⁰⁴⁾.

4.2.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과 이에 뒤따르는 몇 가지 작업

4.2.1. 개역개정판 시편 1편의 관주 시안

- 1 ㄱ^ㄴ복^ㄷ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ㄹ 꾀를 따르지^ㅁ 아니하며 ㅂ^ㅅ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ㅆ 오만한^ㅇ 자들의 ㄷ^ㅈ자리에 앉지^ㅊ 아니하고^ㅋ
- 2 오직 ㄷ^ㄹ여호와와^ㅅ의 율법을 즐거워하여^ㅇ 그의 ㄱ^ㅋ율법을 ㅍ^ㅑ주야로 ㅎ¹⁾묵상하는도다^ㅋ
- 3 그는 ㄴ^ㄷ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ㄹ 그 ㄱ^ㄷ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ㄱ 같으니 ㅋ^ㄷ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ㅋ
-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ㅇ이여 오직 ㄴ^ㅅ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ㅅ
- 5 그러므로 악인들은 ㅅ^ㅈ심판을 견디지^ㅈ 못하며 ㅈ^ㅈ죄인들이 의인들의^ㅇ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ㅈ
- 6 무릇 의인들의^ㅇ 길은 여호와께서 ㅎ^ㅎ 인정하시나 ㅎ^ㅎ악인들의^ㅇ 길은 망하리로다^ㅎ

1) ㅎ,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 ㄱ-ㄱ 시119:1; 눅11:28
 ㄴ-ㄴ 신6:7
 ㄷ 시2:12관; 신33:29관
 ㄹ 읊10:3관
 ㅁ 잠4:14-15
 ㅂ-ㅂ 잠1:15
 ㅅ 잠3:34; 1:22; 사28:14
 ㅇ 시107:32
 ㅈ 시26:4,5; 램15:17
 ㅊ-ㅊ 시112:1; 119:35,47,92; 롬7:22; 램6:10
 ㅋ-ㅋ 수1:8; 시119:97
 ㅌ 시19:7; 출13:9
 ㅍ 사60:11; 시32:4; 42:3관; 55:10; 출13:21관
 ㅎ 시77:12; 143:5; 119:15관
 ㅊ-ㅊ 램17:8; 꺾19:10; 민24:6
 ㅋ 사32:2
 ㄱ-ㄱ 꺾47:12; 사34:4
 ㅋ-ㅋ 창39:2,23; 수1:7-8; 삼상18:14; 왕하18:7; 시128:2
 ㄴ-ㄴ 시35:5; 읊21:18; 사17:13; 29:5; 시83:13

103) 앞의 주7에서 인용한 NRSV Harper Study Bible처럼. NIV 관주란에서는 성경 책 순서대로 하되, 같은 장에 있는 관련 구절은 맨 앞에 둔다(The NIV Study Bible, xvi쪽). Eyre & Spottiswoode Study Bible.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Revised Standard Version(ix쪽)에서는 관련 구절을 연대 순서로 배열했다고 한다.

104) 위의 주10을 참고하라.

- 교 시9:7,8,16; 58:11; 전3:17
- ㄷ 시24:3; 나1:6; 시76:7; 5:5; 눅21:36; 엡6:13
- ㄸ-ㄸ 꺾13:9
- 으 시89:5,7; 111:1; 149:1
- 이 시37:5; 잠4:18; 2:20
- ㄴ 시31:7; 144:3; 37:18; 나1:7; 렘12:3관; 시139:1,23; 요10:14; 딤후2:19
- ㄹ-ㄹ 시112:10; 68:2; 9:5
- ㄷ 시146:9; 잠4:19; 12:26; 15:9; 4:14

4.2.2. 시편 1편 관주에서 관주란을 보도록 지시한 관련 구절의 관주 시안

위 시안에서 관련 구절의 관주란을 보라고 지시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그 관련 구절의 관주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관주 표시 기호는 이 구절들이 속한 단락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그냥 ○ 또는 ○-○을 쓰기로 한다.

출애굽기 13장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 민9:21; 대상9:33; 느1:6; 시1:2관

신명기 33장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 왕상10:8; 사30:18관; 시1:1관; 잠3:13관; 전10:17¹⁰⁵⁾

욥기 10장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피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 21:16; 22:18; 시1:1

시편 2편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 34:8; 84:12; 146:5; 40:5; 신33:29관

시편 42편3절:

105) 이사야 30장18절 관주란과 잠언 3장13절 관주란에 어떤 구절들을 제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의 주27을 보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 렘9:1; 14:17; 애2:18

시편 119편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 119:23, 27, 48, 78, 148; 145:5; 1:2관

예레미야 12장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 15:15; 17:16; 18:23; 시1:6관

4.2.3. 개역개정판의 본문과 관련된 문제점

그런데, 개역개정판의 본문이 달라짐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시안을 따라 개역개정판에서 관주 붙은 부분과 그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낱낱이 찾아 견주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달라진 점이나 문제되는 점이 발견된다.

(1) 위 관주 표시 기호 [^], 곧 1절의 ‘오만한 자들(<래침>)’의 관련 구절로 제시한 이사야 28장14절 개역 한글판의 ‘경만한 자’(<안쇄 라촌>)를 개역개정판에서는 ‘오만한 자’로 고쳤기 때문에, 한글 번역으로는 가장 가까운 관련 구절이 되었다. 잠언1장22절과 3장34절의 <래침>은 개역 한글판 그대로 각각 ‘거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로 해 두었다.

(2) 위 관주 표시 기호 ^{ㄱ-ㄱ}, 곧 2절의 ‘을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두 구절 가운데 시편 119편97절을 찾아보면, 개역 한글판에서 ‘묵상하나다’로 번역했던 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다’로 고쳐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다’와 119편97절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상응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문맥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독자의 할 일로 넘어간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개역개정판에서 시편 1편2절의 ‘묵상하느’에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난외주를 붙여 놓았다는 점이다. 이 난외주를 지나쳐보지 않는 독자는 이 구절과 119편 97절의 관련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같은 문제가 위 관주 표시 기호 ^ㅎ, 곧 2절의 ‘묵상하는도다’와 관련되는 것으로 제시된 구절들에 게도 생긴다. 곧 개역개정판으로 시편 77편12절과 143편5절과 119편15절을 찾아보면, 개역 한글판에서 ‘묵상하나다’로 번역했던 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다’로 고쳐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4) 2절의 ^ㅈ‘주야로’에 대한 관련 구절로 제시된 출애굽기 13장21절에서 개역 한글판의 ‘주야로’가 개역개정판에서는 ‘낮이나 밤이나’로 달라졌다. 이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나, 이것을 다른 관련 구절(사 60:11; 시32:4; 42:3; 55:10)에 나오는 ‘주야로’와는 다른 표현으로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¹⁰⁶⁾.

106) 한편 시안으로 제시한 관주의 분량을 보면, 시편 1편 본문의 27군데에 관주 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관련 구절로

다른 한편으로 개역개정판의 본문이 달라지지 않음으로써, 개역 한글판 관주에서 번역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3절의 ^ㄱ‘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ㄴ’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열왕기하 18장7절이 개역개정판에서도 개역 한글판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동사 <사갈> 히필형을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해두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이 구절이 왜 ‘형통하다’는 의미를 담은 구절들과 함께 들어 있는지의 이해 할 여지가 있다. 이 동사가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을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열왕기하 18장7절에서는 ‘형통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¹⁰⁷.

또, 5절의 ‘견디지^ㄴ 못하며’와 그 관련 구절에 나오는 공통된 히브리 동사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일른 그 관련성을 알아차리기 힘든 점은 개역개정판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¹⁰⁸.

그뿐만 아니라, 6절의 ‘악인들의^ㄴ 길’의 관련 구절로 제시된 잠언 15장9절의 경우에도 개역 한글판에서 히브리 낱말 <테레크>('길')를 ‘소행’으로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판에서 그대로 두었다. 그리하여, 성서 고전어를 모르는 독자는 ‘길’이란 낱말이 들어 있는 나머지 구절과 이 구절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시편 1편 관주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세히 검토해 보고 그 결과를 새로운 관주 표기를 위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개역개정판 시편 1편 본문에 관주를 붙여 보고, 다시 그것을 검토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관주를 개정하자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¹⁰⁹. 그런 만큼 관주 개정 작업은 장기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¹¹⁰. 이제 그 머나먼 길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마음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한다.

서 86개를 제시하였다.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경우(앞의 주85를 보라)와 비교해 보면, 관주 표시는 10군데, 관련 구절의 수는 40개 늘어났다. 관련 구절의 책별 분포도를 알아보면, 시편에서 41개, 잠언에서 10개, 이사야에서 6개, 예레미야에서 5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욥기와 에스겔과 나훔에서 각각 2개, 민수기와 사무엘상과 열왕기하와 전도서에서 각각 1개, 신약 성경에서 6개 찾아 제시하였다. 신약 성경과 시편을 뺀 나머지 구절들은 또한 지혜서에서 13개, 예언서에서 15개, 율법서에서 7개, 역사서에서 4개 제시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편과 예언서나 율법서나 역사서 가운데서 지혜 전통에 속한 경우를 적어도 13구절(시2:12; 19:7; 37:5; 112:1; 119:1,15,35,47,92,97; 렘17:8; 창39:2,23) 정도 찾아볼 수 있어서, 지혜 관련 구절이 26개 이상이 되지만,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경우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7) 공동 번역, 표준새번역, NIV, NRSV, LB, ZB 등. 위 2.3.5를 보라.

108) 위 2.5.2 끝부분을 보라.

109) 앞의 주1에서 인용한 전무용의 글, 89쪽 참고.

110) 같은 글, 99-100쪽 참고.

우리말 성서 '관주'의 새 인식을 위하여

김태룡*

1. 머리말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성경 읽기를 신앙 실천 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본분으로 삼고 마음 쓴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범 된 신앙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말 번역 성서에는, 본문 말씀만 번역한 '본문 성서'와 본문에다 참고될 사항을 성경 안에서만 가려내어 기호를 붙인 '관주성서'가 있다. 이것은 성경에 다른 덧붙임 없이 그 본문과의 관련성 내용을 살펴보게 한 편집체재이다. 성경을 죽죽 읽어내려 그 뜻을 알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뒤의 연관을 살펴가며 더 깊이 핵심에 파고드는 학도, 구도자적 정독자, 성실한 강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출간된 성서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신약 공인역을 1906년에 확정된 뒤, 구약을 완역하여 서둘러 성경전서 발간에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1909년에 이르러서는 '관주 성서' 발간 기획에 들어갔다. 이윽고 우리말 '관주 신약,' '관주 구약,' '관주 성경전서'가 출간되어 성서 반포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성서 독자의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성서공회에서는 애당초에 '관주' 낱말에 대한 어의(語義)를 밝힌 바 없이 한자어를 발음대로 옮겼을 뿐, 문제의식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서의 '관주'라는 낱말은 우리 겨레 안에 통념화된 개념의 일반용어가 아니고, 성서의 편집체재 성격을 차별화 하는 새 말인데, 그 정의(定義)를 확립하지 않은 채 지내 왔다. 이제라도 성서공회와 학계에서 관심을 모두어 성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명제 아래, 표준을 세워야 할 일임을 절실히 느낀다. '관주'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개념의 새 인식은 성서 이해에 크나큰 뒷받침을 더해 주리라 믿는다.

이 글은 '관주성서'의 어의 곧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그 역사적 배경을 더듬어 밝히고, 외국어역 성서의 관주보다 간명하면서도 효율 높은 우리말 관주 성서 출간을 바라면서 정성껏 살피려고 한다.

2. 관주 성서의 총체 고찰

2.1. 우리말 '성서 관주'의 발단

세계의 성서공회는 '성경 원문'을 각 족속의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널리 반포하는 일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번역에는 오로지 원문 그대로를 옮길 뿐, 교리·신조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절대적 기본정신인요 철칙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름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귀뜸해 주고, 길잡이 길을 띄어주는 성의도 베풀어야 한다. 성서사업에 앞서가는 영

* 1949-1961년, 대한성서공회 출판실무 담당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원고 작성자.

1) 「閑休實記」 33쪽 참고.

국·미국 성서공회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관주 성서’를 내놓았다. 이에 우리 성서공회에서도 그 일을 본떠, 우리말 성서에 ‘관주’를 붙이는 준비를 서둘렀다. 그 경위를 찾아본다²⁾.

“성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주성경에 관심을 표한 것은 1909년 가을회의에서였다. 이때 의장 스웨러(W.C. Swearer)와 서기 아담슨(A. Adamson)을 관주성경 소위원회에 임명하고, 단락구분이나 구두점 체계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어 이듬해 3월 회의 때에는 밀러와 베크로 하여금 영어 개정본(RV)의 「대학교 관주성경」(Universities reference)을 이용한 관주성경을 준비하도록 하고, 두 사람과 터너 주교(Bishop Turner) 및 번역자들로 관주성경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관주성경에 사용될 관독기호 체계(system of diacritic marks)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이 급진전된 데에는 동양 선교회에서 「부표관주신약전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성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10년 5월부터 이익채가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이익채는 영어가 ‘유창하고 진실한 교인’이라고 밀러 총무는 증언하였다.)

2.2. 최초의 두 갈래 관주 성서

우리말 관주성서가 간행되어 실물이 세상에 드러난 사실은 첫째가 「부표관주 신약전서」(1910)요, 둘째는 「신약전서 관주」(1912)다³⁾. ‘부표관주’는 동양선교회에서 발행한 특수한 비공인본이요, ‘관주신약’은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교계 공인본이다. ‘부표관주’는 성결교회의 독자적 전도용으로, ‘관주신약’은 ‘순전한’ 성서 번역에 한걸음 발전된 체제로 엮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두 갈래의 성경 본문은 공인역을 공용하였으니, 지극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여기서 ‘부표 관주’의 특수성을 먼저 밝히는 일을 다루어야겠다. 이 저작은 본디 일본어로 일본에서 출간한 「符標新約全書」를 알아야 한다.

이용호 교수의 논문⁴⁾에서 알아보자.

“카우만은 1898년에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01년 4월에 일본 동경에서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결교회를 시작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순복음’ 곧 ‘4중 복음’(중생·성결·신유·재림)을 열심히 전하는 한편, 동경성서학원을 개설하여 많은 현지인 전도자를 양성하여 새로운 신자를 많이 얻었다. 그리하여 1905년에는 일본의 동양선교회를 조직하여 복음전도 운동을 조직적으로 일으켰다.

카우만은 새로 얻은 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더 편리한 성경책이 필요함을 느끼어 1909년 5월 6일에 일본어판 「符標新約全書」⁵⁾를 엮어 내놓게 되었다. …”

2.3. 두 갈래로 이루어진 경위

「대한성서공회사」에 오른 기록⁶⁾과 이용호 교수의 논문⁷⁾ 기록을 간추린다⁸⁾.

1910년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전신)가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부표와 ‘관주’가 붙고 두 빛깔

2) 「대한성서공회사II」 89쪽.

3) 이 글에서 「부표관주 신약전서」를 ‘부표 관주’로, 「신약전서 관주」를 ‘관주 신약’으로 약칭하자.

4) 「한글성서와 겨레문화」(‘성서와 겨레’로 약칭하자), 기독교문사 간 (1985), 203쪽.

5) ‘符標’의 내용 설명은 뒤에 나올 「부표관주 신약전서」로 미룬다.

6) 앞 책의 99쪽.

7) “카우만의 「부표관주 신약전서」”.

8)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187쪽.

로 인쇄된 최초의 한글성경이었다. ... 카우만은 한국의 성서공회에 공인역 1906년판 「신약전서」를 본문으로 하고, 일본어 「符標新約全書」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되 '緒言'과 '符標, 設明'만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마침 동경성서학원에 재학중이면서 일본어에 능통한 한국인 청년 이장하(李章夏)에게 그 번역을 부탁하였다.

카우만은 1909년말에 이미 한글로 부표신약전서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성서공회의 밀러 총무에게 공인역 「신약전서」의 본문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12월 초에 요청하였다. ...

성서공회의 본문사용 허락을 받기 전에 이미 카우만은 10,000부 인쇄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

성서공회와 청원자 사이에는 4가지 조건에 합의하였다⁹⁾.

1. 성서공회들이 그들의 판본에서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을 것.
2. 이 판본을 위해 만들 조판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킬보른씨가 보증할 것.
3. 모든 판본에는 성서공회들이 본문 사용을 허락해 주었으나 판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만족할 만한 문구를 삽입할 것.
4. 책들은 성서공회들의 판매가격과 선교사들, 거래처, 일반에 대한 할인액과 동일할 것. 판매가격과 할인율은 성서공회들의 총무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

2.4. 「신약전서 관주」(1912)¹⁰⁾

1912년 12월에 공인역 한글신약 관주가 최초로 간행되었다.

23*15.5cm	621면	4호	6,000부	30 sen
-----------	------	----	--------	--------

이 책은 이익채가 1910년부터 1년 넘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펴낸 영어 개역본 관주 신약전서를 기초로 작업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말 성서 관주는 비공인본이 먼저 나오고, 공인본은 버금으로 나왔는데, 기념비적 역사적인 옥동자 격인 이 책의 표제 표현방식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내용·성격을 관형격(冠形格)으로 「신약전서」 앞에 「관주」 낱말을 붙였고, 「신약전서 관주」는 내용·성격을 뒤에 붙여, 부제(副題)격으로 「신약전서 관주」로 되어 있다. 이 두 갈래 방식은 1926년 이후부터는 관형격 꼴로 앞에 붙이기로 통일되었다. 곧 관주신약전서·관주 구약전서·관주 성경전서로 일컫게 되었다.

2.5. 카우만의 '관쥬'론

「부표관주 신약전서」의 표제에는 「관쥬」라는 용어를 썼으나, 그 책 「서언」에는 「관쥬」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강조하여 썼다. 표제에는 성서공회의 방침을 거스르지 못해 묵종하였을 뿐이고, 속셈은 그렇지 않

9) 「대한성서공회사」 II, 101쪽.
10) 「대한성서공회사」 II, 190쪽.

다는 개성 표현을 뚜렷이 밝혀,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카우만은 그 '서언'에서 부표의 필요성은 '모든 제목'에 적당한 성경구절을 찾기 쉽게, 관조는 공부를 흥미롭게 하려는 의도임을 피력하였다. 여기에 '서언' 전문을 베껴 놓는다.

서언

이 성경 중에 기록한 여러 가지 부표들은 교제가 성경 공부를 위하여 흥미온디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지미들노 하여금 이 아래 기록한 모든 제목을 연구함으로 모든 스람 의게 생명길을 지시할 씨에 덕당한 성경 구절을 찾기 쉽게 하고져 흥미오며 또 겸하여 관표표를 붙친 것은 그 제목을 의지하여 공부할지라도 관표표가 업슴으로 더조하여 보지 못하면 공부 상에 지미가 업슬듯 하기로 관표표까지 서두에 기록하여 성경을 열심 연구하시는 형제지미들의 공부상에 만분의 일이라도 유익할 줄 믿고 출판하는 바이올시다 성경의 말씀은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과 똑갓고 다만 표와 관표만 붙칠 씨름인디 관표는 영문 성경 관표를 만히 인용한 옛스오니 이 여러 가지 표와 관표로 말미암아 성경 중에 어느 책을 보시든지 중요한 제목들은 명백히 써다르실 줄 믿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 표들과 관표를 찾는 략호는 이 아래 붉히 기록한 옛스온지 상고하여 보시옵소서

쥬강싱후 일천구백십년스월

미국 씨·이·카우만

'관표' 낱말에 대한 이용호 교수의 언급을 소개한다¹¹⁾.

'관표'(貫照)란 한자말인데 '貫珠'라는 표기와 같이 썼을 뿐이다. 그리고 貫珠라는 표기가 한자로 串珠라고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引照라고도 한다.

3. 두 대사전의 '관주' 해설

우리 겨레가 '관주성서'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축복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관주'란 무엇인가? 무슨 기능을 지닌 것인가? 이러한 전이해(전이해)가 없이 대하여 성서 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에 등한하였다.

이제 무게 있는 두 사전을 찾아 살펴 핵심 접근에 파고들어 보자.

3.1. 성서교재 간행사 간 (1979) 「성서백과대사전」

관주 Marginal Reference. "한글 개역에는 세로짜기(縱組) 위 아래 두 단으로 되어 있다. 개역 성서 중 표지에 '관주 성경전서'라고 써어 있는 것이 바로 관주 성서이다. 관주성서는 성서 본문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련을 표시하는 참고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주는 성서 각 페이지의 위 여백과 상하단 사이에, 그리고 분량이 넘칠 때에는 좌우 여백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관주 표시 기호는 그리스도교용 ○ 스타크표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ㅞ 이상 스물 다섯 가지이

11) 위의 책 222쪽 난하주 82.

다. 이 밖에도 ※+X 등의 기호가 더 첨가되어 있다. 이런 기호는 특히 시편 각 편의 제목에 나오는 인명(人名), 지명(地名), 사건들의 배경을 설명하는 관련 구절 제시에 사용되어 있다(참조: 시 88: 제목의 관주). 참고 구절을 나타내는 성서 책명은 약자를 사용했으며, 장절은 한자 숫자(一 二 三...十)로 기록되어 있다. 20과 30은 卅과 卅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과 절 사이에 공표(0)로 구분되어 있다. '삼상 七0九는 사무엘상 7장 9절을 뜻한다. '쌍점(··)은 연이어 이용된 같은 책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 99:6의 관주 人을 보면 삼상 7:9를 표시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책에서 다른 장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삼상'이라는 책명을 반복하지 않고 쌍점(··)으로 대신한다.

관주 안에는 성서 각 책의 이름들 외에 '보,' '비,' '인,'과 같은 약자들이 나타나 있다. '보'는 '보라'는 뜻이며, '비'는 '비교', '인'은 '인증'이라는 뜻이다. (줄임)

일반적으로 '보다'에 해당하는 관주는 주석적 의도(註釋的意圖)를 가진 것이다.

관주는 어떤 진술에 관해서 그 근거를 밝히거나 성서 자체내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진술이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보다'고 지시한다. 예를 들면 창 5:1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라는 말이 있다. 여기 '형상대로'라는 부분의 관주에 창 1:26-27, 4:24, 골 3:10을 보라는 지시가 있다(엡 4:24; 골 3:10은 1964년판 관주에는 나오지만 1956년판 관주에는 빠져있음). 그 지시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현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본문이 나온다.

이 구절은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성서 안에서의 최초의 언급이다. 창 1:26-27은 그대로 창 5:1의 진술내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어서 엡 4:24; 골 3:10은 하나님의 협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약성서의 이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성서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비교'를 제시하는 관주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주제, 혹은 대조가 되는 개념이나 사상을 비교해 준다. 예를 들면 창 3:8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비교'관주 시 139:1-12; 렘 23:23-24가 붙어 있다. 창 3:8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지만 들리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비교' 관주는 야웨께서 사람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야웨 앞에서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시 139편을 비교하라고 한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음을,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를 비교시키고 있다. 렘 23:23-24 역시 하나님은 가까이에서나 먼 데서나 인간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성서 안에는 많은 병행 구절이 있다. 신약성서 기자들은 구약성서를 자주 인용했다. 그런 인용이 있을 경우 인용구의 전거가 되는 구절과 인용된 구절 두 곳에 '인증'을 표시해 놓은 관주가 붙는다. 예를 들면, 마 1:23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에 '인, 사 7:14'라는 관주가 있다. 이 경우 이 본문은 사 7:14에서 인용된 것임을 나타낸다. 사 7:14를 보면 역시 '인, 마 1:23'이란 관주가 나온다. 그것은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 외에 다른 문맥과의 단순한 관련만을 말해주는 일반 관주가 있다. 이상 네 종류의 관주는 성서사 전이나 어귀사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석으로서의 기능까지 발휘한다."

3.2. 기독교문사 간(1980) 「기독교백과대사전」 관주 해설

관주성서 貫珠聖書 [영] Reference Bible

“관주 기호를 표시한 성서.

한국의 관주성서는 1910년 동양선교회(東洋宣教會: OMS) 선교사 카우만(E. C. Cowman)이 상해(上海)에서 출판한 「부표관주신약전서」(符表貫珠新約全書; Marked New Testament References)가 처음이다. 그는 이를 1916년 다시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판하였다. 이 성서는 국판판 830면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위에 관주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장(章)마다 다시 1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부표(附表; Mark)를 사용한 것이 그 특징인데, 예를 들면 죄에 대한 내용은 붉게 ‘罪’라고 표시하였고, 심판에 대한 내용은 저울모양의 그림을, 회개에 대한 내용은 화살모양의 그림을, 사죄는 악수하는 모양의 그림 등을 그려 넣어, 읽으며 전도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1912년에는 이익채(李益采) 편찬의 「관주신약전서」를 합하여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鮮漢文貫珠新約全書)가 대영성서공회에서 발행되었다. 4·6판 376면으로 된 이 성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있으며, 관주 기호는 한글의 자 모음(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ㆁ.ㅅ.ㅇ.ㅈ.ㅊ.ㅋ.ㆁ.ㅅ.ㅇ)과 *+. x등으로 본문 위에 표기하였다. 0표를 중심으로 장절을 구별하였고 ‘보’(보라)·‘비’(비교)·‘인’(인용) 등의 약자와 상동(上同)을 표시하는 ‘ㄷ’, 의문의 ‘?’ 표시를 사용하였다.

1936년에 발행된 6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3권은 개역(改譯)을 사용하였다. 1930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관주신약전서」는 순 한글로 20절판(二十節版) 621면으로 되어 있는데 관주기호는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와 같다.

일제 말기에 일제에 의해 한글성서 발행이 금지되면서 관주성서 간행도 금지되었다.

해방 후 1950년 10월 대한성서공회에서 「관주 신약전서」가 국판판으로 출판되었고, 1953년에는 역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순한글판 「관주 신구약전서」가 4·6판으로 발행되었다. 이 성서는 본문 주위에 여백을 두어 필기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개역된 성서로는 1959년의 「관주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과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관주성서」와 거의 같으며, 모음에서 ‘ㅇ’가 빠지고 대신 ‘ㅁ’가 첨부되었다.”

위 두 대사전은 그 기획의 광대함과 광범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한국 교계에서 으뜸가는 두 사전이다.

이 두 사전의 ‘관주’ 해설 표제어에 ‘관주(貫珠)로 되어 있다. ‘관주’란 낱말은 본디 漢字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낱말은 중국어역 성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서 관주의 표기에 두 대사전이 똑같이 한자(漢字) 적용을 그르쳤다. 이에 필자는 ‘貫珠’는 잘못된 적용이요, ‘串珠’가 바르다는 판정에 이르렀다.

이 ‘관주’라는 낱말은 성경 안에는 없는 말이다. 성서의 편집 체제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낸 술어(術語)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漢字’ 표기는 정확해야 한다. ‘관주’의 정의(定義)를 정립하지 못한 바탕에 뜻이 빗나간 한자 적용은 근본 뜻과의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이 오도하였다. ‘貫珠’나 ‘串珠’나의 두 갈래길에서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성경 이해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 찬찬히 뜯어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3.3. 貫珠와 串珠의 차별성

‘貫珠’는 우리말에서 漢字語로 오랜 옛날부터 자리잡아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국어사전마다 ‘시문(詩文)’을 끊을 때, 잘된 시구나 문장 곁에 동그라미를 치는 표라고 공통된 개념어로 쓰이는 말이다. 성서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인데, 성서관주에 '관주(貫珠)라 함은 빗나간 표기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적용이다. 그러니 더 말할나위 없이 잘못이다.

'串珠'가 바르다는 논리:

① '漢字 성경'(중국어성경)의 표기가 串珠임.

② 성서공회 당로자도 그대로 수용하였음.

(「閑休實記」 33쪽 一九一二年에 鮮文新約이 李益采 先生의 繙譯한 串珠를 添附하야.. 串珠가 처음인 만치...)

③ 「성서공회사 II」 198쪽, 204쪽(1926)에 '串珠' 표기로 출간한 기록이 있다.

④ 민영진 교수의 「국역성서 연구」(45쪽 참조)

최초의 우리말 관주성서는 1911년에 나온 이익채 씨의 「鮮漢文新約全書」가 관주(串珠)를 첨부하여 펴낸 것이다. 구약에 관주(이 때는 貫珠라고 표기하였음)가 첨가되기 시작...(줄임)

⑤ 성서공회「성서 전시 자료집」에도 「鮮漢文 관주新約·鮮漢文串珠舊約(1926),

⑥ 전무용 님 논문 '개역한글관 관주 검토' -1999.2 <성경원문연구>68쪽 주7)에 '新舊約聖經文理串珠' 등은 관주의 애당초 표기는 '串珠'임이 분명하다.

이러함에도 우리말 성서의 '漢字' 표제는 '貫珠'로 발행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나 교계에서나 串珠와 貫珠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이 모호하고 흐릿한 관념으로 내려왔고, 무감각에 빠져 동화된 채 거리낌없이 '貫珠'로 기울어져 굳어버렸다.

「성서공회사」 II. 683에 실린 '한국어성경 서지 목록'에도 '貫珠'로만 표기되어 있고, 학자들의 언급에도 '貫珠'와 '串珠'가 동의어인 인식으로 통념화 되어 있다. 어의(語義), 구명(究明)에 기준을 삼는 사전에서까지도 빗나가고 말았다. 미루어 생각하건대 串과 貫의 글자 뜻이 공통되는 점이 많음에 있으리라.

한자사전(漢字字典) 여럿을 뒤적여 본다.

貫: 꿰 관, 돈 꿰미 관, 꿰뚫다, 관통하다, 꿰뚫어 통달함, 연속하다,

엽전을 꿰던 꿰미.

貫: 꿰 관, 꿰 친, 꿰미 친, 꼬챙이 곱, 꼬치, 꿰다, 잇달아 꿰다, 꿰뚫다,

끈으로(실로) 꿰다, 많은 구슬을 한 줄로 꿰다, 연결하다.

이처럼 글자 뜻이 서로 많이 상통하는 연유로, '貫珠'와 '串珠'도 뜻이 같은 개념어로 통용되는 것이 라 치부되고 말았다. 貫珠와 串珠는 그 고유개념의 형성의 시기와 동기가 다름을 분간치 못하였음은 아쉽기 그지없다. 貫珠는 시문(詩文)에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인 한자어요, 串珠는 기독교문화가 접목된 이후에 성서에 관하여 수용된 한자어이니, 동의어(同義語)가 아니라 이의어(異義語)인 새 술어(術語)로서 말뜻과 표기에 차별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현재 수많은 국어사전 어느 하나에도 '관주(串珠)'의 표제어가 없다.

4. 성서 관주에 관한 문헌

이 문헌들은 나 나름대로 찾아본 저작·논술·비판의 글을 옮겨, '관주'에 관한 개관·견해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그 순서는 활자화된 차례를 따른다.

4.1. 민영진 (전 감신대 교수)의 “貫珠의 性格”¹²⁾.

이 논문은 '관주'에 관하여 내용·성격을 분석하고, 연구과제를 제시, 독자적 견해를 펼쳐 우리말 '관주' 연구에 길을 터 놓았다.

'관주(貫珠, 혹은 串珠) 성서라 하면 그것은 곧 전후참조(reference) 표시가 되어있는 성서를 일컫는다. 관주(貫珠)라는 말 자체는 시문을 꿰을 때, 글이나 글자가 잘 되었을 경우 그 글자 옆에 치는 고리 같은 둥근 표를 일컫는 말이었다. 일본어 성서에서는 일찍부터 인조(引照)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우리말 번역 성서에서도 '관주성서'라 하여 일찍부터 전후참조(前後參照)가 붙은 성서가 나왔었다. 필자의 지식이 가 닿는 대로는 최초의 우리말 관주성서는 1911년에 나온 이익채(李益採)씨의 「鮮漢文新約全書」가 관주(串珠)를 첨부하여 펴낸 것이다. 구약에 관주(이때는 貫珠라고 표기하였음)가 첨가되기 시작한 것은 1926년에 나온 정태용(鄭泰容)씨의 「鮮漢舊約全書」다. 오늘의 '관주' 성서와 같은 형태가 골격을 이룬 것은 1930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에 서였다. 그후 1956년에 나온 「관주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와서 관주는 일단 마무리되었다. (줄임)

4.2. 강유중(총신대 교수) “우리말 성경의 관주”¹³⁾

(1) 관주와 관주 성경

“성경을 손에 펴보면 표제지, 목록 다음에 책명 약자 표가 있는 뒤, 곧 이어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은 내리글씨에 각 페이지마다 위 아래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본문 두 단위, 즉 상단 위와 하단 위 그러니까 상하단 사이에 많은 성구나 약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주(기호)라고 부른다. (줄임)

관주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관주(貫珠), 또는 관주(串珠), 인조(引照)라 했으며 영어로는 Reference(전후참조). 또는 Marginal Reference(가장자리 참조)라 했는데, 시문을 꿰을 때 글이나 글자가 잘 되었을 경우 그 글자 옆에 붙이는 고리 같은 둥근표를 말했다.

성경에서는 본문 위에 붙여서 단어나 구절의 전후관계나 참고 구절, 본문의 인용 출처, 비교, 개념이해, 배경표시, 주석적인 이해.. 등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색인표시나 기호를 말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러한 관주기호가 관주성경이 나왔는데 일찍이 동양선교회(OMS)의 선교사 카우만(E.C.Cowman)이 1910년 상해에서 「부표관주 신약전서」 符表貫珠新約全書:Marked New Testament References를 내놓은 것이 처음이다(줄임).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익채(李益採)의 「선한문 신약전서」(鮮漢文新約全書 1911년)이고 1926년에는 정태용(鄭泰容)의 「선한문 구약전서」(鮮漢文舊約全書)가 나오므로써 오늘날의 관주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주성경전서'(1930년)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줄임)"

4.3. 이응호 “카우만의 「부표관주신약전서」에 대하여”¹⁴⁾.

이 귀중한 논문의 '맺는 말'을 먼저 살펴본다.

“확실히 '성결교회'는 전도 본위의 교회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할 찬송가와 성경 책이 교단 성격에 맞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특히 '성결교회'를 창립한 카우만 선교사와 '한국

12) 「國譯聖書研究」 45쪽, 성광문화사 간(1984) -이 논문은 「기독교사상」 1980년 5월호에 발표하였음.

13) 「月刊教會」 1984. 9.

14) 이응호(명지대교수, 문학박사, 성결교신학대학 이사장 역임). “카우만의 「부표관주신약전서」에 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간, 1985. 이 책의 232쪽.

성결교회를 창립한 멤버(이장하 등)들은 교단의 성격이 전도 본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1910년 4월에 「부표관주신약전서」를 펴내게 되었다. 이 「부표관주신약전서」는 복음 전도를 본위로 하고 '4중복음'을 신앙지표로 삼고, 이단사설을 배격하는 순복음주의 교단에 가장 알맞는 성경이었다. 또한 이 성경은 한국에서 맨 처음의 부표 성경으로서 맨 처음 관주성경, 맨 처음 두 빛깔로 두 번 인쇄한 성경으로서 한국성경 번역사와 한국교회사에 획기적인 성경으로서 특별히 기록하여 널리 알려야 할 성경이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부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루었다(12가지 조목).

죄, 심판, 회개, 사죄, 구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간증, 보호하여 지키심, 성결, 주의 재강림, 신유, 타락한 자에 대한 구절 조목에 낱말이 그림표를 붙이었다.

이 내용을 더 설명하였다.-

- ① 죄표를 붙인 구절 -40 ② 심판표 -36 ③ 회개표 -28 ④ 사죄표 -23
- ⑤ 구원표 -46 ⑥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표 -20 ⑦ 간증표 -27
- ⑧ 보호하여 지키심표 -32 ⑨ 성결표 -48 ⑩ 주의 재강림표 -35
- ⑪ 신유표 -27 ⑫ 타락한 자에 대한 구절표 -17, 모두 379구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룬 관주에 대한 논문설은 위 책 세 곳에서 찾아본다.

222쪽

“이 성경은 한국에서 맨 처음으로 나온 관주가 붙은 성경이다. --카우만 선교사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흥미를 돋우고 성경 연구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글성경에 관주를 붙였던 것이다.’라고 「부표관주신약전서」의 ‘서언’에서 관주를 붙이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 겹혀나 관쥬⁸²⁾ 표를 붙친 것은 그 데목을 의지하야 공부흔지라도 관쥬표가 업슴으로...”

※ 주⁸²⁾ ‘관쥬(貫照)란 한자말인데 ‘貫珠’라는 표기와 같이 썼을 뿐이다. 그리고 貫珠라는 표기가 한자로 串珠라고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引照라고도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주’는 성경 본문 위에 낱말, 구절의 앞 뒤 관계와 참고되는 구절, 그리고 낱말, 구절 등의 인용된 원전 밝히기, 비교, 개념 이해, 배경의 설명... 등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의 기호와 색인 표시를 말한다.”

225쪽

“이 「부표관주신약전서」에 표시된 관주는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관주로서 우리나라 성경번역 역사상 처음 시도한 것이다.”

230쪽

“이 성경에 쓴 관주는 어느 성경을 저본으로 했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다.

‘관쥬는 영문성경 관쥬를 만히 인용헸엇스오니’

라는 ‘서언’에 기록된 말로도 그 저본을 밝힐 수 없다... 다만 관주는 어느 특정된 성경의 관주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지 않았고, 카우만 자신이 성결교회 특색에 맞는 구절을 골라 그것을 중심한 구절만 인용하였을 것이다.”

203쪽 ‘번역한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이장하 목사가 번역자라고 증언한다. ‘이장하는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한국사람으로는 세 번째 학생으로 수학하였고, 일본어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4.4. 이덕주 목사의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¹⁵⁾

‘관주성서’ (위 책 458쪽)

“...최초의 한글 관주서는 1910년 동양선교회(동양선교회)의 카우만(C.E.Cowman)이 편집한 「부표관주 신약전서」가 효시이다.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에서 발행한 이 성서는 전도인을 위해 부표(符表)를 표시한 것이 특색이며 중요한 구절은 붉은 색으로 인쇄하여 한국 최초의 2색(二色) 인쇄 성서로도 유명하다. 1906년 발행된 공인역 「신약전서」를 대본으로 하여 편집된 이 관주성서는 표면상 카우만이 편집인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편집인은 한국인 이장하(이장하)로 최근 밝혀졌다.“(줄임)

“성서위원회의 공식적인 관주성서로서는 1912년 이익채(李益采)가 편집한 「신약전서 관주」와, 한글성서 중 최초로 본문을 상(上)·하(下) 2단으로 나누어 인쇄한 성서이기도 한 이 성서는 ‘관주’가 처음인 것만치 讀者의 歡迎을 받어서 傳播가 多數하였으며(민후선생실기 33쪽) 관주기호 및 표기법에 있어 이후에 나올 다른 관주성서의 선례를 마련하였다. 최초의 관주구약성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1926년 정태용·조용규에 의해 이루어진 「串珠鮮漢文舊約全書」이다. 이 성서는 이익채가 편찬한 「신약전서 관주」 및 유성준의 「新約全書鮮漢文」과 합하여 1926년 「鮮漢文貫珠聖書全書」로 묶여지게 되었다.”(줄임)¹⁶⁾

“국한문 성서와 관주성서는 이미 번역된 한글성서를 대본으로 하여 편집된 2차(二次) 성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집을 주도한 인물이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이었으며 이들 성서는 주로 유식층과 학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국한문 성서는 당시까지 한글을 ‘언문’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던 유식층에게 성서를 읽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주성서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종류의 성서는 한국 기독교의 상승화(上昇化)에 공헌을 한 셈이다.”

4.5. 나채운 교수의 “우리말 성경의 관주”¹⁷⁾

(1) ‘관주’의 의미

“우리말 성경의 본문의 어휘나 구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난하주와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는 관주(貫珠 또는 串珠)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기문자(表記文字)에 따라 한글성경과 국한문성경 두 가지가 있거니와, 또한 관주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의 본문을 그저 읽기만 하는 데는 관주가 없는 성경으로써도 족하지만, 성경을 좀더 깊이 알고 연구하는 데는 관주성경이 크게 도움이 된다.

‘관주’라는 말은 본래 시나 문장을 끊을 때 글자나 문장이 잘된 곳에 치는 등근표(권점 圈點)를 일컫는 말로서, 오늘날 성경에서 쓰는 말과는 그 뜻이 다르다. 우리말 성경에서 ‘관주’라고 할 때는 본문 가운데의 어떤 어휘나 구절의 의미 또는 내용이 다른 어휘나 구절과 관련되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참조사항(reference 또는 cross-reference)을 뜻한다. 이를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어성경에서는 ‘附註’(부주)라 하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인조’(引照)라고도 하여 우리말 ‘관주

15) 이덕주(기독교문사 「기독교백과대사전」 국내자료부장 역임, 감리교 목사),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간 1985).

16) 같은 책 455쪽 “기타 성서”.

17) 나채운(전 장신대 교수), “우리말 성경의 관주” 「우리말 성경연구」 200쪽, 기독교문사 간 1990.

(貫珠)보다도 더 합당한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로는 차라리 '關註'라고 쓰는 것이 나을 듯하다.
(‘관주’라고 쓴 것은 중국어에 따른 것이다.) (줄임)”

4.6. 리진호 장로¹⁸⁾

리진호 장로는 성서 서지학자로서 우리말 성서의 전래, 번역, 출판, 반포, 서지 목록 정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사적 사실을 밝혀, 각 사안의 비화·비사(秘史)를 발굴, 건전한 발전책을 제시하였고, 명쾌한 비판을 막힘 없는 필봉으로 성서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여기에 ‘관주’에 대하여 종래의 인식 부족에 일침을 가했다. ‘관주’ 낱말에 대하여 성서적 견지의 어의(語義)에 벗어난 엉뚱한 해석의 바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내려왔음을 개탄하였다.

“참조가 첨부되어 있는’이란 뜻을 관주(貫珠, 串珠)라고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주는 시문(詩文)을 뽑아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치는 동그라미’다. 시문을 심사할 때 특히 잘된 구절을, 현대표현으로 하면 언더라인을 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그 뜻이 다른 것이다. 성서 중에 특히 잘 된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비교, 인용한 구절을 표시한 것이니, 참조 있는 또는 참조 결들인 성서라고 하여야 마땅하다. 영어로는 With reference, 일본어로는 인쇼쓰끼(引照附)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⁹⁾.”

4.7. 「해설·관주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 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97년 10월에 특별한 성서를 번역하여 출판해 냈다. 이 성서의 번역에 참여한 김창락 교수(한신대)가 출간 전에 소개 글을 썼다.(「성서한국」 1996. 9.) 이 소개 글은 성서의 ‘관주’에 대하여 큰 관심사로 새 인식을 복돋운 글이었기에 소개한다.

“이 책의 독일어 제명은 슈투트가르트 발행 「해설성경」(Stuttgarter Erklärungs bible)이다. 독일성서공회의 소재지가 슈투트가르트였기 때문에 그 지명을 ‘해설성경’ 발행처 표시에 수식어로 덧붙였다. ‘해설성경’이라는 그 명칭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즉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부제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

‘해설 성경’이라 함은 영어로 ‘Study Bible’이다. 스테디바이블이란 ‘학문용 성경, 학습용 성경, 연구용 성경, 해설성경’등으로 번역되어 그 속뜻을 자아냈다. 여기 독일어 원명에서 ‘해설’이라 한 것을 우리말 성서에서 ‘해설’에 ‘관주’를 덧붙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번역이다.

「해설·관주성경」 책 머리말에서 한 토막을 인용한다.

“성서 해석의 과제는 성경이 본디 무엇을 말했는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것이 본디 무엇을 뜻했는지를 알아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

‘해설’은 개인의 성경 이해도나 교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끌어대는 식의 해설로 말미암아 성경의 본뜻을 가리우는 폐단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해설’로 미치지 못하는 바를 성경 안에서 관련성 있는 사항을 연결해 주는 ‘관주’는 건전하고 종합적인 ‘해설’과 더불어 두 기둥이 되어준다. 이것은 바로 ‘관주’는 성경 이해의 지름길이요, 길잡이가 되리라. 위의 머리말 맨 끝마무리를 인용한다.

18) 이진호(성서서지학자, 감리교 장로) 「한국성서 백년사」 II 19쪽 기독교서회 간(1996).

19) 「한국성서 백년사」 II 19쪽 기독교서회 간(1996).

“성경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안이한 생각으로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해설에서 퀴즈의 답과 같은 간단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거기에 제시된 모든 참조구절 및 관련구절과 용어해설을 일일이 살펴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

또한 이 해설·관주성경의 관주 표시에서 새로운 형식을 취한 점은 유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관주의 성격 분석(보, 비, 인…)은 단락별 해설에 포함시켜 다루었고, 관주 표시로는 참조할 성경의 장·절만을 따로 각 쪽 하단에 표시하여 구별지었다. 우리 관주성경과 해설·관주성경의 관주 형식을 달리 하였으니 견주어봄직하다.

	관 주 성 경	해설·관주 성경
세기 1:1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관주: 「욥38:4-7 시 33:6, 136:5 사 42:5 45:18 요 1:1-13 행 14:15; 17:24 골 1:16,17 히 1:10,11 11:3 계 4:11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대 1:1	본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관주: 창 22:18 갈 3:16 비,롬 9:5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1 롬 1:3; 딤후 2:8

4.8. 전무용(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장).

“그동안 간간이 성경의 독자들로부터 한글성경의 관주에 대한 문의가 대한성서공회로 들어왔다. 주로 누가 만든 것이며 언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의와, 관주의 내용에 대한 문의였다. 한글 관주는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이고, 1926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주가 「선한문관주성경전서」로 출간이 되었다.

이 책은 1912년에 나온 유성준 이익채의 「신약전서 관주」에 정태용 조용주가 번역한 「선한문 관주 신약전서」를 합한 것이다) 이 관주체계가 1930년 구역 「관주성경전서」의 관주로, 현재 쓰고 있는 1962의 「관주성경전서개역한글판」의 관주로,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한글판」의 관주로 그대로 이어졌다. (줄임)²⁰⁾

이 글의 각주(脚註)에 나온 참조 사항을 옮겨 소개한다.

ㄱ. 65쪽 각주 1)

「대한성서공회사」 II 89-90쪽 참조.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임.

ㄴ. 65쪽 각주 2)

「공회사」 II 204쪽 참조.

ㄷ. 65쪽 각주 3)

1940년에 ‘관주신약 개역’이 나오지만, ‘개역’의 관주는 성경전서로 나오지 못하고, 한국교회에서는

20) 「성경원문연구」, 제4호,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머리말. 대한성서공회, 1989. 2.

1950년대 중반이후까지 계속해서 관주가 있는 '구역'이 읽힌다. 62년이 되어서야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온다.

르. 67쪽에 중국어 관주 성경에 관한 언급이 있다.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⁶⁾……

6)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년, 상해 미국성경회, 본문으로 보아.

문리본 특히 EASY WENLI 라고 하는 문리역이다.

이 논문은 현재 쓰이고 있는 1962년 한글판의 관주의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1964년 국한문 판 관주가 지닌 차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성서공회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에 관주를 붙일 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관주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찾기 위한 작업의 실례를 추려 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유념하여 다루는 대목을 추려본다.

- ①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 ② 본문 속 관주기호의 위치의 변화,
- ③ 관주 개역 한글판과 관주 개역 간이국한문 판의 관주 위치의 차이,
- ④ 개역 개정판의 관주를 위한 단기·장기적 관주 개정작업 등을 위하여 현재의 관주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5. 관주 성경 서지 목록

5.1. 「대한성서공회사」 II. 683쪽

책명	발행연도	발행회
부표관주 신약전서	1910	동양선교회
신약전서 관주	1912	성서공회
부표관주 신약전서	1923	동양선교회
鮮漢文 貫珠新約全書	1926	성서공회
鮮漢文 貫珠舊約全書	“	“
鮮漢文 貫珠聖經全書	“	“
관주 구약전서	1927	“
관주 신약전서	1930	“
관주 성경전서	1930	“
관주 신약개역	“ 1940	

5.2. 민영진 저 「국역성서연구」

(37) 「串珠鮮漢文新約全書」 1911 이익채 씨가 관주를 첨부.

- (49) 「串珠鮮漢文舊約全書」 1926 정태용 씨와 조용규 씨
- (50) 「貫珠鮮漢文聖經全書」 1926
- (52) 「관주성경전서」 1930
- (56) 「貫珠鮮漢文新約全書」 1936 조선경성대영성서공회
- (69)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56
- (83) 「貫珠聖經全書 簡易國漢文 한글판」 1964 대한성서공회.

5.3. 리진호 지음 「한국성서 백년사」 Ⅱ.21)

(112)	부표관주신약전서	1910	동양선교회
(127)	신약전서관주	1912	성서공회
(176)	鮮漢文貫珠聖經全書	1926	"
(177)	鮮漢文 貫珠舊約全書	1936	"
(181)	관주 성경전서	1930	"
(185)	관주 신약전서	1930	"
(186)	관주 성경전서	1930	"
(192)	선한문 관주성경전서	1930	"
(193)	선한문 관주성경전서	1930.9.20	"
(275)	관주 성경전서	1950	
(278)	관주 신약전서	1950	
(348)	관주 신약전서 개역한글판	1959	
(377)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	
(383)	貫珠聖經全書 개역한글판	1964	
(385)	백과신약전서	1965	장시화 편집
(472)	貫珠聖經全書 개역국한문	1983	성서공회
(481)	관주 톱슨 성경	1984	기독지혜사
(483)	관주성경전서 개역국한문 (선교100주년기념)	1984	성서공회
(500)	뉴톱슨 관주주석성경	1985	성서교재간행사
(508)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86	성서공회
(516)	관주 성경전서(침례교용)	1986	성서공회
(536)	표준관주·해설성경	1989	도서출판 여운사
(623)	관주 구약전서 개역한글판 I	1994	성서공회
(624)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94	"

5.4.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성서공회 성서전시실 진열 자료)

※ 최초의 관주 성서로서는 1910년에 나온 「부표관주 신약전서」가 있다고 소개하고,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관주성서 목록만 게재되어 있다.

「신약전서 관주」 (1912)

「鮮漢文 串珠新約全書」 (1926)

「鮮漢文 串珠舊約全書」 (1926)

21) 실물의 표제를 모두 영인하여 제시함.

- 「鮮漢文貫珠聖經全書」(1926)
- 「관주 신약전서」(1930)
- 「관주 구약전서」(1930)
- 「관주 성경전서」(1930)
- 「관주 구약전서」(1950)
- 「관주 성경전서」(1950, 1953)
-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2)
- 「貫珠 聖經全書 易國漢文 한글판」(1964)
- 「관주 성경전서 구역 한글판」(1980)

6. 성서 관주의 새 인식

이제껏 장황하게 늘어 '성서관주'란 무엇이냐를 구명하려고, 전반적인 고찰을 펼쳤다. 이제 그 노력에서 얻은 바를 몽땅그려, 성서 이해의 지름길 찾기에 푯대를 세울 단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성서관주'에 대하여 새로이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하겠다.

① '관주'는 한자어이니, 그 표기 한자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무분별하게 잘못 써온 '貫珠'를 버리고 '串珠'로 쓰는 새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串珠는 '구슬 꿰미'라는 말이다. 이것은 주제넘은 독단이 아니다. 1989년에 간행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찬 「중한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다. 곧

串珠: ① 구슬 꿰미 ② 한 줄에 꿰 것

구슬은 아름답고, 앙증스레 귀엽고, 진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상징으로 쓰인다.

과연 성경의 구슬 꿰미를 지니면, 성서 이해에 요긴한 것을 연결지은 귀중한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성서의 구슬로 견주어 보자.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에서 한가지 모습으로나, 어느 한 자리에 한정하여 나타나 있지 않다. 유일신 신앙의 인류역사·문화, 곧 생활전반에 오묘한 방법으로 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 곳곳에 퍼뜨려진 계시를 연결지음은 그 근본 뜻을 파악하는 일에 가장 알맞은 길잡이가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을 되새겨보게 한다. 아름답고 귀엽고 진기한 구슬이라도 한 알, 한 알의 날개보다는 정성껏 연결시켜 놓은 꿰미가 훨씬 찬란하게 빛나리라. 관주를 존중하는 새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1964년판 「貫珠聖經全書」 簡易國漢文 성경의 성경책명 약자표 범례에 “보, …보라 비, …비교 인, …인증 …위와 같음” 표시가 있다. 이것을 민영진 교수는 보좌관주, 비교관주, 인증관주, 일반관주라 하였고, 나채운 교수는 참조관주, 비교관주, 인용 또는 인증관주, 병행관주로 구분하였다.

'일반관주=병행관주'는 본문의 낱말이나 구절이나 다른 성경과 전체적 내용을 같이할 때의 표시이니 어구사전 구실을 한다.

'보라관주=참조관주'는 앞 뒤 경위를 살펴 연결짓는 관주, '비교관주'는 유사한 주제를 지닌 경우에 비교해 보게 일깨워 주는 것이니, 보라관주와 비교관주는 주석의 기능을 한다.

'인증관주'는 구약과 신약의 완전연결성, 성취성 신앙의 성서신학을 오롯이 표출하는 큰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뜻을 높여 필자는 신약에 구약 본문을 끌어들이는 곳을 낱말이 헤아려보았다.

마-10회, 행-20회, 롬-33회, 고전-10회, 고후-6회, 갈-5회, 엡-2회, 히-25회, 벧전-5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끊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는 성서관, 또 구약에 계시된 예징이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성서관을 고조하고 있다. 관주는 성경의 진수를 계시한 보배로운 구슬 꿰미로 존중받

을 구실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참조나 비교로서가 아니라, 연결지어 관조(觀照)하는 새 인식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요처요처에 흠뻑 젖어 있음을 올바로 캐내어, 연결짓는 것이 성서 이해의 길을 고루는 필수요건인 새 인식이 있어야 한다.

7.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주를 바탕으로 삼고, 성서를 정성껏 자세히 읽자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다. 낱말의 개념과 약도, 구절의 뜻 새김도 일상생활의 말 규준보다 어렵다. 곧 경전으로서의 뜻을 지니는 품위를 존중하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이해하기에 쉽지 않음은 당연하다.

구약과 신약은 그 사이에 한결같이 꿰뚫는 흐름이 있고, 서로 관련되고 상통하는 맥락이 있다. 그 계통과 질서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를 입체적으로 고찰하여야 바로 이해하게 된다.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결과는 반쪽밖에 보지 못한다.

낱말의 설명이나 구절의 뜻풀이만으로 그치는 이해도는 전체의 중심 흐름과 종합된 이해에 다가서지 못한다.

‘관주’를 쓸모없는 것으로, 군더더기로 따돌리고 소홀히 여기는 자세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인식에 들쭉거리 성경 말씀 이해에 거리끼는 바를 벗어버려야 한다. 진주알을 내던져 짓밟히는 사실을 무심히 지나쳐버림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제 우리는 관주의 기능이 중용되어 마치 거칠고 역센 먹이를 먹고도 꾸준히 새김질하여 젓을 내는 반추동물의 노고를 마음에 새기자. 관주를 바탕으로 하여 성경공부에 파고들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을 새롭게 인식하여 정성껏 자세히 앞뒤를 연결하여 살피면서 성경을 읽자.

끝으로 대한성서공회에 바라는 바를 공개 건의하고자 한다.

- ① 국한문성서 표지 표기에 串珠로 통일할 일.
- ② 관주 어의를 정립하여, 독자성을 지닌 어휘로 자리잡게,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관주(串珠)’ 항목이 오르게 강구할 일.

“1999년 8월, 여든세 번째 생일에 끝내다.”